

우리말교육현장연구

Field 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2008년 제2집 2호 | Vol. 2 No. 2 2008



우리말교육현장학회

The Association of Field 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차례>

주제 발표

| 초등학교 독서 교육의 길 찾기

소통 지향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 김도남_7

책과 함께 자라는 어린이, 학년에 따른 책 유형과 독서 방법 | 최은경_37

| 논술 제자리 찾기

대입 논술 문제 유형 분석 | 김슬옹_75

논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세 가지 영향, 소외감, 두려움 그리고 방관하는 태도 | 김지운_133

글쓰기 협력학습 원리에 따라 분석한 고등학교 교사의 논술수업 설계 사례 | 박안수_161

논술 교육의 바른 자리 | 이계삼_249

|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 광영숙_293

다문화 시대의 미디어 문식성 교육을 위하여 | 이미숙_343

일반 논문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사 교육 방안 연구 | 김영만_369

부모 참여 국어 교육 | 권순희_389

부록

휘보_411

회칙_416

투고규정_423

심사규정_427

윤리규정_429

투고안내_430

투고신청_431

<Contents>

Keynote Announcement

| Finding the Way of Elementary School Reading Education

A Direction of Making Korean Language School-book for Communication	Kim Do-nam	_7
The Book Types and Reading Method According to the Grades of Children Growing With Books	Choi Eun-kyoeng	_37

| Finding the Proper Place for Essay

Type Analytics of Past College Admissions Essay Examination Problems	Kim Seul-ong	_75
The Three Types of Effects that Essay Has On Students-Sense of Alienation, Fear and Indifferent Attitude	Kim Ji-woon	_133
Analysis of Cases in 'Non-sul class (Critical Writing)' Designed by High School Teach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llaborative Writing	Park An-su	_161
A Suggestion for Essay Writing Education	Lee Gye-sam	_249

| Korean Education of Multicultural Era

The Case Study On Korean Education Conditions of Immigrant Workers and Improvement Plan	Gwak Young-sook	_293
For the Media Literacy Education of Multicultural Era	Lee Mi-sook	_343

Articles

A Study on the Korean Poem Education Using the Internet	Kim Young-man	_369
Parents-Participa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Kwon Soon-hee	_389

Appendix

Bulletin	411
Regulations of Association	416
Regulations on Contribution	423
Regulations on Review	427
Regulations on Ethics	429
Guidelines on Contribution	430
Application for Contribution	431

초등학교 독서 교육의 길 찾기

| 주제 발표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소통 지향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김도남*

<차례>

1. 서언
2. 소통과 국어 교과서
3. 소통 지향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4. 결언

<요약>

이 논문은 국어 교과서 개발에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쓰여 졌다. 국어과 교육은 학생들의 의미구성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어 능력의 신장을 지향한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은 이 두 가지 능력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미구성만을 강조했다. 국어과 교육이 의사소통을 지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의사소통 교육의 실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구성 문제를 다루었다. 교과서 구성에서 의사소통이 강화되면 수업에서 소통교육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으로 국어과 교육에서의 소통이 갖는 의의를 살피고, 교과서 개발 방향을 탐색하였다.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는 한 단원에서 한 차시는 소통을 위한 차시로 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소통이 강화된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소통을 전제한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관념 재구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와 소통 상황 제시를 하여 소통 방법을 익히고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 국어과 교육, 의사소통 교육, 국어과 교과서, 의미 구성 교육, 국어 능력 신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연구본부 부연구위원

1. 서언

소통은 대화 참여자의 관념¹⁾ 교환이다. 교육에서의 소통은 관념 교환으로 대화 참여자의 관념 변화를 추구하는 상호 작용 행위이다.²⁾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타인은 관념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관념을 교환한다. 관념 발전을 전제하지 않는 소통 학습은 교육적이라 할 수 없다.³⁾ 교과서는 교육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소통을 하는 매개체이다. 교육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교과서를 매개로 소통을 하고, 관념을 새롭게 하여 정신성장을 이룬다. 교육에서 소통 활동을 위해서는 교과서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있어야 한다.

국어과 교육의 토대를 이루는 두 축은 의미 구성과 의사소통이다. 의미 구성은 대화자의 관념을 마련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관념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의사소통도 의미구성만큼 강조되어야 한다.⁴⁾ 교육에서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의 의미구성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의사소통이 의미구성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은 대화자의 관념 발전에 기여할 때 그 가치가 높아진다. 대화자가 구성한

-
- 1) ‘관념’은 대화자가 구성한 생각내용이다. ‘의미’가 대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내용을 객체적으로 지시하는 용어라면 ‘관념’은 대화자 개인의 주체적 생각내용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 2) 소통 행위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적 소통은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대화 참여자의 관념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사용 목적(실체)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정보전달, 설득, 친교, 정서가 그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사용 목적을 정보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로 구분하였다. 언어사용 목적을 볼 때, 의사소통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인지적 내용(정보·지식·의견)과 정의적 내용(정감·정서)을 주고받는다. 이들을 주고받는 이유는 지적성장이나 관계개선, 정서함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육은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인지적, 정의적 관념을 새롭게 하기를 기대한다.
 - 4)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국어과 교육에서 의사소통 학습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지심리학에 바탕을 둔 국어과 교육이 학습자 개인 내적인 사고를 강조하게 되면서 개인 외적인 소통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관념을 마련하고, 관념을 넓고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관념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존재를 인정받고, 발전한다. 소통 없이 구성된 관념은 고립적이고, 배타적이다. 이 관념은 구성자의 의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념은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되어 구성자에게도 무의미하게 된다. 학생이 구성된 관념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

국어과 교육은 소통보다 의미구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습활동에서 의미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의미구성이 강조되는 학습활동에서는 학생들은 자기 관념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국어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서로 다른 관념을 구성하면 학습이 잘 된 것으로 본다. 즉 타자와 구별되는 내적 논리가 있는 독특한 관념을 구성하면 우수한 학습활동을 한 것이라고 여긴다. 결국 수업에서 타자가 배제된, 소통할 수 없는 자기중심의 관념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타자의 관념에 관심이 없으므로 소통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관념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듣기와 말하기 교육은 소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들 교육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들의 교육 활동도 소통보다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소통을 의도했지만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소통을 강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말하기·듣기> 교과서의 설득 단원은 소통을 대표하는 단원이다.⁵⁾ 이들 단원의 대표적인 학습활동은 의견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근거의 제시는 화자의 의견이 청자에게 타당한 관념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타자와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근거는 화자의 관념 내용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근거는 표면적으로 타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나 이면적으로는 화자의 관념 내용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화자가 관념을 제시하면 청자는 그 관념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설득을 강조하는 수업활동도 화자의 자기중심적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5) 이 논의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구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7차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1,2학년 실험본 교과서에서는 설득 단원 모든 교과서에 1~2 단원씩 있다.

이런 국어과 수업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교과서이다. 교과서의 활동 구성이 의미구성을 강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통이 강조되지 않는 관념구성은 자기중심적 관념구성일 뿐이다. 이런 국어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국어생활은 자명하다. 자기중심적 관념구성에 만족함으로써 자기의 인지 한계에 머무르는 관념을 구성할 뿐이다. 타자와 대화를 통하여 관념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이 관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강화한 교과서가 필요하다.

소통이 강화된 수업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고, 교과서 개발보다는 수업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업활동의 토대는 교과서이고, 교과서의 토대는 교육과정이다. 국어과 수업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소통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어과 교육이 의미구성과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은 소통을 강조한다고 전제하고, 교과서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하여 본다.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들 논의의 일환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교과서 구성 방향을 탐색하여 본다.

2. 소통과 국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는 소통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구성에서 소통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개념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소통이라는 용어의 의미역이 넓기 때문이다. 국어과에서의 소통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상호작용은 직접 대화와 간접대화를 포함한다. 직접 대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뜻하고, 간접 대화는 독서나 TV 시청과 같은 인식적 상호작용을 뜻한다. 학습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인식적 상호작용을 지향한다. 소통능력이 신장될수록 인식적 상호작용이 관념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특성상 구체적인 소통의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그 전제는 소통의 관점과 방식에 따른 소통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해

야 한다.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소통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1. 소통의 개념

소통은 관념의 나눔이다. 관념 나눔은 소통자의 관념의 다름을 전제한다. 관념의 다름은 몇 가지로 구분하여 소통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알고 있음과 모름에서 오는 다름이다. 이때는 앎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는 앎이 다른 경우이다. 이때는 앎의 내용 향상을 위하여 소통이 필요하다. 셋째는 앎은 비슷하나 지향이 다른 경우이다. 이때는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 소통이 필요하다. 넷째는 앎과 지향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때는 화합하기 위하여 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대립적이면서 앎과 지향이 다른 경우이다. 이때는 상생하기 위하여 소통이 필요하다. 이들 모든 소통의 토대는 생각의 나눔이다. 교육에서는 이들 모든 소통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앎이 다른 경우 소통을 전제한다.

관념의 나눔은 소통 의지에서 출발한다.⁶⁾ 어떤 소통이든 관념을 나누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소통 의지는 서로에 대한 존재 인식과 서로의 필요성에 의하여 생긴다. 서로의 존재 인식은 차이남과 관계있음의 자각이다. 차이성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관계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 서로의 필요성은 상대에 대한 절대적 도움에 대한 기대이다. 도움에 대한 기대는 상대에 대한 존중함과 의지해야 함에 대한 인정이다. 타인의 존재 인식과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면 소통의 의지를 가지게 된다. 차이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6) 김선욱(2008: 34)은 아렌트의 말을 빌려 소통은 상호주관적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언어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 화용론적 언어 이해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의사소통적 이성을 지닌 주체는 이제 는 말과 행위를 하는 능력을 갖고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주체로 이해된다. 인간을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언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주체로 이해할 때, 이 주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남과 동등하게 여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상호주관성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된다. 언어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나’라는 일인칭 대명사와 ‘너’라는 이인칭 대명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주관적 이해 지향의 토대는 소통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한다. 소통의 의지가 관념 나눔의 기초인 것이다. 관념의 나눔은 필연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의지가 기초되지 않으면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통의 목적은 관념의 변화이다.⁷⁾ 소통은 상호주관적 관념 변화를 추구한다.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소통을 시도할 때는 원천적으로 변화를 전제한다. 삶의 변화일 수 있고, 지향의 변화일 수도 있으며, 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에게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소통을 시작한다. 교육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변화는 삶의 변화이다. 삶의 변화는 관념의 질이나 양의 변화가 관건이다. 질의 변화는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양의 변화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질의 변화는 가지고 있는 관념을 치밀하고 세련하게 하는 것이고, 양의 변화를 새로운 관념을 구성하는 것이다. 관념의 질과 양의 변화는 혼자 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타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다.

소통은 의타심과 이타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⁸⁾ 의타심은 남에게 의지하려는 심리이다. 의지함은 자기의 낮춤을 통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바탕이 된 관계맺음이다. 자기 낮춤은 자기의 관념이 완전하지 못함을 근원적으로 인정함에서 생기는 공손함이다. 그리고 신뢰와 존경은 타인의 인격과 관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이다. 공손함에서 타인의 인격과 관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관계맺음이 성립한다. 이 관계맺음이 있어야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타심은 배려로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배려는 자기 발전을 통하여 남을 도우려는 의지이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갖추어진 능력을 남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7) 하버마스나 아렌트의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김선욱, 2008: 32-37; 윤진숙, 2007: 9; 안정오, 2006: 248)에서 '상호이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상호이해는 대화자들이 생각 나눔을 통하여 관념을 서로 발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의사소통과 관련된 '미드'에 대한 논의에서 보편(안정오, 2006: 250-258) 사람이 대화를 통하여 정체성을 갖는데 이를 위해서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 논의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바탕에는 의타심과 이타심이 있다고 보았다.

신념은 의식을 지배하는 관습화된 마음자세이다. 능력을 갖추려는 의식과 남을 도우려는 마음자세가 있어야만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남에게 의지하고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 갖춤이 바탕이 되어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소통은 참여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관념 제공자와 관념 수용자가 얻는 이익은 만족감이다. 관념 제공자는 배려로 수용자에게 도움을 주어서 얻는 만족이고, 관념 수용자는 관념을 재구성함으로써 얻는 만족이다. 소통에서 제공자와 수용자는 서로 수시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통은 서로에게 늘 이익이 있다. 서로는 관념의 질과 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만족감의 이익은 심리적인 것이다. 심리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음을 전제한다. 심리적이라는 말은 물질적이지 않음과 대비되기 보다는 대단한 것이 아님과 대비된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작은 깨우침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믿음에서 얻는 만족감이다. 이는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의 가치를 인정할 때 생길 수 있다. 서로의 생각내용이 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만족감이다. 이 만족감에 의하여 소통이 일어난다.

2.2. 소통과 국어과 교육

소통은 국어과 교육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언어의 존재 본질은 소통에 있다. 언어 발생의 근원이 소통의 필요성이다. 소통을 위하여 언어가 필요하고, 소통에 의하여 언어가 존재한다. 소통을 전제하지 않은 언어는 없다.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존재적 의의를 규정하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소통에 의존하여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의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러한 소통을 강조하지 않은 면이 있다. 소통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말은 의식하고는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학습활동의 수준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국어과 교육이 의미구성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국어 능력의 속성에 소통도 포함된다.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소통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소통은 국어생활의 핵심 요소이다. 국어생활은 개인이 외부 대상과 의

사소통을 함으로써 유지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소통을 통하여 언어적 자극을 받고 언어를 배운다. 언어를 통한 소통은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진다. 소통을 벗어난 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일상에서 글을 읽고 쓰며, 미디어를 시청하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 소통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어 교과서에는 표면적으로 소통이 강조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보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습자 중심이니, 독자 중심이니, 반응 중심이니 하는 교육 논리들이 소통을 억제한다. 이들은 학생의 개별적인 인지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어과 수업활동에서 소통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국어과 교육 활동이 개별적 의미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소통을 부각시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소통은 국어과 교육을 이루는 한 중심축이다. 다른 한 축은 의미구성이다. 의미구성과 의사소통이 균형을 이룰 때 국어과 교육의 목적이 실현된다. 국어과 교육이 어느 한 쪽만 강조하게 되면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국어과 교육은 주로 의미구성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소통의 교육적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과서인 <말하기·듣기>도 소통보다는 의미구성에 초점이 놓여 있다. 듣기와 말하기를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의미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인지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작용으로 의미구성 활동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인지활동을 강조하다보면 의미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지의 요인인 배경지식 활성화나 이해 과정, 의미구성 과정에 교육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교과서의 활동 전개에서 듣기는 ‘배경지식 활성화 - 정보확인 - 정보이해 - 정보평가 및 감상’으로 이루어졌고, 말하기는 ‘말할 내용생성 - 내용조직 - 내용전달 - 말하기 반성’으로 이루어졌다. 듣기와 말하기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서 소통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이다.

국어과 교육의 모든 영역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도 소통은 중요하다. 소통의 매체는 소리와 글자로 다를 수 있다지만 소통의 방식은 다르지 않다. 국어과의 영역들이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소통자의 관념의 변화를 지향한다. 쓰기와 읽기를 좁게 보면 텍스트 생산과 수용으로 분리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결국 화자가 말한 내용을 청자가 듣는 소통이다. 쓰기는 수많은 독자와의 소통이고, 읽기도 다양한 필자와 글을 통한 소통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소통은 필연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국어과 교육의 전체 영역에서 소통이 강조될 때 국어과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어과의 소통 교육은 상호작용과 관념구성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통은 목적으로 관념구성을 추구하고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지향한다. 상호작용으로 관념을 교환하여 새로운 관념을 구성하는 역동적 활동이 있어야 소통이 성립한다. 상호작용하는 외적 행위 역동성이 없는 관념구성은 허약하다. 관념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이 상호주관적 관념 구성을 강화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소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행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상호작용 활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형식적으로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상호작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2.3. 소통 중심의 국어 교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과서 개발에서 소통 학습활동의 강화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제5차 교육과정 이후 인지 중심의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들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는 의미구성 중심의 국어사용 기능/전략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말하기·듣기>, <쓰기> 교과서는 과정 중심 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생성 - 내용조직 - 내용표현 - 활동점검’이 주요 활동 과정이다. 이들 활동 과정에서 매 차시 하나의 국어사용 기능/전략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읽기> 교과서는 원리학습과 적용학습으로 구분된다. 원리학습은 개념⁹⁾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직접교수법의 활

동 원리에 따라 ‘개념/기능 제시 - 개념/기능 활용 시범 - 개념/기능 학습 확인 - 활동정리’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적용학습은 ‘배경지식 활성화 - 내용과악 - 기능/전략 적용학습 - 사고확장활동’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국어 교과서의 활동 구성은 의미구성의 기능/전략을 익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능/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요 교육내용이 기능(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의 구성도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육과정 면에서 보면 소통을 강조하는 요인을 제7차 교육과정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통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갖는 소통 강조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는 텍스트¹¹⁾와 실제의 강조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국어활동으로 텍스트 생산과 수용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다. 둘째는 맥락을 상황과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이는 국어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내외적 환경 요인의 고려를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식 영역의 하위 내용에서 ‘소통의 본질’과 ‘텍스트의 특성’ 및 ‘매체의 특성’으로 제시했다. 이는 소통의 지적 요인과 관련된 개념 이해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넷째는 성취기준을 ‘텍스트(담화/글/작품)+활동’의 구조로 제시하였다. 이는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에 필요한 상호작용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성취기준에 따른 ‘내용요소의 예’를 지식, 기능, 맥락을 고루 제시하였다. 이는 의미구성과 소통활동 요인이 고루 학습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이런 요인들의 강조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

9) 개념은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의 ‘본질’에 속하는 교육을 말한다. 본질 영역 속에는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이 포함된다. 이들 개념은 국어기능의 사용에 필요한 지식적 내용이다.

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년 2월 고시)내용과 이재기(2007: 87-96)의 논의를 참조하여 정리한다.

11) 교육과정에서 텍스트라는 말은 영역에 따라 다르게 쓰였다.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담화’, 읽기, 쓰기이고, ‘글’, 문학 영역에서는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는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소통이 강화된 국어 교과서를 개발할 때 국어과 교육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어과 교육의 본질을 반영하게 된다. 국어과 교육은 의미구성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구성과 함께 의사소통을 위하여 존재한다.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국어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국어생활에서 개인이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소통을 전제하고 소통을 통한 의미구성이라야 존재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소통의 강화는 소통 자체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국어과 전체를 위한 것이다. 소통은 국어과 교육이 지향하는 중요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어과 교육의 교수-학습 변화를 가져온다. 국어과 교수-학습은 개별 학생의 인지적 의미구성을 강조하도록 이루어졌다. 교수-학습활동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관념교환이 강조된 상호작용에는 교육적 가치를 두지 않았다. 교사나 학생 모두 개별적 의미구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개별적 의미구성은 학생들이 서로 다르고 차이 나는 관념구성을 강조한다. 말을 해도, 책을 읽어도, 글을 써도 서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 소통의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관념구성 활동의 결과는 학생들에게서 구성관념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간다.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구성관념은 학생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성관념이 쉽게 학생의 의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소통을 강조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교수-학습활동 과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학생의 국어 능력을 균형 있게 신장시킨다. 국어 능력은 의미구성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가져오게 된다. 소통능력의 신장은 학생의 국어생활에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게 해 준다. 이는 의미구성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개별적으로 신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은 의미구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의미구성과 의사소통의 상승작용 효과(the synergy effect)를 바탕으로 한 국어 능력의 신장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진정한 국어 능력 신장을 이룰 수 있다.

넷째, 타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국어생활을 이룰 수 있다. 소통을 강조하게 되면 학생들은 상호주관적 의미구성을 할 수 있다. 소통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고려하게 되고, 서로의 관점과 관념에 대하여 의식을 집중하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국어활동을 이끌어 내게 된다. 관념 구성자는 고립된 관념이 아니라 타당한 관념을 구성하여 타자에게 자기의 관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관념 수용자는 타자의 관념을 이해하여 자기 관념의 부족한 점을 수정하고, 타자 관념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소통은 관념의 공유를 통하여 서로의 관념 변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국어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소통을 강화한 국어 교과서는 학생의 국어 능력 신장과 국어생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소통이 중심이 된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균형 잡힌 국어 능력을 갖추게 하고,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어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결국 국어과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소통 지향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소통이 강화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개발자들이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서 구성 원리를 마련하고, 원리에 따른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 구성 원리를 점검하여 개발 방법을 논의하여 본다.

3.1. 교과서의 문제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는 의미구성에 초점이 놓여 있다. 교과서 구성 방식은 목표 중심으로 접근하여 기능/전략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기능/전략을 강조하여 추구하는 것이 의미구성인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두 단원을 살펴보고 소통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짚어본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의 <말하기·듣기·쓰기> 넷째 마당의 6차시¹²⁾ 활동과 <읽기> 넷째 마당의 5-6차시(통합차시) 활동을 살펴본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토론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마당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토론을 제시한 마당이 이 넷째 마당이다. 이 마당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¹³⁾하고 있다.

12) 이 차시를 선정한 이유는 토론을 학습목표로 하여 소통을 강조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 13) 1차시 학습 목표 : 의견을 만화와 글로 표현하였을 때의 효과를 알아봅시다.
 2차시 학습 목표 : 의견을 만화로 표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 봅시다.
 3차시 학습 목표 : 의견을 만화로 표현하여 봅시다.
 4차시 학습 목표 : 토론 내용을 듣고, 토론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5차시 학습 목표 : 토론 주제를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봅시다.
 6차시 학습 목표 : 적절한 근거를 들어가며 토론을 하여 봅시다.

(1) 5학년 2학기 <말하기·듣기·쓰기> 넷째 마당 6차시의 구성

학습목표 : 적절한 근거를 들어가며 토론을 하여 봅시다.

<1> 모둠별로 찬성편과 반대편을 적절하게 나누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하여 봅시다.

<2> 모둠별로 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 봅시다.

<3>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나누어 토론하여 봅시다.

- 토론을 하기 전에 사회자는 토론 규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 토론자는 근거를 들기 위하여 조사해 온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말합니다.

<4>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찬성편의 주장	근거
반대편의 주장	근거

<5> 토론을 하면서 잘한 점과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을 적어 봅시다.

(2) 5학년 2학기 <읽기> 넷째 마당 5-6차시의 구성

학습목표 :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여 봅시다.

<활동1> 조선 시대의 선비, 조식에 대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활동2>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참다운 선비, 조식’을 읽어 봅시다.

<활동3> ‘참다운 선비, 조식’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활동4> ‘참다운 선비, 조식’을 읽고, 사실과 의견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봅시다.

<활동5> 조식 선생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을 닦고 인재를 기르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조식 선생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론하여 봅시다.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들 단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소통학습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 교과서 구성에서 보면 의사소통은 그 접근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 관념교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말하기·듣기·쓰기>의 활동 구성 내용은 일방적인 말하기를 유도하고, <읽기> 활동은 토론을 어떻게 할지를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수업을 생각해 보면 일방적 관념 제시는 더욱 분명해진다. 관념소통을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과에서 의미구성만 강조하고 의사소통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의미구성조차 가벼워질 수 있다. 의사소통을 전제하지 않은 의미구성은 학생들에게 의의 있는 활동이 못되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구성을 소통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본다.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의 차시 활동 전개를 보면, <1>번에서는 토론을 위하여 편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2>번은 맡은 편의 역할에 따라 모듈별로 토론을 위한 내용을 준비한다. <3>번은 사회자가 정한 규칙을 따라 찬성편과 반대편이 준비한 내용으로 토론을 한다. <4>번은 토론이 끝나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다. <5>번은 토론 활동을 점검한다. 이 차시 활동 전개를 정리하면 ‘과제분담 - 내용생성 및 내용조직 - 토론 활동 - 활동정리 - 활동평가’가 된다. 이 활동 구성에서 ‘토론활동’이 핵심인데, 이 토론에서는 관념의 교환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관념의 제시만 있을 뿐이다. 토론자는 정해진 편의 입장을 고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읽기> 교과서의 활동 구성은, <활동1>에서는 읽을 제재와 관련하여 배경지식을 마련한다. <활동2>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며 제재 텍스트를 읽는다. <활동3>에서는 제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활동4>에서는 제재에서 사실과 의견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다. <활동5>에서는 조식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론한다. 활동의 전개를 정리하면 ‘배경지식 활성화 - 제재읽기 - 내용파악 - 목표활동(기능적용활동) - 소통활동’이다. ‘소통활동’은 다른 활동과 관계가 깊지 않으며, 토론이 무엇을 지향하고, 왜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 교사의 지도 면이나 학생의 학습 면에서 다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활동이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활동 구성은 모두 이와 같다. 이런 교과서의 구성에서 국어과에서 생각하는 소통을 짐작할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절차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지 못하다.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하여 관념의 교환과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말하기·듣기·쓰기> 활동이나 <읽기> 활동에서는 토론자들의 관념교환과 변화에는 관심이 적다. <말하기·듣기·쓰기> 활동에서 학생들은 준비한 내용을 상대방 앞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한 생각내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던 자신이 맡은 편에서 정한 입장을 상대방에게 말할 뿐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만 하고 있다. 학생들은 나누어 맡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사회자는 모든 편에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 토론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근거를 들어 논리에 맞게 말하기 위한 노력만 할 뿐이지 다른 토론자의 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토론이 끝났을 때, 학생들은 말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서로의 관념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 일방적으로 생각한 내용을 독백하듯 던지고 만 것이다.

<읽기> 활동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활동5>에 토론을 할 수 있는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무슨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앞의 <활동4> 글에서 ‘사실과 의견’이 나타난 부분을 찾게 하고 나서, 제재의 인물이 한 일에 대하여 토론을 하라고 하고 있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딱히 토론할 것이 없다. 교사가 토론을 강요하면 인상적인 개인의 단견을 몇 마디 할 수밖에 없다. 이 단원의 6차시 전체의 목표를 보아도 활동이 크게 다를 게 없다. 근거를 들어 구성한 의견 내용의 논리를 갖추라는 것뿐이다. 이러한 국어 교과서의 활동 구성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인지적 의미구성 기능/전략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소통의 활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활동의 중심은 개인의 인

지적 사고 활동을 위한 기능/전략 학습에 있다. 협력적 사고나 공동의 의미구성을 위한 기능/전략 학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소통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 교육내용인 ‘내용 확인’, ‘추론’, ‘감상 및 평가’나 표현 영역의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전달’에도 소통을 위한 내용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의사소통을 하거나 의사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활동 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교과서는 소통을 위한 차시의 활동 구성을 했지만 가르쳐야 할 것이 인지적 의미구성 기능/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독백적인 소통활동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자기중심적 의미구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국어과의 수업에서 창의성은 독창적인 의미구성과 상통한다. 국어과 수업에서 학생 개개인이 각기 다른 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각기 다른 관념을 구성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창의성 면에서 보면 남과 다를 것을 강조하는 독창성이 된다. 수업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는 배경지식의 차이이다. 모든 학생들은 각기 다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경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독창성을 강조하는 의미구성과 표현은 결국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 같은 것을 보고 읽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소통이 필요할리 없다. 자기중심적 의미구성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요구하지도 않고, 소통을 전제하지 않는다. 소통을 전제한다면 자기중심의 독창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상호주관으로 관념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는 소통활동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없다. 국어 교과서와 학습-학습 모형에는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관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논리가 없다. 기능/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끄는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직접교수법이다. 직접교수법의 핵심은 ‘교사의 시범’이다. 이는 비고츠키의 연구에 바탕을 둔 인지심리학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외 여러 교수-학습법¹⁴⁾들도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 협력 학습법이나 역할놀이 학습법이 소통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전문가 협력학습의 전문가 집단에서의 활동과 모집단에서 서로 가르치기 활동에서 소통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없다. 각 전문가는 자기의 문제 탐구(의미구성)와 탐구내용 전달(일방적 전달)에만 최선을 다한다. 역할놀이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의미구성과 전달)에 집중된 활동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는 교과서 구성이나 수업활동에서 소통을 목표로 해도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

넷째는 의사소통 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어과의 오해 중 하나는 의미구성을 잘하면 의사소통도 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말할 내용만 마련되면 대화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위의 교과서 활동 구성에서 이러한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 논리 확립을 위하여 적절한 근거만 들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읽기에서도 글을 읽고 내용만 파악하면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주장에 대한 근거나 글의 내용 파악이 소통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는 없다. 또한 소통을 전제하지 않은 의미구성은 공허하다. 중요한 의미구성의 목적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전제하고 의미를 구성할 때 의미구성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의사소통을 전제한 의미구성은 자타에게 상호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즉, 상호주관적 관념 구성에 대한 의미부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구성에서 소통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통이 강화된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미구성과 의사소통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소통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소통의 강조는 국어과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구체화되지 못했기에 낯설다. 낯선은 당연히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반발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14) 제7차 초등학교 국어과 지도서에 제시된 교수-학습법은 7가지이다. 직접교수법, 문제해결 학습법, 전문가협력 학습법, 창의성계발 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가치탐구 학습법, 반응중심 학습법 등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314-322).

3.2.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국어과의 소통에서는 관념의 변화를 강조해야 한다. 관념의 변화는 타자와의 관념 나눔과 공유를 통한 관념의 재구성을 말한다. 소통을 통한 관념 구성은 관념의 완결보다 늘 새로워지는 것을 지향한다. 국어 교과서 개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활동 구성에서 학생들이 타자의 관념을 인식하여 자기의 관념을 재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관념의 변화에는 인지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 선행 조건으로 소통활동이 필요하다. 소통을 강조하는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몇 가지 생각하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념의 합리적 구성을 강조한다. 여기서의 관념의 합리화는 지향성의 의미로써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타당한 관념의 구성에 대한 바람을 말한다. 절대적 관념의 합리성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향성이라는 말 자체에는 완전성의 의미가 없다. 즉, 항상 변화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논리나 이치를 갖도록 하는 관념의 재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합리는 개인의 기준이기보다는 공동의 기준이다.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의식 내용이 인정을 받으면 존재의의를 갖는 것이다. 인정은 사회와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인 것이다. 합리는 고정된 것이기보다는 요동하는 사회 관념과 함께 하면서 관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합리의 강조는 화석화된 원리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과 맥락의 본질과 맞닿아 움직이는 관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의 아집 고수가 아니면서 타자 관념의 비판적 수용으로 실정에 맞는 관념을 구성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모든 활동이 이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주관¹⁵⁾ 구성을 요구한다. 관념구성을 위한 상호작용에서 상호주관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상호작용은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관념을 이해하여 서로의 관념 발전을 이루는 활동이다. 상호작용으로 관념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15) 상호주관은 학습 주체들이 타 학습 주체들과 소통하여 서로의 관념을 이해하여 승화시켜 재구성한 관념이다. 여기서 주관은 주체와 관념이 결합된 말이다. 상호주관은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여 구성된 관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서로의 관념을 이해하여 같은 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같은 점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좁혀가야 한다. 그래서 승화된 관념을 이루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점만을 부각하여 타자 관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상호주관을 구성할 수 없다. 상호작용의 목적은 관념의 공유를 통한 발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로의 관념을 확인하고, 같은 점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상호작용에서 차이점의 제시는 타자의 관념을 심화 확장시킬 의도가 있어야 한다. 단지 다름만을 강조하기 위한 차이점의 제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이점 강조는 대화에서 서로를 고립 시킴으로써 형식적인 대화의 관계만 남게 만든다. 대화자가 서로의 관념을 파악하여 대화자 개인의식 속에서 관념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관념의 차이점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 대화의 장을 만들어 대화자들이 함께 관념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대화자들은 상호주관을 구성하게 된다.

셋째, 상보적 대화의 실천을 유도한다. 상보적 대화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대화이다. 대화자들은 논의문제 규정, 관점 세우기, 내용전달의 효과성, 논지의 공유성, 대화 내용의 생성·조직·표현, 청자의 이해 등에서 문제의식을 느낀다. 대화자의 문제의식은 대화 참여자들이 돕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대화자의 문제의식을 상호 해결해 주면서 협력하는 대화가 상보적 대화이다. 국어 활동은 모든 영역에서 상보적 대화가 필요하다.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 문학과 문법 학습에도 상보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보적 대화는 대화 참여자들의 진정한 협력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 대화자들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 대화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여 관념을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상대 대화자의 문제점 해결은 대화 주제에 대한 이해의 확대를 가져오고, 서로에게 만족스런 대화의 결과를 보장해 준다. 대화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활동 강조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도달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넷째, 배려하는 소통 문화의 정착을 지향한다. 소통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자들의 의지와 배려가 필요하다. 타자와 원만한 소통을 하

겠다는 의지가 없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은 성공할 수 없다. 일방적인 자기 생각의 던짐은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대화의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이다. 학습활동에서 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는 의지를 가지고 화자는 관념을 성실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자는 화자의 관념을 충실하게 이해하려는 의지로 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수업에서 화자가 말할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말할 때, 그 말의 내용은 화자의 것일 뿐일 때가 많다. 그때 청자는 의례적인 듣기만 할 뿐이고, 청자도 화자로서 말할 내용만 충실하게 준비하려고만 한다. 이러한 대화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습활동 하나하나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함께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함께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는 의지를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3.3. 교과서 구성의 방법

수업에서 소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교과서 구성이 활동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교과서가 수업을 조절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교수-학습활동은 달라진다. 소통을 강조하는 교과서 구성을 위한 원리와 방법을 정리하여 본다.

3.3.1. 구성 원리

교과서 구성 원리는 소통활동을 구성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이다. 원칙은 많을수록 활동 구성을 정교화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게 되면 활동을 구성을 어렵게 한다. 여기서는 소통을 강조하는 교과서 구성의 핵심이 된다고 여기지는 세 가지 원리만을 제시한다.

첫째, 소통을 통한 대화자의 관념 변화를 지향한다.

국어과의 소통은 관념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소통에서 대화자가 관념을 주고받으면서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와 점검과

융합이 있어야 한다. 이해는 화자의 관념을 청자가 파악하여 수용하는 것이다. 화자의 관념 내용을 청자의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화자의 관념내용을 청자의 의식에서 구성해 내는 것이다. 화자가 말하는 대상에 대하여 화자의 말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해라는 것이 단지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와 심리를 넘어 화자의 마음속에서 규정되는 대상을 청자의 마음속에서 규명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일어났을 때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일어날 수 있다. 화자의 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관념을 청자가 규명해내지 못하면 점검이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점검은 화자의 관념을 점검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청자가 규명해 낸 관념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래야 타당한 점검이 일어날 수 있다. 청자가 구성한 관념을 점검하지 않으면 점검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청자가 자신이 파악한 관념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화자 관념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청자 자신의 관념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점검을 통하여 장점을 신장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관념의 융합이다. 융합은 화자의 관념 따로 청자의 관념 따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의 관념을 바탕으로 청자의 관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융합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성질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청자가 화자의 관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념을 구성하여 내는 것이 관념의 융합인 것이다. 관념의 융합은 양적인 늘임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소통을 통하여 이러한 관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통의 기본 원리인 관념교환을 추구한다.

소통은 대화 참여자가 서로의 관념을 주고받는 활동이다. 교환은 주고 받아 바꿈이다. 바꿈의 줌은 양도와 증여이고, 바꿈의 받음은 수용과 타협이다. 양도는 내 것이 남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증여는 받는 사람의 조건에 맞게 건네줌이다. 관념을 줄 때에는 남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하고, 조건에 맞게 건네주어야 한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거나 상대방에게 쓸 모 없는 것이 되도록 해서 안 된다. 주는 사람은

관념의 내용이 받는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받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게 주어야 한다. 정성되고 성의가 있는 관념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수용은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타협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관념을 받을 때에는 화자의 관념이 청자의 관념이 되도록 이해하여, 청자에게 가치 있는 관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화자의 관념을 객체화의 상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화하여 내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화자의 관념을 청자의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관념을 기존 관념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화자의 관념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용과 타협은 청자가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소통을 통한 자기를 절대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념의 주고받음은 관념을 교환하려는 의지와 관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소통 학습활동에서 관념의 증여와 타협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던짐과 받기만으로는 관념의 교환은 이루어질 수 없다. 관념의 교환은 권리와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 화자는 넘김의 권리를 갖지만 타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고, 청자는 받음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받은 것에 대한 권리를 누리려야 한다. 아무도 권리와 책임을 느끼지 않는 관념의 교환은 무의미한 잡담일 뿐이다.

셋째, 소통을 통한 관념 재구성을 실천한다.

소통은 관념을 주고받는 반복 활동이다. 반복은 같은 것을 던지고 받는 공놀이가 아니다. 반복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장사이다. 관념은 주고받을수록 커지고 정교해져야 한다. 화자나 청자가 관념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관념의 재구성은 확장이고 정교화이다. 확장은 없는 것을 만들거나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크고 넓게 만드는 것이다. 정교화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정밀하고 세련하게 하는 것이다. 관념의 재구성은 대화 참여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내용을 새롭고 자세하고 치밀하게 바꾸는 것이다.

대화자들이 자신의 관념을 단지 남에게 넘기거나 받아 간직하려고만 하는 것은 소통이 될 수 없다. 관념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야만 소통이다. 자기의 관념을 남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소통이 될 수 없다. 남의 생각을 받아 보관만하는 것도 소통이 아니다. 이해하고, 새롭게 하여 계속하여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소통이다. 그동안 국어과 수업은 주고받는 것을 통하여 재구성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 차이만을 강조함으로써 재구성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3.3.2. 구성 방법

소통을 강조하는 교과서의 구성 방법은 실제적인 지침이다. 이 지침도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으면 또한 활동 구성을 어렵게 한다. 구성 방법도 교과서 구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침을 세 가지만 제시한다.

첫째, 소통이 중심이 되는 차시 활동을 배정한다.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서 소통 학습을 목표로 하는 차시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한 단원을 4차시에서 6차시로 구성할 때 한 차시를 소통을 위한 차시로 배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성을 보면 한 단원의 활동은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소통학습을 수용하고 있다. 개정 <읽기> 교과서 단원의 각 차시는 두 가지 학습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이다.¹⁶⁾ 이해학습은 지식과 기능의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학습은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소통학습은 적용학습의 마지막 활동이다. 이 소통학습은 7차 교육과정 소통학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적용학습의 활동 전개가 ‘준비학습-읽기학습(내용파악-목표학습)-소통학습’으로 이루어진다.¹⁷⁾ 이 소통학습은 목표 관련 학습 활동 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종속된 활동으로 되어 있다. 앞의 활동이 소통을 위한 활동 전개가 이

16)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는 2008년 1-2학년 실험용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다. 이 3-4학년 실험용 교과서 개발을 위한 응모신청서(2008: 30-31)를 보면 교과서 구성 활동을 이해 학습과 적용학습으로 구분하였다.

17) 이 내용은 실험용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08) 속표지에 제시되어 있다.

루어지지 않았는데 소통학습을 하라고 해도 소통이 일어날 수는 없다. 한 차시 전체 활동을 소통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듣기·말하기 교과서와 쓰기 교과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교과서의 활동 전개는 ‘내용생성-내용조직-표현하기-고쳐 쓰기’ 순서로 이루어진다. 표현 영역에서 말하기는 음성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쓰기는 문자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쳐 쓰기는 표현한 사람이 말한 내용을 차시 목표와 관련지어 학생들이 서로 점검해 주는 활동으로 되어 있다. 이들 교과서는 의미구성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활동을 구성함으로써 소통학습을 직접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 소통학습을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원의 한 차시를 소통이 중심이 된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차시의 목표를 의미구성을 위한 목표에서 소통을 위한 목표로 바꾸고, 학습활동을 소통 학습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말할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관념을 서로 점검함으로써 소통의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에게 말해 주어야 할 내용을 마련하여, 대화의 상황 조건에 맞게 생각을 교환하고, 대화한 후 생각의 변화를 확인하는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소통을 필요로 하는 주제와 구체적 상황을 제시한다.

소통학습을 학생들이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위한 주제와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통의 주제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 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내용이 있는 주제가 좋다. 저학년일 경우에는 한 편의 이야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주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고, 관점이 달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도 선정된 주제는 학생들의 관심 영역에 있는 것이면서 생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관념의 재구성을 통한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주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안에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의 상황은 대화를 해야 하는 정황 조건이면서 활동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견을 나누는 활동의 절차인지, 토론

을 하는 절차인지, 문제를 제시하고 조언을 듣는 절차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의미구성 절차가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된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문제를 규명하여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부 절차가 교과서에 명확하게 주어져야 한다.

셋째는 활동 구성에서 소통의 방법과 태도를 강조해야 한다.

소통의 방법으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한 관념의 교환과 관념의 재구성이다. 관념의 교환은 바꾸어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관념을 가지는 것은 관념을 받는 쪽에서 자신의 것으로 인식할 때 이루어진다. 화자 관념을 자기 관념으로 만들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관념의 교환은 관념 재구성을 위한 관념을 승화시키는 의지의 실천 과정이 있어야 한다. 관념의 재구성은 상호작용 참여자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지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상호작용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 상호작용 참여자들이 외부 자극이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여길 때 의미를 갖는다.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관념내용에 대한 의식집중과 관심, 소통의지가 있어야 한다. 관념의 재구성은 현재 가지고 있는 관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청자 자신의 관념에 대한 경양에서 화자의 관념을 적극 이해하였을 때 가능하다. 소통의 방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하는 관념의 재구성보다 국어생활 속에서 재구성해야 할 관념이 더 많기 때문이다. 방법을 익혀야 국어생활 속에서 대화참여가 되어 소통을 하게 되고, 생각을 키워갈 수 있게 된다. 차시 활동 구성에서는 소통의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주어진 주제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국어생활에서 소통을 할 수 없다. 소통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습관화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습관화된 실천 의지가 태도이다. 학생들이 소통의 태도를 가졌을 때, 국어 생활에서 소통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생활화 할 수 있게 된다. 실천의 태도는 교과서 구성의 문제이기보다는 수업실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성공

적인 소통의 경험을 자주 가졌을 때 소통의 가치를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소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차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구성이 소통의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이 소통 성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국어과 교육에서는 소통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내용 및 방법에서 소통을 부각시켜야 한다. 교육과정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소통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가 소통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교사들이 소통 중심의 수업활동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소통을 강조하는 국어과 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을 탐구하여 보았다. 이 논의는 소통이 강화된 국어과 교육을 하기 위한 작은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소통이 강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교육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어 교과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소통과 국어과 교육 및 교과서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의에서는 소통을 국어과 교육의 핵심 축 중의 하나로 보았다. 국어과 교육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미구성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길러주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어과에서 길러줄 의사소통능력은 학생들이 관념교환을 통하여 관념 발전을 이루는 능력으로 보았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는 학생들이 관념을 교환하고 관념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과서의 개발 방향은 이러한 조건에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어 교과서의 소통의 문제를 짚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에서 필요한 소통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방향을 정리하였다. 소통이 강화된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관념의 합리적 구성과 상호주관 구성, 상보적 대화의 실천과 소통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념 변화 지향, 관념의 교환 추구, 관념 재구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구성에서는 소통이 중심이 된 차시를 배정하고, 소통이 일어난 상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며, 소통의 방법을 익히고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소통을 좀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때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을 위한 소통이 되어야 하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은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관념을 발전시키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어 교과서는 소통을 강조하는 국어과 교육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국어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 논의를 계기로 국어과 소통 교육에 대하여 연구자와 교사의 관심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교학사.
- 김도남(2005),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 김병길·김신옥(2002), 「Husserl 상호주관성 구성의 교육적 함의」, 『교육철학』 제20집, 한국교육철학회. 17쪽-36쪽.
- 김선옥(2008), 「아렌트의 내러티브와 의사소통적 합리성」, 『철학』 제94집, 한국철학회, 29쪽-53쪽.
- 설현영((1999),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연구」, 『범한철학』 제20집, 범한철학회, 99쪽-129쪽.
- 신헌재 외(2004), 『구성주의와 읽기 쓰기』, 박이정.
- 안정오(2006), 「조지 허버트 미드의 의사소통이론」, 『텍스트언어학』 제20집, 텍스트언어학회, 241쪽-262쪽.
- 윤진숙(2007),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 이론」, 『법학논총』제1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67쪽-181쪽.
- 이재기(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실행 방안」, 『청람어문교육』 제3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81쪽-108쪽.
- 조태윤(2004), 「Habermas와 Luhmann의 의사소통이론과 교육」, 『교육철학』 제32집, 교육철학회, 199쪽-216쪽.
- 최현섭 외(2005), 『국어과교육론』, 삼지원.

<Abstract>

A direction of making Korean language school-book for communication

Kim Do-na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making Korean language school-book for reinforced communicati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ursues the extension of student's Korean language ability . The korean language ability is composed of capability of meaning making and communication. The while,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emphasized student's capability of meaning making in instruction. So, the student's capability of communication is weakened. In this paper, I discussed how to do stress communi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school-book for to reinforce communication. For making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to pointed up communication apportions a part to activity of it. It's the part should be contained principles of communication, which are reciprocal action for exchange the dialogue partner's idea and reconstruction for sublimating the idea.

key words : education of communication, Korean language school-book,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meaning making, extension of korean language ability.

책과 함께 자라는 어린이 학년에 따른 책 유형과 독서 방법

최은경*

<차례>

1. 들머리
2. 학년에 따른 책의 유형과 독서 방법
 - 2.1. 저학년 : 주제에 따른 그림책
 - 2.2. 중학년 : 동화와 관계 맺는 한 해
 - 2.3. 고학년 : 독서 지도와 단편동화
3. 독서 활동 평가
4. 마무리

<요약>

본 논문은 초등학교 학년에 따른 책 유형과 책 읽기 방법에 대한 고찰이다.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놀라며 즐거워 할 수 있는 책 읽기에 목적을 두고 저학년과 중학년, 그리고 고학년으로 나누어 독서 교육을 실천한 사례를 다루었다.

저학년(1, 2학년)은 교육과정이 주제통합 학습이어서 월 별 주제에 따라 그림책을 읽고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중학년(3, 4학년)은 동화 읽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학급 문고와 학부모 동화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인 책 읽기를 했다. 매달 주제에 맞게 목록을 만들어 꾸준히 동화 내용을 나누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소통하게 했다.

셋째, 고학년(5, 6학년)은 독서지도와 단편 동화이다. 자기 정체성 발달 시기에 있는 고학년 어린이들의 삶을 포착하여 선명하게 드러내는 단편 동화를 주제 중심으로 나누어 읽었다. 교사와 함께 한 독서 토론과 간단

* 경기 곡란초등학교 교사

한 비평 활동은 어린이들이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조율하게 했다. 또 작가를 정해 작품을 읽고 작가와 메일을 주고받는 활동을 해 책 읽기에서 더 확장된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 독서 활동 방법으로 교단일기 쓰기를 통해 교사의 언어가 ‘교육학적 언어’로 되살아나게 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글쓰기와 학부모 통신으로 정보를 공유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사소통을 이끌어 내었다.

교사는 독자가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아동 개개인의 성향을 살펴 그에 맞는 책을 권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어린이 책을 읽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다.

주제어 : 학년에 따른 책의 유형, 그림책, 동화, 독서 활동과 평가, 학부모 동화 모임

1. 들머리

놀 때처럼 재미있게 폭 빠지는 책 읽기를 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은 몸을 움직여 놀 때 스스로 새로운 규칙과 방법을 생각하며 논다. 책 읽기의 재미도 마찬가지다.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놀라며 즐거워한다.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를 읽을 때 어린이들은 책 속에서 등장하는 갖가지 고릴라를 찾아내며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모두 떠올려 이야기를 하고 즐거워한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는 각종 인증제와 독서 골든벨 등의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를 힘겨운 학습으로 만들었다. 요즘 어린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사이 짬을 내어 놀아야 하고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유일한 친구가 되며 그나마 읽는 책이 유행하는 무슨무슨 시리즈나 만화책이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놀이터처럼 편안한 독서환경을 만들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이 시대의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좋은 어린이문학 작품을 읽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바른 눈을 지녀야 하고(김상욱, 2001: 40), 어린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익히고 향유하는 제반 활동을 유도 내는 활동 중심(김대행, 2000: 387) 문학 감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독서교육을 실천해 보았다.

(1) 목표

- ① 책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한다.
- ② 책읽어주기를 통해 공동체적 독서 활동을 경험(이송희, 2007: 38)하고 독서 활동이 학급생활의 중심이 되게 한다.
- ③ 책을 통해 삶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문학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길러준다.

(2) 방침

- ① 학급문고를 만들어 운영한다.

- ② 재량 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책 읽어 주기를 계속 한다.
- ③ 아침 자습 시간 중 주 2회 이상을 독서 시간으로 확보한다.
- ④ 국어 시간 가운데 한 시간씩 내어서 도서관을 방문하고 책을 읽도록 한다.¹⁾
- ⑤ 가정과 연계한 독서 활동과 어머니 동화 모임을 운영한다.
- ⑥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게 다양한 독서 행사를 연다.
- ⑦ 독후 표현 활동의 강요로 독서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⑧ 교사도 함께 독서한다.

(3) 연구시기 : 2000년 3월 1일 ~ 2008년 6월 1일

(4) 연구대상 : 담임을 맡은 1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

(5) 연구방법

목표와 방침에 따라 학년에 따른 책의 유형을 정하여 주제별 읽기 및 독서 활동 전개

2. 학년에 따른 책의 유형과 독서 방법

2.1. 저학년 : 주제에 따른 그림책

1학년, 2학년은 교육과정이 주제통합 학습이므로 1년을 단위로 주제 중심의 그림책 읽기를 하였다. 우선 그림책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서를 읽고 어떤 그림책을 읽어줄 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 나카가와 오토코, 『그림책은 작은 미술관』, 주니어김영사.

1) 김권호(2007: 47)는 읽다가 못다 읽은 책은 대출하고, 대출한 책을 반납하려면 다시 도서관에 가야 되므로 대출과 반납을 꾸준히 하다보면 도서관 가는 일이 습관이 된다고 했다.

- 도로시 버틀러, 『큐술라와 그림책 이야기』, 보림.
- 마쓰이 다다시,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한림출판사.
- 이상금,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사계절.
- 엄혜숙, 『나의 즐거운 그림책 읽기』, 창비.
- 히로코 사사키, 『그림책의 심리학』, 우리교육.

20세기 그림책 화가이면서 작가인 모리스 샌닥은 “만약 나에게 보통 사람 이상의 재능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린 여러 가지 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의 구체적인 감정, 다시 말해 소리와 감각과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혹은 특별히 문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기만족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히로코 사사키, 2004: 6)라고 말한 바 있다. 어린이와 늘 함께 생활하는 교사는 어린이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탐구하는 기회를 갖는다. 어린이를 이해하는 힘은 ‘마음 속 세계 지도’를 가진 작가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 적 필자의 모습을 떠올리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2.1.1. 그림책 선정 기준과 방법

월별 주제에 따라 재량 활동 시간과 국어 시간, 마무리 시간에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읽어 주기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듣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주제에 적합한 그림책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했다.

- (1) 그림만 보아도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글이 쉽고 재미있다.
- (2) 공들여 그린 그림이며 어린이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다.
- (3) 어린이들의 욕구와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 (4) 교사가 먼저 읽어보고 재미있게 느끼며 여러 번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다.

(5) 좋은 어린이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기준으로 한다²⁾. 편집부 엮음이나, 같은 판형으로 똑같이 제작된 것은 무조건 피한다.

(6) 소리나 음성의 울림이나 재미, 기분 좋은 리듬이 있는 문장은 리듬이 갖는 음악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마쓰이 다다시, 2002: 57).

(7) 인종이나 성별, 문화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복적 상상력으로 극복한다.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시도가말로 한 권의 그림책이 새로운 인간 모습, 아니 인간관계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나카가와 모토코, 2006: 198).

(8) 어린이에게 친숙한 주인공이 있어야 한다. 친숙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이상금, 1998: 34). 그만큼 더 안심하고 읽을 수 있다.

(9) 다양한 기법(수채화, 파스텔화, 유화, 종이 접기, 콜라주, 연필 그림 등)으로 그렸다.

(10) 책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두껍지 않고 제본이 잘 되어 있다.

(11) 외국 그림책을 선정할 때는 원서명이나 번역자의 이름이 있고 완역된 것을 고른다.

(12) 번역 상 문제(어려운 용어나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고 여러 나라 책을 고루 선택한다.

(13) 외국 그림책보다 가능하면 우리나라 그림책을 더 많이 소개한다.

2) 추천하는 출판사 : 보리, 창작과 비평사, 웅진, 웅진 닷컴, 우리 교육, 현암사, 지식 산업사, 시공주니어, 산하, 사계절, 다림, 비룡소, 보림, 문학 동네, 길벗어린이, 재미마주, 국민서관, 풀빛, 한림, 푸른 나무, 과량새 어린이, 다섯수레, 대교, 두산 동아, 온누리 등

2.1.2. <표 1> 주제별 그림책 목록

월주제	텍스트	활동 내용
3 월 친 구	강아지똥 (권정생/길벗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지도 그리기-똥 · 첫 느낌 나누고 내용 파악하기 · 몸으로 나타내기-정지 · 강아지똥에게 편지 쓰기 등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어주기 · 이야기 나누기 · 물고기 종이에 크게 그리기 · 비늘마다 돌아다니며 친구 이름 적기
	<p>팬잖아(고정욱/낮은산), 오스카는 친구가 필요해(존 스티븐스/삼성출판사), 바위나리와 아기별(마혜송/지경사), 모르는 척(우메다 순사쿠/길벗어린이), 학교가기 싫어요(고정욱/느낌표교육), 지각대장 준(존 버닝햄/비룡소), 우리선생님이 최고야(케빈 행크스/비룡소)</p>	
4 월 봄 · 자 연	우리 순이 어디 가니 (윤구병/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어주기 ·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뜰에서 볼 수 있는 식물 자세히 보고 그리기 · 쓱 캐기 · 봄에 대한 시 쓰기
	신호등 속의 제비집 (정채봉/효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기 · 첫 느낌 나누기 · 내용 파악하기 · 노래 가사 바꾸기 · 노래 들어보기
	<p>봄날 호랑나비를 보았니?(조은수/길벗어린이), 들나물 하러 가자(도토리 기획/보리),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존 버닝햄/비룡소), 알도(존 버닝햄/시공사), 오소리네 집 꽃밭(권정생/길벗어린이), 잘 가 토끼야(이상권/창비), 고래들의 노래(다이안 셀튼 글, 개리 블라이드 그림/비룡소),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김순한/둘베개어린이)</p>	

월주제	텍스트	활동 내용
5월 가족·양성 평등	까마귀 소년 (아시마 타로/비룡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표지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 · 책 읽어주기 · 등장인물 인터뷰하기 · ‘이런 선생님이 좋아요’ 조사하기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닷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에서 떠오르는 생각 말하기 · 책 읽어주기 · 부모님께 편지 쓰기(부모님 없는 아동은 가족에게)
	<p>우리 할아버지(존 버닝햄/비룡소), 왼발 오른발(토미 드 파올라/비룡소), 고릴라(앤서니 브라운/비룡소),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네레 마어/아이세움), 터널(앤서니 브라운/논장), 마들렌카의 개(피터 시스/한국프뢰벨 베틀북), 부루통한 스펙키(윌리엄 스타이그/비룡소), 종이붕지 공주(로버트 문치/비룡소), 아가야, 안녕?(제니 오버랜드/사계절)</p>	
6월 평화·공동체	쇠를 먹는 불가사리 (정하섭/길벗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의 동물 이름 대기 · 책 읽어주기 · 내용 파악하기 · 찰흙으로 불가사리 만들기/그림으로/골판지로 만들기
	바닷가 어린이들 (권정생/현암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이사 간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이야기 읽고 느낌 나누기 · 주인공이 되어 편지 쓰기 · 뒷이야기 꾸미기 · 통일 노래 배우기
	<p>도깨비 마을 (이원수/웅진닷컴), 나는 평화를 꿈꿔요(유니세프/비룡소), 바람이 멈출 때(샬로트 졸로토/폴빛), 왜 니콜라이 포포프/현암사), 여섯 사람(데이비드 매키/비룡소), 전쟁(아나이스 보즐라드/비룡소), 꿈 인형 오토(토미 웅거러/비룡소), 꼬마 구름 파랑이(토미 웅거러/비룡소),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데이비드 스미스/푸른숲), 창 너머(찰스 키핑/시공주니어),</p>	

일주제	텍스트	활동 내용
7월 여름	<p>개구리네 한 솔밥 (백석/보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어주기 · 모양과 소리를 나타내는 말 찾기 · 재미있는 장면 정지동작으로 표현하기 · 한솔밥 먹기 · 두꺼비 집 짓기
	<p>심심해서 그랬어(이태수/보리), 갯벌이 좋아요(유애로/보림), 이카시아 파미(윤정주/국시포랭이), 모기는 왜 귓가에서 앵앵거리나(버나 알다마/보림)</p>	
9월 추석·참다운	<p>술이의 추석 이야기 (이억배/길벗어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추석의 의미와 하는 일 알아보기 · 강강술래 배워보기 · 바빠요 바빠 글쓰기 · 옛날 추석 모습 이야기 들어오기 · 친척 인터뷰해오기
	<p>피터의 의자, 휘파람을 불어요(에즈러 잭 키츠/시공주니어), 지각대장 존(존 버닝햄/비룡소), 윌리와 악당 벌렁코(앤서니 브라운/웅진닷컴), 프레드릭(레오 리오니/시공 주니어), 뛰어라 메뚜기(다시마 세이조/보림), 해적과 공주(로파 울손 안테베리/마리아 존슨/은행나무어린이들), 구분과 유치원(나시우치 미나미/한림출판사), 100만 번 산 고양이(요코사노/종이나라), 슈퍼토끼(헬메 하이네/시공주니어),</p>	
10월 우리말·가을	<p>기차기노 (박은영/비룡소) 바빠요 바빠 (이태수/보리) 쪽빛을 찾아서 (유애로/보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는 말놀이하기 · 한글 티셔츠 만들기 · 나뭇잎 자세하게 그리고 천연염색하기-도움반 통합 수업 · 천연염색 후 느낌 적기 · 가을느낌 · 티셔츠 입고 사진 찍기
	<p>행복한 의자나무(랑 수린/북뱅크), 가을을 만났어요(이미애/보림), 썩어(천정철/이광익/창비), 아기 곰의 가을나들이(테지마 게이자부로/보림), 자장 자장 엄마봄에(임동권/한림출판사)</p>	

월주제	텍스트	활동 내용
11월 책 읽기 환경	도서관(사라 스투어트/ 시공주니어) 잘가, 토끼야 (이상권/창비) 가로수 밑에 꽃다지가 피었어요(이태수/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 도서관 찾아 가서 도우미선생님 만나기 · 모듬별 환경 신문 만들기 · 학교의 식물 자세히 관찰하고 이름 알아보기 · 책 읽고 느낌 적기 · 자연에게 다짐하는 말 편지로 쓰기
	아름다운 책(클로드 부종/비룡소), 책 먹는 여우(프란치스카 비어만/주니어 김영사), 모래언덕에 핀 꽃(김천일/보림), 들나물 하러 가자(김진향/푸른사상)	
12월 겨울 풍경	장갑(에우게니 M.라초 프 /다산기획) 용감한 아이린 (윌리엄 스타이그/웅진닷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 읽고 이야기 나누기 · 겨울 풍경 이야기 · 양로원 방문 *김장김치 가져와서 밥 먹기(토요일) · 어려운 이웃에게 편지 쓰기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박경진/보리),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염소(그림 형제/ 비룡소), 산타 할아버지(레이먼드 브릭스/비룡소), 오늘은 우리 집 김장하는 날(방정화/보림), 아기여우와 털장갑(니이미 난키치/한림)	
2월 꿈·겨울 놀이	으름 해엄이 (레오 리오니/마루별) 손 큰 할머니 만두 만 들기 (이억배/재미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 나의 꿈 말하기 · 설날 음식 알아보기 · 만두 만들기
	괴물들이 사는 나라(모리스 샌닥/시공 주니어), 꿈(레이먼드 브릭스/비룡 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이호백/재미마주),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릭스/마루별), 구름공항(데이비드 위즈너/중앙출판사), 이상한 화요일(데이비드 위즈너/비룡소), 마법의 저녁식사(마이클 갈런드/보림), 검은 코트 아저씨(카나모리 사이지/베들북)	

2.1.3. <표 2>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의 재구성

학년	과목 / 시기	차시별 학습목표
1학년 2학년	국어 읽기/12월	· 느낌을 살려 인물이 한 말을 읽을 수 있고, 인물이 한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교과서	떡시루 잡기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전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보고 이야기 나누기 - 질문보고 이야기하기 ◇ 읽는 중 활동 - 글 읽기 ◇ 읽은 후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에 답하기 - 인물이 한 말과 한 일 알기 	
재구성 그림책	용감한 아이린 (윌리엄 스타이그/웅진닷컴)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림책 표지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한다.(계절은 언제 일까?, 나무들은 어떻게 보여?, 무슨 장면이지?) ② 제목에서 내용 상상하기('용감하다'의 뜻을 같이 풀어본다) ③ 그림책을 읽으며 주인공이 한 일과 견주어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말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장면을 정해 주인공이 되어 말하기, 일기 쓰기,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기를 한다. 	
재구성 가능한 책	샌지와 빵집 주인(코키 폴/비룡소) 학교에 간 데이빗(데이빗 세논/지경사)	

2.1.4. 활동 결과

(1) 느낌을 살려 인물이 한 말 읽기

① 전체를 세 장면으로 나누어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어울리게 하여 글을 읽는다.

② 그림책에 나오는 대화 글을 장면에 따라 나누고 어린이들과 함께 어떻게 읽어야 할지 상의를 한 후 역할을 정해 같이 읽어본다.

③ 학습지로 만들어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읽어보고 알맞은 몸짓을 생각해보게 한다.

* 장면 1.(아이린의 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예요! 공작부인도 좋아할 거예요!” (밝은 목소리로, 힘차게)

“그래 예쁘구나.” (고개도 끄덕이며)

“그런데 어찌면 좋으니? 오늘밤 무도회에서 입을 옷인데, 난 이걸 갖다 줄 기운이 없구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 (힘없는 목소리)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갖다 줄게요.” (씩씩한 목소리)

“그건 안 된다, 애야. 널 보낼 수는 없어. 옷상자는 너무 크고, 저택까지는 너무 먼 길이야. 게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했잖니?” (걱정스럽고 어두운 목소리)

“진 눈을 좋아해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따뜻하게 입거라, 아가. 단추 꼭꼭 잠그는 거 잊지 말고. 밖은 바람도 불고 춥단다.” (다정한 목소리로)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씩씩하게)

(2) 인물이 한 일에 대하여 내 생각 말하기

(김재욱) 아이린의 엄마처럼 우리 엄마도 옷 잘 만들어요. 내 잠바도 엄마가 만들었어요.

(유정재) 나는 겨울이 되면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준 쿠션이 제일 좋아. 참 따뜻해. 그런데 잘 만들려면 힘들었겠다.

(정아현) 아이린이 내려가는 길에 넘어졌을 때, 얼굴이 어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참 다행이다

(이주형) 나는 아이린처럼 추운 날에 아빠 심부름을 갔다.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손이 너무 시려왔다. 그래도 나는 자전거 타고 에버랜드까지 혼자서 갈 거다.

(김홍석) 겨울 방학이 되면 할머니 집에 갈 거다. 스케이트도 타고 눈싸움도 해야지.

(3) 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

12월 17일 금요일 도랑에 물이 얼고 하얀 서리가 내렸다.

제목 : 용감한 아이린

안녕? 난 아이린이야. 나는 공작 아줌마에게 드레스를 가져다 줘야해. 나랑 같이 모험을 떠나자. 눈보라가 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드레스를 박스에 넣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야해. 내가 밤까지 걸어가는데 공작 아줌마네 저택이 안 보여.

지금 난 참 위험해. 늑대가 날 잡아먹으려고 오는 소리가 들려. 빨리 가자.

어! 눈보라가 더 심하게 쳐. 어! 드레스가 날아갔다.

어떻게 하지? 미끄러졌다. 아! 다리가 아파.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상자를 타고 가자. 응. 저택까지 빨리 가자야호! 안녕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오윤환)

(4)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용감한 아이린에게

아이린아, 너는 왜 엄마한테 눈을 좋아한다고 했니?
눈이 오는데 그렇게 먼 곳까지 갈 생각을 했니?
나는 니가 바람에게 “그만 불어!” 하고 야단칠 때 참 시원한 느낌이 들
었어.

나도 겨울바람이 불면 가다가 돌아 서서 “그만 불어!” 하고 소리쳐 불
거야.

드레스가 바람에 날려서 없어졌는데 너는 빈 상자를 가져다주겠다고 했
지.

끝까지 걸어가서 말을 타고 다시 돌아오는 아이린아, 너는 참 용감한 아
이야.

안녕. (김유진)

2.1.5. 반성과 평가

첫째, 그림책은 대부분 글이 짧고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짧은 글과 그림, 단순한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나 체험의 세계는 폭넓고 다양하다. 그림책 한 권에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접하며 어린이들은 글 전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국어 수업도 좀 더 심화된 학습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소리 내어 읽어주고 이야기해 주는 그림책 체험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힘을 자연스럽게 길러준다(마쓰이 다다시, 2002: 20).

둘째, 그림책의 어떤 부분, 작은 그림 하나에도 반드시 그곳에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 있고 어린이들은 구석구석까지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보는 사이 시각적 문해력 즉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를 획득하는 과정(나카가와 오토코, 2006: 48)이 된다. 즉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특성인 호기심, 놀라는 감정, 터무니없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용기와 정직함으로 사물을 보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다운 성질(동심)을 그림을

보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셋째, 그림책을 활용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뿐 아니라 주제를 통합하여 다른 교과와 다양한 통합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매 달 활동주제에 알맞은 그림책을 함께 읽고 수업 안을 짜서 공동 수업을 전개했다.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림책이 주제 통합 수업의 씨앗이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교과와 연결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넓고 깊게 세밀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그림책은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읽는 과정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어린이가 ‘갓고 있는 것 - 복잡한 발달의 모습’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따져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반 학생들과 그림책 한 권을 읽어가다 보면 그 속에 등장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야기의 전개 속에 어린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족의 모습, 불만과 걱정거리 그리고 꿈들을 자신의 말로 솔직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느낀다. 특히 학습 부진이나 학습에 흥미가 없는 어린이들도 수업에 쉽게 참여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교사 자신도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다만, 그림책을 읽어주고 나서 독후 활동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은 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듣지 않고,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고, 연극하는 등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책 자체에 빠져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유영진: 2008: 345).

다섯째, 그림책을 꾸준히 읽고 접한 어린이는 세련한 독자로 자랄 수 있다. 이태수의 세밀화로 그린 그림책 『심심해서 그랬어』를 보면 사진으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숨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다. 놀라서 뛰어 오는 송아지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내 귀에 들리는 듯하다. 단순하고 원색적인 디즈니 풍의 그림과 화려한 영상에 많이 노출된 어린이들이 좋은 그림책을 보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형태와 색감을 느끼며 안정된 감성을 기를 수 있다. 아울러 굳더더기 없는 입말로 구성된 그림책의 글

들을 자주 접하면 자연스럽게 바르고 올곧은 우리말과 언어에 민감해 진다. 이런 어린이가 자라 어른이 된다면 좋은 그림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득하여 자신의 아이에게도 좋은 책을 골라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

여섯째, 그림책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도 쉽게 책 읽는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한다. 그림이 많은 것을 이야기 해 주고, 들려주는 교사의 입 모양과 말을 보고 들으며 언어의 느낌을 체험하고 그림책에서 얻는 깊은 울림으로 내면의 세계를 열어 다른 어린이들과 쉽게 교감할 수 있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아픔을 함께 치유 할 수 있다.

2.2. 중학년 : 동화와 관계 맺는 한 해

3학년 4학년을 중학년으로 묶었지만 개인차가 심하다. 특히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사춘기 초기 증상을 나타내는 어린이들도 있다. 교과도 아홉개로 나뉘져 학습량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늘어나지만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 많아 스스로 찾고 해결하려고 한다. 또래끼리 의견 다툼과 조율을 경험하고 남녀에 따라 좋아하는 책도 조금씩 달라진다.

중학년에서는 옛이야기 들려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들려 주고 듣는 관계를 형성하며(서정오, 1995: 21) 학습문고를 만들어 지속적인 책 읽기 활동을 했다.

3월, 4월에 독서환경을 만들고 독서 퀴즈를 부모님에게 문제를 만들게 하면 가족 모두 책을 읽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요즘 학부모들은 책 읽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심이 때론 학습지 풀이 형식의 공부가 되기 쉽다. 그래서 즐거운 책 읽기를 위해 가정 통신문을 만들어 책 읽기의 기본은 즐거움인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강제로 하는 독후활동은 어린이들이 책에서 멀어지게 하므로 독서록이나 감상문 쓰기보다 다양한 동화 감상 전략(국어교육을 위한 초등교사 모임, 2000: 340-365)을 활용한다. 무엇보다 2주에 한 번씩 ‘책읽어주는 부모님’ 활동은 어른이 어린이의 세계를 잘 이해하게 되고, 어린이들에게 뉘가를 가르치겠다는 의도보다는 함께 읽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엄혜숙, 2005: 243-244) 기회가 되었다.

2.2.1. <표 3> 연간 활동 내용

월주제	문학 감상활동	독후표현 활동(·) 독서 행사(·)	독서 환경을 위한 준비	읽어주기
3월 책과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겨진 친구의 모습 찾기 (화요일의 두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한 마디 • 그림으로 나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공책 • 학급문고 만들기(안내장 발송) • 책나무 만들기 	내 짝궁 최영대 까마귀 소년 화요일의 두꺼비 무지개 물고기
4월 학급문고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체험(나에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체험한 후 이야기하기 • 삼각무대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도서대장 • 학급문고 빌립장 • 안내장 발송 • 학급문고 운영 규칙 	네 잘못이 아니야 내 친구 재덕이 전학간 윤주 전학 온 윤주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
5월 사랑하는 우리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을 주인공으로 (조커, 학교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커 만들기 (책광고) • 독서 퀴즈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대회를 위한 학급회의 • 독서퀴즈용지, 안내장 • 독서점검표, 상품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조약돌 못 나도 울 엄마 나비를 잡는 아버지 엄마 까투리
6월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공동체 (살꽃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책 만들기 • 독서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 평화사당 • 전쟁과 관련된 사진 	밥데기 죽데기 우리는 평화를 꿈꿔요 몽실언니 전쟁
7월 조상들의 삶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만드는 이야기(바리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토론, 캐릭터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독자와 독후 활동 학급표창 	옛 이야기 우리신화 들려주기

월주제	문학 감상활동	독후표현 활동(·) 독서 행사(·)	독서 환경을 위한 준비	읽어주기
9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삶을 찾아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의 현장으로(불새의 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노래)로 표현하기 • 독서 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대회를 위한 준비 • 위인전 1권 사기 • 직업조사(커리어 넷) • 명함 만들기 	도서관 초대받은 어린이들
10월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사는 우리, 우리 말 우리 글 (토끼청설모까지) (우리 말과 글은 이수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하는 글쓰기 • 손바닥 포스터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집, 우리동네의 환경오염조사 • 우리말로 된 간판이나 상표조사 	어느날, 오로지는 내 동생 빼옥이 마지막 거인 우리 말과 글은 -이수열
11월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집의 하루 (엄마는 파업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집의 하루 관찰하고 일기쓰기 • 독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쿵짝지 놀이 • 아름다운 성 이야기 	종이 봉지 공주 폐지책 셋 나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12월, 2월 꿈,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작가를 정하여 모듬별로 함께 읽고 연극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보고서(작가에게) • 모듬별 연극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독자, 독후표현 우수자 표창 	으뜸 해엄이 만년샤쓰 마당을 나온 암탉

2.2.2. 독서 활동 내용

(1) 학급 문고 만들기 (3월 말 ~ 4월 중순까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눈에 띄는 곳에 언제든지 책이 있어야 효과적이다. 권장도서 목록과 안내장을 가정으로 보내 학부모의 도움을 얻거나 학교 도서관의 책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학급문고 운영 : 학급문고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정한 후 도서관 모둠에서 관리한다. 기증된 책의 뒷면에는 읽은 느낌을 쓸 수 있는 용지 ‘나도 이 책 읽었어요’를 붙여 두면 학생들이 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사도 학생들의 독서 상황을 알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책 빌림 카드’를 만들어 하루 이상 빌릴 때 카드에 기록하게 하면 문고 관리에 좋을 뿐 아니라 학급문고에 대한 애착도 더 크게 된다.

(3) 동화 읽어주기

재량 시간, 아침 자습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읽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읽게 하는 것보다 교사가 읽어주면 상상력이 극대화 돼 훨씬 더 쉽게 책 읽는 재미에 빠져들 수 있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읽어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책에 흥미를 갖게 된다. 처음에는 쉽고 재미있는 그림동화와 옛이야기로 시작한다.

(4) 어머니 동화 모임과 책 읽어 주는 부모님

3월 학교 방문 때 ‘어머니 동화 모임’과 ‘책읽어주는 부모님’ 활동을 제안했더니 많은 어머니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4월부터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어머니들과 ‘동화 공부’를 했다. 모임 진행은 살아온 이야기 나누기, 동화 공부(어머니 발표), 토론하기, 아이들 이야기, 한 달 학급 운영 결과와 다음 달 학급 행사 안내, 다음 모임 계획 짜기, 소감 나누기로 했다. 책읽어주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부모님들이 와서 읽어 주었다.

모임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를 떠나 모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마음으로 돌아가 내 아이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교, 공공육의 문제까지 생각을 넓혀갔다.

참여한 어머니들의 소감문과 내용은 학부모 통신 ‘사랑의 징검다리’와 홈페이지에 실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공유하였다. 어머니 동화 모임은 학부모와 교사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또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이 서로 힘을 주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A4용지 한 장 정도 되게 ‘학부모 쪽지’를 만들어 동화 모임 내용을 소개하고 부모님이 읽을 좋은 책과 가정에서 읽어 주기에 좋은 자료를 소개했다.

어머니 동화 모임에 참석한 분들의 소감문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다.

(김재옥 어머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학부모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충격이었고, 항상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생님의 모습과는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선생님의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엄마들의 이런 마음이 어린이들에게도 전해 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생겼다.

(박진성 어머니) 세계명작이라는 동화책 내용들이 서양사람들의 서구중심 동화였다는 것을 모른 채, 그리하여 그 책을 읽는 많은 어린이들이 그 그림 책에 있는 주인공들을 보며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서서히 자리잡을 열등감, 도피심이 생기는 것도 모른 채 책 읽기만 강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나라사람들이 쓴 좋은 책을 어린이와 함께 고르며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표 4> 어머니 동화 모임 활동 내용

월	읽고 공부한 책	활동 및 읽어준 책
4월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발제 및 토론 -종이밥, 내동생 아영이
5월	돼지책,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생일 잔치 참여 -털몽치,
6월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	천연 염색 도우미 -박뚝업이 노는 법
7월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 공부 나쁜 어린이표 (합평)	마무리 잔치 참여 -이 세상엔 공주가 꼭
9월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합평)	학부모 참여 수업 협의 -초대받은 어린이들
10월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	그림책과 함께 하는 음악 수업 -피터와 사냥꾼
11월	동화 이렇게 보세요	학예회 참여 -독후감 숙제, 문제아
12월	몽실언니 (합평)	학년 마무리 잔치 참여 -나니아 연대기 중

(5) 독서 퀴즈 대회

독서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 여전히 글자가 크고 그림이 많은 책이나 만화류의 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다. 이럴 때 교사가 읽고 싶은 책을 읽게 하는 방법으로 독서퀴즈대회를 시도해 보면 지금까지 읽지 않으려 하던 책도 독서퀴즈대회를 위해 읽게 되고 나중에는 책의 재미에 빠져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퀴즈대회에 필요한 것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학급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 ① 필요한 준비 기간 : 3~4주 정도 책을 읽고 문제를 내며 준비하게

한다. 준비 기간 동안 교사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독서 상황을 확인하며 관심을 유도해야 하는데 게시판에 독서 상황을 점검하는 표를 붙여두는 것도 좋다.

② 도서선정 : 권장도서나 필독도서 중에서 1주일에 2~3권(총 8~12)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게 정하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과 교사가 꼭 읽고 싶은 책을 함께 선정한다.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책을 읽는 학급분위기가 잡힌 2학기 정도에는 무게 있는 책을 더 많이 선정하여 학생들을 더욱 깊이 있는 독서 활동으로 연결하게 한다.

③ 도서 확보 : 학급문고나 학교 도서관의 책을 빌려서 읽게 해도 좋으나 이런 기회에 책을 한 권 씩 사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④ 퀴즈대회 문제 : 학생들이 읽은 책 중 한 권 당 낼 수 있는 문제수를 정하여 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내게 하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학부형도 문제를 낼 수 있게 하면 좋다. 스피드 퀴즈는 학생들이 낸 문제를 받아서 중요한 용어나 주인공의 이름, 지명 등을 낱말카드로 만든다.

⑤ 퀴즈대회 진행 : 모둠대항전과 개인전으로 할 수 있으나 처음에는 모둠대항전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모둠 친구들이 읽은 책의 권 수도 점수에 포함시키면 좋다.

⑥ 상품 : 모둠상품으로는 모둠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품권(떡볶이 상품권, 교사와 데이트상품권)이나 모둠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매직, 동화책, 싸인펜, 파스텔등)을 준비하면 좋다. 그리고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이나 퀴즈문제를 가장 많이 내고 맞힌 학생에게는 개인별로 시상하는 것도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2.3. 고학년 : 독서지도와 단편동화

5, 6학년 어린이들은 입시체제에 편입되어 매우 바쁜 생활을 한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는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사춘기를 막 시작한 어린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급격한 몸의 변화나 친구와의 갈등과 부모님과 사회에 대한 반항과 같은 감정의 격랑

을 지나게 되고 이런 문제를 각자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쉽게 해결하고 있다(유영진, 2008: 359). 실제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시기보다 자기 주변과 사회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왕성한 지식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기 정체성의 발달 시기³⁾(김상욱, 2003: 166)에 있는 어린이들의 삶을 단층으로 정확하게 포착하여 선명하게 드러내는 단편동화들을 찾아 주제 중심으로 나누어 읽었다. 특히 동시대 문학 작품(단편 동화)이야말로 살아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삶에서 부딪히는 실제 문제를 폭넓고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상욱, 2006: 126)는 데 의의가 있다. 읽는 과정은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활동을 통해 대화를 했다. 집중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모둠별로 토론을 하며 어린이들이 찾아내고 반대하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했다(페리 노들먼, 2001:90).

이렇게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작품을 읽고, 작품에 관해 논의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는 작품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주체이자, 작품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삶의 경험을 반성하고(김상욱, 2003: 155), 자신의 생각을 조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3)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바탕을 둔 에릭슨의 발달이론 중 5단계(12-18세경)는 정체성과 반대되는 역할혼동의 양극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5〉 주제별 단편동화 목록4)

주제	단편동화	출처
사춘기 (이성교제)	청소녀 백과사전	청소녀 백과사전, 낮은산
	착한 아이	또야 너구리의 심부름, 창비
	빨간 열매가 터졌다	일본동화
	우리들의 움직이는 성	짜장면 불어요, 창비
친구관계	친구	지구를 떠나며, 푸른책들
	학급문고 책 도둑 사건	힘을 보여주마, 창비
	다복이가 왔다	힘을 보여주마, 창비
	문제아	문제아, 창비
장애	잇자국	우리누나, 웅진
	해룡이	사과나무밭 달님, 창비
	오뎅이 학교 5학년 2반 이야기	왔다갔다 우산 아저씨, 청년사
평화, 통일	마사코의 질문	마사코의 질문, 푸른책들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네 아버지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
	바닷가 어린이들	바닷가 어린이들, 창비
자아	똥배가 보고 온 나라	똥배가 보고 온 나라, 창비
	가끔씩 비오는 날	가끔씩 비오는 날, 창비
	만년샤쓰	엄마마중, 겨레아동문학선집1, 보리
	하늘을 날다	하늘을 날다, 낮은산
정의	마지막 승리	마지막 승리, 효리원
	하늘은 맑건만	집을 나간 소년, 숲속 나라
	권구 시험	집을 나간 소년, 숲속 나라

4) 초등국어교과 군포모임 ‘오늘이’에서 함께 실천하고 있음.

주제	단편 동화	출처
동물	달려라 바퀴	달려라 바퀴, 바람의 어린이들
	사격장 독구	너만의 냄새, 사계절
	너만의 냄새	너만의 냄새, 사계절
생명	나를 싫어한 진돗개	자존심, 창비
	빼빼기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
	자존심	자존심, 창비
판타지 호러	기다란 머리카락	금이 간 거울, 창비
	돌멩이	신기한 시간표, 보림
	청소함	신기한 시간표, 보림
	주문이 많은 요리점	주문이 많은 요리점, 우리교육
노동	불새의 춤	엄마 없는 날, 웅진닷컴
	사하드	또야 너구리의 심부름, 창비
가족	나비를 잡는 아버지	나비를 잡는 아버지, 창비
	독후감 숙제	문제아, 창비
	작은 엄마	또야 너구리의 심부름, 창비
	희망	또야 너구리의 심부름, 창비
	알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알파벳벌레가 스멀스멀, 문학동네
가상 현실	엄마 몰래 탈출하기	계간창비아어린이 2006년 가을호
	친구를 제공합니다	너만의 냄새, 사계절
	대회명 스티짱	슬만한 아이, 푸른책들

2.3.1. 책 읽기 사례

(1) 텍스트 『청소녀 백과사전』

‘내 나이 올해로 열세 살, 먹을 만큼 먹었다. 나도 마침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 아니 청소녀가 된 것이다.’ 주인공 경은의 말처럼 열세 살 6학년은 어린이가 아니다. 청소년이다 몸과 마음이 부쩍 자라 넘치는 힘을 어찌하지 못할 나이에 다가오는 첫사랑의 감정. 이런 어린이들의 마음과 몸은 아랑곳없이 공부와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들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니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제 때에 제대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어른들은 몸소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이성교제나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걱정과 우려를 나타낸다.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고 터놓고 말하다보면 부쩍 자란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인물들과 맛깔스런 문장이 읽는 재미를 더 해 줄 것이다.

(2) 작가 소개

김옥은 초등 교사로 『학교간 개돌이』를 썼으며, 살아있는 인물을 창조해 내는 능력이 탁월한 작가이다.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로 열세 살 어린이들의 통과의례인 귀 뚫기와 젓가락 테이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성장 과정을 실감나게 풀어내고 있다.

(3) 수업 안

읽기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무슨 데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야기 나누기 · 이성 친구와 교재 한 경험이나 누구 좋아하는 경험 나누기
읽는 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서하며 듣기
읽은 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이 무엇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가락 데이에 생긴 일, 청소녀 백과사전, 우리들의 이야기 · 이야기에서 가장 실감나는 부분 말하기 · 정지 동작으로 연극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감나는 장면을 골라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인물이 되어 정지 동작을 취한다. - 한 사람씩 몸을 건드리면 깨어난 사람은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한마디를 하고 다시 정지 한다. 예)경은이가 초콜릿 상자를 받을 때, 급식 시간 등 · 인물이 되어 일기쓰기/인물에게 편지 쓰기 · 캐릭터 그리기 및 전시하기

(4) 활동 결과



경은이에게

경은아, 안녕? 난 재구라고 해. 곡란초등학교 5학년인데 반말 쓸게.

6학년이 되면 그런 감정이 있을까?

난 5학년이 되었는데도 그런 감정이 없어. 너 그리고 귀 뚫을 때 용기를 얻었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 텐데..... 너는 표현해서 용기가 참 많은 아이야. 나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곤 가족뿐이지만 나중에 그런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어째든 안녕!

2006년 6월 1일 최재구 씀.

애리의 일기(김슬기)

11월 11일 월요일 젓가락 데이

오늘은 젓가락데이다.

어제 내가 좋아하는 성주가 진짜 큰 젓가락 과자 세트를 들고 마술학원을 가고 있었다.

나는 경은이와 “누가 받을까? 받는 사람은 부러움 받겠다.” 하면서 경은이 귀를 뚫으러 갔다.

역시 성주는 젓가락 과자 세트를 가지고 왔다. 담임 쌤이 가져오지 말겠는데. 성주가 내 앞으로 왔다. 그런데 경은이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책상에 폭 엎드려 있었다. 기분이 나빴다.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경은이는 내 친구니까 성주도 내 남자친구다.

점심시간에 내가 성주에게 된장국을 많이 주니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눈물이 났다. 성주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또 성주가 받을 걸어 넘어졌다. 급식판까지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영우가 다 치워주었다. 너무 고마웠다.

경은이와 집에 가면서

“영우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했더니 경은이가 나를 찌려보았다. 그러더니 영우에게 편지를 주는 것이다.

아~ 나의 사랑은 왜 이리 안 되는 걸까?

(5) 활동 의미와 반응

“내 나이 올해로 열세 살, 먹을 만큼 먹었다.” 첫 문장을 읽어주자 어린이들이 “와하하!” 웃었다. “왜?” 하고 물었더니 “꼭~ 배부르다.”고 했다. 어린이들은 이야기에 빨려들어 갔다. 읽어주기 전에 제목을 말하지 않았고 낙서하며 듣기를 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집중을 잘 했다.

“어떤 이성 친구가 좋은가요?” 물었더니 희수가 “잘 생기구요. 친절하고 재미있는 남자요. 슈퍼 주니어처럼.”라고 했다. 여자 어린이들이 “좋아요. 좋아.”라며 맞장구를 쳤다. 남자어린이들은 “재미있고 때리지 않으면 좋아요.”했다. “때린다고?” 우리 어릴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읽어주고 나서 제목 알아맞히기를 했다. 상명이가 낸 ‘우리들의 이야기’가 제일 좋다고 했다. 어린이들이 한 낙서를 보니 캐릭터가 많았고, 귀 뚫기라든지, 초콜릿 선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또 초등학생들의 이성교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토론을 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성교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단 어른을 흉내 내어 키스를 하는 것이나, 22일, 100일 등 여러 기념일을 챙겨가며 부담스러운 선물을 사주는 것은 심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좋아 하는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잘 지켜나가다가 어른이 되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누구를 좋아했던 경험이나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던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어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했다.

어린이들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사랑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랑이란 가장 숭고하고 훌륭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동경의 감정이며,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며, 이 세계를 떠받치는 이상의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폴 아자르(1999: 220)의 말이 떠올랐다.

2.3.2. 토론을 위한 책 목록

순서	책 이름	지은이	내용
1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전래동화	우정 .통일
2	거북이와 토끼	이습우화	용기 .공존
3	원숭이와 꽃신	정휘창	경제자립
4	만년셔츠	방정환	용기, 사랑
5	반장선거	어린이도서 연구회	올바른 선거
6	꼬마독재자	박상규	우정, 민주주의
7	벚꽃과 들멧이	이원수	4.19의거
8	토끼와 원숭이	마해송	전쟁, 사랑
9	살꽃이야기	이현주	통일
10	겨자씨의 꿈	조성자	자아실현, 꿈
11	강아지똥	권정생	사랑, 꿈
12	불꽃의 깃발	이원수	희생, 생명
13	떠돌이 연어의 꿈	손춘익	환경
14	나쁜어린이표	황선미	따돌림
15	다랑리에 사는 민우	장주식	컴퓨터 게임
16	청소녀 백과사전	김옥	이성교제

2.3.3. 활동 후의 평가

(황윤주) 나는 4학년 때와 5학년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4학년 때는 줄글이 싫어서 만화책만 읽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줄글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수호천사 대소동』이다. 그 책은 용기를 주고 나의 힘이 돼주는 책이다. 지금처럼 쭉 나에게 힘이 되는 책과 공부와 관련 있는 책, 지혜로운 책, 내 꿈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작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가는 김종렬 님이다. 책을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 나는 김종렬 작가와 메일을 주고받는다. 김종렬 작가님께 메일을 보내면 기분이 좋아진다. 김종렬 작가는 나쁜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 웃음과 행복을 주는 분이다. 내 꿈이 작가는 아니지만 나중에 크면 김종렬 작가처럼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행복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김일훈) 나는 도서관을 다니며 논술학원과 차이점을 느꼈다. 우선 도서관은 논술학원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 논술학원은 지정된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도서관은 여러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또 학원비 같은 돈도 내지 않고 입장을 할 수 있고 몇 시간을 읽든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도서관의 나쁜 점도 있다. 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 너털너털하게 찢어진 부분이 있어 책을 못 읽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학원과 같이 간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뛰거나 소리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집중하기 힘들다. 하지만 책을 소중히 하고 도서관에서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면 도서관은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김진태) 내 짝 상명이가 『이순신을 만든 사람』을 읽고 재미있다고 했다. 난 4학년 때 계속 만화만 봐서 중독이 된 적도 있었다. 요즘은 『올라무스 무어 시간의 문』과 『이순신을 만든 사람』을 읽었다. 『이순신을 만든 사람』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거북선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반은 친구들끼리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의견이 맞지 않으면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말싸움을 한다. 그래도 책이야기를 할 때 다시 친해졌다.

3. 독서 활동 평가

책 읽기나 문학 수업을 마치면 그 날 쓴 어린이들의 글과 수업 내용을 홈페이지 “함께 만드는 참교육마당”⁵⁾과 네이버 블로그 “동화와 어린이”에 교단 일기 형식으로 올린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평소에 써 둔 교단 일기가 바탕이 되었다.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 ‘되돌아보기’를 하며 어린이들과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 ‘나의 언어’를 ‘교육학적 언어’로 되살려 본다. 독서 활동 기록은 인터넷을 통해 주위 선생님들과 후배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독서 활동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업 중에 어린이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중요하다 싶은 것은 공책에 적어둔다. 3월과 9월은 주로 국어과 말하기, 듣기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변화를 꼼꼼하게 적고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발표 기회를 좀 더 많이 준다. 책 읽기 활동에서 처음에는 집중하여 듣기를 하고 나서하며 듣기, 등장 인물들의 모습 그리며 듣기로 활동을 진행해 간다.

둘째, 책을 읽다보면 어린이들이 책 내용에 끼어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바로 그 부분이 어린이들의 말문이 터지는 대목인데 책 읽기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끼어들기를 자유롭게 받아주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끌어 가고 그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교단일기에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을 하며 어린이들의 모습을 디카로 담는다. 책을 읽고 나서 독후활동 중인 어린이들의 모습이나 그리거나 만들기 혹은 즉흥극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장면을 찍어 홈페이지와 학부모 통신에 알린다. 또 이런 사진으로 교실을 꾸미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다.

5) <http://user.chollian.net/~yeslne>

4. 마무리

다니엘 빼낙(2004: 163-179)의 『소설처럼』에서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연스레 책 읽기에 길들게 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마치 무슨 성벽이라도 두르듯 책에 대한 사전 지식을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읽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담을 주지 말고, 읽고 난 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보태려 들지 말아야 한다. 선부른 가치판단도, 어휘 설명도 문장분석도 작가에 대한 언급도 접어두어라. 요컨대 책에 대한 그 어떤 말도 삼갈 일이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선물과도 같다. 읽어주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다.

무엇보다 교사는 독자가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성향을 살펴 그에 맞는 책을 권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책에 깊이 빠지는 순간 어린 독자는 평생 독자로 자랄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어교육을 위한 초등교사모임(2000),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동화 수업』,
우리교육.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상욱(2006), 『어린이 문학의 재발견』, 창비.

_____ (2003), 『문학교육의 길 찾기』, 나라말.

_____ (2001),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작과 비평사.

서정오(1995),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엄혜숙(2005), 『나의 즐거운 그림책 읽기』, 창비.

유영진(2008), 『몸의 상상력과 동화』, 문학동네.

이상금(1998),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사계절.

김근호(2007), 「독서‘교육’이 위험하다」, 『창비어린이』 가을 10호, 창비.

이송희(2007), 「독서열풍, 어디로 가고 있나」, 『창비어린이』 가을 10호,
창비.

나카가와 오토코, 신명호 옮김(2006), 『그림책은 작은 미술관』, 주니어
김영사.

다니엘 빼낙, 이정임 옮김(2004), 『소설처럼』, 문학과 지성사.

마쓰이 다다시, 이상금 옮김(1996),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한림출판사.

폴 아자르, 햇살과 나무꾼 옮김(2001), 『책·어린이·어른』, 시공주니어.

페리노들면, 김서정 옮김(2001), 『어린이문학의 즐거움』1, 시공주니어.

히로코 사사키, 고향옥 옮김(2004), 『그림책의 심리학』, 우리교육.

<Abstract>

The Book Types and Reading Method According to the Grades of Children Growing With Books

Choi Eun-kyong

This thesis is a study of book types and reading methods according to the grades in elementary school. Setting the purpose as reading in which the new world can be discovered, surprised and have fun inside the book, it has dealt with the cases of practicing reading education by dividing into lower grades, intermediate grades and higher grades.

Because the curriculum of lower grades (grades 1 and 2) is the theme-integrated study, the details of activity after reading picture books according to the theme of each month has been introduced.

Second, the intermediate grades (grades 3 and 4) have been reading books continuously by making classroom library and parent fairy tale club in order to make a fairy tale reading year. We had the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communicate as they constantly shared the fairy tale details by making an appropriate list for the monthly theme.

Third, the higher grades (grades 5 and 6) were taught reading guidance and short fairy tales. The short fairy tales

that capture to clearly reveal the lives of children in higher grades who are in the development period of self identity were read by dividing them based on the theme.

For the last method of reading activity, the language of teacher has been made to come to life again as the 'pedagogical language' by writing an education journal. Also, the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has been accomplished by sharing information by writing on the internet through homepage and calling the parents.

A teacher has to remember that a reader has right to be silent after reading and read the children's book first to be able to share the pleasure to have the insight for recommending the appropriate book after considering the tendencies of each child.

Key words : Types of books for each grade, picture books, fairy tales, reading activity and evaluation, parent fairy tale club.

논술 제자리 찾기

| 주제 발표



우리말교육현장학회

대입 논술 문제 유형 분석*

김슬옹**

<차례>

1. 머리말
 2. 대입 논술 문제의 유형(갈래) 설정
 - 2.1. 제시문 특성에 따른 갈래
 - 2.2. 논제 조건에 따른 갈래
 - 2.3. 논제 성격에 따른 갈래
 - 2.4. 논제와 논술문 성격에 따른 갈래
 - 2.5. 지식 교과와 논제 사고 영역에 따른 갈래
 3. 2008학년도 대입 정시논술 문제 유형 분석
 4. 마무리
- <붙임> 2008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 논술 문제 제시문 모음

<요약>

이 논문은 대입 논술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기준을 세워 모두 14개 유형으로 나눴다. 제시문 유형에 따른 갈래로 (1) 자료제시형(유형1-1), (2) 논점제시형(유형1-2), (3) 자료와 논점 복합형(유형1-3)으로 나눴다. 논제 조건에 따라 폐쇄형 논술과 개방형 논술로 나누고, 폐쇄형은 다시 (4) 소극적 폐쇄형(유형2-1), (5) 적극적 폐쇄형(유형2-2)으로 갈라 보았다. 논제 성격에 따른 갈래로 (6) 논쟁형(유형2-1), (7) 논증형(유형3-2), (8) 설명형(유형3-3), (9) 문제해결형(유형3-4) 등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논술문 성격에 따른 갈래로 (10) 시사형(유형4

* 이 논문은 “김슬옹(2008), 대입 논술 기출 문제 분석론-2008학년도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우리말교육현장학회 공동 주최,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08년 중등 분과 학술발표회 자료집 : 논술 제자리 찾기, 59-90쪽.”을 대폭 보완하여 다듬은 것이다. 날카로운 토론을 해 주신 고용우 선생님과 대학 당국의 입장을 자세히 풀어 주신 최시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

-1), (11) 고전형(유형4-2), (12) 일반형(유형4-3)으로 나뉘었다. 주제와 사고 영역에 따른 갈래로는 특정 교과나 주제, 관점으로 한정하는 (13) 비통합교과형(유형5-1)과 그렇지 않은 (14) 통합교과형(유형5-2)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갈래 틀에 따라 2008학년도 각 대학 문제를 분석하여 대입 논술의 주요 특징과 문제를 밝혀낼 수 있었다.

주제어 : 논술, 텍스트, 담론, 대입논술 기출문제, 논술 유형(갈래), 통합교과형 논술

1. 머리말

논술 교육에서 입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주요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주요 전형으로 설정하자 논술 교육 인기는 거의 광풍에 가까웠고, 2009학년도 전형에선 주요 대학들이 정시 논술을 거의 폐지하자 논술 교육 자체가 시들해졌다.¹⁾

입시 논술의 교육 가치와 효과는 긍정성, 부정성이 선명하게 대립되어 있다. 입시 논술의 부정 측면에 대한 비판이건 긍정 측면 살리기건 먼저 앞서야 할 것은 입시 논술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비평 작업이다.²⁾ 입시 논술의 지나친 비중에 비해 그런 작업은 너무도 미미했다. 논술 시험이 끝나고 대중 일간지에 실리는 몇몇 교육 전문가들의 짧은 비평이 고작이었다. 제대로 된 논문이나 풍성한 비판이 매우 드물었다.

입시 논술 비평 작업은 그 맥락이 복잡하고 중층적인 것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기출 논제 비평은 그런 복잡성을 풀어 줄 수 있는 실마리이거나 가시적인 비평이 될 수 있다. 대학 입시 논술 전략은 1차적으로 논제를 통해 드러나고, 논제를 통해 학생을 비롯한 교육 분야에 가시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대입 논술 문제 유형 분류를 통해 특성과 문제를 분석 비평해 보고자 한다. 대학별 논술시험의 맥락적 의미를 논제를 통해 밝히자는 것이다.³⁾

대입 논술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비평 작업은 김광수(1996)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
- 1) 최근에 논술 교육이 퇴조한 것은 입시 영향 이외에 이명박 정권의 영어 몰입 교육 정책 탓이 더 크다.
 - 2) 필자는 김슬옹·허재영(1995)을 펴낸 이래 각종 저술과 교사 직무연수 강의를 통해 통합교과 논술의 필요성과 강화를 주장해 왔다. 김슬옹(2000나)에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삶 쓰기 통합논술을 강조하였다. 이런 흐름을 실천하고자 학생용으로 다매체 통합교과형 논술서인 송재희·김슬옹(1999)를 통합사고와 독서논술을 강조한 김슬옹(2000가)를 펴냈다. 초등교사용으로는 김슬옹 외(2001)를 펴냈다.
 - 3) 맥락적 접근 방법론에 대해서는 김슬옹(1998)에서, 이를 발전시킨 김슬옹(2005)에서 강조한 바 있다.

〈표 1〉 논술 문제 평가표(김광수, 1996: 2)

평가 항목		5	4	3	2	1
문 제	1. 논술교육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2. 고졸 수준의 이해력에 적합한가?					
	3. 애매모호하거나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4. 주어진 시간에 적당하가?					
	5. 보편적 이상과 가치에 부합하는가?					
	6. 시의성이 있는가?					
	7. 학교 교육과 연관이 있는가?					
	8. 통합교과적인가?					
	9. 제재가 구체적이고 주제와 어울리는가?					
	10. 제재가 수험생에게 친숙한가					
답 안	11.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가?					
	12.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가?					
	13.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가?					
	14. 폭넓은 독서를 요구하는가?					
	15. 암기하여 답하기 어려운가?					
	16. 상투적으로 답하기 어려운가?					
	17.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가?					
	18. 통일된 채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19. 채점자들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가?					
	20. 채점자의 주관성/전문성이 개입되지 않는가?					

위와 같은 평가 전략이 옳고 그름을 떠나 입시 논술 문제에 대해 학술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비평하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김슬용(2000나: 93-114)에서는 이런 비평 작업의 의의와 문제점을 밝힌 바 있다.

입시 논술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기상(1998)에서 언급한 일반적 분류를 따르고 있다. 곧 “단독과제형, 자료제시형, 요약형, 완성형, 작문형, 일반논술형, 통합논술형” 등이다.

이런 분류에서 중요한 점은 요약형이나 서술형, 완성형 등을 논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논술’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논술’을 “논리적인 서술 과정”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논술문’이란 갈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발전하기도 한다. 기존의 ‘논설문’과 차별화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⁴⁾ 이런 전략은 옳지 않다. 이런 전략대로라면 이른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고사형 논술 문제(서술형 문제)를 논술 문제로 수용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그러나 우리가 본고사형 서술형 문제를 논술 문제로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논술 교육의 근본 취지를 흐려놓기 때문이다.

우리가 논술 시험과 교육을 통해 ‘논술’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과 능동적인 관점이나 주장의 구성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지식 중심의 서술형을 논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약형이나 완성형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펼치는 논술이 아니므로 온전한 논술 문제는 아니다.⁵⁾

박순영(1998)에서는 “문제 논술, 상황 논술, 태도 논술, 텍스트 논술(교과 텍스트, 교양 텍스트)” 등으로 나누었다. 이밖에 답안 요구 유형에

4) 논술문과 논설문의 구별 문제에 대해서는 김슬용(2000나: 1장)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5) 요약이나 서술도 객관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사고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대서 ‘준논술형’으로 보거나 논술형 문제의 전단계로 설정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논술 문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최시한 교수는 이런 요약형 문제가 논술 기본 능력을 검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평가 전략으로서는 동의한다. 이밖에 대학별 논술고사의 정체성 문제는 김동환(2008)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따라 “논증 요구형, 탐구 요구형” 논술로 나누었다. 신영삼(2000)에서는 자료 유형과 능력 유형을 결합하여, “동조·심화형 자료와 능력 유형, 분석·비판형 자료와 능력 유형, 이원대립·선택형 자료와 능력 유형, 다원대립·선택형 자료와 능력 유형, 기준·척도형 자료와 능력 유형” 등으로 분류했다. 박종덕(2005: 5-11)에서는 “단독 과제형, 자료제시형(단일 자료 제시형, 복수 자료제시형), 완성형, 확대 반응형, 제한 반응형(분량 제한형, 내용 범위 제한형, 서술 양식 제한형)” 등으로 나눴다. 김재호(2007)에서는 “논리 추론형, 자료 분석형, 사회·역사적 맥락 이해형 인간·문화의 원론적 가치 논의형, 시사이슈 관찰형, 가치관 표출형” 등으로 분류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분류법을 참조하되, 그러한 기존 분류법이 갖고 있는 평면성을 극복하는 다중 복합 분류를 시도한다. 또한 기존 유형 분류는 형식적 분류에 그치고 그 분류의 사회적 함의나 맥락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분류 자체가 의미 부여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한 논제를 다각적으로 분류해 논제의 복합 성격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2. 대입 논술 문제의 유형(갈래) 설정

대입 논술 문제는 대학마다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의 논술 문제는 비슷한 유형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정 대학만의 독특한 유형은 없다.

일반적으로 논술 문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에게 무엇에 대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지시하는 ‘논제(지시문, 설문)’와 그에 따른 ‘제시문’, 그리고 논제에 따른 ‘유의사항’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시문의 성격에 따라 문제를 가를 수 있다. 그리고 논제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시 조건’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논제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갈라볼 수 있다. 제시문과 논제 성격을 합쳐 보면 그것이 고전 논술인지 시사 논술인지 드러난다. 또한 최근 통합교과 논술의 유형에 따라 통합교과형인지 아닌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논술 문제 유형을 갈라내기 위한 기준으로 다

섯 가지를 세울 수 있다. 곧 “제시문 유형, 논제 조건, 논제 성격, 논제와 제시문 성격, 통합교과/비통합교과” 등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하위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 장에서는 유형별 특성과 예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2008년도 문제만을 종합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종합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련의 유형 번호를 다음과 같이 붙인다.

<표 2> 입시 논술 논제 유형 분류표

기준		갈래	유형 분류
1	제시문 성격	자료제시형	[유형1-1]
		논점형	[유형1-2]
		자료와 논점 복합형	[유형1-3]
2	논제 조건	소극적 폐쇄형	[유형2-1]
		적극적 폐쇄형	[유형2-2]
3	논제 성격	논쟁형	[유형3-1]
		논증형	[유형3-2]
		설명형	[유형3-3]
		문제해결형	[유형3-4]
4	논제와 논술문 성격	시사형	[유형4-1]
		고전형	[유형4-2]
		일반형	[유형4-3]
5	통합교과 여부	비통합교과형	[유형5-1]
		통합교과형	[유형5-2]

2.1. 제시문 특성에 따른 갈래

입시 논술에서는 제시문 없이 논제를 제시하는 단독과제형은 거의 없다. 대개는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을 제시한다. 제시문의 성격을 보면, 자료제시형이나 논점제시형이나로 나눌 수 있다. 제시문 전체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을 섞은 자료와 논점 복합형이 있다.

[유형1-1] 자료제시형 논제

아래 주어진 12개의 제시문 중 일부를 선택한 후,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룡 멸종의 가능한 원인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가설을 세워 이를 논술하시오. 또 본인이 기술한 가설 중 한 단계라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시오. _성균관대 2007 자연계

【제시문 1】

메릴랜드 대학의 기상학자 앨런 로보크가 제시한 「1988년 미국 서부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에서 나온 연기가 대기 역전층에 의해 북캘리포니아와 남오리곤의 몇몇 계곡 위에 체류하면서 그 후 3주간 계속 그 지역에 모여 있었다고 한다. 그 화재로 인해 주민들의 호흡기 문제가 야기되면서 4백 명 이상의 주민들이 매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기로 인한 냉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2~3주 동안 매일 계곡 바닥의 최고 기온이 보통 때보다 약 5℃ 이상씩 떨어졌으며, 가장 최악의 주간에는 평소보다 15℃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약 200계급킬로미터의 산림이 불타버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나머지 제시문 생략)

[유형1-2] 논점 제시형

다음 두 제시문의 공통된 논지를 추출하고, 그 의미에 대해 논술하라.

[가] 토인비, 『역사의 연구』

[나] 이근,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경제』 _서강대 2007 수시 1학기

[유형1-3] 자료와 논점 복합형

사례 <A>, , <C>는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경쟁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제시문 <1> ~ <7>을 참고할 것)

_서울대 2006

【사례 A】 / 【사례 B】 / 【사례 C】

【제시문 1】 개럿 하딘, 『공유의 비극』

【제시문 2】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제시문 3】 요제프 A. 슈페터,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제시문 4】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제시문 5】 존 롤즈, 『사회정의론』

【제시문 6】 오토 슐레히트, 『사회적 시장경제』

【제시문 7】 리스본 그룹, 『경쟁의 한계』

자료제시형은 분석 대상용 자료만 제시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나 이면적 의미를 정확히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유형이다.⁶⁾ 논점제시형은 다양한 주제의 제시문을 주고 논제 해결을 요구하는 논술로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관건이다. 제시문이 대개 여럿 주어지므로 통합 요약과 통합 분석 능력이 아주 중요한 유형이다. 자료와 논점 복합형은 자료 제시문과 논점 제시문을 함께 주고 논제 해결을 요구하는 논술문으로 특정 유형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양한 자료나 제시문의 맥락적 의미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구성능력이 필요하다. 자료와 논점을 교차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유형이다.⁷⁾

2008 정시 논술에서는 자료만 제시한 논제는 없었다. 다음 한양대 문제처럼 논점을 담은 제시문과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교과 통합이나 통합적 사고력을 지향하는 제시문 구성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제시문 구성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통합교과형이라는 것은 아니다.

【문항 3】 문화 소비에 대한 지문 [가], [나], [다]에 나타난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시오. 그리고 지문 [라]에서 제시된 도표를 활용하여 학자 B와 C가 학자 A의 견해를 각각 어느 정도 타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논술하시오 (900~1000자, 50점) _한양대 2008 인문계

[가] 학자 A는 사회 계급 간에는 문화 상품 소비 방식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다시 말해, 계급 간에는 각각의 독특한 문화 소비 취향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은 우연적이고 자생적인 개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이 소속된 사회 계급의 구조적 속성을

6) 넓게 보면 제시문 그 자체가 어떤 성격이든 논제 해결을 위한 자료다. 여기서는 ‘자료’를 좁게 보아 주장이나 관점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객관적 자료에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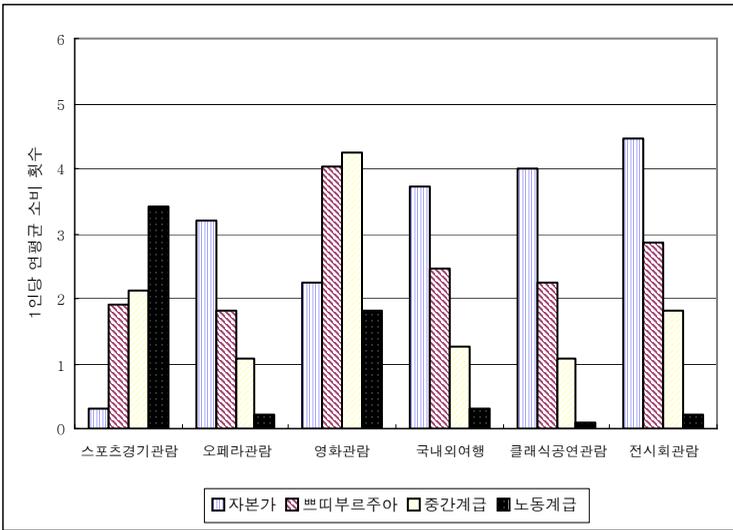
7) 제시문 성격은 지시문과의 결합 맥락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되도록 지시문이나 유의사항에 관계없이 제시문 그 자체의 성격에 치중했다.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문화 상품 소비에 있어서 개인의 선호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각과는 구별된다. 대신에, 학자 A는 개인의 선호도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문화 상품의 소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지만, 개인의 취향은 다시 그 개인이 소속된 사회 계급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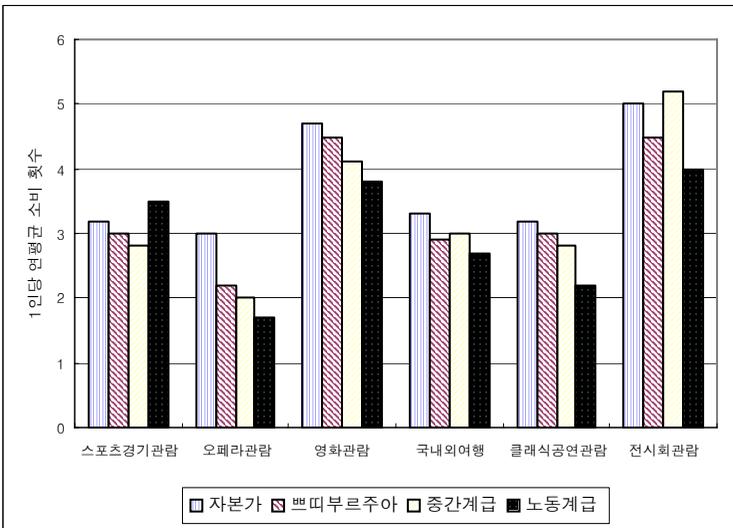
[나] 학자 B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사회 계급 간 문화적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문화 상품 소비 유형과 생활 양식은 개인이 소속된 사회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디어와 거대 문화 자본 등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고 한다. 예컨대, 사회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많이 확보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문화와 정보 격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본다. 문화 관련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에 따른 글로벌 문화 자본의 팽창도 국가 간 문화 상품의 유통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학자 B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 경제와 문화의 세계화, 이민을 포함한 인적 교류의 증가, 국가 간 교역의 확대와 함께 글로벌 체제를 공고히 하며, 문화 소비의 동질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다] 학자 C는 생활 수준의 향상, 생활 양식의 다원화, 계급 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한 문화 소비의 개인주의화 추세가 문화 소비를 다양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소득 증가와 여가 시간의 확대, 가족 구성의 변화, 고령화, 고용 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문화 소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 소비의 다양화란 개인이 소비하는 문화 상품의 종류가 증가되는 한편, 동일한 문화 상품의 범주 내에서도 개인별로 더욱 세분화된 문화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이다. 학자 C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의 문화 소비가 계급적 종속 구조를 탈피하면서 문화 소비의 다양화가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라] ① 1960년대 P국가의 사회계급별 문화 소비 실태



② 2000년대 P국가의 사회계급별 문화 소비 실태



이 논제는 아예 학자에 따른 의도적 논점을 담은 세 제시문과 통계 전문 자료를 통합 교차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 논제 조건에 따른 갈래

논제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이고 권력이다. 논제는 특정 문제에 대해 대학 당국이 학생들에게 묻는 것이지만 그 의미와 사회적 가치는 매우 높다. 특정 조건으로 한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고 편차는 매우 크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폐쇄형 논제와 개방형 논제로 나눌 수 있다.

제시문 없이 지시문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논제는 특정 제재나 소재에 대하여 자유로운 개인 의견 진술이 가능한 논술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논술 논제처럼 제시문 없이 ‘종교적 자유’와 같은 포괄적 제재만 주어지는 논제 유형이다. 개방적인 만큼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제시문이 주어지는 폐쇄형은 읽기와 쓰기를 결합하려는 전략도 있다. 개방형도 제시문이 가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읽은 수많은 텍스트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개방형 유형을 비가시적 텍스트 유형으로 설정한 바 있다.⁸⁾

한국과 같이 제시문이 주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폐쇄형이다. 제시문 그 자체가 사고 제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폐쇄 정도에 따라 소극적 폐쇄형과 적극적 폐쇄형이 있다. 소극적 폐쇄형은 자료나 제시문만 주고 특정 관점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논술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적극적 폐쇄형은 자료나 제시문을 제시할 뿐 아니라 특정 방향이나 관점으로 한정하는 논술을 말한다. 특정 관점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 논술 훈련 과정에서 유용하지만 일반적인 자유로운 생각 쓰기로써의 논술로는 적합하지 않은 유형이다.

[유형2-1] 소극적 폐쇄형 논제

*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서구의 가치는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14~16줄(350~400자) 분량으로 논술하시오. (30점) _동국대 2006 정시

[가] 존 로크,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나] 레비-스트로스, 『슬픈열대』

8) 필자는 최근 몇 년간 각종 연수원 직무 연수에서 논술 강의를 해 오고 있다.

[유형2-2] 적극적 폐쇄형 논제

* 다음 제시문은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다. 이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제시하시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관점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논하시오. _춘천교대 2006 정시

춘천 교대 문제는 대립된 관점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 제3의 관점도 가능하지만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 폐쇄형이다. 이에 반해 동국대 문제는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구의 가치가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지하든 반대하든 상관이 없다.

논제 설정에서 과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적극적 폐쇄형이다.

* 글 [가]는 모계(母系) 중심적 사고의 그리스 창조 신화로서, 고대 인류가 이 세계의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신화적 사유방식에 의지하여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다. 글 [나]는 김춘수 시인이 초현실주의 미술가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을 모티브로 하여 초현실적 세계를 사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하게 표현해낸 시이다. 글 [다]는 모더니즘 작가 카프카의 작품 『변신』으로, 인간이 벌레로 변해버린 상황을 마치 현실처럼 그려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화학자들은 예술적 또는 종교적 상상(想像)의 근원(根源)을 고대 인류의 신화적 사유방식에 근거한 세계 이해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첫째,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고대 인류의 신화 이야기와 현대 작가의 초현실적 세계 묘사는 표현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논하고, 둘째, 구체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화 이야기 또는 초현실적 세계 묘사가 이른바 이성적, 논리적 사유에 기초한 문명세계에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고 나아가 전율을 일으키기도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50자 ~ 500자) _덕성여대 2008 정시 인문

위 논제는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첫째,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고대 인류의 신화 이야기와 현대 작가의 초현실적 세계 묘사는 표현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와 같

이 출제자의 특정 관점을 전제로 깔아 학생들의 사고 영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폐쇄형은 특정 관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자유로운 사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논술 문제이다. 논술 훈련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비판력 등의 자유로운 사고력을 통합적으로 물어야 하는 최종 시험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반사고력 논술, 반통합논술 유형이다.

2008학년도 논술 시험에서 급증한 서술형 문제도 대부분 이런 유형이다. 제시문과 제시문의 교차 분석이나 통합 분석을 통해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준이나 관점의 응용이나 적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통합논술 유형(?)은 거품에 가깝다.

2008학년도 논술은 대부분 서술형이다. 서술형은 논술형의 적극적 폐쇄형과 마찬가지로. 논술형 문제 가운데에서도 적극적 폐쇄형이 훨씬 많았다. 평가를 엄격하게 하거나 공정하게 하기 위한 전략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생긴 문제들이다.

[연세대/정시/인문/문제2]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 가지 관점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를 적용하여 현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논의하시오. 아울러 그 관점을 선택한 근거와 그 관점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를 밝히시오. (30점, 800자 내외)

[숙명여대/정시/인문/문제5] [나]와 [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과 문제를 요약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분량: 500자±50자)

연세대 문제는 민족 정체성 문제를 특정 방향으로 한정하도록 했고, 또한 한계를 출제자 의도대로 한정하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적극 폐쇄형이다. 숙명여대는 특정 문제를 제시하였으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소극적 폐쇄형이다.

2.3. 논제 성격에 따른 갈래

논제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논쟁에 끼어들게 하는 논쟁형 논제, 논증 위주의 논제, 설명 위주의 논증을 요구하는 설명형 논제, 문제해결 위주의 논제 등이 있다.

논쟁형 논제는 대립된 논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묻는 논술로 토론형 사회 문제나 보편 문제에 적합한 유형이다. 자신의 논점이나 주장을 분명히 하되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립된 논점이 아닌 제3의 견해를 허용하는 논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한 유형이다. 다만 입시 논술에서는 대립된 논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경우가 많아 제3의 견해가 수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논쟁형 논제는 어느 한 쪽 견해를 쫓아 상대편 주장을 반박하는 논제이나, 일종의 변증법적 전개 방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반된 두 주장(정 ↔ 반)을 살펴본 후, 이를 절충·조화한 제3의 견해(합)를 제시하는 방법이나가 관건이다.

논증형 논제는 보통 사회적으로 타당성,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치 규범에 대하여 그 타당성, 당위성, 중요성, 혹은 의의 등을 증명하는 유형이다. 일종의 논문형이므로 차분한 논리 전개가 중요한 유형이다.⁹⁾

설명형 논제는 어떤 주장이나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그 주장이나 개념에 대하여 나름대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논술이다.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되 자신만의 관점을 적용하는 논술이다. 객관적 설명으로 흐르면 설명문이고 자기만의 설명 전략이나 관점을 세우면 논술문이 된다.

문제해결형 논제는 주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도록 요구하는 논술로 목표 지향형 논술이라고도 한다. 삶 자체가 문제의 연속으로 보면 가장 흔한 유형이 될 수 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실제 예는 다음과 같다.

9) 이 논제는 쓰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더욱 세분화시킬 수 있다. 연역 논증형과 귀납 논증형이 있다. 연역 논증형은 일반적인 명제를 토대로 하여 특정한 개별 명제를 유도하는 글의 전개 방법이다. 즉,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적 상황으로 논리의 폭을 좁혀가는 전개 방법을 적용한 논술이다. 이에 반해 귀납 논증형은 개별 명제를 전제로 하여 일반 명제를 추론해 내는 글의 전개 방법이다. 귀납적 전개 방법은 경험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를 도출해 내는 방식을 적용한 논술이다.

[유형3-1] 논쟁형

* 다음 글 [가]와 [나]에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해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윤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50점>

_부산대 2006 정시

[가], [나] 생략

[다] 제나라 환공(桓公)이 어느 날 당(堂)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목수 윤편(輪扁)이 당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망치와 끌을 놓고 당 위를 쳐다보며 환공에게 물었다.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책은 무슨 내용입니까?”

환공이 대답하였다.

“성인(聖人)의 말씀이다.”

“성인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환공이 대답하였다.

“벌써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이군요.”

환공이 벌떡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바퀴 만드는 목수 따위가 감히 시비를 건단 말이냐. 합당한 설명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편이 말하였다.

“신(臣)의 일로 미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굴대가 험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뻑뻑하여 굴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게 정확하게 깎는 것은 손짐작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입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깎고 덜 깎는 그 어름에 정확한 치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신이 제 자식에게 깨우쳐 줄 수 없고 제 자식 역시 신으로부터 전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흔 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수 수레를 깎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책에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이 옛사람들의 찌꺼기일 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형3-2] 논증형

* [가]글에 제시된 분노에 대한 견해를 참조하여 [나]글의 순정공과 [다]글의 달라이 라마가 분노에 대응한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히시오. _건국대 2006 수시2 인문계열

[가] A. C. 그레일링의 『존재의 이유』에서 발췌하고 부분적으로 수정

[나] 『삼국유사』에서 발췌

[다] 달라이 라마와 빅터 쉐의 『용서』에서 발췌하고 부분적으로 수정

[유형3-3] 설명형

* 글 [가]의 방식에 의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집단을 글 [나]의 방식으로 조사해 보니 낮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립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5점) 답안지 6~8줄 _중앙대 2007수시 1학기

[유형3-4] 문제해결형

* 제시문 [가] - [마]는 인문학에 관련된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제시문 [가] - [라]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나름대로 구분한 후, 이를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마]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_경희대 2007 수시 1학기

[예시문]

[가] 김인걸, 대담 “인문학 위기인가”에서 발췌

[나] 사이드(Edward Said), 대담 “문화의 시대를 대표하는 비평가들”에서 발췌

[다] 백승균,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에서 발췌

[라] 한국일보, 2006년 7월 29일

[마] 송복,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서 발췌

부산대 2006 정시 논제는 반론을 통해 논쟁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건국대 2006 논제는 논쟁과 관계없이 특정 문제에 대해 차분한 논리와 논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대 문제는 특정 자료 결과에 대한 해석과 활용 방안을 설명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술형처럼 직접 ‘설명하시오’라고 요구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서술형으로 분류된

다. 여기서는 설명 요소가 강하게 설정되어 있는 유형을 말한다. 경희대 2007 논제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2008학년도 논술에서는 네 가지 유형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경희대/정시/인문] 다음 [가], [나], [다]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세 제시문 각각의 입장에서 [라]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현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401자 이상 1,500자 이하)

[숙명여대/정시/공통/문제3] [라]의 표에 나타난 OECD 9개국 일반인의 평균 인식은 ‘윤리, 사회 책임경영과 이윤창출을 절충해야 한다’가 가장 높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윤리, 사회 책임경영과 이윤창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지 [가], [나], [다]의 논지를 모두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분량: 800자±80자)

[숭실대/정시/인문/문제3] 제시문 (A), (B)를 참조하여 아래 글 [바], [사], [아]의 서술 형식에서 비롯된 효과를 비교·대조하시오. (700±50자, 40점)

[한양대/정시/인문/문항2] 지문 [가]와 지문 [나]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문 [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400~500자, 25점)

경희대 문제는 가족에 대한 쟁점에 개입하기를 요구하고 숙명여대 문제는 조화 방식에 대해 논증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숭실대 문제는 비교·대조의 틀로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한양대는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써야 한다.

2.4. 논제와 논술문 성격에 따른 갈래

특정 주제나 제재의 관심도에 따라 시사 논제와 고전 논제로 나누고 그런 논술이 아닌 것은 일반 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시사 논제는 시사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해결을 요구하는 논제 유형이다. 최근 사회적 정치적 사건이 논점이 된다. 시사적 사건이라도 그 문제에 대한 보편적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시사 문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일 수 있다.

고전 논제는 고전의 보편적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해결을 요구하는 논술 유형이다.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접근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보편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시사나 고전이 아닌 일반적인 논제에 대한 생각이나 해결을 요구하는 논술 유형이다. 시사와 고전을 특별히 표방하지 않는 한 일반 논술에 속한다. 어떤 문제든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잡아내는 구체적인 문제설정 능력이 필요하다.

[유형4-1] 시사 논제

*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性比) 변화와 관련된 자료다. [나]의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가]의 통계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 원인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가] 우리나라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 - 통계청, 『인구 동태 통계 연보』

[나] “태아 성감별 의사 첫 구속”(○○일보 1996. 10. 2.) _숙명여대 2006 정시

[유형4-2] 고전 논제

* 제시문 [가], [나]를 활용하여 ‘노동’과 관련한 [다]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가-1] 아우구스티누스, 『창세기 축자 해석』에서

[가-2] 제3차 유엔 총회(1948), 「세계 인권선언」에서

[나-1] 조세희,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서

[나-2] 시몬느 베이유, 『노동일기』에서

[다-1] 엘빈 토플러, 『전망과 전제』에서

[다-2]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에서 _서강대 2006 정시 논술

[유형4-3] 일반 논제

* 다음 제시문(이승인, 「애추석사(哀秋夕辭)」에서 발췌하고 부분 수정)의 ‘나’와 ‘옥황’은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두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800자 ± 100자) _서울여대 2007 수시

숙명여대 2006 정시 문제는 출생 성비라는 시사 사건에 대해 원인과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시사 논술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 준다. 서강대 2006 논제는 ‘노동’이라는 고전 주제에 대해 역시 고전 제시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쓰는 논제이므로 고전 논술을 지향했다. 이에 반해 서울여대 2007 논제는 시사성이나 고전성을 특별히 표방하지 않은 일반 논제다. 실제 논술 과정에서는 시사나 고전형이 될 수도 있지만 가시적으로 표방한 논제 조건은 일반적이다.

2008학년도 문제에서는 전형적인 고전 논제는 없었다. 시사 논제이거나 일반 논제 유형이 많았다.

[경희대/정시/자연] 다음 [가], [나], [다], [라]는 주어진 특정 조건에서 크기 혹은 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각 제시문에 기술된 변화의 수학적 형태를 추론하는 과정과 그들 간의 공통적인 변화원리를 제시하고, [마]에 나타난 석유 생산량 증가가 이 원리를 따른다고 전제할 때, 현재의 석유 가채매장량이 완전히 고갈되는 년수(年數) 추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또한, [바], [사], [아]를 참고하여 에너지를 포함한 포괄적 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인류가 현 시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논술하십시오. (1,201자 이상 1,500자 이하)

[한양대/정시/인문/문학 2] 지문 [가]와 지문 [나]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문 [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400~500자, 25점)

경희대 문제는 에너지 고갈에 대한 시사 논제를 다루었다. 한양대 문제는 특별한 시사성을 띠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전적 주제나 제시문

을 활용한 것도 아니어서 일반 유형이다.

2.5. 지식 교과와 논제 사고 영역에 따른 갈래

논제 요구 조건이나 제시문 성격에서 특정 교과나 사고로 한정하느냐 다양한 교과 통합을 지향하느냐 따라 비통합교과형과 통합교과형으로 나눈다.¹⁰⁾ 비통합교과형은 특정 교과나 특정 주제를 표방한 논술 유형이다. 특이성 전략 차원에서 각 교과나 주제별 지식을 쌓고 토론하는데 좋다. 특정 교과나 주제를 표방한다 해도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지 다른 지식이나 주제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다시 특정교과형과 특정주제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교과형은 교육 과정상의 특정 과목만의 특수성을 위한 논술 유형이다. 특정 주제형은 특정 주제로 한정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논제이다.

통합교과형 논제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교과형과 사고력 중심의 통합교과형이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거시적인 통합 능력과 미시적 분석능력 모두 필요하다. 이 유형도 주제별 논술(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지식 영역을 넘나들게 하는 논술)과 사고력 논술(어떤 주제든 통합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논술)로 나눌 수 있다.

[유형5-1] 비통합교과형 논제

* 다음 제시문은 웃음의 유발과 관계된 것이다. 각각의 경우 웃게 되는 이유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적절한 예를 통해 그와 같은 웃음의 사회적 기능을 논술하시오. (1,700자 안팎으로 쓰시오.) _연세대 2004

[가] 아리스토파네스, 『구름』

[나] 라블레, 『광타그뤼엘의 아버지인 위대한 가르강튀아의 소름끼치는 이야기』

[다] T. 코헨, 『조크: 조크에 대한 철학적 사고』

[유형5-2] 통합교과형 논제

* 제시문 [1], [2], [3]을 연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어, 그 주제

10) 최운선·김슬옹·성대선·조일영 편저 (2008: 292)에서는 통합논술을 “체험, 사고력, 지식, 언어능력의 연계성을 강화시킨 논술”로 보았다. 통합논술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김슬옹 강의 통합논술 60차시 연수 프로그램(유니텔원 격연수원 www.teacher.co.kr, 교원캠퍼스 www.teacher21.co.kr) 참조.

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_고려대 2006 수시 2 자연계

[1] 한국 전쟁 기간 중에 나는 종군하여 철원에 간 적이 있었다. 격전이 막 끝난 철원 시가는 완전 폐허였다. 길만 훤히 트인 시가지 도처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길을 따라 걷던 나는 문득 타 죽은 닭을 보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닭은 선 자세로 타 죽어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나는 무심코 발로 닭을 건드려 보았다. 그랬더니 그 닭의 날개 밑에서 병아리 몇 마리가 빼악거리며 나왔다. 죽은 어미 닭을 버려둔 채 종종거리는 병아리를 보며 나는 코가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유한하다. 억만 겁의 흐름 속에서 어렵고 어려운 인연을 얻어 태어난 생명은 그 태어남의 영겁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무상(無常)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세상 영겁의 흐름도 결국은 무상의 연결을 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원과 무상은 서로 별개인 채 대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실재는 무상하고 영원이란 그 많은 무상들이 통섭(統攝)되어 이루어진다.

무상들이 이어져서 영원을 기약한다고 할 때, 각각의 무상이 시공간상에서 차지하는 기능은 바로 영원과 맞먹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원이란 무상과 무상이 앞뒤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상과 무상의 전후 연결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지속적 구분에만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식과 생존이라는 실재에서 무상과 무상의 연결은 앞서 태어난 생명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의 연속이므로 생명은 어디까지나 고립된 존재일 수 없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나와 남이 만나는 교섭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세상에서 유한한 생명이 무한으로 연결되는 길은 우선 남녀가 결합해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열리게 된다. 무상과 무상은 시간적 전후 계승에 앞서 공간적인 자타(自他)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남녀의 결합으로 이룬 부부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다. 자녀는 현재를 미래로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자녀가 성장하여 저마다 짝을 찾아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로 다가와 끊임없이 생을 이어간다. 따라서 생식이란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자기의 희생이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그러한 자기희생을 겪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미래생(未來生)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유한한 자기는 자녀를 통해서 무한하게 존속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의 현재생(現在生)에서 자녀의 미래생(未來生)으로 연결되는 과정과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리 강인건실(強韌堅實)한 것도 아니요, 더욱이 어린 생명은 그 스스로 생을 영위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부모한테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희생이란 생식에서 그치지 않고 보육(保育)까지 연장된다.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희생을 발판으로 현

재성을 굳건히 점유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한다. 자녀가 현재의 점유자가 되었을 때 부모는 과거로 밀려가고 그들의 무상은 끝을 맺는다.

[2] 개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개체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현상을 일컬어 이타적이라고 한다. 생물학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체의 희생을 자연선택의 결과로 본다. 자연선택에 의한 어느 개체의 자손 감소는 같은 집단 내의 다른 개체들의 자손 증가를 촉진한다. 따라서 어느 개체의 자손 감소가 결과적으로는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오므로 이타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체의 희생으로부터 수혜를 입는 범위는 가깝게는 친족으로부터 멀게는 그 친족을 포함하는 종족까지 확산된다. 친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혈연관계에 있는 어느 개체의 희생은 친족의 내적 결속을 강화하는 이타적인 행동이다. 반면에 그 희생은 혈연이 아닌,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친족의 이기주의에 기여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적 관점을 취하는 근래의 유력한 생물학 이론에 따르면 한 개체의 희생이 미치는 수혜의 범위가 혈연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족이라는 포괄적인 수준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다만 희생하는 개체가 수혜자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비례하여 이타적 행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감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체의 희생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해 이기적으로도 이타적으로도 보일 수 있다. 혈연적으로 다른 집단들에 대해 이기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희생이 유전자라는 포괄적인 시각을 취하면 이타적이 되는 것이다. 유전자는 개체의 이타주의를 통해 존속하며 그로써 같은 유전자를 보유한 종족의 번식이 가능해진다.

[3] 포식자를 발견한 땅다람쥐는 예외 없이 뒷다리로 서서 소란스러운 경고음을 낸다. 침입자의 주의를 끌어 주변의 다른 땅다람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고음을 낸 땅다람쥐가 침입자에게 잡아먹히는 대가로 다수의 다른 땅다람쥐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심지어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는 어린 땅다람쥐조차 동일한 행동을 취한다. 죽음을 자초하는 땅다람쥐의 행동은 개체 선택의 관점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 땅다람쥐가 경고음을 내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하는 것은 결코 무모한 선택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개체의 희생을 통해 같은 유전자를 지닌 종족의 보존과 번식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당까마귀의 서식지는 유라시아 대륙에 두루 분포한다. 당까마귀는 군거성이 강해 무리를 지어 살면서 목초지에서 유충을 잡아먹는다. 해마다 봄이 되면 당까마귀 떼는 산란과 부화를 위해 높은 나무 위에 집단적으로 둥지를 튼다. 다수가 군락을 이루어 살면서도 당까마귀들은 별다른 충돌 없이 서로서로 잘 지낸다. 당까

마귀 떼가 등지를 뜬 숲에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란스런 지저귀이 씬 없이 들린다. 당까마귀들이 장난치고 짹을 짓기 위해 각각대며 서로를 불러대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신경이 거슬린 사람들은 당까마귀 떼를 ‘까마귀 의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말 의회라는 이름에 합당할 만큼 당까마귀 떼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당까마귀들은 최적의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 산란의 양을 조절하기까지 한다. 같은 무리 속의 모든 당까마귀들은 마치 의논이라도 한 듯 그들의 산란능력보다 적은 수의 알을 낳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최적의 개체 수가 유지됨에 따라 당까마귀가 굶주림으로 폐죽음을 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연세대 정시 문제는 웃음에 대하여 특정 주제(사회)로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통합교과형이다. 웃음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 다양한 교과 지식을 끌어 오게끔 하였다면 통합교과로 볼 수 있으나 이 문제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지 않다. 고려대 2006 문제는 세 제시문을 연결하는 주제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제를 학생들로 하여금 찾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시문도 여러 교과를 넘다드는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합교과형 논제로 볼 수 있다.

통합교과 논술이나 아니냐는 논제 조건, 제시문 설정 맥락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야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 교과 지식의 결합이나 횡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와 사고를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를 주로 보았다. 결국 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사고를 전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이 점은 여기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¹¹⁾ 이런 잣대로 보았을 때 2008학년도 정시 논술은 대부분 비통합교과형이었다.

11) 김중신(2007)에서는 통합교과형 논술을 학생 답안 작성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원진숙(2007)에서는 평가 측면에서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최시한, 김동환 선생님께서는 실제 체험 경험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으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3. 2008학년도 대입 정시논술 문제 유형 분석

2008학년도 대입 정시 논술 문제를 공개한 대학 문제만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²⁾

<표 3> 2008학년도 대학 정시 논술 유형 분석

학교		유형	제시문 성격	논제조건	논제성격	시사 고전 외	통합교과 여부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경희대	인문		유형1-3	유형2-1	유형3-1	유형4-1	유형5-2
	자연		유형1-3	유형2-1	유형3-3 + 유형3-4	유형4-1	유형5-2
고려대	인문	문항1	요약 서술형				
		문항2	설명 서술형				
		문항3	유형1-3	유형2-1	유형3-3 + 유형3-4	유형4-1	유형5-1
	자연	문항1	설명 서술형				
		문항2	설명 서술형				
		문항3	설명 서술형				
		문항4	설명 서술형				
		문항5	설명 서술형				
	덕성여대	공통1	문제1	설명 서술형			
문제2			설명 판단 서술형				
공통2		문제1	설명 서술형				
		문제2	판단 서술형				
인문1		문제1	설명 서술형				
		문제2	판단 서술형				
		인문2	유형1-2	유형2-2	유형3-3	유형4-3	유형5-1
사회1		문제1	설명 서술형				
		문제2	판단 서술형				
사회2		문제1	설명 서술형				
		문제2	판단 서술형				
자연1		문제1	설명 서술형				
		문제2	설명 서술형				
자연2		문제1	설명 서술형				
	문제2	설명 서술형					

12) 학술 발표 때는 수시도 분석하였으나 정시와 정도 차 정도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 본 논문에서는 뺐다.

숙명여대	공통	문제1	요약 서술형					
		문제2	설명 서술형					
		문제3	유형1-3	유형2-1	유형3-2	유형4-1	유형5-1	
	인문	문제4	설명 서술형					
		문제5	유형1-2	유형2-1	유형3-4	유형4-3	유형5-2	
	자연	문제4	설명 서술형					
문제5		설명 서술형						
승실대	인문	문제1	유형1-2	유형2-2	유형3-3	유형4-3	유형5-1	
		문제2	유형1-3	유형2-2	유형3-3	유형4-3	유형5-1	
		문제3	유형1-3	유형2-2	유형3-3	유형4-3	유형5-1	
	자연	문제1	인물계열 문제 1과 같은					
		문제2	설명 서술형					
		문제3	(1)	* 회로도 그리기				
(2)	설명 서술형							
연세대	인문	문제1	추론 서술형					
		문제2	유형1-2	유형2-2	유형3-2	유형4-3	유형5-1	
		문제3	설명 서술형					
	자연	문제1	설명 서술형					
		문제2	추론 설명 서술형					
		문제3	3-1	추론 설명 서술형				
3-2	추론 설명 서술형							
한양대	인문	문제1	유형1-3	유형2-2	유형3-4	유형4-1	유형5-1	
		문제2	유형1-2	유형2-2	유형3-4	유형4-3	유형5-1	
		문제3	유형1-3	유형2-2	유형3-2	유형4-1	유형5-1	
	자연	문제1	1-1	설명 서술형				
			1-2	추론 설명 서술형				
		문제2	설명 서술형					
		문제3	3-1	설명 서술형				
			3-2	설명 서술형				
		문제4	4-1	설명 서술형				
			4-2	설명 서술형				

서울대	자연	문항1	논제1	①	설명 서술형				
				②	설명 서술형				
			논제2	설명 서술형					
				논제3	설명 서술형				
		문항2	논제1	설명 서술형					
			논제2	판단 서술형 + 설명 서술형					
		문항3	논제1	설명 서술형					
			논제2	설명 서술형					
			논제3	설명 서술형					
	문항1	논제1	1-1	설명 서술형					
			1-2	설명 서술형					
		논제2	설명 서술형						
		논제3	3-1	설명 서술형					
			3-2	추론 서술형					
		논제4	추정 서술형						
		논제5	유형1-1	유형2-2	유형3-3+9	유형4-1	유형5-1		
	문항2	논제1	설명 서술형						
		논제2	추론 + 설명 서술형						
		논제3	추론 설명형						
		논제4	추론 설명형						
		논제5	추론 설명 서술형						
		논제6	설명 서술형						
	문항3	논제1	추론 설명 서술형						
		논제2	추론 설명 서술형						
		논제3	추론 설명 서술형						
		논제4	설명 서술형						
		논제5	설명 서술형						
	문항4	논제1	설명 서술형						
논제2		추론 설명 서술형							
논제3		설명 서술형							
논제4		설명 서술형							
논제5		설명 서술형							

위와 같은 이상 전반적인 분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성격에서는 자료와 논점 복합형이 많았다. 이는 다양한 텍스트 활용 전략을 보여 준다. 논제 조건에서는 소극적 폐쇄와 적극적 폐쇄 유형이 고른 분포를 보여 준다. 논제 성격도 ‘논쟁, 논증, 설명, 칼럼’ 등 다양한 유형이 실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논제와 논술문 성격 분류에서는 고전형이 의외로 적고 시사형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과형보다 비통합교과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제대로 된 논술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경희대가 유일하다. 이외의 대학들은 서술형 문제가 대부분이다. 문제 수로만 본다면 모두 86문제 가운데 14문제만이 논술형 문제이다. 각 대학들은 논술 시험이라고 표방했지만 논술 시험이라기보다 서술형 주관식 시험이거나 그런 유형에 가깝다. 2006, 2007학년도에 시도되었던 인문계 자연계 통합논술형 문제가 2008학년도 시험에서는 오히려 퇴보했다. 각 대학들은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함이라지만 논술형 시험 취지를 흐리기는 마찬가지다.

숙명여대 인문계 문제와 같이 최종 논술 문제 전 단계로 서술형을 설정하는 것은 다중 평가 전략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서술형 문제 위주로 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 우수 학생 유치 명목을 위해 옛날 본고사형 주관식을 흉내 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 현상이 무슨 옷의 유행을 타듯 한결같이 변진 양상이어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상업성 전략을 위해 무슨 담합이라도 한 듯한 느낌을 준다.¹³⁾

13) 인용 편의를 위해 제시문을 생략하였다. 문제 설문만을 모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문제의 기본 성격은 설문만으로도 드러난다. 기출 문제 전문은 해당 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강호영 논술 교실(my.dreamwiz.com/ghdud99), 이투스 논술(www.etoos.com), 또물또 통합논술(cafe.daum.net/tosagoto) 참조

[고려대/정시/자연/문제1] 제시문 [나]에 기술된 이당류인 설탕이 에탄올로 분해되는 화학 반응 과정을 구조식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단, 기체 분자는 화학식으로 표시할 것). 또한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에탄올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화학 반응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설명하시오.

[서울대/정시/자연/문제3-1] 어떤 분자가 온실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구성 원자의 종류와 쌍극자 모멘트와 관계가 있다. 쌍극자모멘트는 하나의 결합이나 분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 분리된 경우에 나타난다. 분자에서 결합의 길이나 결합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분자의 진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진동에는 결합각이 변하는 굽힘과 결합의 길이가 변하는 늘어남이 있다. [3-1]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메탄, 수증기, 이산화탄소의 3차원 구조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을 나타내시오. ……줄임…… 이 구조를 고려하여 각각의 분자가 진동을 하지 않을 경우 쌍극자모멘트를 가지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연세대/정시/자연/문제1-1] 다음 제시문은 해양 원유유출 사고에 관한 것이다.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이 문제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산능력보다는 수리 분석과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합니다.) (40점) [1-1]

a. 제시문 [나]의 모델이 실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간결하게 서술하시오.(5점)

b. ……줄임…… $f_n(x)$ 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15점)

특히 연세대의 경우는 문항에서 아예 “이 문제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산능력보다는 수리 분석과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합니다”라고 하여 수리논술을 살리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방했으나, “자신의 견해를 간결하게 서술하시오”라는 식의 문제 스타일과 점수 배점과 시간 등을 살펴볼 때 학생들이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들 대학들이 통합논술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이런 문제들을 마치 통합논술 문제인냥, 또는 논술 시험인냥 표방하여 출제했다는 점이다. 차라리 ‘주관식 서술형 문제’라고 제대로 제목을 달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고려대 측은 이런 유형에 대하여 2009학년도 모의 논술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일부 구절 다듬어 인용).

이러한 출제유형은 2007학년도 통합논술에 비하여 통합의 정도 및 난이도를 완화시킨 2008학년도 논술의 경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특별한 비중을 두어서 출제하였다.

첫째, 고려대학교 논술시험의 목표로서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수능시험 성적에 대한 보정에 적합한 문제를 출제한다.

둘째, 수험생들의 수준 및 응시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논술시험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와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문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아무리 그 자체로 좋은 문제라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입시험을 위한 문제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_고려대 2009 논술모의고사 백서 인문계 해설, 고려대 누리집 공개 자료, 10쪽.

2008학년도 고려대학교 자연계논술은 자연계의 특성을 살려 언어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반면 과학교과와 수리를 통합한 통합교과형의 요소를 가미하였다. 이는 각 대학마다 논술의 유형이 다른데서 오는 혼란을 가급적 줄이고 고등학교 과학교육의 정상화를 돕고자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실시했던 수리논술이나 통합논술이 수리적 능력에 치중하거나 언어적 표현력과 논리적 능력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자연계에 필수적인 과학적 사고력과 분석적 능력을 평가하기엔 미흡하였던 점이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게 된 이유이다. _고려대 2009 논술모의고사 백서 자연계 해설, 고려대 누리집 공개 자료, 38쪽.

이와 같은 해명은 거의 모든 논술 출제 대학 입장을 대변하므로 자세히 인용하였다. 그러나 본고사형 서술형 문제는 해명과 같은 긍정 취지는 있으나, 문과 이과로 나누는 한국의 잘못된 중등 교육을 확대 재생산하고 학제적 연구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더욱 큰 문제는

글쓰기 능력을 통해 자연계 지식의 소통성을 높여야 하는 이과 계열의 대학 준비생들에게 더욱 글쓰기를 멀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준다는 점이다. 아래 최진규 교사의 질타는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다.

최진규, 「통합논술 학교교육에 재뿌리는 대학」

2009학년도 대학입시의 핵심은 수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수능 등급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되면서 많은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했다. 그렇지만 전체 모집정원의 58%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에서의 논술 비중은 여전히 높다. 일부 대학(경희대·숙명여대·인하대 등)의 경우, 내신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논술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다. 수시모집만 놓고 보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논술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시행 2년째를 맞은 통합 교과형 논술도 시행 초기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 빠른 속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통합논술과 관련하여 연수를 받은 교사들만도 수만 명을 헤아릴 정도다. 매년 팀당 50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전국의 1천여 논술 동아리도 현장 논술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는 통합논술은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점철된 고교 교육을 말하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보다 통합논술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이 대학에서도 학문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학업 성적까지 월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통합논술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황에서 수도권 일부 대학이 우수 신입생 선발에 경도된 나머지 본고사나 다름없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일선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지난 3일 실시된 ‘수시2-1 외대프런티어 I’ 전형 논술고사에서 인문·자연계 모두 영어 제시문이 등장했고 자연계 논술에서는 제시된 함수그래프를 이용해 값을 구하면서 풀이과정도 함께 쓸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외국어대 논술 문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8월2일 치러진 논술 모의고사에서 영어 제시문과 수학 풀이과정에 따른 답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본고사형 문제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대입까지는 2005년 8월 만들어진 ‘논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어 제시문과 수학적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 출제는 모두 금지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조치로 사실상 ‘논술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이관 받은 대교협이 총장단 회의를 통해 당분간 ‘논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외국어대 논술에 따른 논란의 핵심은 본격적인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말 그대로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의 입시학원화를 부추기며 또다시 사교육 만능 시대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 통합논술이야말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내신과 수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전형 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을 도모하는 것은 우수 학생을 선점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교협도 이번 사태의 파장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본고사 부활에 따른 우려를 불식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2008. 10. 26.)

대교협을 통해 해결 방안 제시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입 논술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아주 잘 지적한 칼럼이다. 이러한 문제 많은 자연계 논술 흐름 속에서, 경희대 자연계 문제가 가장 돋보인다.

[경희대/정시/자연] 다음 [가], [나], [다], [라]는 주어진 특정 조건에서 크기 혹은 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각 제시문에 기술된 변화의 수학적 형태를 추론하는 과정과 그들 간의 공통적인 변화원리를 제시하고, [마]에 나타난 석유 생산량 증가가 이 원리를 따른다고 전제할 때, 현재의 석유 가체매장량이 완전히 고갈되는 년수(年數) 추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또한, [바], [사], [아]를 참고하여 에너지를 포함한 포괄적 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인류가 현 시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논술하시오. (1,201자 이상 1,500자 이하)

위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계 또는 수리적 지식을 독해 분석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끌어들이도록 유도한 전략이 논술 시험 취지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제시문 또한 인문학적 제시문(시)과 사회학, 경제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소재를

형단할 수 있는 배치를 한 점이 그런 전략을 잘 살려 주고 있다.

문과 이과 관계없이 서술형 문제가 주류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글자 수 제한 흐름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 [경희대/정시/인문] (1,401자 이상 1,500자 이하)
- [경희대/정시/자연] (1,201자 이상 1,500자 이하)
- [고려대/정시/인문/문제1] 제시문 (1)을 4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0점)
- [덕성여대/정시/공통/문제1] (180~200자, 40%)
- [덕성여대/정시/공통1/문제2] (280~300자, 60%)
- [덕성여대/정시/공통2/문제1] (180~200자, 40%)
- [덕성여대/정시/공통2/문제2] (280~300자, 60%)
- [덕성여대/정시/사회1/문제1] (180자~200자, 40%)
- [덕성여대/정시/사회1/문제2] (280자~300자, 60%)
- [덕성여대/정시/사회2/문제1] (180~200자, 50%)
- [덕성여대/정시/사회2/문제2] (280~300자, 50%)
- [덕성여대/정시/인문1/문제1] (180~200자, 40%)
- [덕성여대/정시/인문1/문제2] (280~300자, 60%)
- [덕성여대/정시/인문2/문제1] (450자 ~ 500자)
- [서울대/정시/인문/문제2] (400자 이내)
- [서울대/정시/인문/문제3] (600자 이내)
- [숙명여대/정시/공통/문제1]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분량: 100자±10자)
- [숙명여대/정시/공통/문제2] (분량: 300자±30자)
- [숙명여대/정시/공통/문제3] (분량: 800자±80자)
- [숙명여대/정시/인문/문제4] (분량: 300자±30자)
- [숙명여대/정시/인문/문제5] (분량: 500자±50자)
- [숙명여대/정시/자연/문제5] (분량: 400자±40자)
- [숭실대/정시/인문/문제1] (600±50자, 30점)
- [숭실대/정시/인문/문제2] (500±50자, 30점)
- [숭실대/정시/인문/문제3] (700±50자, 40점)
- [숭실대/정시/자연/문제1] (600±50자, 40점)
- [연세대/정시/인문/문제1] (800자 내외)
- [연세대/정시/인문/문제3] (1,000자 내외)

[한양대/정시/인문/문항2] (400~500자, 25점)

[한양대/정시/인문/문항3] (900~1000자, 50점)

[한양대/정시/인문/문제1] (400~500자, 25점)

500자 이내의 문제나 글자 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문제들은 대부분 서술형 문제다. 이는 문제수가 늘다 보니 개별 문제 글자 수가 자연스럽게 줄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논술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글자 수가 500자 이내이면 사실상 서술형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덕성여대/정시/공통2/문제2] 글 [다]의 입장에서, 글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 주어진 지문들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280~300자, 60%)

[덕성여대/정시/사회2/문제2] 글 [마]에서와 같이 세대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노출된 고령사회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다. 그와 같은 사회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는지 지문들을 활용하여 논하시오.(280~300자, 50%)

위 논제는 모두 ‘논하시오’라고 했지만, 글자 수가 300자 이내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증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논제 조건과 관련 제시문 분석 등을 고려해 볼 때 핵심 요지나 최종 주장만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술형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문항 수를 늘리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세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어느 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는 과정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문항이 많다 하더라도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접근보다는 특정 지식이나 특정 문제해결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고용우 교사의 지적인 의미심장하다.

대학 입시에 통합 교과형 논술이 도입될 때 그 취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

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을 지향함으로써 이른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유도”

이 글은 서울대학교가 통합 교과형 논술을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밝힌 글이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5지선다형 문제를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시험이다. 주입식 학습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교과 수업의 방향을 일정 부분 변화시킬 것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독서나 토론이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입시 논술은 선발 시험 장치이기 때문에 논술의 본래 의미를 상실되고 입시 도구로 전락할 것이며, 학생들의 입시 부담만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만 확대시킬 것이다. 오히려 자발적인 독서와 토론, 글쓰기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와 같은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¹⁴⁾

대학들이 서술형 문제 양산으로 통합논술 시험 취지를 흐린 만큼 위와 같은 우려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4. 마무리

분석을 종합해 보면, 2008학년도 정시 논술은 대체로 다문항 전략에 의한 서술 중심의 시험이다. 이런 전략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것인지, 평가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지 좀 더 치열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희대와 같은 비교적 바람직한 문제를 출제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평가 전략이나 실제 결과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래와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을 지향함으로써 이른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유도”_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2005.11.28. 발표문에서

14) 본 논문의 학술 발표에 따른 고용우 토론문(본 학회지 수록: 128-129)

학문 중심 기관으로서 논술 철학이 아쉽다. 김동환(2008: 43)에서 “현재 우리 대학들의 논술교사는 외부에서 주어지던 허명에 매달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지적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이런 실상이다 보니 논술 교육이 왜곡되고, 학생들은 더욱 논술을 싫어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논술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의 학문 탐구 능력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학문 탐구 능력을 주로 보고서로 검증하다 보니 보고서 쓰기 능력 자체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입시 논술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면 더욱 놀라운 논술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학문 탐구 능력 차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문제 해결력을 위해 논술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논술 교육은 필수 요소이다. 이런 자연스런 논리적 글쓰기 교육이 입시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처럼 반교육적인 현실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입시 논술의 양면성이 분명한 만큼 제대로 된 비판 분석을 통해 논술 교육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 대학과 입시정책 변덕에 휘둘리는 입시 논술 자체가 왜곡된 현실이지만 더욱 열악한 논술 교육 현실 극복을 위해 긍정성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족하지만 이 논문이 입시 논술에 대한 비평, 비판 작업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중고등 학교 현장과 학생들 관점에서의 분석이다. 토론자 고용우 교사의 질타를 훗날 연구 주제로 남겨 놓는 것으로 부족함을 대신한다.

기출 문제들이 중등학교 현장의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발표문은 미시적 분석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우선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문제인가,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 학습 내용을 응용하면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양 수준을 감안한 것인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논술 시험 준비 과정은 학교나 사교육 시

장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논술 수업은 교과 수업 외에 특별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각 교과에서 공부한 내용을 학생이 비벼 먹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시간에 공부한 것 외에 뭔가 특별한 교양이나 생각거리를 읽고 공부를 하면서 논술 쓰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논술의 본래 도입 취지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 된 것인데, 기출 문제 분석 결과 이런 준비 과정은 의미 있는 일인지를 따져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⁵⁾

논술의 주체인 학생 입장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 이 논문의 근본적인 한계다.

15) 고용우 토론문(본 학회지 수록 : 129)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 구연상(2008), 「논술은 논리적인 글쓰기인가?」,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우리말로 학문하기모임.
- 김광수(1996), 「각 대학 논술 문제 몇 점인가」, 『논술 지도교사 및 출제자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철학회.
- 김동환(2007), 「대학별 논술고사의 정체성과 방향성」, 『국어교육학연구』 29집, 국어교육학회.
- 김슬옹(2005), 「언어 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담론학 구성 시론」, 『사회언어학』 13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_____ 외(2001),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동화 읽기 쓰기』, 다른세상.
- _____ (2000가), 『삐딱하게 보고 뒤집어 생각해라』, 미래M&B.
- _____ (2000나), 『통합교육을 위한 삶쓰기 논술교육』, 인간과자연사.
- _____ (1999), 「관점설정과 논술 교육」, 『한민족문화연구』 4집, 한민족문화학회 엮음, 새로운 사람들.
- _____ (1998), 「언어분석을 위한 맥락설정 이론」, 『목원어문학』 제16집, 목원대학교.
- 김슬옹·허재영((1995), 『통합교과와 생각하기 논술』, 토담.
- 김재호(2007), 「대학입시 논술 문제 유형화와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중신(2007), 「국어교육과 통합 교과 논술의 향방」, 『국어교육학연구』 29집, 국어교육학회.
- 김형자(2000), 「논술의 성격 규정에 대한 관점의 비교와 대학 입학 논술고사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순영(1998), 「논술고사의 목적과 방향」, 『12개 대학 98·99 논술고사 해설집』, 12개 대학 논술 공동 연구회.
- 박종덕(2005), 『국어 논술 교육론』, 박이정.

- 송재희·김슬옹(1999), 『대중매체 읽고 쓰고 생각하기』, 세종서적.
- 신영삼(2000), 「논술 문제 유형 분류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호서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진숙(2007), 「논술 개념의 다층성과 대입 통합 교과 논술 시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 이기상(1998), 「논술고사 출제 문제의 유형 분석」, 『12개 대학 98·99 논술고사 해설집』, 12개 대학 논술 공동 연구회.
- 최운선·김슬옹·성대선·조일영 편저 (2008), 『논술 이렇게 써야 한다』, 한국교육문화원.

각 대학교 입학 자료실

강호영 논술 교실 <http://my.dreamwiz.com/ghdud99>

교원캠퍼스 통합논술 교사 연수 과정 <http://www.teacher21.co.kr>

또물또 통합논술 <http://cafe.daum.net/tosagoto>

유니텔 통합논술 교사 연수 과정 <http://www.teacher.co.kr>

이투스 논술 <http://www.etoos.com>

<Abstract>

Type Analytics of Past College Admissions Essay Examination Problems

Kim Seul-ong

This paper analyzed by type the college admissions essay examination problems. The problems were categorized into 14 types, based on five criteria. Based on text type, they were divided into (1) information presentation type(1-1), (2) point at issue presentation type(1-2), and (3) multi-information and point at issue type(1-3). Based on the topic condition, the problems were categorized into closed-type essay and open-type essay; and the closed-type were further divided into (4) passive closed-type(2-1) and (5) active closed-type(2-2). Based on topic characteristics, four types of categorization were made: (6) argumentation-type essay(3-1), (7) proof-type essay(3-2), (8) explanation-type essay(3-3) and (9) problem-solving-type essay(3-4). Based on essay writing characteristics, the problems were divided into (10) classics essay(4-1), (11) current events essay(4-2), and (12) general essay(4-3). Categories based on subject and domain of thinking were (13) non-combined subject type(5-1) and (14) combined subject type(5-2). The non-combined subject type was further divided into a) special subject type and b) special theme type, while the combined subject type was further divided into a) theme essay and b) reasoning essay. From the analysis of each college's examination problems based on this categorization framework,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features and problems of each essay examination question could be known in various aspects, and the strategy and problems in making the examination questions by each

college, along with the main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overall college admissions essay examination for the 2008 academic year were revealed.

Key words: Essay examination, text, discourse, past college admissions essay examination problems, essay examination type (branch), combined subject essay examination

<붙임>

2008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 논술 문제 지시문 모음

(대학교 가나다 순)

[경희대/정시/인문] 다음 [가], [나], [다]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세 제시문 각각의 입장에서 [라]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현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401자 이상 1,500자 이하)

[경희대/정시/자연] 다음 [가], [나], [다], [라]는 주어진 특정 조건에서 크기 혹은 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각 제시문에 기술된 변화의 수학적 형태를 추론하는 과정과 그들 간의 공통적인 변화원리를 제시하고, [마]에 나타난 석유 생산량 증가가 이 원리를 따른다고 전제할 때, 현재의 석유 가매매장량이 완전히 고갈되는 년수(年數) 추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또한, [바], [사], [아]를 참고하여 에너지를 포함한 포괄적 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인류가 현 시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논술하시오. (1,201자 이상 1,500자 이하)

[고려대/정시/인문/문제1] 제시문 (1)을 4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0점)

[고려대/정시/인문/문제2] 제시문 (2)의 논지를 밝히고, 이와 대비하여 제시문 (3)을 해설하시오. (40점)

[고려대/정시/인문/문제3] 제시문 (4)의 <표 2>에서 유형 I과 유형 IV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고, 두 유형 간의 차이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시오. 그리고 제시문들을 참조하여 한국 사회의 불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술하시오. (40점)

[고려대/정시/자연/문제1] 제시문 [나]에 기술된 이당류인 설탕이 에탄올로 분해되는 화학 반응 과정을 구조식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단, 기체 분자는 화학식으로 표시할 것). 또한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에탄올

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화학 반응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설명하시오.

[고려대/정시/자연/문제2] 제시문 [라]를 읽고, 답안지에 아래 상자를 옮겨 그린 후 서로 다른 혈액형끼리 소량 수혈이 가능한 경우를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이 가능한 이유와 그 역방향은 소량 수혈이라도 불가능한 이유를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또한 사람에게 Rh 응집소가 생성될 수 있는 상황을 두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고려대/정시/자연/문제3] 제시문 [바]의 힘 $f(x)$ 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고, 도선 L 이 회로를 통과하는 동안 세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마]와 [바]를 활용하여 세 전구에서 방출된 모든 에너지의 합을 구하시오.

[고려대/정시/자연/문제4] 제시문 [사]의 (2)와 (4)가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고려대/정시/자연/문제5] 대우를 이용하여 제시문 [아]의 [정리 1]이 성립함을 보이고, [정리 1]을 이용하여 [정리 2]가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덕성여대/정시/공통/문제1] 글 [가]와 [나]는 동양의 장자와 서양의 러셀이 각각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유용할 수도 있다는 ‘무용지용(無用之用)’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글 [가]와 [나]에서 말하는 ‘무용’의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쓰시오.(180~200자, 40%)

[덕성여대/정시/공통1/문제2] 글 [나]에서 말하는 ‘무용한 지식’에 속할 수 있는 학문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쓰고, 이러한 지식이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쓰시오.(280~300자, 60%)

[덕성여대/정시/공통2/문제1] 위 지문들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글들이다. 글 [가]에 나타난 달라이 라마의 생각과 글 [나]에서 설명된 사드의 생각을 비교하시오.(180~200자, 40%)

[덕성여대/정시/공통2/문제2] 글 [다]의 입장에서, 글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 주어진 지문들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2

80~300자, 60%)

[덕성여대/정시/사회1/문제1] 글 [다], [라], [마], [바] 중에서 글 (가)와 가장 잘 이어질 수 있는 지문을 찾은 다음, 이 두 지문이 논리적·내용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보충 설명하시오.(180자~200자, 40%)

[덕성여대/정시/사회1/문제2] 오늘의 한국사회 현실에 비추어 [가], [나], [다]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것인지를 [마] 또는 [바]를 참조해 평가하시오.(280자~300자, 60%)

[덕성여대/정시/사회2/문제1] 20세기 복지국가에서 노인을 빈곤으로부터 해방하고 퇴직 전의 생활수준을 누리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발달을 가능케 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위의 지문들에서 찾아 설명하시오.(180~200자, 50%)

[덕성여대/정시/사회2/문제2] 글 [마]에서와 같이 세대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노출된 고령사회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다. 그와 같은 사회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는지 지문들을 활용하여 논하시오.(280~300자, 50%)

[덕성여대/정시/인문1/문제1] 글 [가]와 [나]를 읽고 여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시오.(180~200자, 40%)

[덕성여대/정시/인문1/문제2] 글 [나]와 [다]의 주장이 자유로운 도덕적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관념과 양립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280~300자, 60%)

[덕성여대/정시/인문2/문제1] 글 [가]는 모계(母系) 중심적 사고의 그리스 창조 신화로서, 고대 인류가 이 세계의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신화적 사유방식에 의지하여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다. 글 [나]는 김춘수 시인이 초현실주의 미술가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을 모티브로 하여 초현실적 세계를 사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하게 표현해낸 시이다. 글 [다]는 모더니즘 작가 카프카의 작품 『변신』으로, 인간이 벌레로 변해버린 상황을 마치 현실처럼 그려내고 있

다. 일반적으로 신화학자들은 예술적 또는 종교적 상상(想像)의 근원(根源)을 고대 인류의 신화적 사유방식에 근거한 세계 이해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첫째,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고대 인류의 신화 이야기와 현대 작가의 초현실적 세계 묘사는 표현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논하고, 둘째, 구체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화 이야기 또는 초현실적 세계 묘사가 이른바 이성적, 논리적 사유에 기초한 문명세계에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고 나아가 전율을 일으키기도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50자 ~ 500자)

[덕성여대/정시/자연전공1/문제1] Q 의 내부에 반지름이 각각 $\frac{r}{2}$ 인 두 원들을 다음 <그림1>과 같이 겹치지 않게 넣었다. (여기에서 선분 \overline{DE} 는 Q 의 지름이고 O 는 Q 의 중심이다.) 이 두 원들을 Q 의 내부에 다른 형태로 겹치지 않게 넣을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고, 아니라면 그 근거를 수학적으로 논술하시오.

[덕성여대/정시/자연전공1/문제2] Q 의 내부에 반지름이 각각 $\frac{r}{2}$ 인 세 원들을 겹치지 않게 넣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고, 아니라면 그 근거를 수학적으로 논술하시오.

[덕성여대/정시/자연전공2/문제1] n 번째 단계에서 얻은 꺾인 선분 전체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몇 번째 단계에서부터 이 길이가 1광년(10^{16} m로 계산)보다 크게 되겠는지 설명하시오.

[덕성여대/정시/자연전공2/문제2] 코흐 곡선의 프랙털 차원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log 2 = 0.3010$, $\log 3 = 0.4771$ 로 계산한다.)

[서울대/정시/인문/문학1/문제1] 제시문 [가], <도표1>, <도표2>를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800자 이내) (1) 구성원 수를 살펴보면 <도표1>은 31명이고 <도표2>는 14세(世)부터 18세까지 5명으로, 26명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2) 두 족보의 작성 목적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두 족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서울대/정시/인문/문항1/논제2] 제시문 [나]에 따르면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제시문 [나]에 나오는 논거 이외에 혈통 계승의 측면에서도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불합리한 것임을 두 도표를 활용하여 밝히시오.(400자 이내)

[서울대/정시/인문/문항1/논제3] 논제 1과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읽고 바람직한 성(性) 표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600자 이내)

[서울대/정시/인문/문항2/논제1] 제시문 [가]를 참조하여 제시문 [나]의 사례 (1), (2), (3), (4)를 현대 민주사회의 다수결 원리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각 사례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800자 이내)

[서울대/정시/인문/문항2/논제2] 논제 1에서 제기된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 제시문 [다]의 사례에서 A시 의회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시오.(600자 이내)

[서울대/정시/인문/문항3/논제1] 제시문 [가]를 보면 행복도가 소득의 크기에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를 제시문 [나]와 [다]에 나오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다]의 Z국 국민만족도지수 8, 168달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시오. (400자 이내)

[서울대/정시/인문/문항3/논제2] 1인당 국민소득이 동일하나 서로 다른 소득 분포를 보이는 A, B, C 나라가 있다고 할 때,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만족도지수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400자 이내)

[서울대/정시/인문/문항3/논제3] 논제 2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 B, C 각 국가가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시오. (600자 이내)

[서울대/정시/자연/문항1/논제1-1]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아래 질문

에 답하시오. [1-1] 에너지 평형식(식 1)에서 지구 복사에너지와 평형을 이루는 태양 복사에너지로 S 대신 S/4가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서울대/정시/자연/문항1/문제1-2] 제시문 [가]의 반사도 $A \approx 0.30$ 을 활용하여 S/4에 해당되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구하고, 이와 열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지구 복사에너지를 W/m^2 단위로 추정하시오.(유효자리 2자리).

[서울대/정시/자연/문항1/문제2] 온실효과로 따뜻해진 지구가 내는 복사에너지와 대기가 만들어낸 온실 효과를 문제1에서 구한 S/4의 백분율로 구하시오. 그리고 이들 값을 W/m^2 단위로 환산하시오.(유효숫자 2자리).

[서울대/정시/자연/문항1/문제3-1] 어떤 분자가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지 여부는 구성 원자의 종류와 쌍극자 모멘트와 관계가 있다. 쌍극자모멘트는 하나의 결합이나 분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 분리된 경우에 나타난다. 분자에서 결합의 길이나 결합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분자의 진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진동에는 결합각이 변하는 굽힘과 결합의 길이가 변하는 늘어남이 있다. [3-1]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메탄, 수증기, 이산화탄소의 3차원 구조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을 나타내시오. ……줄임…… 이 구조를 고려하여 각각의 분자가 진동을 하지 않을 경우 쌍극자모멘트를 가지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서울대/정시/자연/문항1/문제3-2] 분자의 진동과 쌍극자모멘트를 고려하여 메탄,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데 질소화 산소는 온실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를 추론하시오.

[서울대/정시/자연/문항1/문제4] 사람들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온실기체로 인해 대기에 추가된 $3W/m^2$ 로 인하여 지표면의 온도가 288K(15도)보다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지표면과 대기가 새롭게 열에너지 평형상태를 이룰 때, 지표면의 온도가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추정하시오.(유효숫자 1자리)

[서울대/정시/자연/문항1/문제5] 지구의 인구는 60억 명이고, 지구의 반경은 6,000Km라고 할 때, 인간이 1인당 3KW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난 10년간 배출한 온실기체로 인해 대기가 지구 표면에 추가적으

로 복사하는 에너지를 인구 1인당으로 구해 보시오.(유효숫자 1자리). 그리고 이 값에 비추어 지구 온난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서울대/정시/자연/문항2-문항4] 서술형 문제 생략

[숙명여대/정시/공통/문제1]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분량: 100자±10자)

[숙명여대/정시/공통/문제2] [라]의 표에 의하면 한국의 응답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가운데 윤리, 사회 책임경영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다]의 논지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분량: 300자±30자)

[숙명여대/정시/공통/문제3] [라]의 표에 나타난 OECD 9개국 일반인의 평균 인식은 ‘윤리, 사회 책임경영과 이윤창출을 절충해야 한다’가 가장 높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윤리, 사회 책임경영과 이윤창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지 [가], [나], [다]의 논지를 모두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분량: 800자±80자)

[숙명여대/정시/인문/문제4]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분량: 300자±30자)

[숙명여대/정시/인문/문제5] [나]와 [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과 문제를 요약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분량: 500자±50자)

[숙명여대/정시/자연/문제4] 앞으로 개발될 메모리 집적도가 [가]의 그래프에 나타난 추세를 따른다고 하자. Y를 연도라고 할 때 집적도 S를 Y의 함수로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분량: 주어진 난을 적절히 사용함)

[숙명여대/정시/자연/문제5] [다]의 밑줄 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와 [나]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분량: 400자±40자)

[숭실대/정시/인문/문제1] 아래 글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사랑과 결혼의 관계를 분석하는 글을 쓰시오. (600±50자, 30점)

[숭실대/정시/인문/문제2] 제시문 (A), (B)를 참조하면서 아래 글 [라],

[마]를 읽고 기록 행위의 가치와 한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500±50자, 30점)

[숭실대/정시/인문/문제3] 제시문 (A), (B)를 참조하여 아래 글 [바], [사], [아]의 서술 형식에서 비롯된 효과를 비교·대조하시오. (700±50자, 40점)

[숭실대/정시/자연/문제1] 아래 글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사랑과 결혼의 관계를 분석하는 글을 쓰시오. (600±50자, 40점)

[숭실대/정시/자연/문제2] 광태는 2050년에는 “표준요금체계”를 선택하였지만, 2051년에는 “표준요금체계”와 “계약요금체계”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알아보고 요금체계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2050년의 사용량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두 달 동안 첫 달은 20 kWh, 둘째 달은 40 kWh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계약요금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 계약용량을 얼마로 정할 때 가장 적은 금액의 전기요금을 내게 되는지 설명하고, 이것을 “표준요금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하시오. 단, 계약용량은 20 kWh 이상의 정수로 정한다.

[숭실대/정시/자연/문제3] 다음의 세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림 3>의 (a)와 (b)를 나타내는 전기 회로도를 각각 그리시오. 위 GMR 구조의 MR 의 값이 0.25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R 와 r 의 조건을 기술하시오. (문제요약)

[연세대/정시/인문/문제1] 제시문 [나], [다]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이 타당성을 검토하시오.(30점, 800자 내외)

[연세대/정시/인문/문제2]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 가지 관점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를 적용하여 현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논의하시오. 아울러 그 관점을 선택한 근거와 그 관점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를 밝히시오. (30점, 800자 내외)

[연세대/정시/인문/문제3] 제시문 [라]의 표는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깝게 느끼는 국가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다름을 보여준다.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쪽이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가정하고, 제시문 [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표를 해

석하시오. (40점, 1,000자 내외)

[연세대/정시/자연/문제1-1] 다음 제시문은 해양 원유유출 사고에 관한 것이다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이 문제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산능력보다는 수리 분석과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합니다.) (40점) [1-1] a. 제시문 [나]의 모델이 실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간결하게 서술하시오. (5점)
b. $-$ 줄임-f $n(x)$ 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15점)

[연세대/정시/자연/문제1-2] 제시문 [나]의 모델에서 $a=1$ 일 때, 사고 발생 후 기름이 해안가에서 처음 발견되는 시간을 예측하고 예측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동안 해안가에 축적될 원유 총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10점)

[연세대/정시/자연/문제1-3] 제시문 [다]에서 $a=2$ 일 때, 자원봉사자 사고 발생 16시간 후부터 4시간 간격으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제시문 (나)의 모델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수를 어떤 비율로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설명하시오. (10점)

[연세대/정시/자연/문제2] 다음 제시문은 지구 내부의 구조와 지구와 태양간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에 관한 내용이다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30점) [2-1]줄임..... 이 때 일어나는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관하여 논하시오.(15점) [2-2]줄임..... 제시문 [나]를 참조하여 타원과 원형 궤도에 대해 지구에서 받는 태양에너지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따른 지구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5점).

[연세대/정시/자연/문제3-1] 제시문 [다]의 밑줄 친 문장에 언급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의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연세대/정시/자연/문제3-2] 제시문 [라]의 밑줄 친 문장에 서술된 대로 잉어 육수에 일사병 치료제 성분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위의 모든 제시문에 기술된 내용에 근거하여 이 치료제의 생물학적 작용 원리와 화학적 특성을 유추하시오. (20점).

[한양대/정시/인문/문항 1] 지문 [가]와 [다]를 참조하여, 지문 [나]에

서 주장하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비판하시오. (400~500자, 25점)

[한양대/정시/인문/문항 2] 지문 [가]와 지문 [나]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문 [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400~500자, 25점)

[한양대/정시/인문/문항 3] 문화 소비에 대한 지문 [가], [나], [다]에 나타난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시오. 그리고 지문 [라]에서 제시된 도표를 활용하여 학자 B와 C가 학자 A의 견해를 각각 어느 정도 타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논술하시오 (900~1000자, 50점)

[한양대/정시/자연/문제1] 두 물체가 힘을 주고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제시문 [가]에서 설명된 운동량 보존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제2법칙 및 제3법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제시문 [나]의 박테리아 운동을 설명하시오.

[한양대/정시/자연/문제2] 제시문 [라]의 방법을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제시문 [다]에 나온 배의 추진력을 유추할 수 있다. 논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동일한 질량(m)을 갖고 있는 돌맹이들을 초당 n 개씩, 배에 대한 상대속력 u 로 수평방향으로 던진다고 하자. 이 때 배의 수평방향 추진력(F)을 이들 세 가지 물리량 m, n, u 만으로 조합된 관계식 $F = k m^x n^y u^z$ (k, x, y, z 는 상수)로 표현하는 것이 충분한지를 논술하시오. 만일 충분하다면 제시문 [라]의 단위 분석 방법에 따라 지수값 x, y, z 를 결정해 보시오.

<토론>

‘대입 논술 기출 문제 분석론’에 대한 토론문

고 용 우*

논술 바람이 작년 이맘때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 학교 평가 항목 등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표자께서 ‘쓰나미에 휘둘리듯’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매우 공감이 가는 말씀이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논술이 쓰나미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논술 자체가 하나의 쓰나미로 왔다가 스러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는 논술 쓰나미가 왔다 간 자리에 영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시와 관련한 사항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논술은 그 정도가 더 심해서 논술에 대한 말은 많지만, 대학에서 제공하는 일부의 정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논술 관련 정보는 대부분 사교육 시장에서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논술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등장해서 각종 매체에 논술 관련 정보를 퍼지르고 있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정보라는 게 특정 대학의 논술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기출 문제 분석, 좀 더 대담한 경우에는 논술을 위한 ‘비책’ 같은 것으로 갈증 난 수험생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자가 각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체계를 잡아서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각 대학의 논술 문제들을 한눈에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안목을 길러주었다는 점에서 논술 지도를 하는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가졌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설

* 울산제일고등학교 국어교사

명을 듣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좀 더 깊은 논의를 했으면 한다. 이는 발표자께서 논문을 정교하게 마무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논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안목을 기르는 데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이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논술 기출 문제를 크게 다섯 갈래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14개 유형으로 분석했는데 왜 그렇게 유형화했는지, 그리고 굳이 그렇게 세밀하게 유형화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했다.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지 다섯 갈래로 나눈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4. 논제와 논술문 성격에 따른 갈래’는 ‘1. 텍스트 유형에 따른 갈래’와 어떻게 다른지 혹은 1의 갈래가 있는데도 4의 갈래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이 다섯 갈래와 14개 유형을 기계적으로 조립하면 대부분의 논술 문제들이 분석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¹⁾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들테면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문항3의 경우 원래 문제는 ‘제시문 (4)의 <표 2>에서 유형 I과 유형 IV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고, 두 유형 간의 차이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시오. 그리고 제시문들을 참조하여 한국 사회의 불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술하시오.’이다. 이것을 분석한 표에 적용하면 ‘자료 제시형 텍스트 논술이며, 논제 조건은 소극적 폐쇄형이며, 논제 성격상 문제 해결형이며, 시사 논술이고, 비통합 교과형’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위의 문제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가. 혹은 잘 가르치거나 공부할 수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등등의 고민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 교과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통합 교과형은 반드시 좋은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문제 중에서 “[문제 1] 제시문 (나), (다)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30점, 800자 내외)”는 통합 교과형으로

1) 발표문의 <표 1>과 <표 2> 참조

분류되어 있고, 숙명여자대학교 문제인 “3. <라>의 표에 나타난 OECD 9 개국 일반인의 평균 인식은 ‘윤리, 사회 책임경영과 이윤창출을 절충해야 한다’가 가장 높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윤리, 사회 책임경영과 이윤창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지 <가>, <나>, <다>의 논지를 모두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분량: 800자±80자)”는 비통합 교과형으로 분류가 되었다. 경희대 자연계열 문제의 경우 수리적 지식의 문제와 인문학적 텍스트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 교과적이라고 한 반면, 서울대 인문계 문항2에는 제시문에 정치, 국사, 사회 교과서의 글이 실렸는데 이것이 통합 교과형으로 분류되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어야 통합 교과형인지, 인문학 내에서 여러 교과와 관련되는 제시문이 주어지면 통합 교과형인지, 제시문들을 묶어서 생각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통합 교과형인지, 통합 교과형이란 무엇인지를 분석 자료를 통해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와 아울러 통합 교과형이면 좋은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분석의 행간에서 자주 진정한 통합 교과형이 아닌 것을 비판하는 표현을 읽을 수 있으나, 통합 교과형이 논술의 지향할 바라는 공감의 전제되지 않아서 그런지 쉽게 공감이 가지 않았다. 인간의 사유가 특정한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지만 그것과 통합 교과형 논술은 동일한 성격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첫 번째 문제 제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여전히 남는다. 통합 교과형 논술이 술한 논란을 일으킨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대학 입시에 통합 교과형 논술이 도입될 때 그 취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 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을 지향함으로써 이른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유도”

이 글은 서울대학교가 통합 교과형 논술을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밝힌 글이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5지선다형 문제를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시험이다. 주입식 학습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교과 수업의 방향을 일정 부분 변화시킬 것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독서나 토론이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입시 논술은 선발 시험 장치이기 때문에 논술의 본래 의미는 상실되고 입시 도구로 전락할 것이며, 학생들의 입시 부담만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만 확대시킬 것이다. 오히려 자발적인 독서와 토론, 글쓰기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와 같은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2008년 대입 논술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이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첫해이기 때문에 중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변화했나를 따지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출 문제들이 중등학교 현장의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발표문은 미시적 분석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우선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문제인가,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 학습 내용을 응용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양 수준을 감안한 것인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논술 시험 준비 과정은 학교나 사교육 시장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논술 수업은 교과 수업 외에 특별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각 교과에서 공부한 내용을 학생이 비벼 먹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시간에 공부한 것 외에 뭔가 특별한 교양이나 생각거리를 읽고 공부를 하면서 논술 쓰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논술의 본래 도입 취지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 된 것인데, 기출 문제 분석 결과 이런 준비 과정은 의미 있는 일인지를 따져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논술이 왜곡된 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이는 논술 시험 문제

자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일테면 극히 일부의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치른다면 일부의 문제로 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논술 시험 문제가 기존의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하게 하는 강한 호소력을 지녔는가 라는 문제는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교과서 바탕글이 제시문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논술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정부는 도시 환경 정화를 위해 A시에 폐가전제품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A시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시 의회는 이 계획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 원리에 따라 표결한 결과, 찬성 의견이 60%, 반대 의견이 40%로 집계되어 이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찬성자들은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처리시설 설치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반대자들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 교과서)

논제 2 논제 1에서 제기된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 제시문 (다)의 사례에서 A시 의회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이내)

이런 경우 교과서 지문이 활용되었다는 것과 교과 내용을 학습했다는 것이 논술 문제 해결과 어느 정도 깊은 관련이 있는가 등도 궁금한 사항이었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출 문제 분석의 방향과 초점에서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논술이 입시라는 외피를 입었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사고와 인격의 성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는가. 단지 ‘안 하는 것보다

는 낫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논술이 학생들의 자발적 독서를 부추기고, 토론하게 하고, 주체적 글쓰기 능력을 길러 줄 것인가. 발표자는 서술형이나 특정한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문제를 좀 더 깊이 따져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더 깊이 고민할 실마리를 던져 준 발표자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논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세 가지 영향 소외감, 두려움 그리고 방관하는 태도

김 지 윤*

<차례>

1. 논술 수업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2. 논술의 수레바퀴 아래서
 - 2.1. 논술, 소외감을 주는 글쓰기
 - 2.2. 논술, 두려움을 주는 글쓰기
 - 2.3. 논술, 방관하는 태도를 기르는 글쓰기
3. 논술의 굴레를 벗어나

<요약>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논술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논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 및 실천 사례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술 수업은 현장에서 여전히 학생이나 교사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논술 교육이 학생들에게 초래하는 몇 가지 부정적 영향들을 살펴보고 있다.

논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대학 입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논술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배제된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논술은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은 다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 제시된 지문과 논술 문제 자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점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며, 논술이라는 글쓰기 상황 자체가 두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두 번째 원인이다. 대학입학을 목적

*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국어교사

으로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논술의 본질적 특성은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논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세 번째 영향은 학생들에게 방관하는 태도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척적인 두 입장 가운데 선택을 강요하는 논제가 많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를 요구하는 논제들은 학생들을 양비론이나 양시론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글쓰기로 빠지게 한다. 또한 이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보다는 방관을 일관하는 태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논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때 현장 교육에 필요한 것은 논술 교육의 강화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체험과 결부된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논술, 학생에 대한 영향, 수업 상황, 대학 입시, 글쓰기 교육

1. 논술 수업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교탁에서 바라본 논술교실. 교실에는 약 20명가량의 학생이 앉아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주제를 던진다. “도대체 민족이란 무엇일까?” 학생들은 멍한 표정이다.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겠지.’ 당연히 스스로 한민족(韓民族)의 일부라고 믿어온 학생들에게 이 주제는 생소하리라고 교사는 생각한다. 교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민족’이라는 개념이 ‘상상의 공동체’일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학생들은 당황한 듯 보인다. 교사는 학생들의 편견을 깨주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때부터 교사는 민족에 관련된 선입견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역설한다. 2002년 월드컵이 어땠었고,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어땠었고 등등. 몇몇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는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보니 대학 다닐 때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던 독서토론의 한 장면과 같다.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들과 지금 이 학생들은 입시교육에 찌들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다. 학생들을 깨우쳐주고 싶다는 열의에 불타 교사는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겨우 20명이 앉아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 중 절반은 졸린 표정이 역력하다.

한바탕 강의가 끝난 뒤 교사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논제를 주고 600자 정도의 글을 쓰게 한다. 충분히 떠들었고, 나름대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모아 두었으니 어느 정도 수준의 글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하지만 막상 돌아온 학생들의 글 수준은 형편없다. 도대체 논리 전개는커녕 제대로 논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절반이고, 이해했다손 치더라도 어디서 배웠는지 적당한 타협으로 글을 마치기 일쑤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교직생활 2년 차 국어교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몰라 답답하다. 정규수업 준비로도 허덕이는 이때에 논술이라니……. 자기도 자신이 없지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 떠맡게 된 이 논술 수업을 한 학기동안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할지 막막하다.

학생이 바라본 같은 장면. 7교시 수업이 끝난 뒤, 청소를 마치고 허겁지겁 논술 준비반 강의실로 찾아왔다. 교재를 지난 시간에 나눠주던데 까먹고 안 가져 왔다. 미리 읽어두라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뭐 정규수업도 아니고, 선생도 별로 딱딱한 사람은 아니라 별 긴장감 없이 수업으로 들어간다. 수업에 들어가 보니 오늘 주제는 ‘민족’이다. 민족? 지난주 논술 무가지¹⁾ 주제였다. 이 신문을 통해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며, 세계화 시대에 민족의 경계가 차츰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까지 읽었다. 심지어 경제 과목에서 신문 내용을 종종 기말고사에 출제하고 있으니 이 개념이 시험에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민족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들어보니 학원에서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이다. 학원에서는 요약본 자료라도 나누어 주지만, 학교 선생은 말로 때운다. 차라리 학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나서 글을 쓰라며 시간을 준다. 사실 떠오르는 것이라곤 무가 지나 논술교재들에서 읽은 요약본과 이 시간에 들은 말들, 그리고 마스크에서 가끔 떠드는 이야기정도밖에 없다. 그래도 쓰긴 써야 하니까 논제를 살펴보고 제시문을 읽어본다. 수능 비문학 독해만큼 읽기가 귀찮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다. 너무 극단적으로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써서 낸다. 어차피 학원처럼 촘촘히 첨삭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매일 써내라고 하니까 조금 짜증도 난다.

2. 논술의 수레바퀴 아래서

서론을 대신해서 학교 현장의 논술대비반 수업 모습을 한 번 묘사해보았다. 많은 부분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한 글이다. 물론 많은 교사들이 논술을 매개로 좋은 수업을 하고 있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훌륭한 수업 사례들도 매년 차곡차곡 축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앞의 수업 상

1) 예를 들어 『생글생글』이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 배포되는 무가지가 있다. 이 신문은 한 경제 신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발행하는 무가지로서, 논술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여 그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유명저서, 논술 관련 정보나 각종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황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체험을 굳이 옮겨본 것은 같은 수업을 두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당한 인식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논술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고민하지만 정작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변화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은 글쓰기를 더 힘들어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논술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본 논술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논술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피고,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2.1. 논술, 소외감을 주는 글쓰기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논술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풍문으로만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김미숙(2007: 2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8년 대입제도가 발표된 후, 논술대비 사교육을 따로 시켜야 할 부담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 학부모의 81.4%, 중학생 학부모 79.0%, 고등학생 학부모 72.1%가 그렇다고 답해 초등학생 때부터 학부모들이 논술에 대해 이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논술 사교육 참여비율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의 경우 23%, 중학교의 경우 12.4%, 고등학교의 경우 12.5%가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독특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대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고등학생일 때보다 초등학생일 때 사교육 부담을 더 크게 느끼며, 참여율도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학 입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현장을 살펴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논술 자료를 전교생에게 제공할 수야 있겠지만, 논술 수업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즉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위해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반적

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몇몇의 학생에 국한된다. 논술을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학생들은 양분한다는 말이다. 이 중에서 논술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은 논술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논술은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입시 시장을 둘러싼 매체들의 과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그 효용성이 과장된 경향이 있다. 그 효용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배제된 학생들이 그로 인해 소외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논술이 창의적 사고를 키우네 마네 아무리 떠들어도 이미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아예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차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학 진학에 매달리는 학생들 또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조금 해보다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라고 포기한 뒤에 3학년 때는 수능 준비에 매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논술은 이처럼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학생들을 갈라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열반 편성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각급 학교에서 따로 준비하는 논술반은 바로 우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구별은 일찍부터 계급적 차이를 내면화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는데, 논술이라는 시험 자체가 사회 계층적 분리의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이형빈(2007: 76)²⁾의 글은 논술시험이 초래하는 구조적인 폐해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논술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논술’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자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에 불과하다.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논술 교육과 쓰기 교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논술과 상관없이 자유롭운 글쓰기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논리에 합당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고등학교 공교육의 틀 안에서 본다면 현실 정합성 있는 주장이 아니다.³⁾ 보다

2) 이형빈은 논술이 새로운 본고사의 효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논술의 역할이 ‘학생 선발의 변별력 확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거기에 덧붙여 논술은 서열화 체제를 공고히 하며, 논술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은 기능적 유연성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3)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논술”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논술”이란 상이한 층위에 있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입시 논술”이라는 개념이다. 즉 주로 대학 입시 문제를 푸

새로운 방식으로 자유로운 글쓰기 교육을 시도했던 다양한 성과들이 논술 교육 위세 앞에서 차츰 그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상을 필자는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입시 위주의 국어교육에 반발하여 새로운 수업 형태로서 글쓰기 교육이 시도되었지만, 논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후로는 그런 글쓰기 교육의 성과마저도 논술 교육의 범주 안으로 차츰 포섭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쓰기 교육의 방식을 연구하는 시도보다는 입시와 연관되어 있는 논술 교육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일선 학교는 움직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사의 역량도 그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⁴⁾ 그 결과 고등학교에서 “글쓰기=논술”이라는 공식이 학교 전반에 통용되고 있으며, 논술에서부터 소외된 학생들의 괴리감을 더욱 커져갈 뿐이다.

2.2. 논술, 두려움을 주는 글쓰기

2.2.1. 문제 자체가 주는 두려움

이와는 달리 논술을 막상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연 어렵까? 논술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학생들이 첫 번째로 받는 느낌은 ‘어렵다,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논술을 난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출제된 문제의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논술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쓸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입시 논술”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개념인데,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글쓰기를 말한다. 현장 교사들은 이 둘 중 전자에 대한 필요성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후자의 가능성에 교육적 기대를 걸고 “논술”을 지도한다. 그러나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념 사이에는 쉽사리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본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어렵지만, 당위적인 주장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많은 교사들의 체험 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이제 유치원 애들한테도 논술을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동화책 읽히고, 느낀 점 쓰게 하고, 논리적인 형식을 좀 갖추어서 말이지...” 이 말은 어느 장학사가 경북의 한 유치원 교사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유치원 교사에게도 논술을 강요할 정도라면 고등학교에는 어떤 수준일지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이계삼, 2007: 132)

바 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2006: 29)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원진숙(2006: 12)의 경우에도 대입 평가 도구로서의 통합 교과 논술이 학생들의 지적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도 있다. 문제를 출제하는 각 대학에서도 그간의 비판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제시문으로 교과서 지문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논술 문제는 어렵다. 올해 출제된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의 논술 문제만을 살펴봐도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 중에 다루지 않거나, 다루고 있더라도 실제 수업 시간에 접하기 힘든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연대 수시(2-2) 인문계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그 제시문은 모두 정규 수업 시간에 읽기 힘든 동·서양의 고전들⁵⁾이다.

이러한 경향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논술고사 자체가 놓인 사회적 맥락과 연관이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논술고사는 가르치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기형적인 시험이다. 논술을 개별적으로 출제하는 각 대학 담당자들과 실제로 그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분리되어 있기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는 데 난항을 겪는다. 그러니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대학 서열은 상위권 대학들로 하여금 논술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⁶⁾ 게다가 새 정부의 대학 입시 정책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중간 역할조차 방기하고 모든 출제의 권한을 대학 당국으로

5) 제시문 가)는 『중용』,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었다. 이런 책들을 윤리나 사회 교과에서 소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읽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6) 정확하게 말하자면 논술고사가 어려운 것은 몇몇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 국한된다. 한국과 같이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경우 대학 간에도 논술고사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데 역량의 차이를 보인다. 이런 서열에서 비교적 낮은 서열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그 대학 논술고사의 비중, 경향, 난이도, 분량 등을 지난 몇 년간 논술고사 평가 결과와 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있어서 어렵게 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하병학, 2006: 22).

넘겨버리고 있다.

그간 대학 입시가 몇몇 상위권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을 감안하여 볼 때, 학생들은 논술 또한 상위권 대학의 어려운 기출문제들을 푸는 것을 논술 준비라고 생각해왔다. 기출 문제를 받아든 학생들은 복잡한 사회문제 혹은 철학문제를 다룬 난해한 제시문과 논제들을 보고 당연히 논술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사교육의 모습 또한 이 선입견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한다. 모든 학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학원들은 논술 고사 준비를 빙자하여 동서고금의 사회학자, 정치학자, 철학자의 글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교과과정에만 충실히 따른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받아드는 순간 자신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생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과외나 학원수강을 시작하든지, 그런 사정이 안 된다면 좀 어려운 책이라도 한 권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⁷⁾

여기서 학생들이 논술 문제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학교에서 독서 수업을 진행할 때의 일이다. 독서 수업 관련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책 읽을 시간을 주고, 자신이 읽은 책을 정리해서 논술에도 대비할 겸 독서일기를 양식에 맞게 쓰라고 했다. 학생들이 책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책을 약 100권 가량 구비해두고 거기서 골라 빌려가서 써도 좋다고 말했다. 거기에서 책을 골라서 읽던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다. 그 학생은 비치되어 있던 책 중에서 만화책 한 권과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와서, ‘이런 걸 읽고 독서일기를 써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게 논술에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한 권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고, 또 한 권은 가난한 학생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다.⁸⁾ 두 권 다 심각한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7) 논술의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크게 확대된 것은 이러한 불안 심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견해는 논술학원 원장으로 이름을 얻은 사람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조동기, 2007: 35).

불구하고, 그 학생은 이런 책이 진지한 것과 거리가 멀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생은 다루고 있는 문제의 진지함과 표현된 형식의 난해함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이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을 독서와 관련된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논술 준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술이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보다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판단하지만,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술 문제들이 지나치게 난해한 지문을 기반으로 출제되었고, 수업 시간과는 전혀 다른 수준 높은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학생들은 논술 문제에 대해, 글쓰기에 대해, 심지어 독서에 대해서도 잘못된 편견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필자는 앞의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2.2.2. 글 쓰는 상황 자체가 주는 두려움

앞서 이야기한 까닭이 두려움의 원인은 아니다. 논술고사라는 글쓰기 상황 자체도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모든 평가는 자신의 성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편차는 있어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당연히 갖겠지만 논술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듯하다.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져 논술로 옥석을 가리겠다는 각 대학의 발표가 나온 이 시점에서 논술은 학생들의 인생을 한 번에 결정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글쓰기는 글 쓰는 이가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때 글쓰기는 시작된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적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글쓰기는 비교적 수월하기 마련이다. 입시 상황에 놓인 논술 글쓰기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글을

8) 만화책은 『26년』이고 동화책은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였다.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글을 쓰게 된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욕망이 글쓰기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간단히 말해서 논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글을 짜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야한다는 상황은 글 쓰는 이에겐 언제나 중압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논술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또한 논술 글쓰기의 경우 예상독자와 글을 쓰는 이 사이에 권위 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문제도 있다. 논술 준비에 이미 들어간 학생들은 중간에 아무리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글을 읽을 사람이 최종 대학 교수로 이루어진 논술 채점진임을 이미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논술은 글을 쓰는 학생이 예상할 수 있는 최고급 독자를 전제하고 쓰는 글쓰기가 된다. 평소에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위 있는 독자를 상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없는 문제에 대해 글을 써야하니 학생들이 난감해하는 게 당연하다.

물론 논술만이 아니라 글쓰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논술 글쓰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글쓰기 교육 전반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즉 글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바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 원인이라는 지적 또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논술 글쓰기 지도가 그러한 경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의 정책 또한 이런 중압감을 줄여주기보다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각 학교에 논술과 관련된 글쓰기 붐을 불러일으킨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내신에 반영하는 시험문제를 논술 형태와 같이 서술형 주관식으로 50% 이상 출제⁹⁾하도록

9)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2007년에 교육청 감사를 받았는데, 평가 분야의 경우 서술형 문제를 50% 이상 출제했는가를 확인하고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권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글쓰기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이다. 학생들은 대입 논술 시험에서 갖는 부담도 있지만, 내신 시험에서도 부담스러운 글쓰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술형 주관식 100%로 대학 시험을 본 경험으로 짐작컨대, 이런 식의 시험은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지 글쓰기 능력이나 창의력,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신이 대학 입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의력을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은 채점 기준에 논란을 가져온다. 또한 50% 이상 서술형 주관식을 출제하게 되면, 짧은 시험 시간에 많은 답안지를 채점해야하므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교사들은 업무량의 한계 때문에 기존의 수행평가를 줄이고 교육청 권장 사항을 지키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행평가의 장점을 외면하고, 여전히 글쓰기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 권장을 과연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2.3. 논술, 방관하는 태도를 기르는 글쓰기

어쨌거나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논술에 적응해간다. 부지런한 학생이라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서 읽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렇게 논술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또 다른 역효과에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책을 단행본으로 읽지 않고, 참고서 공부하듯이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3.1.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글쓰기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논술 자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논제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논술과 관련된 무가지로 앞서 이야기한 『생글생글』의 경우를 살펴보자. 다음은 『생글생글』의 “시사이슈 찬반토론”이라는 한 쪽지의 제목을 인용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한계는 어디에」

찬 “차도 점거 등 합법 경계 넘어가면 제재”

반 “자발적 민심 표현... 공권력 동원은 잘못”¹⁰⁾

제목만 봐도 짐작이 간다. 이 논제는 최근 한국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된 시민 불복종의 범위를 놓고 학생들에게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복잡한 요인이 결부된 사회 현상에 대해 극단적인 두 입장만을 달랑 제시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라는 식으로 제시된 논제들은 학생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학생들은 이 논제를 접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고민한 적이 없고, 배경 지식 또한 풍부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즉 너무 적은 정보를 가지고, 너무 많은 부담감을 안은 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은 적당한 타협안으로 귀결되기 쉽다. 글을 쓸 때 눈치를 보게 된다는 말이다. 학생들의 논술답안을 실제로 읽어본 대학 관계자들은 ‘양비론’이나 ‘양시론’에 빠진 답안들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글쓰기 태도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학생들은 대학 입시로서의 논술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참여한 대답을 보이는 주제에 대해 소신 있게 한쪽 편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2007년에 필자가 진행했던 논술 수업에서 학생들이 쓴 글 한 편을 이와 같은 글의 전형적인 사례로 소개할까 한다. 이 글은 자료로 제시된 글¹¹⁾을 읽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과정에 나온 글이다.

10) 『생글생글』 149호, 위 교재는 중립적인 척 하는 여타의 교재들보다 더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찬반 입장을 동등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에서 촛불시위를 불법적인 집회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글생글』은 일부 경제 단체의 입장만을 선명하게 대변하고 있지만, 무가치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학교 전반에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다.

11) 자료로 제시된 글은 하종강(2006: 140)에서 뽑았다. 이 글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백안시하는 친사용자 성향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1) 한국에서 노사 간의 대립은 외국에 비해 흔하다. 공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업노조의 파업에 관심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노사 간 대립에서 노동자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노조의 임금인상이 지나치며, 이미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이는 친기업적 성향의 거대언론, 노동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등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나도 사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소위 이미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한다 해서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많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보며,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 CEO를 대비해보니 내가 노동자와 CEO에 다른 잣대를 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동자들이 노동량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과 부정적 시각이 다소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지난 번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이기적 행동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노사대립을 해결하고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의 보도태도와 노조의 정당하고 신사적인 주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조는 정당한 주장이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학생은 자료에서 제시된 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그 글을 통해 자신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잘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생은 글의 관성에 따라 논지를 그대로 전개하기보다는 글의 후반부에서 조건반사적인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적인 이념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교실 상황도 아니었고, 어떤 입장이든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여전히 어느 한 쪽을 옳다고 선뜻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학생이 자신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왠지 한쪽을 편드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주어진 자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세우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완벽한 의견’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태도는 모든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부터 세우고 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주어진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처럼 ‘눈치 보는 글쓰기’에만 능숙해진다.

2.3.2. 무책임한 글쓰기

이런 태도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다 보니 학생들도 이제는 앞에서 인용된 글처럼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그것이다.

(2)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는 모두 같다. 명동 한복판에서 행인을 잡고 물어봐도 인간은 동등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 본인 자체가 아닌 행위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노동직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노동자 한 명의 실수는 자동차 한 대의 손실로 끝나지만 CEO의 실수는 회사 몇 백, 몇 천 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중소기업, 그리고 자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 (노동자의 과업은 제외하도록 하자)

일을 시작하기 전 이들은 회사와 연봉에 대한 일종의 ‘계약’을 했다. 개인적 사정이 어찌되었든 노동자는 연봉의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선택했고, CEO는 노동자들이 능력과 상관없이 봉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는 것과 달리 회사의 연 이익의 %(회사와 계약한)를 연봉으로 받는다. 즉 자신의 경영성과에 비례하게 연봉을 받기로 계약을 했고, 받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같다고 윤리시간에 배워도 자본주의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인간에게는 무언의 약속으로 가격표가 붙게 되었다. 학벌, 외모, 집안, 성격 등이 가격결정요소이다. CEO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CEO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만한 투자를 한다. 중산층의 자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집 자녀는 돈도 보태주면서.

고연봉의 CEO의 연봉이 아직도 불만이라면 회사 간부가 돼서 연봉을 낮추거나 회사를 망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도 안 된다면 자신이 CEO가 되어 연봉을 받아라.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고 없는 자에겐 어느 정도의 ‘배려’만이 존재할 뿐이다. 배려가 싫다면 가진 자가 되어서 변명거리를 생각하자.

(2)는 (1)과 주어진 똑같은 자료를 읽고 다른 학생이 쓴 글이다. (2)와 같은 글을 살펴보면, “능력지상주의”라는 대전제를 놓고 그 논리에 맞추어 사회현상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손이 가는데로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글이 가능한 것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느낀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글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논리 전개를 펴는 데에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논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깊이가 있다. 관련 제시문 또한 동서고금의 명저들에서 발췌해 있다. 입시 교육 속에서 이런 책들을 진지하게 읽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전을 요약해 놓은 자료를 주로 읽는다. 논술 준비를 위해 만들어놓은 수많은 다이제스트식 고전요약본들을 읽은 학생들은 자신이 이미 그 책의 핵심을 다 읽은 듯이 여기게 된다.¹²⁾ 실제로 학생들이 요약본을 통해 얻은 것은 간략한 줄거리와 몇 개의 개념에 불과하다. 개념이 성립되기까지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치밀한 논지전개들은 빼고 앙상하게 골자만 남은 개념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되는 셈이다. 학생들은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형성한다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한 이해가 상충하는 현실을 두 가지 입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한 논제들을 놓고 고민해온 학생들은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그것이 내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빈약한 개념의 틀에 맞추어 미리 판단하고, 단정 짓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될 가능성이 있다. 논술에서 주어진 논제들 또한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조장한다. 2008년 서울대 논술고사 2차 예시문항을 한 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2) 이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이다. 교과서와 참고서들이 모두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논술도 마찬가지로의 공부 방법으로 학습한다.

【제시문 1】 새만금 간척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효과를 논의한 농림부와 농어촌 진흥공사의 연구 결과
- 영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환경부의 연구 결과
- 찬성론
- 반대론

(논제) 위의 두 제시문을 참조하여 두 사업에 대한 논란이 생겼을 때, 과거 수년 전부터 진행된 새만금 사업에는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고, 영월 다목적댐 건설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었다. 결국 새만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 영월 다목적댐은 취소되었다. 이미 투자된 비용을 논의로 했을 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논술하시오.¹³⁾

이 논제는 시화호와 동강 댐이라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환경문제를 다룬 다양한 소재를 열거해가면서 훌륭한 논술을 써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막상 삶 속에서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것처럼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¹⁴⁾ 필자는 대학시절 동강 댐 주변 지역으로 농활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논제와 관련된 상황에 직접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동강 댐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모인 몇 안 되는 마을사람들조차 입장이 조금씩 달라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워 했다. 농활 가기 전에 이미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댐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단지 열흘 정도 머무르다 떠날 학생인 필자가 삶의 터전이 걸려있는 사람들 앞에서 원론적 주장을 내세우기는 힘들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근본적으로 옳은 문제라

13) 원진숙(2006: 12)에서 재인용

14) 윤구병(2007: 125)은 논술에서 주어진 환경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논제를 잘 서술했다고 해서 생태 환경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처럼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은 누군가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어쩌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신이 주위들은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단순화시킨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깊이 있는 사고는 사색의 과정만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현실 사회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논리적인 사고과정만으로써 옳고 그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 주제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각각의 입장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사고과정보다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느냐가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술은 일회성 평가의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일회성 평가는 단지 학생의 기존 지식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 지식 수준과 주어진 논제의 참여함을 건주어 살펴보면, 현재의 논술은 양비론과 양시론을 낳는 글쓰기가 되거나, 무책임한 결론으로 치닫는 글쓰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논술의 굴레를 벗어나

거북하겠지만 앞서 인용한 (1)과 (2)의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이 두 편의 글을 처음 읽었을 때 필자는 비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서글프다는 생각이 앞섰다. 자유와 평등 같은 고귀한 가치를 수업 시간에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현실이 이 두 편의 글 속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논술은 (1)의 글을 쓴 학생처럼 방관자를 길러 내거나, (2)의 학생처럼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내는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고도 느꼈다. 이것을 올바른 글쓰

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수업 시간 중에 역설적으로 “(1)보다는 (2)가 낫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1)은 비겁하지만, (2)는 무식하기는 해도 솔직하고 용감하기 때문이다. 갈등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개개인에 필요한 태도는 팔짱 끼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한 (2)의 글이 더 낫다고 자조적으로 말한 것이다.

물론 (2)의 학생처럼 독단과 독선으로 가득 찬 학생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글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말한 것이다.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내면과 만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필자는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는 글쓰기가 필요한데, 지금의 논술은 그런 글쓰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글쓰기가 용기 있는 글쓰기일까? 다음 학생의 글은 자신의 선택한 책¹⁵⁾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독서일기”의 일부이다.

옆의 사진은 싸이나 블로그 같은 데서 ‘재미있는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사진 중 하나다. 그냥 언뜻 봐도 왼쪽 세계와 오른쪽 세계가 너무 선명하게 대조되어 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합성이 아닐까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래서 나도 이 사진을 너무도 당연히 ‘재밌는 사진’ 폴더에 저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양극화 문제도 몹시 리 처지지만, 담장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는 저 슬럼이 언젠간 호화리조트를 무너트리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도 재미없는 현실이다.¹⁶⁾

학생의 글에서 언급된 사진은 담 하나 사이로 호화리조트와 슬럼가가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있는 한 지역의 사진¹⁷⁾이었다. 이 학생은 책을 읽

15) 학생이 선택한 책은 『슬럼, 지구를 뒤덮다』라는 책이었다.

16)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서민휘 학생의 글에서 인용했다.

17) <그림 1> 참조.

고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서술했으며, 관련된 기존 지식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서술했다. 물론 학생이 쓴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곳곳에서 미숙한 부분이 발견되지만, 중요한 것은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 사이에서 벌어진 인식의 교류과정을 글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 학생은 다양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책을 선택하여 읽고 그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 학생이 이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세계화가 주거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그 중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라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선정하여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그 결과들을 꾸준히 성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서 이 학생은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며, 그 결과로 자신의 의지대로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한 교사의 다음과 같은 교실 풍경을 옮겨보고자 한다. 장난기가 가득하지만 지금 한국의 논술 교실에 던져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큰 것 같다.

“먼저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죽 넘겨서 새끼손가락 바깥까지 닿도록 하는 겁니다. 쪽쪽 뺐어요. 쪽쪽, 쪽쪽. 이제, 새끼손가락을 구부려서 엄지손톱을 덮어보세요. 알아들었죠? 다음에, 집게손가락을 뺐어서 엄지손가락 밑동 마디를 덮으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끝으로 약손가락을 뺐어서 엄지손가락 가운데마디를 덮으세요.”

학생들이 따라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어서 나는 말한다.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글쓰기 연습입니다. 그걸 자주 하세요. 모든 권위 있는 인물들 앞에서 그리고 특히 여러분 속에 있는 비평가 앞에서.”

학생들이 웃는다.

그들은 내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아직 모른다(데릭 젠슨, 2005: 84).

<그림 1>

□ “나의 독서노트” (단행본)		<table border="1" style="float: right; margin-left: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확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td> </tr> </table>	확 인	
확 인				
작성일자 : 2008년 6월 9일				
1. 도서명 : <u>희망, 기쁨, 뒤떨다</u>	3. 출판사 : <u>들레기</u>			
2. 지은이 : <u>미야노 테이치</u>	4. 만족도 : <u>Ⓐ</u> B C D E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구절/장면은?	<p>1990년대 초 이집트 시대의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철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손으로 짠 벽돌을, 기둥과 기, 벽돌을 들고서, 시멘트 덩어리, 나무조각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공해와 배설물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콘크리트와 시멘트의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의 국민들은 9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 개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특색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러움의 기쁨을 넘어서도록 살아야 할 것이다.</p>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준다면...	<table border="1"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 <tr> <td style="padding: 2px;">추천점수</td> <td style="padding: 2px;">흥미면</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2px;">확실히</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2px;">시사고양면</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p>다들 저서도 우리보다도 별로 이해할 수 없는 문체다. 친구들에게도, 대학 강연에서도 그다지 인기있게 팔려나간다고도 하는데, 최근의 내집주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우리가 사는 도시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다.</p>	추천점수	흥미면	★★★★☆		확실히	★★★★★		시사고양면	★★★★★
추천점수	흥미면	★★★★☆								
	확실히	★★★★★								
	시사고양면	★★★★★								
그 이유는?	<p>이런 '희망'은 양날의 칼이다. 비록 도시의 더욱 발전에는 경제영역의 특성의 동기, 역사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대해 고민과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도시의 개발은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인간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p>									
나만의 감상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p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Good!!!</p> <p style="font-size: 0.8em;">이런 건 앞으로는 꼭 봐야 할 것 같다.</p> </div> <div style="flex: 2;">  <p>영의 시인과 시에나 불교의 전통에서 '깨달음의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오던 시인은 수많은 시를 남겼다. 그는 시와 불교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썼다. 그의 시는 시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썼다. 그의 시는 시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썼다. 그의 시는 시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썼다.</p> </div> </div> <p>이 책은 내가 읽은 '깨달음의 시인' '혹시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을 웃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현실을 웃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을 웃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현실을 웃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을 웃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현실을 웃을 수 없다.</p>									

<참고문헌>

- 강 폴(2007), 『26년』, 문학세계사.
- 김미숙(2007), 「논술 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개발』 통권 159호.
- 김중미·유동훈(2002),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도깨비.
- 원진숙(2006), 「대입 평가 도구로서의 통합 교과 논술에 관한 일고찰」, 『한국작문학회 제7회 연구발표회 자료집』
- 윤구병(2007), 「논술과 글쓰기에 대한 짧은 생각」, 『함께여는 국어교육』 78호.
- 이계삼(2007), 「논술 독재 앞에서」, 『함께여는 국어교육』 74호.
- 이어령(2006), 「국어는 국가의 품위... 지도자들이 먼저 훼손」, 『중앙일보』 2006년 10월 30일.
- 이형빈(2007), 「'논술'은 교육의 새로운 대안인가」, 『함께여는 국어교육』, 77호.
- 조동기(2007), 「논술의 시장, 시장의 논술」, 『교육개발』 통권 159호.
- 하병학 (2006), 「원진숙 선생님의 “대입평가도구로서의 통합 교과 논술에 관한 일고찰”을 읽고」, 『한국작문학회 제7회 연구발표회 자료집』.
- 하종강(2006),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고임금이라구요?」,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후마니타스.
- Derrick Jensen, 김정훈 역, 1988, 『네 멋대로 써라』(Walking On Water - Reading, Writing and Revolution), 삼인.
- Mike Davis, 김정아 역, 2007, 『슬럼, 지구를 뒤덮다』(Planet of Slums), 돌베개.

<Abstract>

The Three Types of Effects that Essay Has On Students—Sense of Alienation, Fear and Indifferent Attitude

Kim Ji-woon

As the essay has taken up an important part in the university entrance, the essay education is also being performed as various forms in the education scene. Despite the fact that various study results and cases of practice on essay are being accumulated, the essay lesson is still being accepted as something which is quite burdening to students or teachers at the scene. This thesis takes a look at several negative effects that essay education causes for students in order to clarify why this has happened.

The effects of essay on students can be mainly summarized into three types. First is the fact that it causes a sense of alienation for students. Considering from the aspect of university entrance, because the essay is only being performed on some students who will enter top universities, the students who are excluded from this can only feel a sense of alienation. Second, while the essay can give a sense of fear to students, this fear appears out of the following two reasons. The very fact that the presented passage and the essay question itself are extremely difficult

is the first reason and the fact that the writing situation called essay itself can only cause fear is the second reason. The essential nature of essay that one must write for the purpose of university entrance always causes quite a burden to students on writing. The third effect of essay on students is the fact that it promotes an indifferent attitude for students. This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subjects of arguments forcing to choose between two opposite position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essay. In current Korean society, the subjects of argument demanding to express one's own opinion on problems arousing a sharp confrontation make students fall into antagonism or protagonism of both sides or fall into irresponsible writing. Also, this isn't advisable in the aspect that it promotes an attitude of consistent indifference for students rather than raising the attitude of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problems. Looking into these negative effects of essay on students, the thing which is necessary for education field could be called a free style writing connected wit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students rather than intensifying the essay education.

Key words : Essay, effect on students, class conditions, university entrance, writing education.

<토론>

‘논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세 가지 영향’에 대한 토론문

이 동 혁*

현장에서 논술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지도하고 계신 김지운 선생님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논술이 입시와 맞물려 왜곡되고 있으며,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에 이의제기가 없기 때문에, 질문은 없어도 되지만 학술발표회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니까, 몇 가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1. 글쓰기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술 바라보기

발제하신 글에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시장에서 논술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줄어든다. 그런데, 논술이 글쓰기 교육 전반을 장악하면서 ‘글쓰기=논술’ 공식이 학교 전반에 통용되고 있다. ‘글쓰기’ 자체가 학생들로부터 괴리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논술 때문에 글쓰기가 학생들로부터 괴리된 것처럼 이야기하셨지만, 논술 때문에 글쓰기가 학생들로부터 괴리된 것이 아니라 논술이 강조되기 이전부터 글쓰기는 학생들로부터 괴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초, 중, 고등학교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글쓰기교육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입시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글쓰기교육은 학생들과 멀어지는 것이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사교육시장이 입시를 담당하는 90년대 중반 이후, 공교육에서는 오히려 글쓰기교육에 대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입시와

*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국어교사

거리가 비교적 멀다고 느껴지는 중학교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제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소설쓰기, 부모님 자서전 쓰기, 시 감상 쓰기, 생활글쓰기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논술 자체, 그리고 논술을 기피하는 학생이 문제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논술이 입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논술을 입시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입시학원에서 논술을 지도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교육의 틀 속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교육을 가르쳐야 할 국어선생님들도 논술을 ‘글쓰기의 틀’이 아닌 ‘입시교육’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입시 논술의 경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글을 쓰게 된다. 이를 통해 좋은 점수를 얻어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욕망이 글쓰는 이에게 중압감을 준다. 그래서 두렵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것은 무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관조하는 태도’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를 얻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종종 글 쓰는 행위 자체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글을 쓰는 것은 사고의 표현이고, 논술은 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입장)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 종종 자신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논리는 보통 논술교육을 통해 주입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를 튼튼하고 세밀하게 갖춰나가는 것은, 21세기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세겠지요. 이런 연습이 필요한 시기인 고등학생 때, 상황에 따라, 점수에 따라, 이리저리 논리를 꿰어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학생들의 글과 행동(실천)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협력학습 원리에 따라 분석한 고등학교 교사의 논술 수업 설계 사례

박 안 수*

<차례>

1. 들어가며
2. 논술 수업의 이론적 배경
3. 글쓰기 협력학습 원리와 고교 논술 수업 대표 사례의 상관성 분석
4. 글쓰기 협력학습 원리에 따라 분석한 두 개의 고교 논술 수업 사례
5. 나오며

<붙임> 정규 교과 국어 관련 과목 사례

<요약>

논술 수업은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성주의 교육, 협력학습, 글쓰기 협력학습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많은 측면에서 연관성이 깊다. 예를 들면, 지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내적(구성적) 진리를 강조하고, 교수자의 역할은 안내자, 조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습의 맥락에서는 주입식(강의식) 수업보다는 토의·토론식 수업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국어교사들이 인문·사회계 논술 수업을 실천한 사례 중에 3편을 분석 자료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를 주요갯대로 사용하여 수업 설계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살펴보았다.

위의 논술 수업 사례들을 분석해 본 바, 대체적으로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수업을 설계·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중·고교의 논술 수업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수업 철학과 원리, 적용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

* 광주광역시 광주고등학교 국어교사

에 따라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논술 수업은 읽기(독서)와 연계한 토의·토론식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논술, 경험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성주의 교육,
토의·토론식 수업, 협력학습, 글쓰기 협력학습.

1. 들어가며

1.1. 논술 수업 사례 연구의 필요성

현재 중·고교 수업에서 논술¹⁾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입장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에서 2006학년도부터 이른바 ‘교과 통합형 논술 고사’²⁾를 도입한 것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이다. 그런데도 중·고교 현장에서 논술 수업에 대한 입장은 크게 양분되어 있다.³⁾ 먼저 논술 수업은 광풍(狂風)이라고 비판하는

- 1) 논술(論述)이란 어떤 논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세우고 이를 객관성이 강한 논리의 틀에 따라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기 주장을 타인에게 관철시키거나 동의를 구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하지만 논술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논술을 ‘문제의 발견과 해결’로 보는 사람은 ‘대학 입시의 특정한 양식의 글쓰기 형식’이라고 보는가 하면, 논술을 ‘상대를 설득하기’로 보는 이는 ‘설득하는 목적의 글쓰기’를 말한다(임성규, 2007: 31). 논술문이란 필자가 보이지 않는 독자를 상정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받아들일도록 독자를 설득시키는 글이다(원진숙, 1995: 13).

필자는 논술을 갈래별 상·하위 개념으로 나눠보면 글쓰기>설득하기>논설문>논술의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필자는 이 글에서 논술의 개념을 ‘대학 입시의 특정한 양식의 글쓰기 형식으로서, 어떤 논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세우고 이를 객관성이 강한 논리의 틀에 따라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음을 밝힌다.

- 2) ‘통합 교과형 논술’란 ‘교과와 교과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서 길러지는 사고력의 통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통합 교과형 논술도 논술이란 개념으로 부른다. 왜냐하면 논술이란 개념 속에는 이미 독서와 토의·토론과 글쓰기의 활동을 통한 사고력의 통합이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3) 바칼로레아나 아비투어에는 ‘정답’이 없다.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얼마나 창의적·합리적으로 펼쳐 가느냐를 살피는 평가방식에 정해진 답이 있을 리 없다.(중략)……. 서울대 등 이른바 한국 ‘명문대학’들이 생각하는 논술시험은 ‘정답’을 설정하고 소수점 아래 수치까지 점수를 매겨 눈곱만한 차이이라도 만들어 내 등수를 매기는 것이다. 대단한 듯 얘기하는 ‘변별력’이라는 것도 결국 그 눈곱 차이를 근거로 줄을 세우는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최명주, 2007: 22). 정규교과 수업에서의 논술 교육은 논술 고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논술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본질적 논술 교육을 통해 배경지식, 이해력, 분석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길러 학생들의 총체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입식, 암기식 학습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학별고사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에도 수월성이 있을 것이다(서백영, 2007: 15).

교사들이 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까닭은 현재의 ‘교과 통합형 논술 교사’는 일시적인 제도의 변화일 뿐이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입시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 생활 기록부의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또 한편의 주장을 살펴보면, 논술 수업은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세계적인 대세이며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시를 위한 주입식 수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논술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논술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논술 수업에 대한 교육 철학과 수업 모형과 평가 방법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결합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개 논술 교육의 시행 목적에 대한 합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방법에 대한 합의, 평가의 체제의 객관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정리가 부재하거나 미흡하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교사들이 논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특히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박운희, 2007: 27). 또한 학생들이 논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⁵⁾와 토론 수업이 가장 필요하다(78%)’는 의견을 보였고, 바람직한 논술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로

4) 통합 교과형 논술이 필요한 까닭으로 초중고 교사와 학교 밖 교사 200명이 응한 설문조사에서 76명(38%)이 사회가 요구하므로 논술이 필요하다, 62명(31%)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42명(21%)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 입시를 위해라고 답한 교사는 18명(9.0%)이다(박운희, 2007: 26).

5) 허병두(2006: 114)는 독서의 개념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읽기는 ‘독해’나 ‘독서’보다 큰 개념이다. 읽기는 다양한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종합하는 사고능력이라는 개념이다. 독해는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의 의미를 읽어내는 구체적인 전략이라는 개념이고, 독서는 읽기교육의 하위 갈래로서 다양한 읽기자료중의 하나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 ‘읽기>독해>독서’가 상·하위 개념이다. 본 글에서는 이를 수용해 ‘읽기’를 최고 상위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학생 수준에 맞는 단계 학습 교육이 필요하다(40%),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32%), 독서교육의 활성화(19%), 다매체 활용이 필요하다(7.5%)’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박윤희, 2007: 27). 이런 응답은 교사가 논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른바 ‘논술 수업 매뉴얼’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수업유형⁶⁾’에 관한 개념 정의 중 주로 ‘수업 설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⁷⁾를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논술 수업에서 많은 교사들이 논술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가에 관한 일관된 수업전략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학교마다 공교육에서도 논술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많은 교사들은 대부분 서로 합의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논술 수업 교육과정이나 단위 시간의 수업 방식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마다 각자 개인적 경험에 기대어 수업 모형이나 순서를 결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교사의 정신적 부담과 시간 낭비가 심하다고 본다. 따라서 논술 수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정규 교과목을 공부하는 단위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논술 수업의 방식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일반화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도 교사의 관점에 따라 그런 매뉴얼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 교사마다의 개성적인 수업 방식이 존재할 수 있고, 학교 급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함부로 일반화하기 어렵

6) ‘수업유형’은 교육학 용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수유형(teaching styles)’이라고 부른다. 교수유형이란 ‘교사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동일한(identifiable) 교수 행동들’로 정의할 수 있다(변영계 외, 2003: 41).

7) 이 글은 사례연구의 성격을 지닌 글이다. 또한 교육학의 학문 영역에 따라 분류해 보면 ‘수업 설계’나 ‘수업 분석’에 해당한다. ‘수업 설계’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수업, 학습, 체제이론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수업 분석’이란 ‘교수 방법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업 사태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들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말한다(변영계 외, 2003: 41).

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범위를 한정시켜 살펴 보고자 한다. 곧 ‘고등학교 현장의 국어 교사가 인문·사회계 영역’의 학생들에게 논술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사례는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볼 것이다. 또한 이런 논술 수업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고, 그 이론에 기대어 따져 보았을 때, 위의 수업 사례가 지니는 가치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수업관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사들이 논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나 순서에 어떤 수업 모형을 준비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각의 단위시간에는 어떤 교수·학습 모형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수업 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수업 설계’의 내용을 따져보면 ‘수업관찰’의 효과도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업 사례에 관한 사례연구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수업의 관찰·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이 될 교사를 선택하고 수업을 관찰하고, 면담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바람직한 논술 수업 사례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를 양적·질적 연구 방법으로 정리해 낸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상 쉬운 일은 아니므로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국에서 오랫동안 논술을 실천해온 교사들 중 몇 사람의 수업 설계 내용으로 논술 수업의 이론적 배경을 잘 알려주는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에 근거하여 얼마만큼 체계적인 계열성을 갖고 진행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세부 내용은 논술 수업의 이론적 배경, 교수·학습 모형,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수업 설계가 실제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관해 정리하고, 단점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에 관해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논술 수업 설계 체제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교사들이 진행하는 논술 수업 사례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논술 수업의 목표나 수업 철학, 수업 설계, 교수모형, 평가 방식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까닭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토의·토론, 읽기(독서) 수업, 논술 수업 등에 관한 논저는 여러 편 있었지만⁸⁾, 이들을 통합한 고등학교 논술 수업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필자가 일정한 연구방법과 기준을 세워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1.2. 논술 수업 분석의 대상과 제한점

논술 수업 사례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표 1>와 같은 기준을 두고 수집하였다.

<표 1> 논술 수업 유형 분석 자료의 수집 기준

- ㉠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교과별 논술 수업계획서』⁹⁾
- ㉡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논술 교육동아리 선생님을 위한 통합논술지도 길라잡이』¹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2007 초중고 독서·논술 교육 우수사례』
- ㉢ 전국국어교사모임 누리집에 실려 있는 최근 5년 간의 통합논술 수업 사례 중 연구자가 의미 깊은 사례라고 판단한 자료
- ㉣ 교사연수기관에서 발행한 통합논술 수업 자료와 교사가 평소 논술 수업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판단한 교사의 자료
- ㉤ 한국학술교육정보원에 실린 최근 5년 간의 통합논술 수업 관련 논문 중 필자가 의미 있다고 판단한 자료

이 글에서는 <표 1>의 자료에 실린 글 가운데 3편의 수업 사례를

8) 원진숙(1995)가 대표적인 연구서이다.

9) 교육인적자원부 외(2007나: 3)

10) 교육인적자원부 외(2007가: 67-75)

주요 수업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그 기준은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다른 자료에 비해 글쓰기 협력학습(Collaborative Writing)¹¹⁾의 원리를 비교적 잘 반영한 수업 설계서라고 판단한 자료, 둘째, 수업 설계의 흐름 측면에서 읽기·토론·논술을 연계한 수업 흐름이 잘 드러난 자료를 중심으로 뽑았다. 그리고 학교 급별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논술 수업 자료로 한정하였고, 분석 대상 교과목은 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교과수업 중 국어 관련 과목¹²⁾에서 시행하는 논술 수업과 방과 후 학교의 논술 수업 중 인문·사회계 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논술 수업 사례의 분석 대상

이론적 배경	①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를 비교적 잘 반영한 수업 설계서라고 판단한 자료
수업 설계의 흐름	② 읽기·토론·논술을 연계한 수업 흐름이 잘 드러난 자료
학교 급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논술 수업 자료
분석 대상 교과목	③ 고등학교의 정규교과인 국어 관련 과목의 논술 수업 사례
	④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논술 수업 중 인문·사회계 과목 사례

위의 내용 중에 분석 대상 교과목을 국어 관련 과목과 방과 후 학교 논술 수업 중 인문·사회계 과목 사례를 위주로 연구 대상을 좁히게 때 예상되는 반론을 떠올려 본다.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준비해서 대학 입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들것이다. 하지만 이

11) 글쓰기 협력학습(Collaborative Writing)이란 학습자 여러 명이 서로 토의하고 협상하여 의견을 결정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말한다. 글쓰기 협력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글쓰기의 대화적 속성을 잘 구현하는 수업, 쓰기 학습을 맥락과 상황 속에 구현하도록 돕는 수업, 동료학습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을 잘 반영하는 수업이다(정희모, 2007: 32-33).

이 학습의 원리와 특징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각주 15번’과 ‘2.2논술 수업과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를 참고 바란다.

12) 고등학교 국어(상)·(하), 국어생활, 작문, 독서 등을 말한다.

에 대한 재반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첫째, 최근의 대학 입시 경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할 수 있다. 최근에 각 대학교의 입시 경향은 인문·사회계 과목 교사는 아래 <표 3>의 내용 중 ‘Ⅱ. 교사 주도 통합논술 준비/②다인형 통합논술 수업 준비 / ㉠복잡형 영역전이/㉡인문사회 중심 통합’의 유형의 범위까지만 대비해 주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¹³⁾ 자연계(수리·과학) 과목을 포괄하는 통합 논술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는 소수의 몇 대학에 국한된다.

<표 3>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실천해야 할 논술 수업의 형태(권영부, 2007: 12)

I. 학생 주도 논술 수업의 종류		II. 교사 주도 논술 수업의 종류							
교과 통합 준비	교과서, 독후감, 논제 풀이 등) 다양한 읽기와 쓰기, 토론 활동(일기, 독서, NIE 등)	① 일인형 논술 수업		②다인형 논술 수업					
		㉠ 소개 중심 통합	㉡ 읽기, 생각하기, 쓰기 중심 통합	㉠단순형 영역 전이				㉡복잡형 영역전이	
				㉢ 교과 내 통합	㉣ 연관 교과 통합	㉤ 개별 교과 언어와 통합	㉥ 개별교과 통합	㉧ 인문사회 중심 통합	㉨ 인문사회 + 수리 과학 통합
학생주도 + 교사보조	학생주도 + 교사보조	← Near Transfer				Far Transfer →			

둘째, 학교에서 교사들이 논술 수업을 진행할 때 자신의 국어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 1인당 법정수업 시수나, 과도한 보충수업에 시달리는 교사의 시간적 한계, 육체적 피로도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교과 중심 논술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 1인 주도의 교과 중심 논술은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대부분의 국어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술을 실천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일기문 쓰기, 에세이 쓰기, 설명문 쓰기, 묘사문 쓰기, 보고서 쓰기, 독후감 쓰기 등의 여

13) II. 교사 주도 통합논술 준비 중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담당한다는 말이다.

러 쓰기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고, 이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논술문 쓰기 수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모둠 토의 수업이나 협동학습,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글쓰기 협력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이면서도 개성 있게 표현하도록 하는 학습을 꾸준히 시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마다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취약한 교육과정이나 수업 모형과 평가방식을 조금씩 개선해 적용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논술을 폭넓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므로, <표 3>의 ‘Ⅱ. 교사 주도 통합논술 준비’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수업 계획·운영에 필요한 ‘논술 수업의 이론적 배경, 교수-학습 모형, 평가 방법’ 등을 모두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수집 자료의 한계 상 ‘체계적인 논술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2. 논술 수업의 이론적 배경

2.1. 논술 수업과 교육 철학적 관점의 연관성 살피기

논술 수업은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성주의 교육¹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많은 측면에서 연관성이 깊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주장하는 큰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경험주의 교육을 주장한 교육 철학자 듀이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전통적인 학교 교실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¹⁵⁾ 먼저 지식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서는 지식을 외적 진리로 보지 않고 내적(구성적) 진리로 보았다. 둘째로 교수자의 역할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상위에서 군림하

14) 구성주의는 인식론적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거부하고 개인의 주관관을 통해 진리가 구현된다는 철학적 입장을 말하며, 교육학적 입장에서는 강요된 학습을 배격하고 학습자의 주체적인 인지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적 입장을 말한다(정희모2007: 42)

15) (Foote et al. 2001: 14; 정희모, 2007: 27 재인용)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안내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로 학습 맥락 관점에서 보면 학습을 주입식으로 하기보다는 학습자의 경험과 맥락에 연계하느냐에 따라 학습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¹⁶⁾

듀이가 말한 세 가지 관점을 학습자 중심 교육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지식의 본질’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은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지식을 거부한다. 그리고 지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연계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안내자, 매개자, 인도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맥락’은 수업이 형식적, 고정적, 진행되지 않고 실제적인 맥락과 상황에 의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란 이런 세 가지 관점이 모여 학습자의 인지적 변화라는 한 목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첫째, ‘지식의 본질’ 측면에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거부하고 개인의 주관을 통해 진리가 구현된다는 철학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지식이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의거하여 구축되는 개별적인 인지 작용의 결과’(강인애, 2003: 63)라고 인식한다. 특히 개인의 주관적 인지활동 속에는 사회의 경험과 상호작용이 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구성주의에서는 ‘진리(truth)’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대신 ‘적합성, 생존성, 유용성’이라는 용어를 써, 우리의 행위와 사고가 그 문제에 대해 ‘적합한가, 유용한가, 잘 들어맞는가’에 오히려 관심을 두게 된다(강인애 외, 2002: 4-5). 둘째, 교수자의 역할은 강요된 학습을 배격하고 학습자의 주체적인 인지과정을 중시하는 교육학적 입장을 따르며,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탐색하고 구성하는 능동적 수업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맥락’을 살펴보면 수업이 형식적이고, 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학습자가 처한 실제 수업 맥락과 상황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내

16) 정희모(2007: 18-19)를 바탕으로 필자가 듀이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한 요지이다.

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수업 전략으로 협력학습과 문제해결 학습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문제해결 학습이란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수업이다.

그렇다면 논술 수업은 위의 교육학 이론들과 서로 어떤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을까? 첫째, ‘지식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자. 이 수업에서는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지식을 거부한다. 학습자는 논제와 제시문을 분석하며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한 다음, 자신이 구성한 관점과 체계에 따라 답안이라는 텍스트를 생산한다. 출제자나 교사는 논제와 제시문을 통해 자신이 요구하는 큰 틀을 지킬 것을 강조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완벽하게 고정된 형식과 내용이 담긴 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각자의 학생들이 논제와 제시문의 텍스트에 나온 조건을 활용하여 약간씩 입장이 다른 글을 작성하면 답으로 인정해 준다. 이는 지식을 ‘외적 진리’로 보지 않고 ‘내적(구성적) 진리’로 보는 경험주의 교육 철학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지식을 거부하며, 지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고 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철학에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덧붙여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서 ‘지식’이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의거하여 구축되는 개별적인 인지 작용의 결과’라는 관점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이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들이 해석하고 종합한 사고 체계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수업 자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를 촉진하고 매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교수자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도와주는데 초점을 둘 뿐, 학습자를 대신하여 텍스트를 읽어주거나 생각해주거나 글로 써줄 수 없다. 학습자는 오로지 자신이 생각한 것을 텍스트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때때로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해석하고 종합해 낸 사고의 결과물(텍스트)에 대해 교수자가 다른 관점을 지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사고 방향이나 관점을 무조건 고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논리적 근거 제시를 통해 학습자를 이해시키고 동의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동의하는 논지나 논거가 아니라면 교수자의 관점이

나 조언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논술 글쓰기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상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안내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지닌 경험주의 교육 철학과 관련이 깊다. 또한 교수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안내자, 매개자, 인도자라는 관점을 지닌 학습자 중심 교육 철학과도 통한다. 또한 강요된 학습을 배격하고 학습자의 주체적인 인지과정을 중시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탐색하고 구성하는 능동적 수업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부합하는 수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학습의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논술 수업은 위와 같은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수업 방식을 ‘주입식’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교수는 학습자의 경험과 맥락에 연계하여 학습의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대화식’, ‘토의·토론식’ 수업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특성은 경험주의 교육 철학에서 강조하는 수업의 방식과 매우 잘 들어맞는다. 또한 교수가 학습의 맥락을 형식적이고, 고정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학습자가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실제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라 진행할 것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철학과도 일치한다. 또한 학습자가 처한 실제 수업 맥락과 상황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수업의 전략으로 협력학습과 문제해결 학습을 선택하는 구성주의 교육 철학의 특징을 잘 반영해 준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서로 일치함으로써 논술 글쓰기 수업은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성주의 교육과 관련성이 매우 깊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4> 논술 수업과 경험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구성주의 교육의 관점 비교

인식의 관점	경험 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구성 주의 교육	논술 수업
지식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 진리가 아님 • 내적(구성적) 진리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지식을 거부 • 지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의해 생산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주관 을 통해 진리는 구현됨 • 진리는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의거하여 구축되는 개별적인 인지 작용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와 제시문(지식)을 분석한 다음, 학습자가 구성한 관점과 체계에 따라 답안(텍스트)을 생산함
교수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를 안내하는 매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를 안내하는 매개체(안내자, 매개자, 인도자) • 학습자의 경험과 맥락 연계를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주체적인 인지 과정을 중시 •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탐색하고 구성하는 능동적 수업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자는 합리적인 논지와 논거 제시를 통해 학습자를 이해·동의하도록 안내·조인함
학습의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경험과 맥락의 연계를 따라, 학습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지식을 실제적인 맥락과 상황에 의해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학습과 문제해결 학습 전략을 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경험·맥락에 연계하여 성과를 산출하도록 ‘대화식’, ‘토의·토론식’ 수업을 주로 함

2.2. 논술 수업과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

논술은 대학 입시에서 답안을 쓰는 과정에 주목하여 따져본다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논술 답안을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수업의 과정에 주목하여 본다면 오로지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여 쓰는 논술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¹⁷⁾ 방식을 선택하여 쓰는 것이

17) 협력학습과 관련된 개념으로 ‘협동학습’이 있다. 영미권에서는 협동학습을 지

매우 효과적이다. 학생 개인이 분석한 논제나 제시문의 요지를 서로 비교 검토한 다음, 다발 짓기(개요짜기)의 세부 구성사항을 검토하고, 답안으로 작성한 텍스트를 서로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혼자 쓰는 논술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관점이 담긴 텍스트를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는 글쓰기 협력학습(Collaborative Writing)의 개념, 특성과 원리를 정확히 알고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글쓰기 협력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글쓰기 협력학습의 특징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이론가인 부루피(Bruffee, 1984)의 사상을 설명한 다음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부루피는 글쓰기를 내면화된 사회적 대화가 다시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본다. 인간의 사고가 사회적인 대화가 내면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글쓰기는 그 사고를 다시 표상의 형식으로 외부로 재현한 것이다(Bruffee, 1984: 641; 정희모, 2007: 27 재인용).

한 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글쓰기의 과정에는 사회적 대화의 성격이 들었다는 주장이다. 글쓰기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대화를 재구성하는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글쓰기란 구성주의 학습관의 영향이 담겨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자세히 따져보자면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¹⁸⁾ 한편 이

칭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 하나는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이고 다른 하나는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다. 협동학습이 경쟁에 저항하여 협동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 효과 증진을 추구한다면, 협력학습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협상을 통해 인지적 성장을 추구한다. 협동학습은 모둠학습의 방식을 활용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학습이라면, 협력학습은 최선의 해결책보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잠재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이다. 협동학습이 효율성과 구조성, 결과를 중시한다면, 협력학습은 사고력과 내적성숙, 과정을 중시한다. 글쓰기 협력학습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 지식의 습득이나 축적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 내고 형성해내는 과정을 익히는 것이 더 필요하다(정희모, 2007: 6).

18)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주의는 지식을 사회적 관계, 특히 언어 활동을 통해 구

와 같은 ‘쓰기 집단 활동은 쓰기 기능과 읽기 기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 의사결정 능력, 고등 사고 기능, 상호작용 능력, 인내심, 발견 능력, 듣기 능력, 지도자적 품성 등과 같은 통합적 관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 등은 동시적이고 중복적인 방식으로 강화된다(박영목, 2008: 157).’ 주장도 글쓰기 협력학습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 협력학습에는 다섯 가지의 원리가 들어 있다.

첫째, 쓰기-읽기 상호성의 원리, 둘째, 작가-독자의 원리, 셋째, 인지 역동성의 원리, 넷째, 학습전이의 원리, 다섯째, 피드백의 원리이다. 첫째, 쓰기-읽기 상호성의 원리는 글을 쓰는 행위는 이미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읽었던 다양한 텍스트가 의미 구성에 참여하고 간섭하는 행위이므로 읽기와 쓰기는 서로 구분이 힘들 정도로 혼합된 상태이다. 둘째, 작가-독자의 원리는 쓰기 과정 중에 작가의 역할과 독자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수행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며, 인지 역동성의 원리는 쓰기 학습이 고정된 인지 획득 방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인지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려는 역동적 인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 학습전이의 원리는 한 사람의 지식이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학습원리를 설명한 것이며, 피드백의 원리는 글쓰기가 반복된 피드백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된다는 원리를 말한 것이다.¹⁹⁾

위와 같은 원리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논술 수업 과정을 매우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 학생들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논술 수업에서 대개 다음과 같은 수업의 과정을 거친다. ①문제 분석(출제의도 분석)-②제시문 분석-③논술문 작성을 위한 1차 다발 짓기(개요표) 작성-④1차 다발 짓기의 타당성에 관한 토의-⑤토의 결

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상에는 어떤 절대적 지식이나 영원한 진리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지식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파생된다. 협력 학습은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정희모, 2007: 104).

19) 정희모(2007: 181-191) 요약 인용. 이 중 첫째 읽기·쓰기 상호성의 원리에 관한 정의는 필자가 재정의한 것이다.

과를 바탕으로 2차 다발 짓기-⑥논술문 1차 쓰기-⑦논술문 1차 쓰기에 관하여 관점, 논리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⑧논술문 2차 쓰기-⑨문단, 문장, 단어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⑩논술문 3차 쓰기-⑪논술문 쓰기 전체 과정에 배운 인지적 효과 점검하기 등을 거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둘은 서로 매우 상관성이 높은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①논제 분석(출제의도 분석), ②제시문 분석, ③논술문 작성을 위한 1차 다발 짓기(개요표) 작성’을 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때 학생들은 문제지에 나온 논제와 제시문을 거의 개인활동 방식으로 읽어 나간다. 그러면서 중요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중심문장에 밑줄을 긋거나, 중심문장을 요약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그리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어떤 관점과 논리를 사용하여 다발 짓기를 할 것인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메모 수준의 글로 표현해 본다. 이 과정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에서 ‘쓰기-읽기 상호성의 원리, 작가-독자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업 과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④ 1차 다발 짓기의 타당성에 관한 토의’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기가 정리한 다발 짓기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써나갈 방향과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모둠활동을 통해 자기 주장을 활발히 펼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매우 논리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인다. 또한 타인의 주장을 들으면서 논지와 논거의 적합성,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듣고 메모하는 활동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에서 ‘인지 역동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보다 새롭고도 타당한 관점이 담긴 주장이 나오면 자신의 기존 주장에 대해 교정하거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지와 논거를 동원하여 자신의 기존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른바 ‘학습전이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업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⑤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다발 짓기’의 과정에 들어간다.

위의 ④의 과정을 통해 생긴 변화를 반영해 학습자는 개인활동을 통해 2차 다발 짓기를 한다.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에서 주장한 ‘피드백의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이다.

넷째, ‘⑥ 논술문 1차 쓰기’를 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①~⑤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재정리한 자신의 관점과 논거를 활용해 개인활동으로 1차 논술문을 써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③ 이전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주장보다는 좀 더 풍부한 관점과 논리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재정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에서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업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⑦ 논술문 1차 쓰기에 대한 관점, 논리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 활동은 반드시 모둠활동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①~⑤의 활동을 반영해 글로 표현하였지만, 글에 담긴 관점과 논리가 보편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논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글의 짜임이 튼튼해지고 논리정연한 주장이 담겨진 글로 정리되는 장점이 있다. 이 과정도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에서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업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⑧ 논술문 2차 쓰기’를 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는 ⑦의 과정을 통해 확인한 보편타당성이 있는 관점과 논리가 담긴 글로 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과정이다. ‘피드백의 원리’가 매우 활발히 작동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⑨ 문단, 문장, 단어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를 하는 과정이다. ⑨의 과정은 위의 ⑦의 과정과 함께 할 수도 있으나 초보적인 고쳐 쓰기 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는 ⑨와 ⑦의 활동을 분리하여 시행해야 훨씬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 역시 ‘모둠활동’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교수자나 동료학습자에게 고쳐 쓰기의 요소를 확인받으면서 쓰기 관습과 규칙을 조정해 나

간다. 따라서 이 과정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에서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업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덟 번째, ‘⑩ 논술문 3차 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언어공동체의 장르 관습과 규칙을 존중하며 개인의 가치관과 배경 지식, 경험 등을 총동원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글로 표현해 나간다. 글의 체계와 논리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유의하며 글을 쓰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개인활동을 한다. 이 과정도 ‘피드백의 원리’가 매우 활발히 작동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⑪ 논술문 쓰기 과정에서 배운 인지적 효과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활동 과정을 분석해 보면 개인 활동과 모둠활동이 교차하며 적용되고 있다. 주로 논술문을 쓰고 난 다음이나, 토론과 고쳐 쓰기를 마친 다음에 학습의 성과와 의미와 한계 등을 점검해 보는 활동이다.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활동이나, 개인 활동과 모둠활동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면 많은 깨달음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 등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이다. 위에서 논의한 고등학교 현장의 논술 수업에 작동하는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를 정리해 보면 <표 5>과 같다.

〈표 5〉 논술 수업에 적용하는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 분석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논술 수업의 과정	수업중 중심활동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 적용의 예
①논제 분석(출제의도 분석)	개인활동	쓰기-읽기 상호성의 원리, 작가-독자의 원리,
②제시문 분석	개인활동	쓰기-읽기 상호성의 원리, 작가-독자의 원리,
③논술문 작성을 위한 1차 다발 짓기(개요표) 작성	개인활동	쓰기-읽기 상호성의 원리, 작가-독자의 원리
④1차 다발 짓기의 타당성에 관한 토의	모듬활동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⑤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다발 짓기	개인활동	피드백의 원리
⑥논술문 1차 쓰기	개인활동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 원리, 피드백의 원리
⑦논술문 1차 쓰기에 대한 관점, 논리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	모듬활동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 원리, 피드백의 원리
⑧논술문 2차 쓰기	개인활동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
⑨문단, 문장, 단어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	모듬활동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
⑩논술문 3차 쓰기	개인활동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
⑪논술문 쓰기 과정에 배운 인지적 효과 점검	개인활동 + 모듬활동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

2.3. 논술 수업과 글쓰기 협력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 비교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교수자보다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시종일관 도움을 구성하여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듬을 구성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논술 수업은 글쓰기의 절차 중 내용의 발상, 조직, 표현, 수정 네 단계 중 내용의 표현 단계에서는 힘들지만, 내용의 발상,

조직, 수정 단계에서는 모둠을 구성하여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학습자가 논제와 제시문 분석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점검해 주는 피드백 장치가 된다. 이와 같이 동료 피드백 과정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에 반드시 포함된다. 그렇다면 글쓰기 협력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와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논술 수업 과정은 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발상의 단계부터 살펴보자.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a)어떤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책을 읽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서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을 거쳐, ‘(b)문제점과 논점 찾기(상반된 주장에 대한 절충점 찾기, 부족한 답, 잘못된 결론 따져보기)’를 한다. 그리고 ‘(c)문제점이나 논점에 대해 메모하기’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큰틀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메모한다. 이런 과정은 논술 수업 과정의 ‘①논제 분석(출제의도 분석)-②제시문 분석’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의 단계를 점검해 보자.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d)쓰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생각하기, (e)토픽에 대해 생각하기, (f) 자료 탐색, 동료와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나누기, (g)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런 과정은 논술 수업 과정의 ‘③논술문 작성을 위한 1차 다발 짓기(개요표) 작성-④1차 다발 짓기의 타당성에 관한 토의’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표현의 단계를 점검해 보자.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h)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작성하기’의 과정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은 논술 수업에서 ‘⑥논술문 1차 쓰기’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 단계를 점검해 보자.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i)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교정하기, (j)편집자·교수자·동료요원에게 교정본 보내기, (k)교정본 수정, (l)편집자로부터 원고 수락 여부 확인’의 과정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은 논술 글쓰기 수업에서 ‘⑦논술문 1차 쓰기에 관하여 관점, 논리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⑧논술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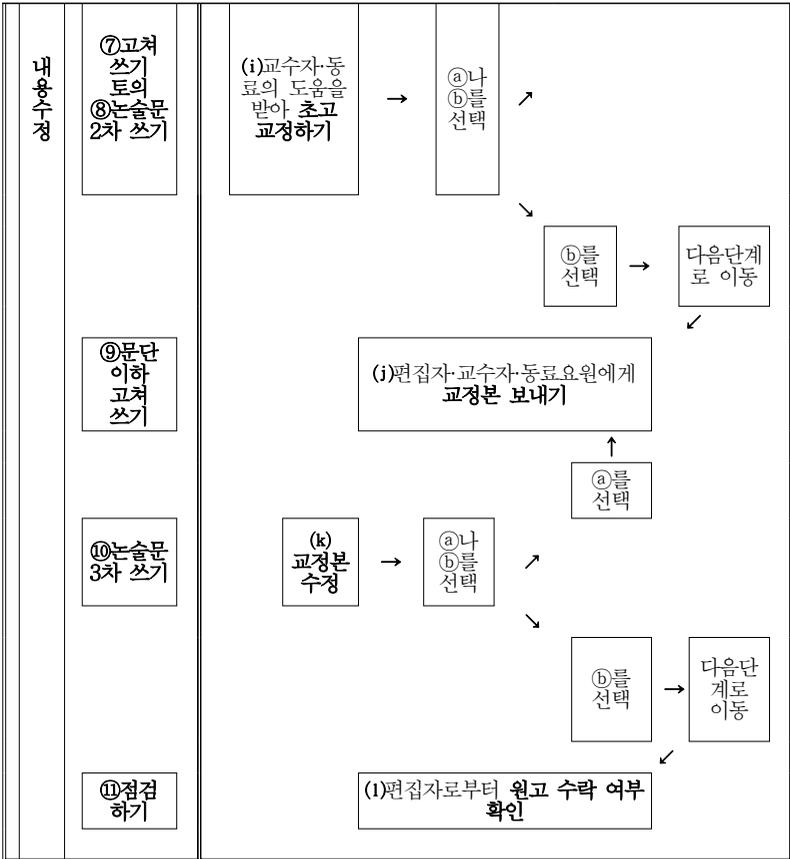
차 쓰기-⑨문단, 문장, 단어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⑩논술문 3차 쓰기'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글쓰기 협력학습과 논술 수업의 절차 가운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논술 수업은 '④1차 다발 짓기의 타당성에 관한 토의, ⑦논술문 1차 쓰기에 관하여 관점, 논리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 ⑨문단, 문장, 단어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의 과정을 동료 피드백 활동에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활동에서 학습자의 다발 짓기 내용에 담긴 논리적 합리성, 다발 짓기 형식의 적절성 등이 부족해 보일 때 교수자는 조언과 안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활동 중 부족한 점을 조절하여 채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개입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동료 피드백 활동에서 채우지 못했던 학습 효과를 많이 얻는다. 2장에서 말한 이른바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글쓰기 협력학습과 논술 수업의 절차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해 보면 글쓰기 협력학습과 논술 수업의 절차는 글쓰기의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분류해 볼 때, 서로 유사성이 매우 많은 수업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논술 수업의 절차와 글쓰기 협력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²⁰⁾ 비교

글쓰기의 절차	논술 수업의 절차	글쓰기 협력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
내용 발상	<p>①문제 분석</p> <p>②제시문 분석</p>	<p>(a)어떤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책을 읽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서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p> <p>↓</p> <p>(b)문제점과 논점 찾기 (상반된 주장에 대한 절충점 찾기, 부족한 답, 잘못된 결론 따져보기)</p> <p>↓</p>
내용	<p>③다발 짓기</p> <p>③다발 짓기</p>	<p>(c)문제점이나 논점에 대해 메모하기</p> <p>↓</p> <p>(d)쓰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생각하기</p>
내용 조직	<p>④다발 짓기 접점 토의</p> <p>⑤다발 짓기 교차기</p>	<p>(e)토ピック에 대해 생각하기</p> <p>↓</p> <p>(f)자료탐색/ 동료와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나누기</p> <p>↓</p> <p>(g)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p> <p>↑</p> <p>①나 ②를 선택</p> <p>↗</p> <p>①를 선택</p> <p>↘</p> <p>②를 선택</p> <p>→ 다음 단계로 이동</p>
내용 표현	<p>⑥1차 논술 쓰기</p>	<p>(h)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작성하기</p> <p>↖</p> <p>↓</p> <p>↓</p> <p>↑</p> <p>①를 선택</p>



20) 표의 오른쪽 칸 내용 ; Speek B. W.(2002), Facilitating Students s Collaborative Writing, Ashe-Eric Higereducation, Vol. 28, No. 60. p.4. (정희모, 2006: 192 재인용).

*표의 오른쪽 칸의 (a) 등의 기호는 필자가 임의대로 붙임. 왼쪽 칸의 글쓰기의 절차, 논술 수업의 절차는 필자가 분석하여 덧붙인 내용임.

2.4. 논술 수업과 읽기, 토의·토론 수업의 상관성

현재 고등학교 논술 수업은 이른바 ‘통합 교과형 논술’을 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합 교과형 논술’란 ‘교과와 교과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서 길러지는 사고력의 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 교과형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교과가 제안하는 여러 학습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논술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²¹⁾ 한 마디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여러 교과에서 나오는 기본개념과 원리를 비교 대조하고 종합하는 사고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폭넓게 읽고, 분석적·비판적으로 읽기 + 스스로 생각하여 토의·토론하기+ 여러 교과목에서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해 쓰기 체험을 자주 해 보기’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따라서 논술이란 특정 교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시험 과목이 아니라 ‘수업 모형(방식)의 변화’이며, 교육과정과 관련한 모든 교과목에서 시행해야 할 ‘평가 방식’의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논술 수업은 다양한 읽기 활동과 토의·토론 수업을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까닭은 토의·토론과 논술은 일관성 쌍둥이 형제와 같은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과 글로 표현하여 주장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토의·토론은 ‘사고 표현의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논술은 ‘사고 표현의 결과물’을 정리하는 성격이 짙다.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로 풀어낸 것이 토의·토론이요, ‘그 생각의 결과’를 형식에 맞춘 ‘글’로 풀어낸 것이 논술이다. 또한 ‘사고력’을 ‘완성된 집’에 비유하자면, 토의·토론은 사고력이라는 집에 ‘들어가는 가는 문’이며, 논술은 ‘나오는 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학습자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읽고 그것에 정보 분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 학습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이 생기고 비판적 사고력도

21) 서울대가 제시한 통합 교과형 논술 고사의 성격과 대비 방법이다.

높아진다. 침삭지도의 과정에서도 학습자들끼리 토의·토론 과정을 거치면 교정할 내용을 명확히 잘 찾아내고, 고쳐 쓰는 내용도 매우 구체화하여 표현해 내는 것을 대부분의 교사들은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왜 위와 같은 성과가 생길까? 논술은 혼자 외로이 글과 대면하는 과정이므로 타인과 협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논제에 대한 관점이 협소해질 수 있고 주관에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토의·토론은 타인과의 대화, 문답, 논쟁 속에서 어떤 논제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논리 사고력,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바람직한 태도와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이라면 웅당 논술 글쓰기 수업보다는 토의·토론 수업이 주(主)가 되어야 하고, 그에 앞서 제대로 된 읽기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읽기는 글의 개요 요약하기, 글의 짜임 파악하기라는 기초 단계를 거쳐 글 쓴 의도 추론하기, 글 전체 종합하기를 거쳐 ‘비판적 세계 읽기’의 단계까지 나가는 치밀한 사고 과정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주장할 논점과 논지와 논거 등을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읽기가 최종적으로 ‘비판적 세계 읽기’에 이르러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브라질의 민중 교육학자인 프레이리(2002: 16)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자에게 인지시키는 과정이 아니라고 했다. 교육이란 ‘끊임없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교조적인 이해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며, ‘텍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과정을 통해 세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와 읽기를 위주로 하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이 많은 편이다. 반면에 프레이리는 ‘학습자에게 세상을 읽고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종합적이고 다양화된 교육이라고 주장한다.

프레이리는 세계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비문해(非文解), 반문해(半文解)’를 넘어 ‘비판적 세계 읽기’ 독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서 ‘비판적 세계 읽기’란 ‘세계에 대한 감성적 이해와 이성적 이해를 역동

적으로 포괄하는 이해'를 할 줄 아는 읽기 능력을 말한다. 이 단계에 이른 독자는 세계를 비판적으로 읽고 사실의 이면에 놓인 이유와 관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곧, '글읽기를 통한 세계 읽기'가 가능한 사람이다. 인간은 비판적 세계 읽기를 통해서 세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수동성을 넘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세상을 비판하며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이리는 위와 같은 독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의 근본틀을 은행 저금식 수업에서 문제 제기식 수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이런 문제 제기식 수업은 '대화 교육', '토의·토론 교육'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까닭에 논술 수업은 교육목표와 철학을 분명히 세우고 수업해야 한다. '비판적 세계 읽기를 할 수 있는 인간'을 통해 '함께 행복한 삶(개성과 연대의식을 지닌 인간)'을 양성하면, 이는 '민주시민 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이며, '홍익인간의 육성'이라는 우리나라 교육 목표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논술 수업은 계열성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교수자는 매 수업에서 발상과 표현의 기초능력을 다져주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한 '읽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또한 발상과 표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찾기와 수정의 관점과 기법에 관한 '토의·토론'→논술 활동 등을 질서 있게 배열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삶에서 읽고 듣고 생각한 내용을 수업 시간 속에 통합적으로 이해·표현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논술이라는 이해·표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논술을 배우는 까닭은 대학 입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논술과 떼어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닌 활동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주요 학습 활동의 절차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3. 글쓰기 협력학습 원리와 고교 논술 수업의 대표 사례의 상관성 분석

위 2.2.장의 글쓰기 협력학습 이론을 기준삼아 살펴볼 때에, 이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논술 수업의 사례는 서울의 경희고등학교 프로그램(교육인적자원부 외, 2007나: 71)이라고 보아 여기에 소개한다. 이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목 시간에 하는 논술을 ‘교과 논술’이라 부르고, 대학 입시 실전문제를 푸는 논술을 ‘입시 논술’이라고 분류하고 있다.²²⁾ 각 고등학교마다 명칭이나 운영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학교와 운영의 원리와 방법은 비슷할 것으로 보기에 대표 사례로 뽑았다.

3.1. ‘교수-학습 방법의 통합’을 통한 논술 수업 사례

대부분 ‘통합’이라고 하면 ‘교수-학습 내용의 통합’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의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과와 교사들이 함께 한 수업 시간에 동시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팀티칭’이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고등학교 수업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그 까닭은 한 시간의 수업준비를 위해 여러 교과와 교사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의견 조율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고, 시간을 맞춰서 함께 수업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평가하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수업시수 확보를 하기 어려워 정규 수업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방식의 논술 수업은 ‘소수 정예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등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논술 수업을 ‘소수 정예를 위한 방과 후 학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팀티칭 방식으로 수업을 계속 해나가기에는 적절한 교사인원 확보에 무리가 많이 따른다. 그래서 이 학교 교사들이 생각해 낸 것이 ‘교수-학습 방법의 통합’이다. 아래 <표 8>에서 제시한 단계와 방법은 특정한 교과 교사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교과와 교사들이 활

22) 이 논문에서는 [입시 논술]은 ‘방과 후 학교 논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음을 밝혀둔다.

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8> ‘교수-학습 방법의 통합’을 통한 논술 수업의 사례

단계 \ 방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	
1단계	도입	발문의 기법	관련자료 제시	사례 발표	교사의 경험담
2단계	문제 확인 (논제 파악)	토론 기법	발표 기법	강의식 수업	마인드맵
3단계	제시문 분석 (논점 잡기)	토론 기법	발표 기법	질의 및 응답	청문회 기법
4단계	요약하기	논제 파악	논증구조 고려	글의 전개 방식을 고려, 정의, 인과, 비교-대조, 분석, 서사 등	
5단계	글감 찾기 (자료 수집)	토론 기법	과제 제시	브레인 스토밍	마인드맵
6단계	개요 작성	논제 파악	논증구조 고려	마인드맵	본론, 결론, 서론 구성하는 법
7단계	논술문 쓰기	문장 쓰기 (문장 호흡 등)	문단 쓰기 (문단구성원리)	원고지 사용법 (간단한 수준)	논술문 작성의 유의사항
8단계	퇴고 및 첨삭	퇴고 (본인 첨삭)	상호 첨삭 (친구들끼리)	교사 첨삭 (간단한 수준)	집단 첨삭 (실물 화상기)
9단계	평가 및 반성	자기 평가 (논술 작성 소감)	상호 평가 (친구들과)	교사 평가 (칭찬과 격려)	집단 평가

이 학교 교사들은 논술 수업 지도에는 단계가 있고, 각각의 단계에는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교사는 각각의 단계와 방법 가운데 취사 선택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맨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 어떤 수업 시간에는 <논제 파악>을 다룰 수도 있고, 또 어떤 수업에서는 <요약하기>를 다룰 수도 있다. 물론 <논제 파악>부터 <개요 작성>까지를 다룰 수도 있고, 더 나아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모두를 다룰 수도 있다. <논제 파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 마인드맵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위의 표에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질의와 응답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수업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표 9>을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표 9> ‘교수-학습 방법의 통합’을 통한 논술 수업의 지도체계

「강의」 전 반 적 인 강 의 수 업 대 한	<p>제시문 분석 : 논제와 제시문은 어떻게 연관되는가? 제시문과 제시문의 연관 관계는?</p> <p>논제 분석 :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인가? 무엇 무엇인가? 논제의 핵심을 한 단어로 개념화한다면? 논제에서 제한한 사항은?</p> <p>논점 잡기 (출제 의도 파악 ⇒ 창의적인 답안) : 어떤 방향으로 글을 풀어 나갈 것인가? 제시된 논제는 왜 중요한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논제 속에 숨어 있는 논제를 찾아라. 논제에 함정은? 각 대학의 출제 경향 및 학풍(學風)을 고려하라.</p> <p>마인드맵을 통해 논점 확대 및 글감 수집 : 마인드맵 방법 연습</p> <p>개요 짜기 : 개요의 의미, 논제와 개요의 관계, 논점과 개요의 관계, 마인드맵과 개요의 관계, 개요를 통해 글의 분량 맞추기 등</p> <p>글쓰기 :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요건</p>
--	--

각 차시별로 「실전」 실전 다음 단계 반박 논술과 첨삭	<p>운영 방법 : 차시별로 하나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 논술문을 작성하고 첨삭함 (주제별로 반복적으로 논술문을 작성함)</p> <p>조별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출 문제를 주고 조별 토론을 하게 함 : 4명이 한 조, 조는 수시로 바뀜 • 초기에는 조별 토론 위주로 하며, 차시가 거듭될수록 개인 작업 위주로 전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5%;">논제분석</td> <td style="width: 15%;">제시문 분석</td> <td style="width: 15%;">논점 잡기</td> <td style="width: 15%;">마인드 맵</td> <td style="width: 15%;">개요 짜기</td> </tr> <tr> <td>전반기</td> <td>조별</td> <td>조별</td> <td>조별</td> <td>조별</td> <td>조별</td> </tr> <tr> <td>중반기</td> <td>조별</td> <td>조별</td> <td>조별</td> <td>개인</td> <td>개인</td> </tr> <tr> <td>후반기</td> <td>개인</td> <td>개인</td> <td>개인</td> <td>개인</td> <td>개인</td> </tr> </table> <p>논술문 작성 : 시간 및 분량 안배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함</p> <p>첨삭 : 각 조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친구의 논술문을 첨삭 (예시 답안과 비교하며...)</p> <p>복사 : 첨삭이 된 논술문을 전체 수대로 복사하여 나누어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에 대한 토론, 논술문 작성, 친구의 글 첨삭, 친구들의 글 10여 편 읽기까지 하고 나면 논제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 		논제분석	제시문 분석	논점 잡기	마인드 맵	개요 짜기	전반기	조별	조별	조별	조별	조별	중반기	조별	조별	조별	개인	개인	후반기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논제분석	제시문 분석	논점 잡기	마인드 맵	개요 짜기																			
전반기	조별	조별	조별	조별	조별																			
중반기	조별	조별	조별	개인	개인																			
후반기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논술문 연습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여 편의 논술문에는 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은 어지간히 다 들어 있음. 학생들은 교사가 강의하고 주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함. <p>학생 평가 : 이번 논술문 작성을 통해 느낀 점, 어려웠던 점, 앞으로의 공부 방향 나누기</p> <p>교사 평가 : 전체적인 논술문에 대한 코멘트, 다음 단계에 대한 암시 등</p>																							

이 학교 방과 후 학교 논술 수업의 특징은 학생 상호 고쳐 쓰기를 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정규 교과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붙임>를 참고 바란다.

3.2. 글쓰기 협력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에 따라 분석하기

그렇다면 경희고등학교에서 실행하는 논술 수업 과정은 글쓰기 협력 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와 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발상의 단계부터 살펴보자.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a)어떤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책을 읽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서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을 거쳐, ‘(b)문제점과 논점 찾기(상반된 주장에 대한 절충점 찾기, 부족한 답, 잘못된 결론 따져보기)’를 한다. 그리고 ‘(c)문제점이나 논점에 대해 메모하기’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큰틀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메모한다. 이런 과정은 위 학교 논술 수업에서도 잘 드러난다. ‘①논제 분석(출제의도 분석)-②제시문 분석’을 할 때, 기출 문제를 주고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조원끼리 조별 토론을 하게 한다. 또한 초기에는 조별 토론 위주로 하고, 차시가 거듭될수록 개인 작업 위주로 바꾸고 있다. 이런 수업 방식은 논술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교사의 배려가 담겨있는 수업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논술 수업 전반기에는 ‘논제분석→제시문 분석→논점 잡기→마인드 맵→개요 짜기’의 전과정을 조별 활동으로 배치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개인활동 위주로 책임이양을 시켜가는 변화가 뚜렷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조직의 단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d)쓰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생각하기, (e)토픽에 대해 생각하기, (f)자료탐색/동료와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나누기, (g)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런 과정은 위 학교 논술 수업에서 ‘마인드 맵→개요 짜기’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표현과 수정 단계를 점검해 보자.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h)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작성하기, (i)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교정하기, (j)편집자·교수자·동료요원에게 교정본 보내기, (k)교정본 수정, (l)편집자로부터 원고 수락 여부 확인’의 과정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은 위 학교 논술 수업에서 ‘논술문 작성→첨삭복사→친구들의

글 10여 편 읽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논제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글쓰기 협력학습과 위 학교 논술 수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학교에서도 수업의 전체 과정을 동료 피드백 활동에 주로 맡겨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수자가 강의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학습자들 10여 편의 글을 직접 읽고 평가하면 효과가 높다고 보는 관점도 동료 피드백 활동을 강조하는 교육관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약간씩 다른 점도 있다. 특히 수정 단계에 해당하는 '(h)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작성하기'의 활동에서 위 학교 논술 수업은 좀 더 정교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각 문단에 사용한 문장 하나 하나에 번호를 매겨 체계적으로 첨삭을 진행하는 기법이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보인다. 동료 피드백 과정에서 좀 더 활발하면서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기여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글쓰기 협력학습 이론에서는 나와 있지 않으나, 이 학교 논술 수업에서는 논술 능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수업 과정이 배치된 점도 특징이 있다. '바. 평가 및 발표'라는 활동이 있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서로의 논술문에 대해 첨삭한 결과를 통해 친구에게 조언하고, 자신의 논술문에 대해서 반성을 하며, 배운 점, 어려웠던 점을 점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메타인지 학습'²³⁾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습 과정을 경험하는 까닭에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를 경험하면서 논술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희고등학교에서 실행하는 논술 수업 과정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런 까닭에 매우 체계적인 수업 사례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며, 중·고교 논술 수업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23) 메타인지 학습은 학습의 방법을 아는 학습을 말한다. 초인지 학습이라고도 한다.

4. 글쓰기 협력학습 원리에 따라 분석한 두 개의 고교 논술 수업 사례

4.1. A교사가 국어수업과 연계한 논술 수업 사례²⁴⁾ 분석

그럼 위와 같은 글쓰기 협력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 수업은 얼마나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A교사의 수업 특징은 첫째, 교육 철학적 측면에서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있다. 그 예로 한 주제의 수업에 찬반 입장을 지닌 관점이 담긴 내용의 여러 인쇄자료와 미디어자료를 읽기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수업전략은 협동학습 모형을 선택하고 있다²⁵⁾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수업 구조와 활동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학습 구조를 펼쳐 놓은 것을 들 수 있다. [토론 중] 활동에 ‘5.생각- 짝-나누기→6.번갈아가면서 말하기→7.번갈아 가면서 말하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하면 토의·토론수업 모형을 적용할 때도 학생들의 참여도와 책임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업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매우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수업 설계를 하는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이다.

둘째, 수업교재와 수업시간 선택 방식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교육과정에 따라 정규 수업시간인 고1 국어과목을 읽기자료로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윤리」 등 관련 교과목에 연관이 있는 단원을 내용과 연계하여 논술 수업을 계획한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최근에 대학 입시에서 통합논술시험이 대세를 이루면서 교사들이 논술 수업을 진행할 때에 설계하려고 많이 시도하는 수업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교사들이 각

24) 이규철(2007: 152-192), 경기도 성문고등학교, 국어과 교사의 논술 수업 사례

25) 이 부분에서 적용한 학습 모형이 협동학습 모형인지, 협력학습 모형인지는 좀 더 분명히 따져 봐야 한다. 여기에서는 논술을 전제로 하여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협동활동이므로, 필자는 이를 글쓰기 협력학습 모형의 한 과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교과의 대단원마다 1~2개의 논제를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고, 논제와 연관이 있는 다른 교과의 단원을 찾는다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어찌면 그림의 떡처럼 여기는 수업 방식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교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수업 사례이므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규수업 시간에 수행평가(특히 서술형, 논증형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교사가 맡은 모든 학생이 논술 수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도 과도한 수업시수 이외에 따로 방과 후 수업 시간이나 야간 심화 수업 시간을 이용한 논술 수업을 개설하지 않아도 좋으니 효과적인 수업 접근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남은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술 수업을 하게 된다 해도 정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시의 논술 수업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반론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수업 사례를 국어 과목 교사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학년의 모든 교과 교사가 한 학기 당 1~2개의 논제만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거의 학기당 최소한 15개 정도의 논제에 대해 사고하고 글로 표현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교사의 노력은 가장 적게 투입하면서도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큰 방식의 수업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도 에세이 쓰기 수행평가의 형태로 거의 모든 교과에서 실시하고 있다²⁶⁾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대입고사인 SAT에 에세이 쓰기가 필수 과목이 되어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점,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고교 수업 여건과는 다르게 적정 규모의 학습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런 사례를 단순 대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토론이나 논술 수업을 많이 경험하면

26) 2007학년도에 광주광역시 광주고에서 근무한 영어과 원어민 교사 Lyan Park(2008학년 하버드대 로스쿨 2학년 재학중)의 증언. “과목별로 독서 텍스트와 연계하여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미술 에세이, 음악 에세이, 화학 에세이, 역사 에세이 등, 과목마다 거의 다 합니다.”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교사들은 교육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을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인재로 길러나 가려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지향해야 할 이상임에는 틀림없다고 본다.

그럼 이제 교수-학습의 모형 선택에 적절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A교사는 ‘주제 중심의 3단계 토론 학습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큰 틀을 잡고 중심적인 교수-학습 모형으로 협동학습 모형과 찬반토의 학습 모형을 선택하였다.

[학습준비] 단계에서 협동학습에 필요한 학습소도구를 챙기고, 동영상 자료와 신문, 만화, 사진 자료를 챙기는 작업부터 준비하고 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은 다른 수업보다 교사나 학습자나 모두 매우 밀도 높은 사전 준비가 있어야만 수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업 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일부터 이미 논술 수업은 시작하는 것임을 제대로 이해한 매우 바람직한 교수 행동이다.

이어서 **[토론 전]** 활동으로 사고훈련(생각체조)을 시키기 위해 ‘1. 인식의 전환: 관점 세우기(노인과 여인 플래시 보기, 부동산업자와 도둑)’ → ‘2. 창의력 신장하기: 브레인 스토밍하기’ → ‘3. 메모하기’ 등 활동을 통해 인간이 인식하는 행위의 객관성이나 완전성에 관해 반성적 사고를 하는 활동을 먼저 학생들에게 경험시켰다. 토론이나 논술을 하는 것은 논점에 맞춰 자신의 논지와 논거를 세워 자기주장을 객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는 교사의 수업 철학이 배어 있는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론 중] 활동으로 ‘1. 과제 분석: 주제 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과제 분석 → 2. 사회적 기술 익히기 : 말하기 태도, 공감적 경청 훈련, 입장 이해하기’ → ‘3. 메모하기’ 등의 활동이 이어진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 과제 분석’ 활동을 교사가 먼저 직접 교수법 모형으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은 자신의 배경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과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활동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판단해 내야

한다. 이러한 교수기법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지도방법에 이견을 보이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교사는 되도록 어떤 암시도 미리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구성주의 철학과 열린 교육 철학이 바탕이 된 토론 수업과 글쓰기 협력학습에서 지켜야 할 학습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활동이요, 그 과정에서도 모르면 교사의 강평과 조언 시간에 알려주어도 메타인지적인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A교사의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학생들이 바탕글을 읽고 논제를 1~2개 뽑고 모듈별로 상호 소통을 하면서 함께 토론할 논제를 뽑는 과정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글쓰기 협력학습에 참여하는 효과를 내게 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공감한다. 또한 ‘2.사회적 기술 익히기 : 말하기 태도, 공감적 경청 훈련, 입장이해하기’와 같은 의사소통의 기초 훈련도 활기 있고 의미 있는 토론 분위기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3.메모하기’는 상대방의 논지나 논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매우 엄청나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이므로 높이 평가한다. 한편 논술을 배운 효과로 인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하거나 의견이 다른 부문에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면, 이 또한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 예절이므로 바람직한 학습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업 설계 측면에서 의문이 생기는 점도 있다. 과연 교사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교수 행동을 해야 할까하는 점이다. 학생들의 토론만으로 논술 글쓰기의 기본 관점을 세워서 글쓰기의 실제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교사가 적극적인 개입하여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워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이 단계에서 교사는 먼저 학생들에게 토론을 통해 글쓰기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할 때 교사가 약간 씩 암시를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논지를 이끌어내고, 다발 짓기에 관한 조언과 강평을 상세히 해주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글쓰기 단계에서 다발 짓기를 세부적으로 하는 과정이므로,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얽힌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의 유무에 따라 학생들이 써내는 답안의 수준이 현격하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 후] 활동에는 ‘1.주제에 대한 생각 쓰기→2.자기 점검→3. 상호 점검→ 4. 교사점검→ 5. 모니터링 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논술 글쓰기 단계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관해 세운 관점과 논지와 논지에 대해 수정·강화하는 조정 작용을 거친 후에 생긴 자신의 생각이 담긴 개요표 작성하기 단계를 지나 ‘처음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글을 쓴 학생은 ‘2.자기 점검→3.상호 점검→4.교사 점검’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글을 여러 번 고쳐 쓰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교사가 잘 점검하고 조절해 주면 학생의 다발 짓기 기능이 매우 치밀하게 발전해 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도 교사의 수업전략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정과 단계에 알맞은 고쳐 쓰기 수준에 따른 전략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면 그 효과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쳐 쓰기의 수준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는 VI장에서 상술하겠다. 마지막으로 ‘5. 모니터링 하기’는 논술 텍스트를 모두 쓰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읽기·토론·논술 글쓰기 활동의 정확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로써 대개의 교사들이 논술 글쓰기 수업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지도과정이다. 그런데 A교사는 이 수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해 이와 같은 활동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토론·논술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생긴 인식의 변화 유무, 토론·논술 쓰기 기법의 향상 정도, 토론이나 고쳐 쓰기를 위한 경험한 토의활동의 효과, 아직도 남는 의문과 그 까닭’ 등의 메타인지 학습 모형에서 자주 묻는 발문에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논술 글쓰기 능력을 매우 눈에 띄게 향상시킨다.

그렇지만 이 수업 전체의 설계 측면에서 비판하고 싶은 바가 있다. 이른바 찬·반토론 수업 모형의 효과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찬·반토론 수업 모형은 인식의 차이나 가치관의 대립이 너무도 분명한 문제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분명하다. ‘영어

공용어를 실시해야 한다'와 같은 논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다보면 자기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하는 활동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A교사를 초청하여 연수를 하며 이른바 '짜패토론'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았다. '짜패토론'은 상호 2~3분 단위로 계속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메모하다가, 다시 관점을 상대방의 입장으로 바꾸어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를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주장을 하고 있었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대학 입시 통합논술에서 요구하는 문제에는 찬-반보다는 다양한 해법을 찾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교 밖을 벗어나 살아나갈 세상에는 찬-반으로 분명히 나뉘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도 있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협력하는 슬기를 모아야 할 경우는 더욱 많을 것이다. 필자가 평소에 관찰해본 A교사의 인품이나 수업에 대한 열정 등을 감안해 판단을 해 보면, 이런 우려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적용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교사는 이와 같은 토론수업의 흐름에 따라 학습지도안을 짤 때 협동학습의 '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구조)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면 <붙임>의 <표 2>협동학습 모형에 따른 수업 지도안 '구조'란에 보면 '1.강의식 → 2.강의식 → 3.짜활동 → 4.강의식 → 5.생각-짜-나누기 → 6.번갈아가면서 말하기 → 7.번갈아 가면서 말하기 → 8.돌아가며 말하기 → 9.경청하며 듣기 → 10.칠판 나누기 → 11.강의식 → 12강의식' 등 다양한 협동학습 구조를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 배치는 교사가 수업 운영의 기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매우 혼란스럽게 나열된 활동중심의 협동학습 모형의 수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학습에는 '학습내용+ 활동구조'를 항상 '내용과 형식'관계로 조화되도록 만든 다양한 구조가 있다. 이에 따라 노련한 교사가 이 구조를 적절히 사용하면 학생들이 끊임없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학습내용

을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덧붙이자면 이와 같은 장점이 많은 협동학습 수업 모형을 글쓰기 협력학습 모형의 취지에 맞게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쓰기 협력학습 모형에서 강조하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협상을 통해 인지적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을 강조하여 협동학습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잠재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사고력과 내적성숙, 과정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 지식의 습득이나 축적하는 과정’보다 ‘지식을 만들어 내고 형성(표현)해 내는 과정’을 익히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 활동도 분명히 주의해서 적용해야 할 측면이 있다.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해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학급 운영에서부터 함께 협조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급 운영에서 뿔뿔이 흩어진 날개의 분자와 같은 학생들이 어느 한 교과목 시간에 협동학습 구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업의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해당교사의 수업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모둠과 좌석의 구조’와 ‘수업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 학생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여기고 짜증을 내는 현상도 보인다. 따라서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 모형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둠과 좌석의 구조’, ‘수업의 구조’를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비교적 모둠의 편성의 조직과 갱신이 자유로운 글쓰기 협력학습의 모형을 도입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A교사의 수업 모형에서 마지막으로 눈여겨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자기 수업에 대한 평가와 정리를 글로 남겨둔다는 점이다. ‘모의재판이나 배심원 토론처럼 수준 높은 모형에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착실히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든지, ‘앞으로는 연예가 중계, 날씨와 생활, 스포츠 중계 등 일상생활과 근접한 이야기를 다룬 후에 토론이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는 기록, ‘캠코더를 활용’, ‘평가요소를 추출하여 토론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

고 채점을 하는 것’ 등의 기록이 자신의 수업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타인에게 자신의 수업에 대한 정보전달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소중한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도 A교사의 수업을 캠코더를 통해 직접 살펴보았기에 그 효과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였다는 점도 덧붙여 든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A교사의 ‘주제 중심의 3단계 토론 학습 교수-학습 모형’과 글쓰기 협력학습의 이론과의 연관성 비교

순서	A교사의 ‘주제 중심의 3단계 토론 학습 교수-학습 모형’	글쓰기 협력학습의 과정과의 연관성 분석
1	[학습 준비] 단계 ① 협동학습에 필요한 학습 소도구를 챙기기 ② 동영상자료와 신문, 만화, 사진자료를 챙기기	도입 활동1
2	[토론 전] 활동-사고훈련(생각체조) ① 인식의 전환: 관점 세우기(노인과 여인 플래시 보기, 부동산업자와 도둑) ② 창의력 신장하기 : 브레인 스토밍하기 ③ 메모하기	도입 활동2
3	[토론 중] 활동-협동학습 모형 적용 ① 과제 분석: 주제 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과제 분석 ② 사회적 기술 익히기 : 말하기 태도, 공감적 경청 훈련, 입장이해하기 ③ 메모하기	(a)어떤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책을 읽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서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

4	<p>[토론 중] 활동</p> <p>① 학생들이 바탕글을 읽고 논제를 1~2개 뽑기</p> <p>② 모둠별로 상호소통을 하면서 함께 토론할 논제를 뽑는 과정</p>	<p>(b)문제점과 논점 찾기(상반된 주장에 대한 절충점 찾기, 부족한 답, 잘못된 결론 따져보기)→(c)문제점이나 논점에 대해 메모하기</p> <p>(d)쓰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생각하기→(e)토픽에 대해 생각하기→(f) 자료탐색/동료와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나누기→(g)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p>
5	<p>[토론 후] 활동</p> <p>1. 주제에 대한 생각 쓰기</p>	<p>(h)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작성하기</p>
6	<p>[토론 후] 활동</p> <p>2. 자기 점검</p> <p>3. 상호 점검</p> <p>4. 교사점검</p>	<p>(i)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교정하기, (j)편집자·교수자·동료요원에게 교정본 보내기</p> <p>(k)교정본 수정</p> <p>(l)편집자로부터 원고 수락 여부 확인</p>
7	<p>[학습 마무리] 단계</p> <p>1. 학생 활동의 마무리</p> <p>① 토론·논술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생긴 인식의 변화 유무?</p> <p>② 토론·논술 쓰기 기법의 향상 정도?</p> <p>③ 토론이나 고쳐 쓰기를 위한 경험한 토의활동의 효과</p> <p>④아직도 남는 의문과 그 까닭?</p> <p>2. 교사의 자기 수업 마무리</p>	<p>메타인지학습 모형 적용</p>

4.2. B교사가 방과 후 학교에서 실시한 수업 사례²⁷⁾ 분석

B교사의 수업 특징은 첫째,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바탕에 두고, 한 주제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관점이 담긴 인쇄자료와 미디어자료를

27) 이만석(2007: 145-173), 서울특별시 청량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수업 사례.

다양하게 수업에 제작하고 활용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논술교재 [학교에서의 논술이 논술]을 비롯해, ‘EBS 지식 e채널’ 활용 논술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실험 정신이 엿보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이끌어내어 생활 속의 논술 쓰기 수업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업전략의 결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수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큰 장점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맨 처음에는 ‘직접 교수법 모형’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가(1~3), ‘찬-반 토론수업 모형’으로 바꾼 다음(4), ‘탐구학습 모형’으로 교수-학습 모형으로 변화를 주었다가(5-①), 다시 ‘토의 수업 모형’을 덧붙이는 방식을 적용하였다(5-③). 그리고 다시 ‘인터넷 매체 활용 수업 모형’과 ‘탐구학습 모형’을 병행하다가(6), 이 모든 과정에서 생성한 자신의 사고를 총 정리하여 ‘과정 중심 글쓰기 수업 모형(1단계)’을 적용하여 처음 쓰기로 정리하게 하고 있다(7). 또한 초고를 사이버 논술교실 플랫폼 닷컴을 주로 활용해 고쳐 쓰기(첨삭)를 하고 있어 ‘과정 중심 글쓰기 수업 모형(2단계)’와 ‘인터넷 매체 활용 수업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8~9).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정리한 포트폴리오는 학생과 교사가 의미 있는 학습 자료로 재활용하여 여러 수업 모형 적용 시 사용할 시범보이기 자료로 최종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들은 궁극적으로 논술 텍스트를 제대로 쓰기 위해 적용하였는데, 이는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수업운영 전략 측면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점은 다음과 같다. 1차시 90분 분량의 수업 속에 다양한 학습 모형을 투여해 하나의 문제에 관한 충분한 배경 지식과 학생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도록 ‘관점 잡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는 점이다. 수업의 초반부에서는 직접 교수법으로 교사의 책임을 많이 지고 있다가 점차 학생에게 활동의 책임을 이양시켜 나가는 ‘책임 이양형 모형’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토의·토론수업 모형’과 ‘탐구학습 모형’을

투입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점, 이를 바탕으로 ‘과정 중심 글쓰기 수업 모형(1단계)’를 활용하여 관점잡기 중심으로 ‘한 번 쓰기’를 계획한 점도 학생들에게 정신적 부담을 덜 가게 하면서도 글의 뼈대를 효과적으로 잡게 하는 효과를 만든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부 과정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약간 씩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글쓰기의 발상 단계를 살펴보자. 학습 순서 1, 2는 도입을 위한 강의법의 예이므로 분석을 생략한다. ‘순서 3 : ①주제에 관련 [논술지도자료집] 읽기 자료 통독, ②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제작한 주제별 읽기 자료 제공’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a)어떤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책을 읽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서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에 해당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순서 4 : ①찬·반 토론 실시, ② 학생들의 찬반 의견 수렴 및 정리’하는 활동은 글쓰기 협력학습의 ‘(b)문제점과 논점 찾기(상반된 주장에 대한 절충점 찾기, 부족한 답, 잘못된 결론 따져보기)→(c)문제점이나 논점에 대해 메모하기’의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 협력학습에서 ‘(d)쓰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생각하기 →(e)토록에 대해 생각하기→(f) 자료탐색/동료와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 나누기→(g)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등의 활동에 해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활동이다 ‘순서 5 : ①[논술지도자료집] 생각해보기 문항 해결(개별과제), ②[논술지도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예시 답안과 비교하기, ③학생들의 의견과 읽기 자료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도입한 점, ‘순서 6 : ①ICT 활용, 인터넷 매체 활용 수업 진행, 주제와 관련된 인터넷 프로그램을 시청, ②학생 과제 제시 (찬성 혹은 반대편 의견 녹취하기)’등을 진행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논술 수업의 전체 과정 중 ‘①논제 분석(출제의도 분석)→②제시문 분석→③논술문 작성을 위한 1차 다발 짓기(개요표) 작성→④1차 다발 짓기의 타당성에 관한 토의’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현의 단계를 점검해 보자.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h)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작성하기’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순서 7의 활동내용이다. ‘수준별 글쓰기 ; 학생들의 현 수준에 맞추어, 서론, 본론, 결론 단락으로 나누어 쓰거나, 통합하여 실전에 의한 논술문 작성’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이런 과정은 논술 수업에서 ‘⑥논술문 1차 쓰기’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의 단계를 점검해 보자. 글쓰기 협력학습에서는 ‘(i)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교정하기, (j)편집자·교수자·동료요원에게 교정본 보내기’의 과정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은 이 수업에서 ‘순서 8 : ●사이버 논술교실 끝맛 닷컴에 논술문 올리기(첨삭 교사 이* * 클릭), ●사이버 논술 첨삭 받기 (담당 교사 본인이 직접 첨삭), 혹은 오프-라인에서 개인 첨삭과 공동 첨삭을 병행(교사-학생, 교사-학생 다수, 학생-학생)’의 과정에 해당한다. 이는 논술 수업의 일반적 과정에서는 ‘⑦논술문 1차 쓰기에 관하여 관점, 논리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에 해당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수정의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운영하고 있다. 글쓰기 협력학습의 ‘(k)교정본 수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지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순서 9 : ● 끝맛 닷컴에서 첨삭 받은 글을 활용한 논술 수업 실시, ● 학생들에게 피드백 제공’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글쓰기 협력학습의 ‘⑧논술문 2차 쓰기→⑨문단, 문장, 단어 수준 중심의 고쳐 쓰기 토의→⑩논술문 3차 쓰기’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는 글쓰기 협력학습의 ‘(l)편집자로부터 원고 수락 여부 확인’에 해당하는 과정은 ‘순서 10 : ● 학생들이 작성한 글 및 첨삭 받은 글을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보관, ●[논술지도자료집] 생각해 보기, 문항의 예시 답안으로 재활용’하는 단계를 예를 들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점을 살펴본 바, 이 교사의 수업은 여러 측면에서 글쓰기 협력학습에서 강조하는 학습의 과정을 대체로 잘 지켜나가는 수업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B교사의 논술 수업활동과 글쓰기 협력학습의 이론과의 연관성 비교

순서	B교사의 논술 수업활동 내용	글쓰기 협력학습의 과정과의 연관성 분석
1	① 수업 주제 제시	도입 활동
2	① [논술지도자료집] 활용한 개괄적인 강의	도입 활동
3	① 주제에 관련 [논술지도자료집] 읽기 자료 통독 ② 인터넷 매체를 활용 제작한 주제별 읽기 자료 제공	(a)어떤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책을 읽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서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
4	① 찬·반 토론 실시 ② 학생들의 찬반 의견 수렴 및 정리	(b)문제점과 논점 찾기(상반된 주장에 대한 절충점 찾기, 부족한 답, 잘못된 결론 따져보기)→(c)문제점이나 논점에 대해 메모하기
5	① [논술지도자료집] 생각해보기 문항 해결 (개별과제) ② [논술지도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예시 답안과 비교하기 ③ 학생들의 의견과 읽기 자료의 내용을 서로 비교	(d)쓰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생각하기→(e)토픽에 대해 생각하기→(f)자료탐색/동료와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나누기→(g)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6	ICT 활용, 인터넷 매체 활용 수업 진행 - 주제와 관련된 인터넷 프로그램을 시청 -학생 과제 제시 (찬성 혹은 반대편 의견 녹취하기)	
7	① 수준별 글쓰기 - 학생들의 현 수준에 맞추어, 서론, 본론, 결론 단락으로 나누어 쓰거나, 통합하여 실전에 의한 논술문 작성	(h)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작성하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논술교실 꿀맛 닷컴에 논술문 올리기(첨삭 B교사 클릭) ● 사이버 논술 첨삭 받기 (담당 교사 본인이 직접 첨삭), 혹은 오프-라인에서 개인 첨삭과 공동 첨삭을 병행 (교사-학생, 교사-학생 다수, 학생-학생) 	(i)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교정하기, (j)편집자·교수자·동료요원에게 교정본 보내기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꿀맛 닷컴에서 첨삭 받은 글을 활용한 논술 수업 실시 ● 학생들에게 피드백 제공 	(k)교정본 수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작성한 글 및 첨삭 받은 글을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보관 ● [논술지도자료집] ‘생각해 보기’ 문항의 예시 답안으로 재활용 ● 논술 수업 자료로 활용 	(l)편집자로부터 원고 수락 여부 확인

위와 같은 활동 가운데에 의문이 생겨 쉽게 동의하기 힘든 활동도 있다. 예를 들면 ‘5)-① [논술지도자료집] 생각해보기 문항 해결(개별과제)’이라는 과제 시행 직후에 ‘5)-② [논술지도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예시 답안과 비교하기’를 바로 하고 난 다음, ‘5)-③ 학생들의 의견과 읽기 자료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기를 계획한 것은 때론 약간 논란이 있는 수업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논술은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닫힌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에서부터 해결 방안까지 최소한 몇 가지 이상의 다양한 답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이 기록하고 반응한 답지의 내용이 과연 어떤 관점의 근거에서 출발한 관점과 논리였는지를 생각해 보고, 모둠활동과 상호토론을 통해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은 분명한 입장을 세우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정답지라는 존재를 보는 순간, 자신이 생각한 뼈대를 바로 수정해 버리거나, 아예 말하기를 꺼리는 학생들도 많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5)-②’은 ‘5)-③’의 뒤에 제시하

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본다. 이는 결론적으로 글쓰기 협력 학습의 과정과 원리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수업 방식이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또한 8~9단계의 경우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점이 있다. 학습자의 초고를 사이버 논술교실 꿀맛 닷컴을 주로 활용해 고쳐 쓰기(첨삭)를 한다는 것의 효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쳐 쓰기는 ‘㉠얼굴 맞대고 고쳐 쓰기(대면첨삭), ㉡모둠별로 고쳐 쓰기(학생 상호첨삭) ㉢대표작 스크린 고쳐 쓰기(스크린 첨삭, 실물화상기 첨삭), ㉣메일로 모든 작품 고쳐 쓰기(인터넷 첨삭)’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고쳐 쓰기는 ㉠이겠지만 공교육에서 제대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공교육의 장에서 고쳐 쓰기를 할 때는 높은 수준의 고쳐 쓰기(관점,논리 수준 고쳐 쓰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로 넘어가면 더욱 효과적인 고쳐 쓰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글쓰기 협력학습의 ‘인지역동성의 원리, 학습전이의 원리, 피드백의 원리’ 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쓰기 협력학습의 ‘(i)교수자·동료의 도움을 받아 초고 교정하기, (j)편집자·교수자·동료 요원에게 교정본 보내기, (k)교정본 수정, (l)편집자로부터 원고 수락 여부 확인’의 과정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활동을 해야 하는 까닭은 신영산 교사의 다음과 같은 지적과도 의미가 서로 통한다.

여러 첨삭을 하기는 하되, 교사가 A에서 Z까지 다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상호간에 첨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도 일대일 첨삭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첨삭(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 있다. 비록 잘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평가하다 보면 하나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거의 다 언급되기 마련이다. 또한 교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듣는 훈계식 지도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의 지적이기에 쉽게 수긍한다.²⁸⁾

28) 신영산(2007: 78)은 ‘첨삭’이라 하면 첫째, 웬지 전문가적인 뉘앙스를 풍겨

셋째, 이 밖의 수업의 성과와 한계는 ‘이 교사가 정리한 수업 뒤 보고 기록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해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 교사는 ‘(논술)장애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학생 측면, 교사 측면으로 나누어 의미 있는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학생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정리하고 있다.

1) 학생 측면의 성과

②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단계별(수준별) 글쓰기 실시를 위해 [논술지도자료] 자료집 발간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공부할 수 있었던 점

③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인터넷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논술 수업 진행함.

④ 학생들이 작성한 글(논술문)을 포트폴리오화하여 학생의 글쓰기의 발전 정도를 학생 스스로 파악하게 함.

⑤ 학생이 작성한 글에 대한 첨삭의 원칙은, 잘된 점을 반드시 먼저 말해 주고 지적할 부분은 가능한 적게 한다.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중략)함.

⑥ 학생이 작성한 글과 첨삭 받은 글을 다음 논술 시간에 피드백 하여 학생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함.

⑦ 첨삭 방법의 다양화(교사 첨삭, 학생 상호 첨삭, 꿀맛 닷컴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 첨삭 의뢰 등의 방법을 병행)

2) 교사 측면의 성과

④ 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논술 및 심층 면접 등을 준비시켜 줄 수 있다.

⑤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논술 교수-학습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감히 접근하기를 꺼리고, 둘째는 ‘첨삭을 한다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혹은 부족한 것이라는 뜻을 안고 있기에 학생들의 격려차원에 ‘평가’라는 말로 슬쩍 돌린 것이라고 하는데 필자도 동의하는 관점이다.

- ⑥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 ⑦ 사이버 논술교실 (꿀맛 닷컴)과의 연계를 통한 양질의 논술 수업이 실현된다.
- ⑧ 학생 및 교사들에게 양질의 논술지도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논술지도자료]라는 책은 학생들 스스로 논술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타 수업목표의 세분화, 수업내용의 상세화, 선수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진단평가 측면은 수업의 구체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서 분석할 수 없었다. 학습 집단의 조직은 선발된 소수 집단이었으나 토의 토론 수업 등에는 몇 명 규모로 운영하는 상황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수업 시간의 배분은 매시간 이런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매우 빠듯한 일정이지만, 학생들은 매우 활기차고 집중감 있게 수업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4.3. A·B교사의 논술 수업 사례의 교육적 의미 종합

두 교사의 공통된 수업 사례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첫째, 교육 철학적 측면에서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바탕으로 두고, 한 주제의 수업에 찬반 입장을 지닌 관점이 담긴 내용의 여러 인쇄자료와 미디어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논술교재 [학교에서의 논술이 논술]을 비롯해, 'EBS 지식 e채널' 활용 논술 수업 지도안 등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실험정신과 학생들에게 흥미유발을 시켜 생활 속의 논술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잘 느껴졌다.

둘째, 수업전략의 결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수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큰 장점이다. 수업전략은 협동학습 모형과 글쓰기 협력학습 모형, 토의·토론수업 모형, 탐구학습 모형을 주로 선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수업의 초반부에서는 직접 교수 모형을 적용해 교수자의 책임을 많이 지고 있다가 점차 학습자에게 활동의 책임을 이양시켜 나가는 '책임이양형 모형'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논술은 교수자가 안내자, 조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특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수업교재와 수업시간 선택 방식을 살펴보면, 정규수업 시간인 고1 국어 과목 시간을 활용하여 읽기 자료로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윤리」 등 관련 교과목에 연관이 있는 단원을 내용과 연계하여 논술 수업을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방과 후 학습에서는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논술교재를 비롯해 'EBS 지식 e채널' 활용 논술 수업 지도안 등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쓰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바람직한 논술 수업은 정규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대단원, 소단원의 학습활동을 심화하여 수행평가(서술형, 논증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교사들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과정 재구성하기, 수업 모형 정교화하기, 평가 방법 객관도·타당도 향·상의 기법 찾기 등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수-학습의 모형 선택은 정규 교과목 수업과, 방과 후 학교를 불문하고 읽기·토론, 논술순서를 거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 모형의 큰틀을 잡고 있었다. 거기에서다 수업 철학과 기법 활용 경험에 따라 협동학습 모형과 글쓰기 협력학습, 찬반토의 학습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수업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수업 설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토론만으로 논술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논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교수자의 개입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의문이 생긴다. 그 대안은 되도록 교수자가 설명해 주기보다는 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하여 답의 방향을 찾고 난 다음에 조연과 강평을 상세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논술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합리적인 논지와 논거 제시를 통해 학습자를 이해·동의하도록 안내·조언하는 안내자, 매개자, 인도자에 머물러야 한다. 무엇보다 논술 수업과 교육 철학적 입장이 비슷한 경험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성주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주장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경험·맥락에 연계하여 성과를 산

출하도록 ‘대화식’, ‘토의·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고쳐 쓰기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방식이겠지만 공교육에서 제대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표 12>의 높은 수준의 고쳐 쓰기(①관점, ②논리 수준 고쳐 쓰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활동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로 넘어가면 더욱 효과적인 고쳐 쓰기가 된다. 고쳐 쓰기를 할 때에는 아래 <표 12>과 같은 고쳐 쓰기 수준에 따른 전략을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표 12> 고쳐 쓰기 수준에 따른 고쳐 쓰기 전략

고쳐 쓰기 수준	고쳐 쓰기 전략	주요한 활동	도움주는 책
①관점 수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교정전략을 세운다.	교사와 학생의 통합적 사고력 활용+ 다양한 사고, 비판적 사고 하기	교사와 학생의 통합적 사고력 활용	다양한 읽기 자료
②관점과 논리 전개수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교정전략을 세운다.	Power Writing 수준 -한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One paragraph, One topic)인가. -문단은 줄바꾸기로 시작하였는가. -문단의 시작은 들여쓰기(indentation)를 하고 있는가. -소주제문의 위치가 문단 앞에 나온 두 괄식인가.	Power Writing	*임재훈(2006), 한국의 직장인은 글쓰기가 두렵다, 북코리아. *탁석산(2006), 글짓는 도서관 1-3, 김영사. *앤서니 웨스턴(2006), 논증의 기술, 필맥.

<p>③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 수준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교정전략을 세운다.</p>	<p>Power Writing 수준 -접속어가 문단 첫머리 소주제문에 있는가. -접속어가 뒷받침문장들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가.</p>	<p>Power Writing</p>	<p>“ ”</p>
<p>④문장 바로쓰기 수준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교정전략을 세운다.</p>	<p>Technical Writing 수준 -한 문장에는 한 의미(One sentence, One idea)만을 담는가. -한 문장에는 하나의 구두점만이 있는가. -한 문장이 20단어 이하인가. -주어가 있는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하는가. -수식어의 위치가 피수식어와 멀지 않는가. -문장부호(마침표, 쉼표 등)가 정확한가.</p>	<p>Technical Writing</p>	<p>*임재춘(2004),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 마이닝.</p>
<p>⑤단어 사용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아 바른 단어를 쓰도록 교정전략을 세운다.</p>	<p>Technical Writing 수준 -단어는 적확히 사용(One word, One meaning)되었는가.</p>	<p>Technical Writing</p>	<p>“ ”</p>
<p>⑥맞춤법, 띄어쓰기 수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른 어법과 문법을 쓰도록 교정전략을 세운다.</p>	<p>어법, 문법 지켜쓰기 수준 -단어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는가.</p>	<p>어법, 문법 지켜쓰기</p>	<p>국어 맞춤법 규정 해설, 컴퓨터한글프로그램의 도구/맞춤법 검사 기능 활용</p>

여기에 관해 권희정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필자도 공감하는 의견이다.

1편을 하더라도 논증구조 첨삭 1회, 문단과 문장 첨삭 1회, 마무리 다듬기 첨삭 1회 정도로 중점사항만 간략히 첨삭해 주는 것이 좋다. 단, 반드시 첨삭 내용을 적용하여 반복해서 다시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 편을 써보더라도 제대로 쓰는 글이 어떤 것인지 감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좋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7가: 66).

논술을 모두 쓰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읽기·토론·논술 글쓰기 활동의 정확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인 ‘모니터링하기’가 필요한데, 대개의 논술 글쓰기 지도에서 지나치게 쉬운 활동이다. 모니터링하기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수업을 통해 자신이 생긴 사고의 방향이나 논술을 펼쳐나가는 논리력, 토의·토론 능력의 변화, 글쓰기 표현능력에 변화 등을 평가하여 글로 남겨두는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을 해 주어야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모두 메타인지 학습 효과가 나타나 좀 더 효과적인 발전의 계기를 얻기 때문이다.

5. 나오며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인문·사회계 논술 수업을 실천해 본 국어교사들의 논술 수업 사례 중에서 몇 개를 골라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를 주요갯대로 사용하여 수업 설계의 적절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논술 수업과 교육 철학적 입장이 비슷한 경험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성주의 교육의 관점을 점검하였고, 이들의 주장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바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자의 역할은 합리적인 논지와 논거 제시를 통해 학습자를 이해·동의하도록 안내·조언하는 안내자, 매개자, 인도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경험·맥락에 연

계하여 학습 성과를 산출하도록 ‘대화식’, ‘토의·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철학적 관점과 수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반영해내기 위해서 글쓰기 협력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에 따라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의 논술 수업 사례들이 약간 씩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글쓰기 협력학습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논술 수업의 모형이 백화제방 격으로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지만, 이제는 논술 수업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피하기 위해서 글쓰기 협력학습의 수업 철학을 이해하고, 이 학습의 인지 수행 절차에 따라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한계가 많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 연구를 가장 객관적으로 진행하려면 연구 분석의 대상인 교수자들의 실제 수업을 관찰하고 면담하며 양적·질적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하겠다. 또한 고등학교 국어(상)·(하)와 작문, 국어생활, 독서 등의 과목과 연계한 논술 수업 운영 방안을 대안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교생들에게 대학 입시 실전논술을 배우기에 앞서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년별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정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의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논술 수업 사례는 어떤 형태로 진행해야 하는가, 중학생들의 사고수준에 맞는 논술 수업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짜야 하는가, 그 위계성과 연계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읽기 프로그램의 위계성, 계열성 확보 방안(주제, 교과, 활동 측면), 2)토의·토론수업 프로그램의 위계화, 계열화 방안(목표, 수업과정, 활동의 효율성 측면), 3)논술 수업 프로그램의 위계화, 계열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논술 수

업 프로그램 구성도 글쓰기 기초 훈련, 논리(논증) 훈련, 분석적 읽기(독해) 훈련, 사고(비판적, 창의적, 종합적)훈련, 논리-분석-비판-종합-창의 결합 훈련, 논제분석 연습, 제시문 분석 연습, 요약 연습, 유형 연습, 실전 논술 쓰기 및 고쳐 쓰기 등의 순서에 따라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정규 교과수업과 방과 후 학교 논술 수업에 적용할 읽기, 토론, 논술 수업 프로그램의 위계성·계열성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짜는데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 권낙원 외(2004), 「교수유형 분석을 위한 증거 탐색」, 『교육과정연구 2004』 제22권 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75-76쪽.
- 박영목(2008), 『작문교육론』, 역락.
- 박운희(2007), 「통합 교과형 논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변영계 외1(2003), 『수업 설계』, 학지사.
- 원진숙(1995), 『논술 교육론』, 박이정.
- 정희모(2007), 『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 삼인.
- 허병두(2006), 『푸른 영혼을 위한 책읽기 교육』, 청어람.
- 과울로 프레이리(2002), 『프레이리의 교사론-기꺼이 가르치려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 아침이슬.
- 교육인적자원부 외1(2007가), 「통합논술지도모형 : 정규 교과에서 통합논술 가르치기」, 『논술교육동아리 선생님을 위한 통합논술지도 길라잡이』,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인적자원부 외1(2007나), 『교과별 논술 수업계획서』,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교육청.
- 이규철(2007),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통합논술 가르치기」 2, 경기도교육청.
- 이만석(2007),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논술 지도방법」, 전국국어교사모임 누리집/일반자료실/통합/609번 게시글.
- 신영산(2007), 「학교에서 논술하자-논술 수업을 위한 길라잡이」, 전국국어교사모임 누리집/일반자료실/고등학교/93번 게시글.
- 성백영(2007), 「통합논술의 지도 방법」, 광주논술아카데미 연합특강 자료집.
- 임성규(2007), 「초등논술교육의 방향과 방법」, 2008학년도 연수교재 독서논술지도 직무연수.
- 최명주(2007), 「'논술시험'에 대해 논술하기-교육사회학적 관점으로 '논술시험'의 맥락 짚기」, 2007전남참교육실천보고대회 국어분과 자료집.

<Abstract>

Analysis of Cases in ‘Non-sul (Critical Writing)Class’ Designed by High School Teach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llaborative Writing

Park An-su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philosophy, 'Non-sul(Critical Writing)class' is closely related to Experience education by Dewy, Learner-centered education, Constructivism education, Collaborative learning and Collaborative writing. For example, in regard to how knowledge is viewed, 'Non-sul(Critical Writing)class' emphasizes constructive truth. From the point of view of teachers' roles, it emphasizes a guide and facilitator mentally. And in the stand point of learning, it emphasizes discussion class over the cramming style of education.

In this article, three cases among those that Korean teachers in high schools practicing 'Non-sul(Critical Writing)class' in the fields of culture science and social science are used as analytic material. Based on these cases, I have examined adequacy and validity in designing school instruction, using the principle of Collaborative writing as a main standard.

Considering the above analysis of these 'Non-sul(Critical Writing)class' cases, I can conclude that the teachers did not deviate from the principles of Cooperative writing in designing and operating their class on the whole. Now I can confirm that in high school 'Non-sul(Critical writing)clas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la

ss philosophy, principles and application procedures of Collaborative writing exactly and to design and operate classes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performance procedure of 'Non-sul(Critical Writing) class'. Futhermore, I strongly recommend that instruction -linked reading to discussion is integrated into the lessons.

Key words : Non-sul (Critical Writing)class, Experience education by Dewy, Lerner-centered education, Constructivism education, Collaborative learning, Collaborative writing.

<붙임>

정규 교과 국어 관련 과목 사례1)

가. 논술문 완성 : 논술문 작성이 끝나면, 논술문의 각 문장 앞에 번호를 붙인다. 논술문을 첨삭하고, 토론하고, 발표를 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한다면 아날로그적으로 작성한 논술문을 디지털화해서 첨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만 반복하더라도 문장을 길게 쓰는 버릇,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잘못, 소주제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등을 학생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나. 논술문 교환 : 완성한 논술문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맞바꾼다. 다양한 학생들과 상호 첨삭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논술문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개요와 함께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개요에 대한 첨삭과 논술문에 대한 첨삭을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다. 상호 첨삭 : 서로의 논술문에 대해서 첨삭을 한다. 그리고 논술문의 끝에는 첨삭을 한 사람의 이름도 적게 한다.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성실한 첨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첨삭을 통해서 자신이 작성한 논술문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라. 상호 토론 : 논술문과 다른 논술문에 대한 첨삭을 서로 해서, 장단점이나 문제점 등을 토론하도록 한다.

마. 복사하여 나누기 : 첨삭이 된 상태의 논술문을 전체 숫자만큼 복사하여 나누어 가진다. 전체 수강생이 많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방과 후 학교> 논술 수업은 대체로 10여 명의 소수 인원이 수강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자료는 소중하게 보관하도록 지도한다.

1) 교사의 논술 수업 자료 발췌본

바. 평가 및 발표 : 첨삭까지 끝내면 발표를 한다. 학생들은 서로의 논술문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면서 발표를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순서를 정해서 몇 명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첫째, 서로의 논술문에 대해 첨삭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 친구의 논술문은 이런 점에서 훌륭하고,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렇게 하면 더 훌륭한 논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할 수도 있다. 둘째, 자신의 논술문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다. 이번 논술문 작성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어려웠던 점 등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논술문을 작성하고 상호 첨삭을 하는 것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일이다. 그러한 발표를 통해서 자신만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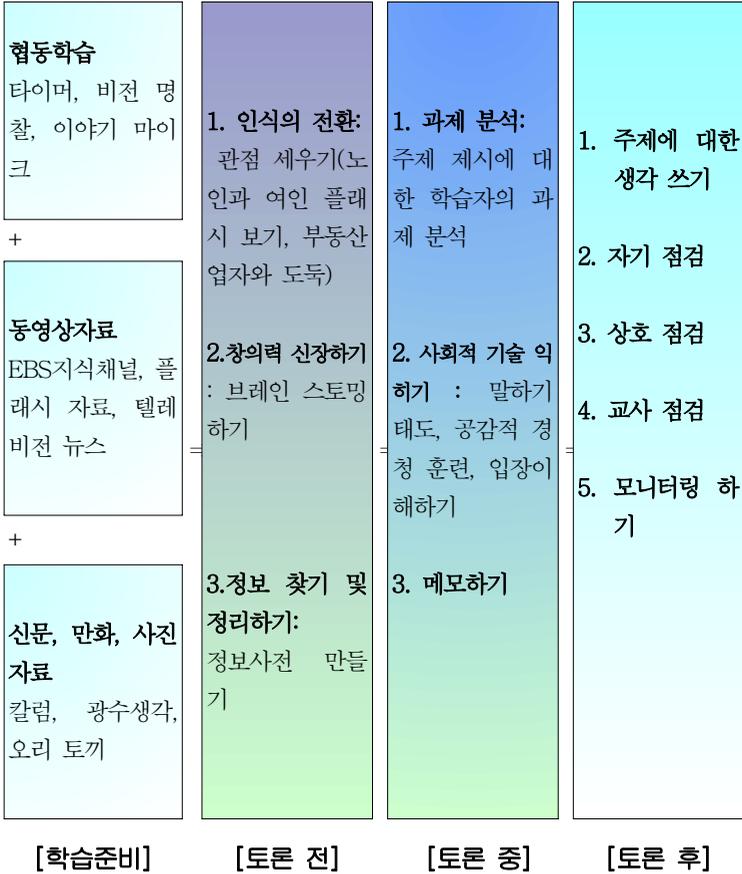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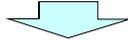
사. 교사의 총평 :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면 교사가 총평을 한다. 전체적으로 잘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특히 적절한 칭찬으로 학생들의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된다.

<표 1> 교과별 논술 수업 설계서

성명 (성별)	이 △ △	소 속	경기도 남부 인문계고	담당 교과	국어
학습 주제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토론 수업				
교과명	국어		학년 학기	1학년 1학기	쪽 수 P. 10-18
단원명	대단원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차시 계획	3-4/4
	소단원	(1)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의 사회적 기술을 익힌다 영어공용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다. 영어공용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수 있다. 				
적용 모형	협동학습 모형		수업 방법	토론	
관련 교과	「사회」 IX.공동체 생활과 사회발전 2.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 「윤리와 사상」 III. 사회 사상의 흐름과 변화 3. 현대 사회 사상의 쟁점		기출 문제	동국대 2006년 수시2(인문) 세 계화·정보화 속 에서 우리의 말 과 글이 정체성 을 확보하기 위 하여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실 천 방안	
수업 자료 및 참고 자료	ppt 자료		평가 방법 및 평가 도구	자기 및 상호 평가, 토론 체크리스 트	

1. 토론 수업의 설계 방향

주제 중심의 3단계 토론 학습



2. 토론 수업의 지도상 유의점

지 도 상 유 의 점

1. 학습자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정보 사전을 만드는 이유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3. 협동학습으로 번갈아 가면서 토론하기, 창과 방패 등 다양한 토론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말하기-듣기 능력을 향상 시킨다.
4. 타이머, 모둠 선택, 셀프 카메라 등 수업 도우미를 활용하여 토론 수업의 절차를 다양하게 익히게 한다.
5. 토론이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임을 인식시킨다.
6. 공감적 경청, 바른 자세로 말하기, 상대방과 눈 맞추기, 다 듣고 이야기하기 등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토론 전에 익힌다.
7. 상대방의 이야기를 토론 전략지에 적으면서 토론에 임하도록 한다.
8. 토론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간다.
9. 대안 없는 반론, 자기 성찰 없는 비판을 지양하도록 한다.
10. 내가 틀릴 수 있으며 상대가 옳을 수도 있는 관용의 자세(플레랑스)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한다.

3. 토론 수업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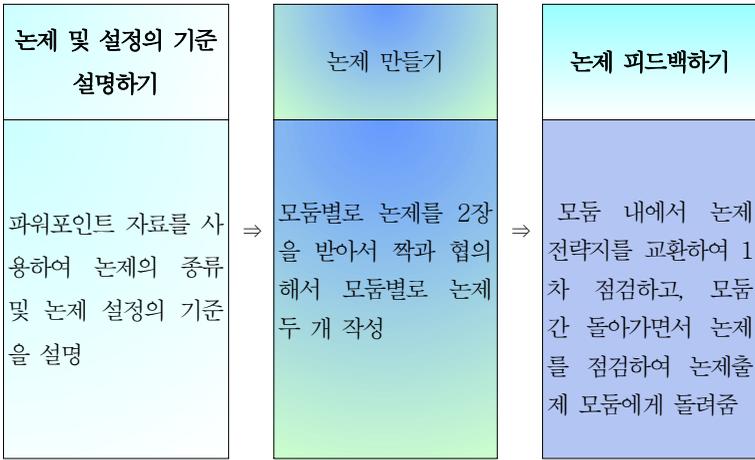
1. 소수 참여 형태의 토론 수업

- ① 기존의 토론 수업의 형태는 학급에서 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수업형태였다. 과래토의 법칙(20:80)이 적용되었다.
- ② 토론의 문제 상황을 함께 공유하여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③ 배심원 토론, 모의 법정, 독서토론을 할 때도, 다수의 학습자는 침묵을 지켰고, 각 의견을 대표하는 학생들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수업이었다.

2. 사회적 기술의 훈련의 부족

- ①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중심을 두고 말 잘하는 능력을 신장하려했다.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듣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했다.
- ② 학습자들에게 토론 시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고,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
- ③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메모하면서 듣거나 말할 때 발언권을 상징하는 이야기 마이크를 사용하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했다.

4. 토론의 논제 정하기



(중략)

5. 본시 학습의 수업 흐름

주안점	학습내용	차시
본문 이해 및 분석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에 대한 개괄적 설명 및 본문 내용 분석	1/4
토론 전 활동 익히기	토론 전 활동으로 관점의 차이, 사실과 진실의 이해, 두마음 토론 진행	2/4(본시)
쟁점의 이해 및 분석	영어 공용어 찬반 논쟁 수업을 실시하여 쟁점의 정확한 이해 및 습득	3/4(본시)
토론 후 관점의 확립	토론 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증하는 글쓰기 하기	4/4

6. 토론 수업의 모형

● 2/4차시

교수학습 활동

- 토끼와 오리 그림을 보여 주면서 관점에 따라서 토끼의 귀도 될 수 있고, 오리의 부리도 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노인과 여인 플래시를 시청하면서 편견이 사물의 본질을 어떻게 왜곡 시킬 수 있는 지 살펴본다.
- 도둑과 부동산 업자의 글을 읽으면서 관점에 따라 정보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4인 1모듬으로 구성한다. 전체 모듬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부동산의 업자 입장, 도둑의 입장에서 글을 읽고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다.
- 논제는 설정 기준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논제를 정해서 제출한다. 논제는 다른 모듬에서 점검을 받는다.
- 두 마음 토론은 토론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이 되지 않게 사회적 기술을 알려준다.
- 협동학습을 위해 4명이 한 조가 되는 모듬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 이끔이, 기록이, 칭찬이, 지킴이를 나누게 하고 모듬원이 단합할 수 있도록 모듬 세우기 작업이 선행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논제는 ‘영어 공용어를 실시해야 한다’로 정하며, 입장에 대한 역할을 바꿔서 진행한다.

(중략)

● 3/4차시

교수학습 활동

- 토론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대화의 한 영역이며,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려준다.
-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시한 명찰은 교사가 미리 입장을 구조화 시켜서 나눠 준다.
- 주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서 논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 타이머를 사용해서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이야기 마이크를 사용하여 토론에 집중하도록 한다.
- 협의 시간은 제한적으로 준다.
- 이꿈이 발표 시간은 2분이 넘지 않도록 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 디지털 카메라로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토론의 전 과정을 촬영한다.

7. 찬반 논쟁 수업 모형

- 가. 모형의 특징(인용 생략)
- 나. 수업의 흐름도(인용 생략)
- 다. 수업 활동상의 유의사항(인용 생략)

라. 수업 지도안

<표 2>협동학습 모형에 따른 수업 지도안

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목	국어	교과 담당	이 △ △
대단원명	표현하기	소단원명	찬반 토 론하기	차 시	3/4
학습내용목표	1. 토론에 대한 사회적 기술을 익힌다. 2. 쟁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모둠 구성방법	구조적으로 이질 적 모둠구성 (4인 1모둠)	보상 방법	칭찬	준비 물	학습지, ppt자료, 타이머

단 계	내용	구조	교수-학습활동	준비물	시 간
도 입	-수업 준비 -전시 학습 내 용 확인	1. 강 의 식	-빈칸 채우기로 전시 학습 내용 확인	학 습 지	5분
	-본시 학습 목 표 제시 -동기 유발		-본시 학습 목표 제시 -만화 제시 -만화의 내용으로 동기 유발시킴	p p t 자 료	
전 개	-학습지 보고 주제 파악하기 - 짝 활동	2. 강 의 식	-찬반이 제시된 학습지 3분 읽기 -전략적 읽기지도하기 -요약하면서 자신의 의견 정리하 기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의 의견 1 분 말하기	학 습 지	35분
	-짝활동을 통해 의견 교환	3. 짝 활 동	-주제에 대하여 번갈아 가며 4분 동안 말하기 -발표자는 이야기 마이크를 들고 자기주장 발언하기	학 습 지	

전개	-입장 바꿔서 말하기	4. 강의식	-역할을 바꾸는 명찰 교환하기 -학습지 읽기 및 요약하기 -다른 관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말하기 -주제에 대하여 번갈아 가며 4분 동안 말하기		50분
	-얼굴짜ق과 토론 준비하기	5. 생각 짝 나누기	-찬성과 반대를 공으로 구조화하기 -어깨짜고 토론 전략 만들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의 생각을 보완하여 설득전략 만들기 -토론 전략지에 설득전략을 정리하기	토론 전략지	
	-얼굴짜ق과 토론 하기	6. 번갈아가면서 말하기	-찬성 1명, 반대 1명씩 번갈아가면서 자신들의 주장 말하기 -나머지 한 명은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며 요약하기	토론 전략지	
	-자유토론하기	7. 번갈아가면서 말하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말하기 -상대방의 의견을 기록하기		
	-협의하기	9. 경청하며 듣기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말하기 -상대방의 입장 경청하기 -다른 점과 같은 점 찾기 -합의 과정 기록하기		
정리	-발표하기	10. 칠판나누기	-이름이가 정리된 내용을 칠판나누기 구조로 발표하기 -찬성, 반대, 절충안의 의견을 사항을 이름이가 발표하기		5분
	-학습 내용 정리	11. 강의식	-본시 학습 내용 정리		
	-자성 예언 하기	12. 강의식	-자성 예언을 쓴 학습지에 따라서 읽기	예 자성	
	-차시 예고		-차시 예고		

교사 자기 평가

(중략)

토론 수업을 처음 시도하는 교사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앞서 말한 수업시간이 50분이라는 제한 때문이다.

먼저 토론의 주제를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은 찬반이 확실하고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이다.

토론의 과정을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형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모의재판이나 배심원 토론처럼 수준 높은 모형에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착실히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텔레비전 뉴스를 활용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했다. 말의 스피치는 적당하지만 학생들이 듣기에는 빠르고 용어의 난해함이 듣는데 장애가 되었다. 앞으로는 연예가 중계, 날씨와 생활, 스포츠 중계 등 일상생활과 근접한 이야기를 다룬 후에 토론이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4차시에 걸친 관점의 차이 수업은 토론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학생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해주고 논리적인 관점을 신장시켜주는 데는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아울러 캠코더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토론 과정을 보여주는 활동은 학습자들이 자기점검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아쉬운 것은 평가요소를 추출하여 토론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고 채점을 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사례2 :

서울 초교, 이** 교사의 사례

이**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기간 : 2006년 3월~7월, 8월

(주 1회, 또는 2회 90분 /1차시, 총 15차시)

○ 대상 : 인문계 고교(본교) 2,3학년 각 32명, 33명

○ 수업 전략 : 논술지도 자료집 활용, 토론, 강의 및 글쓰기, 첨삭
(꿀맛 닷컴에 글 쓰고, 직접 첨삭 받기)

○ 수업 계획(교육과정)

<표 3> 15차시 논술 특기 적성 수업 계획안 (예시)

강의 시간	강의 주제 (자체 제작한 교재 활용)	인터넷 자료	비 고
제1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이란? ● 논술 기초 연습 (1) (2) 논술문 작성 시 유의사항 34가지 제시 		
제2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 쓰기 - 글쓰기를 시작하는 다양한 방법16가지 ● 서론이란? ● 논술 기초 연습 (3) 		
제3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 작성하기 ●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p>★ 사형제를 폐지하라. MBC.시사매거진 2580 (15분 상영)</p> <p><www.mbc.co.kr></p>	<p>*토론 *글쓰기 및 첨삭</p>
제4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기초 연습 (4) ● 성악설에 대해서 - 순자 		<p>*잘 된 논술문의 서론분석</p>
제5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여론 재판에 대해서 ●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p>★ 개똥녀 파문 KBS2. 미디어포커스 (6/18) (15분 상영)</p> <p><www.kbs.co.kr></p>	<p>*토론 *찬반 의견 정리</p>
제6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론 쓰기 ● 요약하는 방법 		<p>*요약 실전 연습</p>

제7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자료]1 소가 되고 싶은 개구리 ● [읽기 자료]5 사랑에 대하여 		*본론 쓰기 연습
제8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기초 연습 (5) ● 결론 쓰기 (결론쓰기 사례 6가지) 		*결론 쓰기 연습
제9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쓰기 연습 (주의해야 할 단어) ● 논술문 작성 총 정리 ● 개요표 작성하기 연습 		*논술문 작성 및 첨삭 *총 정리
제10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 분석 요령 ● 논술의 실제 ● 국적인가? 병역인가? (논쟁) 	<p>★ 국적인가, 병역인가 KBS2. 취재파일 4321. (15분 상영) <www.kbs.co.kr></p>	*토론 *찬반 의견 정리
제11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실제 - 복학의 (박제가) 		*논술문 작성 및 첨삭
제12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어트 논쟁? 	<p>★ 그녀의 몸무게 EBS. 톨레랑스. (48분 상영) <www.ebs.co.kr></p>	*토론 *의견 정리 *글쓰기
제13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이란? 고전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 고전의 독법 	<p>★ EBS 지식채널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이상한 쇼 -살 수 있을까</p>	*글쓰기 및 첨삭
제14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과 표현의 자유’ 한계 ● 벗은 몸은 아름다운가? 음란한가? ● [읽기 자료] 42. - 정의란 진정으로 무엇인가? 	<p>★ EBS 톨레랑스 - 법, 시대와의 불화를 넘어</p>	*논술문 작성 및 첨삭
제15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실제 - 참다운 지도자상에 대해 쓰시오 		*논술문 작성 및 첨삭

○ 수업 방법 : <표 4> 구체적 수업진행 설계는 아래와 같음

순서	논술 수업활동 내용
1	① 수업 주제 제시
2	① 개괄적인 강의 ([논술지도자료집] 활용)
3	① 주제에 관련 [논술지도자료집] 읽기 자료 통독 ②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제작한 주제별 읽기 자료 제공
4	① 찬·반 토론 실시 ② 학생들의 찬반 의견 수렴 및 정리
5	① [논술지도자료집] 생각해보기 문항 해결 (개별과제) ② [논술지도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예시 답안과 비교하기 ③ 학생들의 의견과 읽기 자료의 내용을 서로 비교
6	① ICT 활용, 인터넷 매체 활용 수업 진행 - 주제와 관련된 인터넷 프로그램을 시청 ② - 학생 과제 제시 (찬성 혹은 반대편 의견 녹취하기)
7	① 수준별 글쓰기 - 학생들의 현 수준에 맞추어, 서론, 본론, 결론 단락으로 나누어 쓰거나, 통합하여 실전에 의한 논술문 작성
8	● 사이버 논술교실 꿀맛닷컴에 논술문 올리기 (첨삭 교사 이** 클릭) ● 사이버 논술 첨삭 받기 (담당 교사 본인이 직접 첨삭) 혹은 오프-라인에서 개인 첨삭과 공동 첨삭을 병행 (교사-학생, 교사-학생 다수, 학생-학생)
9	● 꿀맛닷컴에서 첨삭 받은 글을 활용한 논술 수업 실시 ● 학생들에게 피드백 제공
10	● 학생들이 작성한 글 및 첨삭 받은 글을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보관 ● [논술지도자료집] ‘생각해 보기’ 문항의 예시 답안으로 재활용 ● 논술 수업 자료로 활용

○ 수업에 활용하는 교재의 종류

1. 논술 특기-적성수업을 통한 논술 교수-학습 과정안
 - 자체 제작 논술교재 [학교에서의 논높이 논술]를 활용함
 - 2-1) 'EBS 지식 e채널'활용 논술 수업 지도안 (1회차)
 - 2-2) 'EBS 지식 e채널'활용 논술 수업 지도안 (2회차)
3. 'EBS 톨레랑스'활용 논술 수업 지도안
4. [읽기에서 논술까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을 활용한 논술 수업 지도안

○ 수업에 활용하는 교재의 세부적인 예

- 2-1)'EBS 지식e채널' 활용한 논술 수업 지도안 (1회차)

<표 5 > 논술 교수학습 활용 교재 구성 계획 중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읽기자료

1회차 수업 주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의미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자료를 읽고 문제를 파악하고 적용할 줄 안다. ▶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로 뒷받침할 줄 안다. ▶ 실제 논술로 접목할 줄 안다.(기출문제 활용)
<p>학습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6.01.23. EBS 지식e채널 시청 ② 「박시백의 그림세상- 우리 시대의 자화상」 관련 시사만화 보기 ③ 생각해 보기 문항 제시 ④ 모듈별로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 ⑤ 찬반 토론(개인, 모듈별)
<p>수업시간, 대상학년</p>	<p>60분 1차시, 3학년(인문과정)</p>
<p>수업 환경 및 기자재</p>	<p>일반 교실이되 토론이 가능한 대형, 컴퓨터, TV, 실물화상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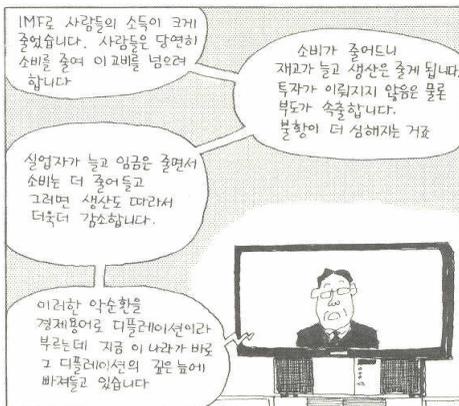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비고
도입	수업 주제 설명 및 학습 목표	<p>▶ 본시 학습 활동과 관련된 주변의 소재로 알기 쉽게 접근한다.</p> <p>→ 저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가? 소비가 나라 경제를 살리는가? 모두가 선호하는 명품, 올바른 소비인가?</p> <p>▶ 수업 전개와 목표를 지도한다.</p>	5분	
전개	학습 활동 ①	<p>▶ EBS 지식채널 시청 (5분)</p> <p><u>쇼핑의 법칙</u> 2006-01-23</p> <p>당신은 복잡한 미로 속으로 들어왔다. 사방엔 먹을 것이 널려 있다. 동공이 열린다. 깜빡임이 빨라지고 손을 뻗어 물건을 집는다. you lose. game over. 당신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종당했는지 모른다. 집단 무의식 상태. 뇌 : 이성적인 알파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인 베타로 전환 물건 구매행위의 80%는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쇼핑몰에 들어선 그 순간 당신의 행동은 분석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은 쇼핑하고 당신은 분석된다. 느린 음악을 사용한다. 엘리베이터보다는 에스칼레이터 시간을 알 수 없게 한다. 숫자 '9'를 이용한다. 당신은 언제나 고객이 된다. 당신은 언제나 타겟이 된다.</p>	5분	상황에 따라 읽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비고
전개	학습 활동②	▶ 「박시백의 그림세상- 우리 시대의 자화상」 관련 시사만화 보기 p.170 <사모님의 경제학> p.176 <알뜰주부>	3분	화상 실물 상기
	학습 활동 ③	▶ 생각해 보기 문항제시 ㉠ 돈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필수 조 건인가? ㉡ 우리는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있는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미덕인가? ㉣ 대량생산 대량 소비사회의 유지를 위해 상 품소비의 욕망을 기업이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 가? (cf.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 는가?(cf. 명품 선호 실태의 문제점)	10분	자 신 의 생 각 을 메 모 로 요 약 하 기
	활 동 ④ 학습	▶ 모둠별로 브레인스토밍하기 ▶ 모듬의 의견을 한 방향으로 정리하기	10분	대 표 자 선 정
	학습 활동 ⑤	▶ 찬반토론하기 (모듬별 대표자가 발표하되, 모듬원들도 자유 롭게 반박하거나 부연설명 할 수 있다.) ↳ 찬성: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긍정적인 측 면 ↳ 반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부정적인 측 면	20분	
정리	학습 정리	▶ 토론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풍부히 한다. ▶ 필요한 지식(경제용어, 경제 이론 등)에 대 해 보충자료를 찾을 수 있다.	4분	활 용 컴 퓨 터
	과 제	▶ 토론을 바탕으로 관련된 논술 기출문제를 제시한다. ▶ 다음 차시까지 개요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 다.	3분	프 린 트

자료 1. 읽기 자료 (시사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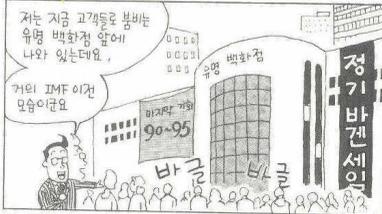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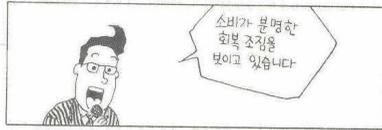


1998. 9. 1



알뜰주부

1999. 4. 9



자료 2. 학습과제 - 관련 기출문제로 연습하기

(2004 이화여대 논술)

[논 제]

다음 (가)의 글은 현대 소비사회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나)와 (다)의 삶의 방식이 (가)의 소비사회와 갈등을 빚는 이유와 양상을 서술하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분량은 자유)

(가) 소비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상품의 논리가 일반화되어 노동과정이나 물질적 생산품뿐만 아니라 문화, 섹슈얼리티, 인간관계, 심지어 환상과 개인적 욕망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이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모든 기능과 욕구가 이윤에 의해 대상화되고 조작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진열되어 구경거리가 된다는, 즉 이미지, 기호, 소비 가능한 모델로 환기되고 유발되고 편성된다는 보다 깊은 의미에서이다.

소비과정은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이다. 기호의 발신과 수신만이 있을 뿐이며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호의 조작과 계산속에서 소멸한다. 소비시대의 인간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자기 욕구조차도 직시하는 일이 없으며 자신의 모습과 마주 대하는 일도 없다. 그는 자신이 늘어놓은 기호들 속에 내재할 뿐이다. 초월성도 궁극성도 목적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사회의 특징은 ‘반성’의 부재, 자신에 대한 시각의 부재이다. 현대의 질서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장소였던 거울은 사라지고, 대신 쇼 윈도만이 존재한다. 거기에서 개인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기호화된 사물을 응시할 따름이며,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기호의 질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소비의 주체는 기호의 질서이다.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은 유택체이다. 오늘날 유택체는 광고, 패션, 대중문화 등 모든 곳에 범람하고 있다. 유택체를 둘러싼 위생, 영양, 의료와 관련한 승배의식, 젊음, 우아함,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 미용, 건강, 날씬함을 위한 식이요법, 이것들 모두는 유택체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

명한다. 육체는 영혼이 담당했던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문자 그대로 넘겨받았다. 오늘날 육체는 주체의 자율적인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소비사회의 규범인 향락과 쾌락주의적 이윤창출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금 만들어진다. 이제 육체는 관리의 대상이 된다. 육체는 투자를 위한 자산처럼 다루어지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중의 하나로서 조작된다. _ 장 보드리야르, 1970, 『소비의 사회』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나) 그는 애정을 담은 눈길로 흘러가는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속이 맑게 들여다보이는 초록빛 강물은 온갖 불가사의한 무늬를 만들어내며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찬연히 빛나는 진주들이 물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물거품을 내며 거울 같은 수면 위를 헤엄쳐 다녔다. 그 물거품 속에는 하늘의 푸른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물은 초록색, 하얀색, 투명한 하늘색, 그런 형형색색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 강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강물은 나를 얼마나 황홀하게 해주는가! 나는 이 강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새로이 깨어난 음성이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강물을 사랑하라! 그 곁에 머물러라! 강물로부터 배우라!’ 그는 강물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강물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강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밀, 나아가 모든 비밀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_ 헤르만 헤세(1922), 『싯다르타, 한 인도의 시』, Siddhartha, Eine Indische Dichtung.

(다) 얻기를 탐내는 자는 만족함이 없으니, 모두가 사치를 좋아하는 일념 때문이다. 만약 마음이 담담하여 만족할 줄 알면 세상 재물을 구해서 어디에 쓰겠는가. 청풍명월(淸風明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대 울타리 띠집에도 돈 쓸 일이 없고, 책을 읽고 도(道)를 이야기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는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성찰하면 세상 맛에서 초탈하게 될 것이니 탐욕스러운 마음이 또 어디로부터 나오겠는가? _ 정약용(1818), 『목민심서』, 牧民心書.

자료 3. 학생 논술문

초고 3학년

박 * 식

① <개요>

단계	내용
서론	현대사회의 모습 ① 소비의 시대 : 거리에 널려있는 물품과 구매자들 ② 몸의 상품화 : 몸을 매체로 한 다이어트 비디오 ③ 자신에 대한 반성의 부재 : 자아정체성 미확립
본론	1. (나)의 삶의 방식 · 강물을 소비의 대상이 아닌 가르침을 얻으려는 존재로 여김, 가치 추구 · 갈등이유 : 깨달음과 비밀을 얻으려는 (나)에 비해 현 사회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깊이 있게 하지 않음 2. (다)의 삶의 방식 · 재물을 구하는 것을 탐욕이라 생각. 돈 욕심을 버릴 것을 주장 · 갈등이유 : 상품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현 사회에서 (다)와 같은 생각은 현 사회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3. ‘나’의 관점을 통한 해결 방법 · 절충적 입장 제시. · ‘중’의 원리를 통해 어느 것 하나만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적절하게 조합
결론	· 현대사회의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을 함께 제시하여 그 속에서 선인들의 지혜를 빌려옴

② 논술문 작성

초고 3학년

박 * 식

거리를 걷다보면 곳곳에서 상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식료품, 스포츠용품 등 물품 등도 다양하며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 한가지만으로는 현대사회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많다.

현대 사회의 다른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몸이 상품화 되었다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비롯해서 각종 다이어트 비디오들까지 이것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미의 추구뿐만 아니라 몸을 상품화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부재라 할 수 있다. 급격하게 모든 것이 진열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현대사회는 기호의 발신과 수신만이 있을 뿐,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호의 조작과 계산 속에서 소멸하며 자신이 늘어 놓은 기호들 속에 내재할 뿐이다.

위의 항목들이 소비의 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것이었지만 과거에는 이와는 조금 달랐다.

제시문 (나)에서는 한 청년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강물을 좋아하였으며 그것을 소비의 대상이 아닌 가르침을 얻으려는 존재로 여겼다.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 모든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그러한 행동은 현대사회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또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현대사회를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강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데 반해 현대사회는 강물조차도 일종의 소비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제시문(다)에서는 과거의 선비들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예전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돈 보기를 금같이 하기를 미덕으로 삼고 있었다. 물론 몇몇 선비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선비들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탐욕을 일으키게 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그들은 돈 욕심을 내는 자를 부정적으로 취급했고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멸시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볼 때 이 같은 생각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다. 돈의 순환을 통해 물건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그를 통해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생각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즉 어찌보면 과거의 가치들은 현대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사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거의 가치 역시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의 옛 선인들의 말씀에 귀기울여 좀 더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삶의 질을 더욱 윤택하게 바꿀 수 있다. 즉 우리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중’은 가운데란 뜻으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어찌보면 이 ‘중’의 가치야말로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일지 모른다.

현대사회가 인간의 상품화, 지나치게 빠른 사회 발전 속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회가 윤택해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식주 문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고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 거리간 이동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만큼 삶이 윤택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조금은 쉬어갈 줄 아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려왔다. 이제는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쓰기 집단 활동은 쓰기 기능과 읽기 기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 의사결정 능력, 고등 사고 기능, 상호작용 능력, 인내심, 발견 능력, 듣기 능력, 지도자적 품성 등과 같은 통합적 관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 등은 동시적이고 중복적인 방식으로 강화된다 (박영목, 2008: 157).

<토론>

‘논술 수업의 유형 분석’에 대한 토론문

최시한*

발표문을 읽고, 논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두루 잘 알게 되었다. 현실을 개혁하려는 진지한 모색과 그 방향에 대해 토론자도 공감하는 면이 매우 많았다. 어렵지만 꼭 필요한 주제를 택하여 깊이 파고든 연구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심정이다. 생각을 보태고, 또 논문 완성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몇 가지 언급하여,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1. 핵심 용어인 ‘논술 수업’(통합 논술수업, 논술교육)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 듯하다. 그에 대한 논의가 없지 않으나, 이 연구에서 말하는 ‘논술’이 상위갈래(논증양식)인지 하위갈래인지(예를 들면 논설문), 국어과교육과 어떤 관계인지(이른바 ‘교과논술’은 국어과만의 교육이 아님), 읽기(독서) 교육 및 쓰기(작문) 교육과 어떤 관계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그에 따라 그 지도의 ‘과정’ ‘방법’ ‘유형’ 등도 논술지도 교유의 변별적 특성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지 않아서, 초점이 다소 흐려지고 있다.

2. 논문의 제목과 서론부를 보면, 연구방법이 귀납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본론은 여러 수업의 형태들을, 방법론에서 말한 단계 혹은 국면에 초점을 두고 비교·종합한 후, ‘유형’의 파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몇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연역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하다.

3. 이 항목은 질문인데, 발표자는 고등학교 단계의, 수업 현장에서의 ‘논술수업’이 이른바 ‘입시논술’이어야 한다고 보는지, 논증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범(초)교과적 수업이어야 한다고 보는지 알고 싶다. 토론자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느 쪽을 택하는가에 따라 방법과 수업 유형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본론에 소개된 몇 학교들은 사실 입시논술 수업을 하고 있다. ‘논제를 파악한다’든가, ‘제시문을 분석한다’는 활동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논증적 사고와 표현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논제의 파악보다 논제의 개발, 곧 학생 스스로 현실에서 논제를 찾아내는 일이며, 나아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표현(기술)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거기서 교사의 수업 방법과 모형은 그런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만약 대학입시 논술 문제가 지금처럼 자료제시형이 아니게 된다면, 입시논술 유형의 논술 수업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그에 따라 이 연구의 주제도 상당 부분 의미가 적어지게 되므로, 이 질문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논술 교육의 바른 자리*

이 계 삼**

<차례>

- 1. 논술 교육과 관련한 개인적인 체험
 - 2. 논술고사 비판
 - 3. '교양'이란 무엇인가
 - 4. 논술 교육의 바른 자리
- <붙임> '삶을 위한 논술 교육'의 한 사례

<요약>

이 논문은 논술 교육의 폐해를 비판하고, 논술고사가 폐지되어야 하는 까닭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논술 교육은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행되는 보편 인문 교양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논술 고사는 상위 30%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슬한 반교육적 현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논술 고사 문항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실제 논술문 작성 과정에서는 단순하고 도식적인 사고가 창의적이고 풍부한 사고보다 더 효과적이다.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범하는 작은 실수가 논술문 작성의 큰 방향타를 어긋나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생 경험이나 독서 체험, 사회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레퍼런스를 차단당한 채 작성하는 규격화된 논술문이 학생의 진정한 수준을 드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필자는 논술 고사가 학생들의 인문 교양 형성을 방해하고 있으며, 지적 능력이 아닌 도덕적 덕성으로 '교양'

* 이 글은 그간 논술 교육에 대해 발표한 몇 편의 글과 그동안 해 왔던 논술 수업 자료들을 다듬어 구성한 것이다.

** 경남 밀성고등학교 국어교사

의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논술 고사를 폐지하고 ‘삶을 위한 논술 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한 예로써 논술 수업 사례를 제시한다.

주제어 : 논술 교육, 변별력, 논술 고사, 인문 교양인, 도덕적 덕성

1. 논술 교육과 관련한 개인적인 체험

세상이 ‘말과 글’로 넘쳐난다. 우리는 ‘말과 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반영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착된 세계에 산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일기예보를 통해 날씨를 ‘느낀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유’에 있다면,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을 ‘말과 글’의 지배로부터 ‘살아있는 세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리나야 자신들의 지배가 유지될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교육 현장에서 타락한 ‘말과 글’의 지배는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그리고 그 극점에 바로 ‘논술’이 있다. 논술은 이미 그 폐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 중등 교육에 커다란 질곡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논술 교육의 본질적 해악을 찬찬히 짚어보고, 공유하는 작업은 매우 뜻 깊은 것이다. 논술 교육은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jun거점으로 삼아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바른 자리를 잡아주어야 한다.

필자는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학교 현장에서 논술 교육에 몸담아 왔다.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부임한 후 필자는 2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10~12명 정도의 동아리를 꾸렸다. 매주 한 번씩, 저녁 세 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전반부 1년은 자유로운 독서와 주제 토론, 생활 글 쓰기, 일상적인 생활 나눔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후반부 1년은 논술 고사를 위한 실전 준비로 진행했다. 전반부 1년은 아이들이나 필자나 모두 참으로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꽤 많은 책을 읽었고, 1년간 공책 한 권이 다 차도록 글을 썼다. 필자는 아이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고, 또한 그 말을 참고 사는지, 마음속에 꼭꼭 개켜놓은 상처와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고3이 된 아이들과 후반부 1년의 수업을 하면서, 각자 희망하는 대학을 겨냥한 논술 고사 준비로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부분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전반부와 후반부의 커다란 낙차를 조절하지 못

한 필자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얼마간 조정은 가능했겠지만, 결국 여기에 논술의 딜레마와 본원적인 한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느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정말 눈부신 글들을 썼다. 그러나 기출 논제를 앞에 두고, 네모난 1,000자 원고지 안에 ‘나’를 철저히 배제한 채 써 내려가야 하는 논술문 앞에서 아이들은 심하게 허둥거렸다. 생활 글에서 싱싱하게 살아 있던 구어 감각은 객관의 문어체와 극심한 충동을 겪었고, 그 충동은 열여덟 살, 열아홉 살 아이들의 지성으로는 가다듬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아이들이 써낸 생활 글들에 필자가 달아 주는 짧은 논평은 그래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었지만, 논술문 침삭은 그야말로 서로간의 괴로움이었다. 논제의 규격 안에 힘겹게 우겨 넣은 글들은 필자가 지난 1년간 파악한 그 아이의 세계 인식과 고민의 지평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고, 아이들은 빨간색 사인펜으로 이리저리 고쳐 놓은 침삭 원고지 앞에서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미안해했다.

한 학생의 사례가 있다. 논술반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여러 권의 책을 돌려 읽으며 서로 짝막한 독후감들도 나누었는데, 아래 글은 포리스트 카터라는 미국 작가가 쓴 체로키 인디언의 후예인 ‘작은 나무’라는 소년의 성장기를 담은 『내 영혼이 따랐었던 날들』이라는 책에 대한 독후감의 일부이다.

영혼이 빠져나간 통나무. 밤톨만한 영혼.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찬 내 모습과 닮은 것 같다. 남을 짓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욕심. 애써 찾아내려 하지 않아도 마치 우연히 그런 것처럼 눈이 닿는 자리에 욕심이 묻어있는 듯하다. 충분히 안 쓰고도 살 수 있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이 말은 가시가 되어 때맞춰 고개를 들곤 한다. ……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린아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 친구가 뒤떨어져 있으면 어딘가에 서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었던 그때. 앞서든 말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쓸쓸히 뒤에 혼자 남지만 앓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아니, 사실 이 생각은 해볼 겨를조차 없었다. 친구들도 나처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줬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도 해보았지만, 그 일에 매달리지는 않았다. 지금은 욕심 탓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 내 영혼은 얼마만할까? 욕심을 가질수록 마음을 다친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다친 그 마음도 ‘영혼의 마음’이 분명하다. 마음을 다치지 않고 얼마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영혼이 아닐까 싶다. 영혼을 이해한다면...

이 글을 쓴 학생은 시골 교회 목회를 하는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독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7년간 독일에서 살았다. 약사였던 어머니가 생계를 잇기 위해 자식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그 학생은 말수가 적지만, 진중하고 사려 깊은 여학생이었다. 문제는, ‘스피드’를 강조하는 한국식 교육에 좀처럼 적응을 못했던 것이다. 언어영역 시험 100분 동안 좀처럼 60문제를 다 풀지 못해서 항상 낮은 점수를 받았고, 책도 아주 느리게 읽었다. 그래도 처절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아 보기 안쓰러웠다. 그러나 논술 수업 시간,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날카로운 통찰도 보여줬고, 위와 같은 빼어난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써내는 논술 글은 보기 안타까웠다. 이처럼 생각이 많고, 생각과 생각 간 매듭은 느슨하되 그 속에 풍부한 서정을 감추고 있는 학생들, 그것들의 줄가리를 세울 지성은 아직 배양하지 못한 학생은 논술을 끔찍하게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 학생은 아예 논술문에 대한 답을 써 내지 못하거나, 질문이 원하는 서너 가지 요소 중에서 자신에게와 닿은 한 두 문제에 대해 깊숙한 이야기를 하다가 분량을 다 채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 학생은 재수를 하면서까지 한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심리학 공부를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이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있는 독일로 곧장 유학을 떠나고 말았다.

2. 논술고사 비판

아래 문항은 2003년 연세대 인문계 정시 논술 문제이다. 이 문제 유형은 최근 출제 경향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술 문항이 담고 있는 반교육적 본질은 크게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석은 현재

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문제] 이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1.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을 표현한다.
2.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을 은폐하고 변질시킨다.
3. 이미지는 심오한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

아래 제시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세 가지 관점을 각각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하시오.

(가)

미술사학자 최완수 선생의 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의 일부이다. 겸재 정선의 탁월한 예술적 직관으로 금강산의 심오한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을 묘사한 찬탄조의 제시문이다.

(나)

앙리 르페브르의 글 「현대 세계의 일상성」의 일부이다. 스킨 광고를 분석한 글인데, 실제로는 무관한 두 요소—뜨거운 태양 아래 파도와 싸우는 강인한 남성의 사진과 스킨광고 문구—를 결합시킴으로써 이미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광고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제시문이다

(다)



르네 마그리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논제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함께 ‘이미지’를 매개로 예술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논제를 풀면서 출제자가 의도한 이해력-예술과 이미지, 현대 사회와

일상성, 이미지의 왜곡과 은폐, 이미지의 프로과간다 기능 따위에 대한 - 을 드러낼 수 있는 수험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논제는 술한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기술적인 문제가 현행 논술 고사가 안고 있는 극히 반교육적인 본질을 잘 드러낸다.

위 논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우선 “1번 관점 - (가) 제시문”, “2번 관점 - (나) 제시문”, “3번 관점 - (다) 제시문” 이런 식으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아이들은 2, 3번 관점과 (나),(다) 제시문을 서로 엮갈리게 연결 짓기도 했다.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채점 과정에서도 그 판단의 창의성은 충분히 고려되겠지만, 출발부터 ‘삐딱선’을 탄 학생은 그 후로 몹시 괴로운 논리 전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2번 관점과 3번 관점이 실제 논술 과정에서 서로 뒤섞이고, 논거가 뒤섞이고, 스스로도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논술문은 시종일관 갈팡질팡한다. 말하자면, 위 논제는 제시문에 대한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이해보다는 단순하면서도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도록 돼 있다.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논제는 “① 제시문을 바탕으로,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③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침묵하면서 확인한 바, 상당수 아이들은 우선 ①번 조건, 즉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라는 말이 제시문 안에서 예를 들라는 뜻인지, 제시문 바깥의 예를 들라는 뜻인지를 판단하지 못해 힘들어했다. 출제자의 의도는 후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 아이들은 전자로 이해하고 ‘제시문 안에서 놀았다’. 이 논제로 대학 교수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들 ①번 조건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논술 고사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손쉽게 범할 수 있는 작은 실수이지만, 그 실수의 대가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글 전체의 방향타가 어긋나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②번 조건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 활용 가능한 ‘암기된 지식’ 없이 그저 폭넓게 읽고 사색한 학생은 실제 ‘시험’

앞에서 어떤 예를 써야 할지 몹시 막막해 한다. 제시문 말고는 자신의 독서와 인생 체험을 이끌어 낼 아무런 참고 자료도 없이, 혹은 자료를 참고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두 시간 이내에 원고지 8~9매(1,500~1,800자) 이내로 작성하라는 요구는 실은 매우 반지성적인 것이다. 요컨대 위 논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 작성으로 나아가는 ‘도식’을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실전에 활용 가능한 ‘요약된 지식’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만 있으면 아무런 독서 체험과 사고력이 없어도 최소한 중간 이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 없이 독서와 사고력만으로 무장한 학생은 문턱에서부터 허둥거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요 쓰기’를 생각해 보자.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이 개요 쓰기다. 개요는 인식과 표현의 중간 지대에 서 있는 발화의 뼈대이다. 그러나 비록 규격화된 논술문일지라도 그것이 ‘글’인 이상 개요 쓰기는 글쓴이의 ‘스타일’이 궁극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같은 체험을 가진 두 사람, 이를테면 박노자 교수와 소설가 박민규가 있다면 두 사람은 아마 판이한 개요를 작성할 것이다. 그러나 논술 강의에서 개요 쓰기는 매우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진다. 개인의 스타일에 대한 존중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개요는 표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짜 맞추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논술을 통해 개인의 창의성을 측정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완전히 그릇된 것이다.

필자의 판단은 이렇다. 현행 논술 고사는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논술 고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요소는 이런 것이다. 3년 동안 내신을 관리하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논술까지 챙길 수 있는 ‘체력’,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의 습득 및 암기 정도, 단순 반복적인 훈련의 충실성, 그리고 이런 훈련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도해 주는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모의 경제력, 아마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논술 고사의 파행은 극히 단순한 사실에서 연유한다. 논술 고사의 도입 자체가 극히 반교육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수능 시험이 도입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내신-

수능-대학별 고사가 대입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내신과 수능의 오랜 갈등, 사교육의 팽창과 공교육의 위축, 수능의 난이도 논란, 내신의 변별력 논란 속에서 상위권 대학은 대체로 수능과 내신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 논술 및 면접 고사로 변별력을 갖게 되었다. 이 속에는 손 안대고 코 풀려는 격으로 다양한 학생 선발 방식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손쉽게 독점하려는 대학의 욕심이 깔려 있고, 문화 자본과 경제 자본을 독점한 상류층과 어떻게든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보려는 차 상위 계층 간의 쟁투와 상호 타협이 깔려 있다. 요컨대 논술 고사는 대학 입시 제도를 둘러싼 제 요소, 제 세력들 간의 혈전의 역사가 잉태한 기괴한 사생아이다. 논술 고사는 오직 상위 30% 이내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해(변별력을 얻기 위해) 위해 도입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상위 30%의 ‘인적 자원’의 등급을 감별해 내기 위한 기제일 뿐이다.

아무리 대학 입학고사라 하지만, 논술은 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지며 중등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논술이 중등 교육으로 담아낼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담보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변별력’ 획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3. ‘교양’이란 무엇인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의 절대 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평생 동안 살아 있는 자연만을 마주하고 살아간다. 퍼덕퍼덕 움직이는 세계가 있으니 죽어 있는 글자 따위는 눈에 담지 않는다. 책이 그들의 삶에 파고들 여지는 전혀 없으며 그런 까닭에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과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 사자가 위장에 털이 나면 풀을 먹듯이,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압도적 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소수의 책 읽는 이들이 벌이는 일종의 음모임에 틀림없다.⁵⁾

진정한 의미에서 ‘교양’이란 책을 많이 읽는 것, 논리적으로 우수한 글을 쓰는 것과 별 상관없이 없다. 이 시대의 우수한 교양인은 이 타락한 ‘말

5) 강유원(2004: 7-8), 『책과 세계』, 살림.

과 글'의 지배에 더욱 깊이 감염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살아있는 세계를 믿지 않고 '말과 글'을 존중하는 도착된 의식, 현실적인 쓸모밖에 볼 줄 모르는 유치한 계산속, 쓸데없는 엘리트의식으로 양 어깨가 뻥뻥한 가련한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말이다. 교양이란, 실제적인 쓸모가 없고, 값없이 주어져야 하며, 그 값없음, 쓸모없음으로 제 쓸모를 찾는다. 교양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이 자신의 사회적 성취를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교양은 타락한다.

논술문을 잘 하는 것과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가장 좋은 교양인은 타인을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의 덕성일 뿐, 남들이 잘 못 읽어내는 어려운 책을 줄줄 읽고, 딱딱딱딱 제 주장을 글로써 펼치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연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이 중심에 서서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을 이끌어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식으로 늘어놓는 습관에서부터 스스로 절실하지 않지만, 듣기 그럴싸한 지식들을 그럴 듯한 논리적 틀 속에 담아 주렁주렁 늘어놓는 것을 '교양 있는 자의 덕목'으로 여길 것이다. 내밀한 자기 성찰, 개인적인 사색의 공간은 위축될 것이다. 교환 가능하지 않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가치들, 이를 떼면 '가난, 진리, 희생, 우정'과 같은 가치를 위해 제 몸과 마음을 쓰는 일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참여'보다는 '관조'가 몸에 밴 '세상의 평론가'로 빚어질 것이다. 논술의 창의성이니 변별력이니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런 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논술 강좌를 들은 한 아이와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강사 선생님이, 토론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중간 지대는 없고 오직 찬/반 두개밖에 없으니깐, 자신의 속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일단 어느 한 입장을 정해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 '공격'해야 하는 거라고, 어떤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왜'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 답변을 갖춰 놓지 못하면 결국 지고 마는 거라고..." 그 아이는 논술과 토론이

몹시 두렵고 공포마져 느끼는데, 아마도 강사 선생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교양은 ‘관용’이며 ‘좋은 언어’이다. 아이들의 영혼은 너그럽고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진정한 앎이란 ‘좋은 언어’가 구성하는 것이다. 논술 따위가 결코 교양 교육의 반열에 오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로 타락한 교육의 징표인 것은 그 발상과 형식 모두가 ‘불관용’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불관용의 공기 속에서 ‘좋은 언어’는 자라날 수 없다. 논술은 지금껏 우리 교육을 질식으로 이끌어 온 억압의 기제들이 이제는 ‘인문 교양’의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 ‘새로운 적’일 뿐이다.

4. 논술 교육의 바른 자리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 문제는 ‘말과 글’이 아니라, 이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다. 교양 있는 사람은 바로 양심적인 인간이다.

논술은 ‘보편 인문 교양 교육’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논술은 딱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질 뿐이다. 논술의 중요성이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일기 쓰기가 가지는 의미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보편 인문 교양 교육의 가치에서도 한참 어긋나 있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교육 병폐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는 현행 대입 논술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교양인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고, 읽는 것보다는 대화가 좋고, 대화보다는 침묵이 좋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교양 교육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너그러운 공기 속에서 힘껏 ‘노는’ 것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둘러싼 관계와 대면할 때 아이들의 영혼이 성장한다.

논술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논술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논술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모습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처럼,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고발하지 않고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 허위의 행렬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논술교육이 내려가 있지만, 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등에서 이루어지는 논술 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후퇴한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작 ‘좋은 삶’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 굳이 긴요하지 않은 능력을, 그것도 중등 교육 과정에서, 대학 교수들조차도 제대로 된 답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 고난도의 시험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논술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 사람에게는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표현할 정도의 논리적 직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촛불시위 때 인상적으로 보았던 구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광우병 쇠고기 먹고, 의료 민영화로 치료 못 받고 죽으면,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주오.” 이 시국에 담긴 문제들의 기본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논리적 직관, 이를 저런 위트 있는 문구로 드러내는 표현 능력, 그리고 이를 들고 직접 광장으로 나와 외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쉽진 않겠지만 말이다. 그 나머지는 ‘삶’이 가르쳐 줄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믿는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말과 글’을 넘어 ‘살아있는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말과 글’이 ‘실체’에 선행한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을 이끄는 지배적인 힘의 논리이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과 글’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세계의 ‘실체’ 그 자체와 대면하게 된다면 그들의 지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말과 글’로써, 자본과 경쟁력, 세계화 따위의 ‘허상’으로써 이 세계를 지배한다. 결국 논술도 이 ‘허상의 지배’를 관철시키는 한 방식이 될 것이다.

교육은 ‘삶’이라는 대전제를 위해 봉사한다. 글월 ‘文’자가 원래 ‘무늬’에 그 어원을 두고 있듯, ‘말과 글’은 삶의 실체가 아니라 삶의 무늬일 뿐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에서 말과 글의 자리는 물론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 커져가겠지만, 근원적으로 미미한 자리이다. ‘말과 글’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위한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

<Abstract>

A Suggestion for Essay Writing Education

Lee Gye-s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the current practice of essay writing education and discuss why the current pattern of essay tests should be abolished. I suggest that essay writing education should be dealt with as a part of the universal liberal arts education.

As the current essay test was simply introduced as a way to differentiate the top 30 % of students having academic ability, the practice of essay writing education doesn't match educational purposes, causing a lot of problems. If we analyze the essay test questions, the problems will be revealed clearly. In reality, in the process of essay writing, simple and fixed ways of thinking are more effective than deep and creative ways of thinking. In some cases, minor mistakes made by students not accustomed to the pattern of essay tests may result in the wrong direction of essay writing process. The current essay test also has a definite limitation in that it doesn't reflect students' life and reading experiences or social consciousness, producing standardized and fixed types of essays. Therefore, the current system of essay test doesn't contribute to producing well-educated person and the aim of essay writing education should be to cultivate students' moral virtue, not intellectual ability.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essay writing tests should be abolished and redirected toward 'essay writing education for students' meaningful life'. My own essay writing class will illustrate the point.

Key words : essay writing, differentiate, practice of essay writing, well-educated person, moral virtue.

<붙임>

1. ‘삶을 위한 논술교육’의 한 사례

위 글에서는 논술 교육의 본질적인 해악에 대해 자세하게 썼다. 그러나 필자는 현장에 있으면서 논술의 해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 뒤에도 논술에 발을 담그지 않고 지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대도시로 나가 비싼 돈을 주고 논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시골 아이들의 안타까운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논술 수업 속에서 지켜 온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 중 으뜸은 이 수업이 아이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수업 제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세상이 감추고 있는 모습에 대해 읽고 쓰면서 의식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제재를 고르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제재를 찾아 던져주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왔다.

두 번째 원칙은 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수시, 정시모집 직전의 실전 문제풀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서는 항상 느그럽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업 들머리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 나눔’을 하면서 그간 지내온 생활과 현재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 왔다. 그리고 글쓰기와 읽기에서 생산된 것들을 상호간에 첨삭하고 답글을 달아 주고, 모둠일기장처럼 서로 돌려 읽는 방식을 권장해왔다.

세 번째 원칙은, 읽은 제재를 요약해서 쓰는 작업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요약하기가 실전 논술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고등 학문 연구의 기본이며,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텍스트를 정성스럽게 뜯어읽는 것은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전 논술 강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동안 내가 시도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제재 요약하고, 자기 생각 쓰기
- (2) 좋은 영화 보기
- (3) 좋은 다큐멘터리 보기
- (4) 좋은 책 돌려 읽기
- (5) 글쓰기 공책에 답글 달아 주고, 돌려 읽기

아래 자료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했던 자료들의 목록과 간략한 설명이다.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실제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논술의 바른 자리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입시 논술을 폐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암시라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래 제재들은 실은 논술 수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국어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실제 활용되기도 했다. 이 내용들이 소수 성적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술 교육으로 특화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논술 수업은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왔다. 이것이 솔직한 필자의 고백이다.

1.1. 제재 요약하고, 자기 생각 쓰기

1.1.1. (주제 1) 삶의 다양한 모습들, 어떻게 살 것인가

- 신영복(1999), 「나의 대학시절」, 녹색평론 통권 제48호 9-10월호.

신영복 선생의 영남대 강연을 기록한 글인데, 신영복 선생이 스스로 ‘대학시절’이라 부르는 20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고 있다. 무엇보다 이것이 논술 수업의 제재로 좋은 것은 각각의 이야기들이 삶과 인생, 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한 생각거리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원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 **곽제규(2007), 「난 언제 어디서부터 무력감에 빠졌던 것일까?」, 『우리교육』 9월호.**

도시에서 평범한 학원 키드로 자라면서 공교육의 폭력을 몸소 겪었고, 신체에 대한 열등감으로 무력감에 빠졌던 학생이 대안학교인 간디 마을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 쓴 글이다.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좋은 자료다.

• **김어준(2006), 「10대들에게 단체 리플함」, 『한겨레』 5월 26일.**

「판지일보」 총수인 김어준 씨가 10대들에게 여행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연애 등을 매우 발랄하고 경쾌한 문장으로 써서 아이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글이다. 이 글을 통해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면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 **권정생(2007), 「권정생 선생님 유서」, 『함께 여는 국어교육』 통권 제 76호 7-8월호.**

권정생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두 편의 유언장 실물을 볼 수 있다. 유머러스한 유언장과 특히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쓰신 마지막 유언장에서 떨리는 글씨로 남긴 세상 아이들에 대한 걱정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꼭 읽혀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EBS 지식채널의 「正生」 편과 함께 공부해도 좋고, 「강아지똥」 동화나 「함께여는 국어교육」지에 실린 김용락 선생의 글과 함께 해도 좋다.

• **이길우(2007), 「쪽방에서 온 과자」, 『한겨레』 5월 12일.**

기차 안에서 서울 가는 길에 이 기사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고아원에 매달 같은 날 과자를 보내는 한 할아버지를 기자가 어렵게 취재한 뒤 쓴 글인데, 이 글을 읽다보면, 인간이 또한 깊고 위대한 존재임을 생각게 된다. 이 기사에 나온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아이들에게 상상해서 쓰게 하는 것도 좋은 글쓰기 주제가 된다.

• 박영률 · 김남일(2005), 「버섯구름 상흔과 사투, 불꽃 삶 35년, 김형윤」, 『한겨레』 5월 30일.

반전반핵의 가치는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생소한 편이다. 아이들에게 만화 「맨발의 겐」이나 애니메이션 「반딧불의 묘」와 함께 김형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반전반핵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원폭 피해자 2세로 태어나 최악의 육신을 안고 안과 밖에 겹겹이 놓인 고통과 질서를 견디며 일본의 피해 배상과 사죄, 원폭의 처참함을 알리기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다 돌아간 김형윤의 삶은 그간 단편적으로 알려져왔는데, 얼마 전 그의 평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진진성, 휴머니스트)이 나왔다.

• 조세희(2004), 「종이거울 속의 슬픈 얼굴-최민식론」, 『종이거울 속의 슬픈 얼굴』, 현문서가.

조세희 선생이 사진 작가 최민식 선생에 대해 쓴 작가론이다. 필자는 종종 꺼내어 이 글을 다시 읽어보는데, 예술의 본질에 대해, 1950년대 이후의 세계의 모습을 예술로 증언하는 것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하게 하는 그야말로 명문(名文)이다. 글과 함께 실려 있는 최민식 선생의 사진들을 감상하다보면 명상적인 분위기까지 들 정도이다. 예술에 대해 나름대로 심미적인 안목을 갖춘 아이들에게 꼭 권하는 글이다. 인터넷에서도 전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조세희(2004), 「노동자들 신음 소리에 숨이 험다」, 『매일노동뉴스』 11월 26일.

조세희 선생은 매체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분으로 유명하다. 매체에 얼굴 파는 것을 그토록 기꺼워하는 작가들이 넘쳐나는 땅에서 오직 카메라 하나만 들고 단기필마로 수많은 집회와 ‘난장이’들의 고통의 현장을 누비는 조세희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작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이 글을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교사 자신이 읽고 감동을 받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이 된다.

- 강태호(2008), 「안중근 98주기, 최후의 날들 재구성」, 『한겨레』 3월 25일.

사형 4분전, 곁에 있는 일본인 관리들에게 ‘일본의 평화를 기원하는 삼창을 함께 하자’며 흐트러짐 없이 편안하게 죽어 간 안중근. 그의 마지막 날의 기록은 읽는 이들에게 숙연한 감동을 준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또한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록이다.

1.1.2. (주제 2) 교육

- 김종철(1999), 「병든 문명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처음처럼』 통권 제19호 11월-12월호.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이 부산에 있는 생태유아공동체 유치원 교사들에게 행한 강연문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 글이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의 처해있는 삶의 여건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크고 높은 비전에서부터 작은 일상사에까지 관통하는 지배적인 논리를 하나씩 이야기로 들춰내면서 진정한 교육에 대해서 풀어낸다. 이 자료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하권 ‘간디의 물레’의 보조 자료로 쓰다가 아예 주 자료로 승격시켜 쓰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 가능하다.

- 특별취재팀(2004), 「공교육에 희망을」, 『한겨레』 1월 연재.

1부 중병걸린 한국 교육

2부 교육틀을 다시 짜자

3부 외국에서 배운다(핀란드,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독일, 영국)

지금껏 본 일간지 기사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 교육의 체제에 대해 아주 인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파헤쳤고, 해외 사례가 의미심장했다. 이런 기획은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리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스크랩 해 놓고 사범대나 교육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핀란드의 공교육 모델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논의된다.

• 남중영(2007), 「평준화, 도전과 응전 40년」, 『한겨레21』 10월23일.

평준화의 역사에 대해 찬찬히 살피고 있는 기사다. 평준화는 사범계열의 면접고사에서도 단골로 출제되지만, 우리 교육의 중요한 쟁점으로 무엇보다 평준화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르쳐져야 할 내용이다.

• 피터 존슨(2007), 「국제학력평가 1위, 핀란드의 비결은?」, 『프레시안』 10월 22일.

우리사회에서도 전교조와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에서 핀란드 공교육모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공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간직한 핀란드에 대해 알게 되면 새로운 변화의 상상력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마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좋은 공부거리가 된다.

• 이명박 기자회견문,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한나라당 누리집 ‘한나라 포커스’

인터넷에서 쉽게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른바 이명박 교육 공약의 큰 밑그림을 펼쳐보이는 글이다. 발표 당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글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조목조목 이명박 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논술 면접 고사 대비 수업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이계삼(2006), 「자라나는 잠재적 마초들의 노래」, 『한겨레21』 통권 592호.

황우석 파동이나, 독도 분쟁, 월드컵 때만 되면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의 ‘애국 열기’의 바탕에는 이미 삶의 양식이 되어 있는 ‘전체주의적 삶의 방식’이 깔려 있음을 나름의 학교 현장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 글이다. 내가 쓴 글을 직접 읽는 것이라 좀 쑥스럽긴 했지만, 아이들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한다는 뜻으로 같이 읽었다.

1.1.3. (주제 3) 과학/기술/생명

• 안티노리(2001),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의사, 안티노리 교수와의 대담」, 『슈퍼겔』 1월 24일.

녹색평론사 홈페이지(www.greenreview.co.kr)의 ‘녹색통신’ 메뉴에 링크돼 있다. 황우석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글이다. 첨단 과학기술자들이 빠져들기 쉬운 허황된 개척자 정신과 과학기술문명의 교만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글이고, 무엇보다 흥미로운 대담글이다. 안티노리 교수의 입장이 워낙 명징하고, 대담자의 질문이 이를 잘 이끌어내고 있어서 논술 수업 ‘요약하기’에 좋은 교재로 썼는데, 효과적인 수업이 되었다.

• 빌 조이(2000), 「왜 우리는 미래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녹색평론』 통권 제54호 9-10월호.

컴퓨터 ‘유닉스’ 운영 체제의 개발 주역이었던 공학자 빌 조이가 장차 유전자공학, 나노 공학, 로봇 공학이 결합한 이른바 GNR 기술 체제에서 인간됨의 의미가 왜곡되고 궁극에는 인간이 이 기계문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논쟁적인 글이다. 이 글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큰 화제가 되어 지식인들 간의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과학기술의 본질과 미래상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매우 적합한 글이고, 논술 수업 교재로도 효과적이었다.

• 제레미 리프킨(1992), 「쇠고기를 넘어서」, 『녹색평론』 통권 제5호 9-10월호.

마치, 15년 뒤 한국에서 벌어질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미리 예언이나 한 듯이, 육식 문화와 미국의 공장식 축산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를 담고 있다. 녹색평론 홈페이지에도 링크돼 있으며, 아이들과 같이 읽어봄직한 글이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비할 수 없이 좋은 수업 교재가 될 것이다.

• 남중영(2007), 「자연수명 20분의 1, 돼지의 한 평생」, 『한겨레21』 4월 10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 말이 많지만, 쇠고기 뿐 아니라 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국내산 육류, 육식문화 전반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돼지 축산에 대한 보고서인데, 그 내용이 자못 충격적이다. 학생들에게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반응도 좋았다.

• 고영섭(2007), 「아인슈타인의 삶과 우주」, 『한겨레』 11월 2일.

아인슈타인에 관한 두 권의 책에 대한 서평기사인데, 아인슈타인의 삶과 그의 물리학 연구 업적의 대강을 흥미롭게 잘 소개해서 좋은 공부거리가 된다. 물리학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의 자연관 우주관의 대강은 알아두면 좋은 사색거리가 된다. 자연과학에 대한 읽기자료로 훌륭하다.

• 김종철(2002), 「나는 왜 정기 검진을 거부하는가?」, 『뜸사랑』 6월호.

의대, 약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금도 넘쳐난다. 그러나 현대 의료 체제의 본질과 해악에 대해 경고하는 글은 정말로 찾기 어렵다. 이 글은 『녹색평론』 발행인인 김종철 선생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 의학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데 여기서 사상가 이반 일리치의 흔적을 역력히 엿볼 수 있다. 의대, 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더러 권해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일반적 통념에 대해 워낙 전복적인 것이어서 늘 조심스럽다. 인터넷에서도 검색할 수도 있고, 파일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 강양구 외(2007), 「세상을 바꾸는 식탁 혁명 로컬 푸트 1~4」, 『프레시안』 9월 13일~20일.

광우병 쇠고기 사태로 잘 드러났지만, 이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요소 중에서 ‘먹을거리’는 그 중심 자리를 잡고 있다. 대안은 있을까? 필자는

‘지역 먹거리 운동’(로컬 푸드)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찾아야 할 길이고,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중요한 일자리의 하나가 되리라 믿는다. 밴쿠버, 런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한국 사례들을 발로 뛰며 취재한 글이다. 교사부터 먼저 일독을 권한다.

1.1.4. (주제 4) 철학

- 이정우(2005), 「너와 나, 타자와 존재성」, 『한겨레』 4월 13일.

철학에서 존재론이라 말하는 ‘너와 나’에 대해, 쉽게 잘 쓴 글이다.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와 함께 엮어, ‘너와 나’, ‘관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매우 좋은 글이고, 쉽지 않지만 나름의 깨달음을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요약하기 훈련과 함께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김용규(2008), 「보짜리 부인을 통해 본 욕망의 의미」, 『한겨레』 3월 21일.

욕망의 이론에 대해 철학적인 개념으로 잘 정리돼 있어서 김동인 소설 「감자」와 아래 매슬로에 대한 기사를 같이 엮어 ‘욕망’이라는 주제로 수업하기에 좋은 재료이다.

- 안광복(2005), 「매슬로의 존재의 심리학」, 『한겨레』 1월 2일.

교육학에서 배웠던 매슬로의 욕망의 피라미드에 대해 설명해 놓은 글인데, 가치 있는 삶과 욕망의 함수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게끔 잘 엮어졌다. 욕망에 대한 수업은 의외로 어려울 것 같지만, 저런 자료들과 함께 자신의 구체적인 욕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와 함께 글쓰기 수업까지 이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손화철(2006), 「기술 속의 철학 - 인터넷」, 『한겨레』 9월 1일.**

인터넷과 이로 인한 문명의 변화를 철학적으로 성찰한 글이다. 인터넷에 대해 이렇게 한 번 짚은 성찰하고, 이를 자기 언어로 요약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문광훈(2007), 「폭력과 나르시시즘」, 『경향신문』 5월 11일.**

조송희 사건이 일어난 뒤 발표된 글인데, 이 사건의 철학적 본질과 한국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해 쓰고 있다. 이를테면, 글쓴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욕구에 깔린 나르시시즘이 결국 타자에 대한 무한 폭력으로 재생되는 구조에 대해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된다.

• **김현(2007), 「존재하는 것들의 ‘아르케’를 찾아서」, 『경향신문』 5월 11일.**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쪼개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만물의 시작이 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그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한번쯤은 던져보았음직하다. 이 글은 서양철학사의 ‘아르케’라는 개념을 통해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인간의 탐구를 서술한 좋은 글이다.

• **다니엘 퀸(2004), 「수렵채취인 고릴라 이스마엘과 문화선교사의 대화」, 『고릴라 이스마엘』, 평사리, 309쪽~317쪽.**

이른바 ‘문명’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좋은 자료이다. 고릴라 이스마엘은 문화 선교사인 ‘나’에게 인류가 이른바 농업 혁명이 이후로부터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면서 풍부한 인류학 지식을 바탕으로 현생 인류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문명에 대한 큰 틀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만한 자료도 없다. 소설가 최성각 씨가 발행하는 웹진 『풀꽃평화목소리』에서 발췌했는데, 인터넷에서도 위 글 전문을 검색할 수 있다.

1.1.5. (주제 5) 미국과 세계의 여러 모습들

• 조지 몬비오(2003),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 진짜 이유」, 『프레시안』 2월 20일.

미국의 문명비평가 조지 몬비오가 이라크전 발발 당시에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석유자본, 그리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도저히 떨어낼 길이 없을 만치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미국 경제의 과잉생산 및 과잉 축적 시스템을 밝힌 글로써 상당한 충격이었다. 미국의 세계 질서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보다는 이런 글을 통해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이철현(2006), 「세계 경제, 달러와 함께 쓰러지나?」, 『시사저널』 1월 24일.

시사저널이 ‘삼성저널’이 되기 전에 종종 볼 수 있었던 좋은 기사였다. 미국 경제를 유지해주는 달러화를 자국의 쌍둥이 적자를 방어하기 위해 남발하면서 지금 신인도를 상실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달러화에 연동된 세계 금융권에까지 위기를 몰고 오는 과정을 잘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아이들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좋은 글이다. 무엇보다 교사 자신에게 좋은 공부가 된다.

• 정의길(2005), 「맥아더」, 『한겨레』 8월 5일.

우리에게는 ‘은인’으로 알려진 맥아더가 실은 영웅주의에 찌든 전쟁광이자,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끔직한 모험을 기획했다 좌절한 돈케호 테임을 잘 밝힌 글이다. 아이들도 재미있게 잘 읽어낸다.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史』 2권(한겨레출판)에 실린 맥아더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 더욱 좋다.

• 권복기(2003), 「다국적기업 석유개발 맞서 ‘우외족’ 집단 자살 배수진」, 『한겨레』 10월 30일.

남미 콜롬비아 산악지대에서 사는 토착 부족 우와 족이 사는 지역에

석유가 매장됐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되었다. 석유를 지구의 ‘피’라고 믿는 이들은 절대로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며 집단자살의 배수진을 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석유 문명이 실은 무지막지한 폭력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좋은 탐방 기사이다.

• **찰머스 존슨(2006), 「찰머스 존슨의 미국 해부 1~6」, 『프레시안』 4월 연재.**

미국 제국에 닥친 안팎의 위기, 특히 군산복합체와 대규모의 군사 기지가 지탱해가는 미국 경제에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해 저명한 미국의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이 쉽게 풀어 대담한 기사이다. 논술 시간에 요약하기 및 발표 훈련으로 이 자료로 공부했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잘 따라왔다. 미국 제국에 닥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고 쉽게 알려주는 기사도 흔치 않다.

• **김도형(2007), 「일본 호황 뒤편 굶어죽는 비극」, 『한겨레』 7월 15일.**

일본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노숙자와 극빈층은 더욱 증가하는 양극화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기사이다.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의 고삐를 더욱 바투 쥐어가는 우리나라는 결국 선배 일본의 운명에 그대로 겹쳐진다.

• **아룬다티 로이(2004) 박혜영 옮김, 「9월이여 오라」, 녹색평론사.**

2004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새로운 미국의 세기」라는 연설로 일약 유명 인사로 떠오른 인도 출신의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연설문이다. 미국 제국의 본질과 치부에 대해 신랄하고 위트있게 지적하고 있는데, 읽기에 지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을 담고 있는 자의 기품이 넘쳐흐르는 명문이다.

• 모흐센 마흐말바프(2001), 「잊혀진 나라, 아프간 1~6」, 『프레시안』 11월 13일~11월 20일.

2007년 여름, 아프간 인질 사태가 한창일 때 다시 소개된 글들이다. 우리가 아프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프간이 마약 재배와 탈레반 전사가 되는 길 말고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사실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역시,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침탈의 역사가 있다. 이 자료로 아이들과 요약하기 수업을 했다. 모흐센 마흐말바프는 이란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다.

1.1.6. (주제 6) 에너지와 식량 문제

• 특별취재팀(2003), 「에너지 특집 연재」 『한겨레21』 6월 연재

1부 : 에너지 전쟁은 계속된다.

2부 : 석탄은 석유의 대안인가?

3부 : 식물로 기름을 뽑는다.

4부 : 석유부산물도 자원이다.

5부 : 에너지 식민지 벗어날 길 없나?

에너지 문제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현실 사안이 될 것이다. 이 특집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발전이나, 중앙집권형의 근대적 에너지체제로부터 지역화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 않아 제한적이지만, 에너지 문제 일반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1부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석유자본의 이윤율이 최저점에 달했을 때 반드시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은 다시 석유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켜주었다는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 「MBC [W] 특별 기획 - 식량 위기, 지구를 덮치다」, 문화방송

이 자료는 이집트, 아이티, 필리핀에 불어 닥친 식량위기와 폭동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농업이 번성한 국가였으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의로 혹은 타의로 농업을 포기하면서 끔직한 재앙에 이르게 된 국가들이다. 결국 식량 자급률 30%가 안 되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이런 나라들에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알렉산더 용 외(2008), 「우리들의 배고픈 행성-식량이나 연료나, 『녹색평론』 통권 제99호 3월-4월호.

위 MBC [W] 동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주었다. 논술 요약하기 과제로 내줘도 좋은 글이다. 식량 문제의 세계적인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급하게 한다.

• 윤병선(2008), 「세계적 식량위기의 원인과 식량 주권, 『녹색평론』 통권 제100호 5월-6월호.

식량 위기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자료로써,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웬만한 사회적 관심을 가진 학생이면 소화 가능한데,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논술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읽혀야 할 글이다.

1.1.7. (주제 7) 종교

• 이정우(2005), 「근본주의, 『한겨레』 7월 4일.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란, 아프간 등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이 글은 이러한 근본주의를 근대에 대한 반동으로써 성찰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평을 열어준다.

• 광병찬(2007), 「바나루카를 기억하십시오, 『한겨레』 7월 15일.

발칸반도의 종교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 이슬람의 분쟁에서 죽어간 역사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종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

• 이대근(2007),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경향신문』 8월 1일.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과 독실한 기독교인 박성수 이랜드 회장의 몽매한 행각, 그리고 아프간에 간 기독교인들의 인질 사태가 문제가 될 때 발표된 논쟁적인 칼럼이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은 고등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작업이 되었다.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시도해볼 작업이다. 권정생 선생의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녹색평론사)에 실린 「우리들의 하느님」과 함께 읽어도 좋다. 종교에 대한 토론은 늘 조심스럽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이 아닌 종교일반에 대한 이야기라는 틀만 형성되면 의외로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많이 만나게 된다.

1.2. 논술과 영화 보기

• 영화는 학기 중 논술 시간에 직접 볼 만한 여유는 없었다. 그래서 방학 중 특강 기간에 영화를 같이 보았다. 학기 중에는 비디오 테잎, CD를 서로 돌려보는 형식으로 영화 감상을 권장했다.

좋은 영화는 매우 시적인 장면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문자언어가 담아낼 수 없는 영상언어만의 독자적인 울림을 가진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는 학습지로 수업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 목록이 쌓이니 제법 그럴싸한 모양새가 된다.

• 라쇼몽

아쿠다카와 류노스케의 소설을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것으로 1951년 작품이다. 일본 헤이안 시대, 한 무사의 살인 사건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자기 처지에서 서로 미묘하게 때로 큼직하게 엇갈리는 진술들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진실의 의미, 진리의 상대성,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논술 수업의 제재로 자주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소 어렵고 추상적인 주제들이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아이들과 토론을 진행하다보면, 아이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경이로워한다. 그래서 논술반이 꾸려지고 난 뒤 1년 과정의 앞부분에 배치하여, 토론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다.

• 나무를 심은 사람

설명이 필요 없는 애니메이션의 고전, 그러나 아이들은 프레데릭 벅이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 혼신의 정열로 그려낸 이 성스러운 자기희생과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깊은 메시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늑대와 춤을

아메리카 인디언의 평화로운 문명세계,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에 관해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영화이다. 흥미라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아메리카 인디언의 깊은 영성과 평화, 우정은 미국 문명의 야만상과 잘 대조된다. 위에서 제시한 ‘(주제 5) 미국과 세계의 여러 모습들’ 글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다.

•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의 영화. 미국 산업기술문명의 소외, 대공황 직전의 사회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1930년대 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장면들이 잘 구성되었고, 찰리 채플린의 연기가 뛰어나다. 아이들이 질리지 않고 끝까지 재미있게 잘 보았고, 무엇보다 산업기술문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자료이다.

• 여섯 개의 시선

국가인권위제작 옴니버스 영화. 이미 수업 시간에 많은 아이들과 함께 했지만, 그 가치는 논술 시간에도 빛난다. 여성들의 몸에 대한 강박과 몸

에 대한 사회의 차별, 사생활 보호, 외모를 둘러싼 집단적인 선입관과 무의식, 이주노동자 찬드라 구릉이 우리 사회에서 겪었던 어처구니없는 일들, 영어 발음을 위해 어린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혀 수술 등을 계몽적이지 않고 설득력 있게, 예술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매우 좋은 수업의 재료이다. DVD 타이틀 구입을 적극 권한다. 차기작으로 나온 「다섯 개의 시선」도 고문, 탈북자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고, 모두 잘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 박하사탕

역사와 개인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30여 년 간 타락해온 과정들을 매우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가진 ‘폭력성’에 대해 설명하기에 적합한 수작이다. 그리고 이 주제들을 매우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영화의 서사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

• 블링 포 컬럼바인

MBC 「주말의 명화」 시간에 방영한 것을 비디오로 녹화해 놓고 틀어주었다. 그 뒤 조승희 사건도 있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국의 폭력성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잘 몰랐던 사실을 깨우쳐주는 계몽의 효과가 크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길고 지루한 부분들이 있어 뛰어넘어가면서 할 필요도 있다.

• 트루먼 쇼

논술의 단골 주제인 현대 사회와 미디어, 대중 매체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영화이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대중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빅 브라더’ 현상을 뛰어난 발상으로 잡아낸 영화다. 미리 준비된 학습지를 배부하고 같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영화를 뜯어 읽는 재미가 쏠쏠해서 매체 읽기의 자료로도 우수하다.

• **우리 학교**

깊은 감동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중간에 학생들이 잠시 지루해하기도 했지만, 북한 수학여행장면부터 마지막 졸업식 장면까지 모두 깊은 감동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 이웃사이더, 정체성, 진정한 학교 교육의 모습까지 아이들과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품이다. 몇몇 아이들은 「우리학교」의 팬이 되기도 했다.

• **별별 이야기**

국가인권위에서 제작한 인권 애니메이션으로 여섯 편의 작품이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서 은근히 자부심까지 느껴질 정도다. 특히 교육을 풍자한 ‘사람이 되어라’와 한국인들의 순혈주의를 풍자한 ‘동물농장’이 아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대추리 전쟁**

지금은 많이 잊혀 졌지만, 대추리 농민들의 1000일 투쟁을 담은 47분 짜리 기록영화이다. 진보적 다큐멘터리 제작 집단인 ‘푸른영상’에서 만들었는데, 단순히 미군기지 반대 투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땅에 뿌리내리고 산다는 것의 의미, 땅에 대한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 **아무도 모른다**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으로 2004년 칸느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어른들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네 남매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 다르다. 이들을 두고 어머니는 무책임하게도 집을 나가버린다. 결국 이들 넷은 집 나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서서히 거지꼴이 되고 결국 파멸해가는 과정이 너무나 실감나게 그려진다. 글쓰기부나 논술반 등에서 영화에 대한 안목을 가진 학생들과 감상하면 좋은 반응이 나온다. 그 생생한 실감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자 고통스런 기억으로 남아 있다.

• 파이란

익히 알려진 수작이다. 의외로 이 영화를 못 본 학생들이 많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좋은 감동적인 작품이다. 영화는 내내 흥미롭게 전개되지만, 대사 중에 거친 욕이 자주 나와 교실에서 틀 때 교사인 나 자신이 약간 주눅 들기도 했다. 최민식의 연기가 무엇보다 빛난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인간의 거듭남에 대해 진행된 토론은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수업의 기억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 이키루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1950년대 작품으로 흑백영화이다. 필름을 구하기가 쉽지 않는데, 영화 애호가들은 파일 상태로 많이 소장하고 있고 나도 거기서 얻었다. 암에 걸린 한 중견 공무원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데, 판료조직 사회에서 그동안 아무런 인간적인 생기 없이 마치 ‘시체’처럼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다. 가난한 동네 주민들의 민원-놀이터-을 해결해주는 일인데, 야쿠자까지 동원되는 온갖 방해물 뚫고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하고 자신이 만든 놀이터 그네에 앉아 천천히 죽어간다는 내용이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수작이다.

• 4개월, 3주, 그리고 2일

루마니아의 젊은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작품으로 2007년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다. 차우세스쿠의 철권 통치 아래서 인구가 국력이라는 슬로건으로 낙태를 철저히 금지한 루마니아에서 비밀리에 낙태를 시행하는 두 여대생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체주의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논술반이나 문예반 학생들과 같이 보는 것은 좋지만, 전체 상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몰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 식코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민영의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파헤친 작품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공동체 상영이라는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영화 파일도 공유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로 주입받아왔던 미국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 민영화가 운위되는 지금 국면에서 좋은 시사 수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3. 논술 수업과 다큐멘터리

• MBC [PD 수첩] 한미 FTA 특집 1편, 2편

2006년 이미 수업 시간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해 가르칠 때 유용하게 활용했다. 이미 검증된 내용이고 프로그램의 구성이 워낙 뛰어나 째짤이 교사의 설명만 보강한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시사 수업이 된다. 실제, 면접고사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되어 덕을 보았다.

•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빙하] 2편

2편은 이 아름다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너무나 실감나는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인해 적도지방 투발루 섬이 서서히 물에 잠기는 영상은 아이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간다. 화면 상태가 좋고, 구성이 탄탄해서 쉽 없이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

• KBS 환경스페셜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 조작식품]

아래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을 제작한 이강택 PD의 작품인데, 그 자체가 GMO 문제에 대한 하나의 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영상이다. 미국, 인도 등에서 벌어지는 GMO 문제의 실태, 세계 각국의 대처까지 그간 GMO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알려진 것들을 총정리하고 있다. GMO 문제에 대해 그간 무심했던 교사라면 먼저 보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KBS 스페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2006년 한미 FTA 정국에서 미국의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친 이강택 PD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어쩌면 지금의 광우병 정국은 이미 이 때 이러한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기초가 닦여졌는지도 모른다. 공장식 축산에 대한 충격적인 영상이 많이 담겨 있고, 역시 학생들도 몰입해서 잘 보았다.

1.4. 독서토론 및 들려읽기로 활용한 도서 목록

- 고종석(2007),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 고종석(2007), 『말들의 풍경』, 개마고원.
- 공선옥(1994), 『피어라 수선화』, 창비.
- 권정생(1998), 『한티재 하늘』 1~2, 지식산업사.
- _____(2001), 『몽실언니』, 창비.
- _____(2008),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 기형도(1991), 『잎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 김곰치(2005), 『발바닥, 내 발바닥』, 녹색평론사.
- 김두식(2004), 『헌법의 풍경』, 교양인.
- 김소진(1997), 『눈사람속의 검은 향아리』, 강.
- 김현진(1999), 『네 멋대로 해라』, 한겨레출판.
- 모심과살림연구소(2006), 『땅에 뿌리박은 지혜』, 그물코.
- 박경리(2003), 『김약국의 딸들』, 나남출판.
- 박노자(2001), 『당신들의 대한민국』 1~2, 한겨레출판.
- 박병상(2004), 『파우스트의 선택』, 녹색평론사.
- 박승옥(2007),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 녹색평론사.
- 박영희 외(2006), 『길에서 만난 세상』, 우리교육.
- 박원순(1999),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한겨레출판.
- 백무현(2007), 『만화 전두환』 1~2, 시대의 창.

- 백무현·박순찬(2005), 『만화 박정희』 1~2, 시대의 창.
 - 신영복(1998),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돌베개.
 - 우석훈(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 _____(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유시민(2004),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돌베개.
 - 이덕주 외(2007), 『다시 읽는 이숙 우화』, 내일을여는책.
 - 이상석(2002),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자인.
 - 이윤기(2007), 『이윤기의 그리스·로마신화』 1~3권, 웅진.
 - 이청준(1996),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 이필렬(2002),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녹색평론사.
 - 정약용(200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
 - 정재승(2003),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동아시아.
 - 정혜진(2007), 『태양도시』, 그물코.
 -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 조세희(1999),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 조영래(2001), 『전태일 평전』, 돌베개.
 - 진중권(2004), 『빨간 바이러스』, 아웃사이드.
 - 최시한(1996),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2003), 『이라크에서 온 편지』, 돌베개.
 - 한홍구(2003), 『대한민국사』 1~4, 한겨레출판.
 - 현기영(1999), 『지상에 숟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 홍세화(2008), 『췌노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르다』, 한겨레출판.
 - 홍순명(1998),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 이야기』, 내일을여는책.
-
- 다카기 진자부로(2000), 『시민과학자로 살다』, 녹색평론사.
 - 더글러스 러미스(2002),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녹색평론사.
 - 루이스 세폴베다(2006),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 열린책들.
 - 르 클레지오(2008), 『프리다 칼로·디에고 리베라』, 다빈치.

- 마사 베크(2005), 『아담을 기다리며』, 녹색평론사.
- 바스콘셀로스(2003),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동녘.
- 벌리 도허티(2004), 『이름 없는 너에게』, 창비.
- 비노바 바브웨 외(1997),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보리.
- 샌디 호치키스(2006),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교양인.
- 스콧 니어링(2000), 『스콧 니어링 자서전』, 실천문학사.
- 장 지글러(2007),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2001), 『호밀밭의 파수꾼』, 민음사.
- 테드 알렌(2001), 『닥터 노먼 베쑨』, 실천문학사.
- 포리스트 카터(2003),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아름드리미디어.
- 하이타니 겐지로(2008),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양철북.
- 한스 피터 마르틴 외(2003),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2003), 『오래된 미래』, 녹색평론사.

1.5. 글쓰기 공책을 통한 아이들과의 대화

• 논술반 아이들이 써낸 글을 일주일에 한편씩 꼬박꼬박 읽고 답글을 달아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몹시 힘들지만, 이 작업의 교육적 가치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답글은 글쓰기에 대한 몰입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제일 뿐 아니라, 아이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계기가 된다. 아이들은 답글을 몹시 기다렸고, 답글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들까지 털어놓았다. 나는 이를 통해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 기쁨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최근 2년 정도, 여러 일로 바빠지면서 이 일을 소홀히 했더니, 이 여파가 논술 수업의 다른 영역에까지 미쳐서 수업 자체가 많이 느슨해질 정도였다.

교사에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일은 논술을 매개로 아이들의 삶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므로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아래는 아이들의 공책에 담아 준 필자의 답글을 임의로 뽑아 본 것이다.

안○영

이번 글은 급하게 쓴 것도 같고, 무엇보다 매가리가 좀 없다고 느껴지네. 결국 우리 교육이 뭐가 문제인가를 말하면서 ‘남’ 이야기만 잔뜩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남’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로만 그쳐버리지 않을까 생각해.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남이야 어떻든 자신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 교육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굳이 용감하게 ‘어쩌겠어어쩌겠다’ 하는 것을 씬은 전혀 기대하지 않지. 다만 솔직히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나라의 공교육 제도를 살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 요컨대, ‘몸’은 이 제도의 억압 속에 담그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그것이 강요하는 억압과 경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말이야. 씬이 생각하는 논술 시험의 제일 큰 문제점은 자기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럴 듯한 논리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거야.

논술 수업 시간이 무거운 이야기로 채워지면서 나로서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게 잘 될는지 모르지만, 답 없는 이야기보다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만.

〈토론〉

‘논술 교육의 바른 자리에 대하여’에 따른 토론문

이진남*

이계삼 선생님—이하 논자라 칭함—의 논술 교육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읽고 평자 또한 글쓰기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논술 교육 자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학적인 되짚어보기가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논자의 통쾌한 비판이 가지는 위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평자는 논자의 주장이 가지는 흠결을 찾아야만 하는 입장에 서있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평자는 논자가 논술에 대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논자는 논술이 자유로운 사유를 저해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느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정말 눈부신 글들을 썼다. 그러나 기출 문제 앞에 두고, 네모난 1,000자 원고지 안에 ‘나’를 철저히 배제한 채 써 내려가야 하는 논술문제 앞에서 아이들은 심하게 허둥거렸다. 생활 글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던 구어 감각은 객관의 문어체와 극심한 충동을 겪었고…….”라는 표현에서 평자는 현행 대입논술에 대한 논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읽을 수 있었다. ‘관용’과 ‘호연지기(浩然之氣)¹⁾’를 강조한 그의 교육관에서 논리적 틀에 짜 맞추려는 논술문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읽을 수 있었다.

논자는 우리가 말과 글에 의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도착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여기서는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원래의 의미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해되고 있듯이 ‘호방함’ 정도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호연지기의 원래 의미는 ‘의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가운데 도덕적인 행위가 나오는 단계’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된 세계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말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일기에 보를 통해 날씨를 느끼는 타락한 말과 글의 지배에서 벗어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유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자는 묻고 싶다. 말과 글에서 자유로운 세계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주는가라고. “태초에 말(logos)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주장을 굳이 끄집어들이지 않고도 우리는 말과 글이 인간의 삶에 있어 근원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런데 논자는 언어(말과 글)를 떠나 ‘살아있는 세계’로 이끌어주자고 말한다. 그런데 언어를 떠난 세계는 하늘 아래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명가명비상명(名可名非常名)”이라는 도덕경의 첫 구절이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만물의 근원적 원리를 추구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것처럼 신선의 삶을 이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논자의 견해는 2003년 연세대학교 논술문제에 대한 비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의도된 개념과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문제들에 대해 독창성을 배제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제시문에 대한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이해보다는 단순하면서도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논자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글의 앞에서 인용한 윤재철의 글이 제시하는 반복과 고통의 끝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인가? 사실 창의적 사고는 100% 무결점의 상태나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과정의 매 단계마다에서 비판적 사고와 협력하여 작용하는 사고의 한 축이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는 항상 제약된 현실 속에서 그 제약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태어난다.

논자는 이 문제가 가지는 “① 제시문을 바탕으로,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③자 신의 입장을 논술하라”는 세 조건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학교수들조차도 제시문을 바탕으로 예를 들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를 ②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와 연결해보면 이러한 오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둘째에

대해서 논자는 아무런 참고 자료도 없이 독서와 인생경험에서 두 시간 내에 원고지 8~9매 이내로 작성하라는 요구가 반지성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직 반복적 훈련을 통해 습득한 도식을 암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반복적 도식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오히려 자신의 독서와 사색 그리고 체험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에 대해서 논자는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는 것을 개요쓰기로 표현하고 있다. 논자는 논술 강의에서 개요쓰기가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계적인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판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었다. 비판의 대상은 연세대학교 논술문제이지 논술 교육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논자는 이러한 논술의 문제가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시작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논술이 대학입시를 둘러싼 제 세력간의 혈투에서 태어난 사생아이기 때문에 중등교육이 담아낼 수 없는 허황된 이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때문에 그 이상이 실현되는 순간 변별력의 획득과 함께 모든 신기루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술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고지가 제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면 정확한 지적이다. 바로 이 때문에 논술시험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한 축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자는 이러한 근원적 문제들과 앞에서 비판한 논술의 문제점들 간의 필연적 연결고리를 밝히는 친절함을 베풀고 있지는 않다. 과연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 모두가 건건하지 못할까? 사악한 의도를 가진 과학자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 자체가 사악하다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논자는 인터넷 논술 강사가 주장한 찬반논쟁으로서의 논술 교육에 대해 공포를 안겨주는 불관용의 강제라고 주장한다. 이는 비판적 사고를 ‘남을 비난하는 기술’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틴어의 argumentum이 그러하듯이 영어의 argument도 논쟁

(論爭)이라는 의미와 논증(論證)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주입식 교육에서는 사라지고 없지만 중세의 교육과 19세기 이전의 교육에서는 묻고 대답하고 한 가지 논제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는 토론식 수업이 교육의 중심을 차지했다. 따라서 그 강좌를 통해 학생이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는 그 강사의 교수법이나 학생의 준비성(readiness)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토론식 교육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논자는 논술이 좋은 ‘보편 인문 교양 교육’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강요하는 ‘논리적 글쓰기’와 ‘교양교육’이 가당치 않음을 지적한다. 평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논자가 “논술 따위가 결코 교양 교육의 반열에 오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로 타락한 교육의 징표인 것은 그 발상과 형식 모두가 ‘불관용’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유롭고 너그러운 공기 속에서 함께 노는 것’이라는 이상은 논쟁식 교육에서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음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또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여러 다른 영역들에 적용해보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광우병 쇠고기 먹고, 의료 민영화로 치료 못 받고 죽으면,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주오”라는 구호에 담겨있는 논리적 직관, 표현능력, 용기가 교양교육에 있어 꼭 필요한 점이라는 논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바로 현재 지향하고 있는 논술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 물론 현재와 같은 ‘논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논술로 가르치는 교육’에서 그렇다는 의미이다. 이점은 논자가 간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논술의 현실과 이상 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논술은 국어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평자는 고등학교 일선에서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쳐 오신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대입논술이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논술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이점이 교육방법으로서의 논술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술의 핵심은 사고와 표현에 있다. 논술은 논(論)하여

술(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적용 과정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역전이적 사고를 표방하는 통합논술은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논자의 비판은 입시 수단으로서의 논술을 비판하는 점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교육방법으로서의 논술을 비판한다면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논자가 생각하는 논술의 바른 자리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점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싶다.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고 국어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 전체의 지평에서 바라보는 입체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논술의 자리는 어디일지에 대해, 또한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 주제 발표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곽 영 숙*

<차례>

1. 서론
2. 이주 노동자 관련 제도 변화와 한국어 시험
 - 2.1. 고용 허가제와 한국어 교육
 - 2.2. 입국 전 한국어 시험의 문제점
3.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의 실제
 - 3.1. 한국어 교육 운영의 실제
4. 결론

<요약>

본고의 목적은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상을 살피고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주 노동자는 특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이며, 국내 한국어 교육은 취업하여 한국에 입국한 집단과 귀환을 준비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교육의 변화는 다음 네 가지로 짚을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변하고 있으며 학습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둘째,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화 되고 있다. 셋째, 단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도 구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이주 노동자들에게 귀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시흥외국인복지센터 과장, 전 한국어 강사

첫째, 한국어 교실 운영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 등 한국어 교육 구성 요소에 대한 변화와 욕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셋째, 강사비를 비롯해 한국어 교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나 전문가 조직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와 피학습자 간의 생활태도나 문화적인 접근이 고려된 쌍방향의 관점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수용적인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역량 있는 주체로서 이주 노동자가 내국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어 교육, 이주 노동자, 학습자, 귀환 교육, 한국어 교실

1. 서론

현재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20여 년의 이주 노동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이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소 제조업은 물론 농축산업, 수산업, 건설업 등 인력난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2008년 현재 64만 여명(미등록자 22만 여명 포함)에 달하며, 2004년 8월부터는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고용 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기반으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베트남, 몽골 등 15개국에서 매년 수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고 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취업 전 한국어 교육과 취업 후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취업 전 한국어 교육은 입국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국 전에 시행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자국 사설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수강하고, 사전교육을 통해서도 총 80여 시간 가량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취업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을 4시간 수강하고, 사업장을 배치 받은 이후에는 이주민지원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을 수강 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현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종교단체 포함)는 전국적으로 150여개로 추산되는데, 짧게는 1년 이내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들 중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외국인복지센터, 노동부가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결혼이민자기족지원센터 등을 위탁받아 외형상 복지관 규모를 갖추고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게 된 곳도 여럿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한국어 교육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한국어 교육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 및 연구 분석의 밑거름이 되고자 단위 센터¹⁾ 차원에서 정리한

사례 연구이다.

1.1. 연구목적

이주 노동자는 특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 중 하나이며,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며 송출국(이주 노동자의 국적국)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취업 전 집단과, 취업하여 한국에 입국한 집단, 한국에서 취업기간을 마감하고 본국으로의 귀환을 준비하는 집단이다. 본 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취업하여 한국에 입국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들의 수준이나 상황은 다양한데, 기존에는 듣기와 말하기를 할 줄은 알았지만 쓰기와 읽기가 어려운 미등록 학습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는 가능하지만, 듣기와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2005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읽기와 쓰기 영역 중심의 한국어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만 입국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서 읽고 쓸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비해 듣기와 말하기 영역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취업한 이후 지원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학습자 수준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3년의 취업기간을 마친 이들이 재취업(추가 3년)을 하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 이주 노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게다가 합법적인 등록기간을 넘겨 초과체류하고 있는 이들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주 노동이 장기화되면서 동일 국적이나 타국적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이들 사이에 생겨난 2세들이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노동과 생활 영역, 나아가 본국으로

1)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2007년 5월 30일 시흥시가 조례 제941호 ‘시흥시 거주 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화공단내에 4층 400평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이후 시흥이주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해오던 사)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민간 위탁하여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의 귀환 지원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 노동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둔다. 또한 노동자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에 융화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조화로운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존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단위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우선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였다. 중점적으로 검토하거나 조사한 사항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이주 노동자 제도 변화와 한국어 시험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현황 및 활동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본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이주 노동자들이 귀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2. 이주 노동자 관련 제도 변화와 한국어 시험

20여 년 이주 노동 역사 속에서 이주 노동자 관련 제도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인식된 한국은, 1991년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제도로써 1990년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어렵지 않게 현지 노동자들을 기술연수 명목으로 유입 하였으며, 이후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는 명목 하에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조업은 물론 농축산업, 수협, 건설업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외국 인력을 활용

해왔다. 그러나 이들 연수생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거액의 송출비용(1,000만원 내외)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12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노동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최저임금 미적용은 물론 여권압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해 노출되어 제대로 된 보호체계 없이 인권 유린을 방조하며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과 운영 비리를 근거로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이 2000년에 들어 거세어지면서 연수생제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마침내 2003년 6월 국회를 통해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 허가제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고용 허가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2004년 8월부터 고용 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가 기존의 산업연수제도와 더불어 병행 실시되었고, 2007년 1월부터 단일화된 외국 인력제도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고용 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관리를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담당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송출 국가와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필요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로 현지 인력을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 중국국적 동포와 구소련 국적 동포들에게는 고용 허가제 내에 특례조항을 두어 외국인근로자와는 다소 차별화된 조건을 제공하였다. 2007년 3월부터는 5년간의 체류를 복수비자로 허가하는 방문취업제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자 중 한국내에 연고가 없는 이들 역시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2.1. 고용 허가제와 한국어 교육

현재 고용 허가제도로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의 국적은 시행 초기 6개국에서 15개국²⁾으로 늘었다. 입국 대상자는 송출 국가로부터 <표 1>과 같이 150시간 동안 사전교육(한국국제노동재단, 2005: 126)을 받는다. 사전교육은 송출 국가에서 추천하는 훈련 기관 중 한국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 기관이 시행한다. 교육은 한국어 교육(80시간), 한국 문화(7시간) 및

2)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크,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고용 허가제 관련사항(13시간)등을 다루는 소양교육 100시간과, 산업안전보건 등의 공통교육 15시간, 업종별 기능교육 35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표 2>와 같이 제시해 보았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총 교육시간은 20시간인데, 이중 한국어 교육은 4시간 동안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과 몽골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모두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본국에서 80시간, 취업한 후 4시간을 합하여 최소 84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1> 입국 전 사전교육 커리큘럼(안)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기관
소양교육	한국어 교육 (80H)	한글 입문	10	우리나라 노동부가 인정한 공공직업훈련 기관
		하루 생활	60	
		· 물건 사기	8	
		· 식당	8	
		· 은행과 우체국	6	
		· 전화	8	
		· 교통	10	
	· 병원과 약국	10		
	· 기타	10		
		인사, 자기 소개 등	10	
한국 문화의 이해 (7H)	한국 문화에 대한 개관	2		
	기본적인 예의범절	5		
고용 허가제의 이해 (13H)	고용 허가제 주요 내용 설명	4		
	취업시 근로자 준수 사항 안내	5		
	출입국관련 증점 사항 설명	4		
기능교육	공통교육 (15H)	안전 보건의 개요	1	우리나라 노동부가 인정한 공공직업훈련 기관
		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사고 예방	2	
		보호구 및 안전 표지	2	
		기계 위험 방지 기술	2	
		전기 위험 방지 기술	2	
		화확 설비 위험 방지 기술	1	
		건설 안전 기술	2	
		수공구 및 운반 안전	1	
		직업병의 개요 및 예방 대책	1	
	긴급 상황시 비상 대책	1		
업종별교육 (35H)	제조업	섬유, 건반기초공사, 금속조립	35	
	건설업	철근, 목공, 용접, 백판		
	농축산업	시설 원예, 축산		
누계			150	

<표 2> 한국국제노동재단의 취업교육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교과	과목	주요교육내용	시간
교양 교과	한국어	한글자모, 인사하기, 기초회화 묻고 답하기	4H
	한국 문화	한국의 일반적인 생활과 날씨, 음식, 지리	2H
	소계		6H
전공 교과	관계법령	고용 허가제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임금, 휴일	4H
	산업안전	산업안전 11대 수칙, 안전표시, 안전일반, 기계안전 및 생활보건	4H
	기초기능	산업일반, 생산관리, 수공구, 전동공구의 명칭, 범용 공작 기계 작업 안전	4H
	고충처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고충 시 처리 방법, 성폭력 예방교육(여성)	4H
	소계		14H
기타 시간	입수료식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및 사업장 배치 후 생활안내	1H
	건강진단	건강진단	1H
	소계		2H
합계			20H

2.2. 입국 전 한국어 시험의 문제점

2005년 8월 17일부터 고용 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선발 기준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³⁾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재)한글학회와 공동으로 노동부 주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관련 ‘세계 한국말 인증 시험’⁴⁾ 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 3>, <표 4>와 같은 기준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3) 한국어 능력 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Korean LanguageTest, EPS KLT)

4) <http://www.klpt.org>

<표 3> 시험 구성, 배점 및 시간

구분	평가 영역	문항수	배점	시간
듣기	소리와 표기	25	100	40분
	시각 자료			
	대화, 이야기			
읽기	어휘	25	100	50분
	문법 및 어법			
	실용 정보 자료			
	독해			
계		50	200	90분

<표 4> 취득점수에 따른 한국어 능력평가기준

최종 성적	능력 수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척도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평가 척도
120점 미만	의존적이고 불완전한 의사소통	한국어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으로서 일부 어휘, 구문을 알고 있을 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불가능	한국말을 사용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120점 ~160점	제한된 기초 언어 표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친숙한 상황에 국한해 간단하고 고정적인 응답 표현이 가능하나 언어의 정확성이나 완성도는 부족한 수준	한국어 초보자로서 말과 글로써 자기표현을 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의 제한적이고 관례화된 상황에서 한정된 의사소통만 가능. 사회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161점 ~200점	기본적인 사회 활동 가능	일상생활이나 대인 관계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소재, 표현을 신속하게 구사하기는 어려움	기본적인 어휘로써 짧은 편지, 메일 쓰기, 간단한 업무 사항 기재가 가능해 단순하고 한정된 분야에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함

그러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지에 있는 코이카 단원을 활용한다고 해도, 표준어 발음이 가능한 한국어 교사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지인이 한국어를 전공하여 비교적 정확한 발음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 내 사정을 알기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 사업장 내에서의 한국어 사용과 생활 리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간혹 한국에서 이주 노동을 한 경험자가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험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표준화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다양한 교재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일반 한국어 교재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어 시험 기관에서 보급하는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한국 내 대학교의 한국어 과정에서 활용하는 교재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지어-한국어 사전이나 공단 지역에 대한 지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등을 섬세히 설명하고 있는 교재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송출 국가에 따라 한국어 시험의 신뢰성이 깨지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2007: 52-53; 104-105)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의 경우 <표 5>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인력 송출을 하는 데, 2006년 6월에는 한국어 시험 부정으로 인해 송출이 중단되었다가 2007년 8월 다시 재기되기도 하였다. 몽골의 한국어 시험은 한글학회가 주관하는데, 2007년에 개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다가 선착순 접수에 따른 응시인원의 폭주(응시자 3만 명에 가족까지 동원 5~6만 명 이상)와 무질서, 경찰에 의한 폭행, 자기 사람 끼워 넣기 등의 문제로 접수장은 이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표 5〉 몽골 현지 고용 허가제 인력송출 과정

1단계	고용 허가제 홍보(해외 인력 센터 주관)
	↓
2단계	한국어 능력 시험 접수
	↓
3단계	한국어 능력 시험 및 건강검진 통과
	↓
4단계	구직신청서 접수 및 구직자 명부 작성
	↓
5단계	근로계약체결 및 사전교육 후 출국절차

또, 베트남에서는 한글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해외노동자센터(OWC)에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을 각 부처와 64개 지방노동사무소에 할당한다. 각 부처에는 총 응시 가능 인원의 30%를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이후 각 부처 산하의 직업 학교 학생이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역 내 노동송출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기 1개월여 전에 한국어 시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본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행 희망자들은 사전 한국어 시험 및 한국어 시험에 대비하여 고액의 수강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하노이의 경우, 한국어 학원 1개월 수강료가 20\$에 달하는데, 보통 3개월 과정으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어 총 60\$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베트남 현지 고용 허가제 인력 송출 과정

1단계	고용 허가제 홍보(해외 노동자센터 주관)
	↓
2단계	지방노동사무소 및 각 부처에 한국어 능력 시험(KLTP) 응시 쿼터 배분
	↓
3단계	지방노동사무소 및 각 부처 산하 직업학교에서 사전 한국어 시험 실시
	↓
4단계	사전한국어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KLPT) 실시
	↓
5단계	한국어 능력 시험(KLPT) 결과 발표 및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취합
	↓
6단계	건강검진 및 신청 서류 검토
	↓
7단계	구직자 명부 작성, 한국어로 전송
	↓
8단계	근로계약체결 및 사전교육
	↓
9단계	구직자 출국, 주한 베트남 노동관들이 국내 사후관리 담당

3.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의 실제

경기도(2006: 143-147)가 조사한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현황분석을 살펴보면, 단체의 활동기간은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가 대부분으로 10년 이내이며, 1년 평균 예산은 5천만원 이하가 37%,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32%이다. 인원 규모는 평균 유급 상근자 수가 4.5명이었는데, 유급 상근자 수가 1명인 경우도 5곳(26%)이 있어, 재정과 인력 규모는 대부분 열악한 형편이다. 다만 단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는 평균 33명으로, 단위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단체 당 평균 이용자 수는 563명(표준편차 984명)으로 센터의 재정이나 인력에 비해 이용자수가 많은 편이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프로그램으로는 노동 상담과 한국어 교육이 기본이 되며, 의료, 산재 지원 및 출입국, 공동체 모임, 귀환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은 앞으로도 센터의 중점 사업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⁵⁾에서, 혹은 민관협력 형태로 외국인복지센터나 외국인근로자센터가 건립 운영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2008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인 100만 명이 넘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 인권·노동권 보호 차원을 넘어, 이들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개발하고 지원을 넓혀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인 한국어 교육에 좀 더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1. 한국어 교육 운영의 실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⁶⁾는 2002년 10월 한국어 개인지도를 실시하면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고, 2003년 1월에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정규과정을 개설했다. 이후 한국어 교실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5년 6개월여 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법인 내의 사무실을 타 부서와 함께 사용해야 했다. 다행히 이주 노동자 대상 지원 활동은 대부분 일요일에 이루어지므로 회의실, 교육실 등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공간 활용이 가능한 두 곳에다 시간대를 나누어 강좌를 개설하고, 센터 인근에서 근무하는 초·중등교사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교

5) 남양주시(2005건립운영), 수원시(2006건립운영), 시흥시(2007건립운영), 안산시(2008건립운영), 화성시(추진 중), 부천시(추진 중)

6)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시설규모는 4층 400평이며, 교육장과 헬스장, 다문화체험관, 인터넷카페, 다목적홀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인원은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10명이며, 월평균 50~6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재정규모는 연 2억여 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프로그램 진행 비용이 포함된다. 센터 이용자는 월평균 17개국 이상 500~600명 정도인데, 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거나 편의시설을 이용한다.

사로 확보하여 부족하나마 한국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시흥시는 지역이 수도권이긴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교사 활동을 보상해 줄 수 없다 보니 강사인력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2004년 경기도에서 단위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 한국어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타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또한 나라별 사전을 비롯하여 교재 30여 권을 구입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 말에는 인근 경기공업대학의 도서관 건물을 일요일마다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 여러 반을 한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2007년에는 별다른 홍보 없이도 한국어 교실 접수 인원이 1.5배 ~ 2배 가량 늘었다. 2007년에는 한국어를 전공한 국어학 박사를 한국어 교실 실장으로 위촉해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수강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렇게 5년 이상 운영해 온 한국어 교실 접수 인원은 총 917명(수시접수)이며, 이 가운데 수료자가 108명(12%)이다. 접수자에 비해 수료 인원이 상당히 적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해 온 한국어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나마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⁷⁾ 다만 수료 인원이 접수 인원에게 비해 너무 적은 것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접수인원과 접수기간을 제한하려 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한 논의에서 1회라도 좋으니 교육 기회를 빼앗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한국어 교실을 토대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2006년, 2007년 연속 시흥시에서는 물론 경기도, 전국단위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단체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은 상을 받기도 했다. 2006년 12월 경기도자원봉사대축제 봉사상(경기도지사상) 수상, 제9회 시흥시자원봉사대축제 나눔상(시장상) 수상, 제13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은상 수상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교실 운영 사례>

- (1) 교육목적 :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이들이 작업 현장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일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표준화된 한국어를 구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 (2)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 (3) 장 소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교육실
- (4) 참 가 자 :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거주 외국인 누구나
- (5) 교육기간 : 1년(40주 이내) 단위의 교육과정
- (6) 주요 학사 일정

<표 7> 주요 학사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개강식	3월초	학사 일정 안내, 레벨테스트 및 분반, 교사와 각국별 참가자 인사 나누기
1학기	3월~7월	20주 내외
체육대회	5월	이주 노동자 한마음 체육대회
여름방학	7월3주	3주간
개학식	8월3주	교사 및 교육생 인사 나눔
2학기	8월~12월	18주 내외
송년회 (수료식)	12월 3주	수료증 수여, 모범 수강생 표창

3.1.1. 한국어 교실 구성

(1) 교사

<표 8> 한국어 교실 교사 구성

인원 (2003~2007)	21명 내외 (정규반 정교사 12명, 정규반 보조교사 5명, 개인지도 교사 4명)
선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교사 :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등록하고 진행 중인 한국어 교실 정규 과정별 보조교사 경험을 합하여 4회 이상 참관한 자 ▪ 보조교사 : 특별한 기준 없음
남녀 비율	여 16 (76%) : 남 5 (24%)
직업	대학강사(국어학 박사) 1명, 교사 3명(초등 2명, 중등 1명), 학습지 지도 교사 1명, 대학생 9명 (한국외국어대학교 6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3명), 복지관 강사 및 실무자 2명, 주부 및 회사원 등 기타 5명 (초등학교 생 지도하는 중학생 1명 포함)
특이사항	<p>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성실한 자원봉사자들로 반별 참관 수업을 통해 준비할 시간을 주고 정교사로 활동을 유도했다.</p> <p>초기에는 대학생 봉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2006년에 한국 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어과와 말레이어과 학생들이 'With'라는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인도네시아>반을 6개월 동안 운영해 보기도 했다.</p> <p>2007년 국어학 박사를 한국어 교실 실장으로 위촉하여 전체적인 교육 진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반인 봉사자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p>

(2) 교육 내용 및 교육환경

<표 9> 한국어 교실 교육 내용

구분	교재	교육 내용	교사배치
준비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1) (한국국제노동재단)	글자 중심이 아닌 실제 대화에 필요한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익힘. 게임과 동작을 활용하여 기억력과 활용력을 높임으로써 주1회 가지는 수업의 단점을 극복함	정교사 보조교사
초급반	“가나다” 읽기/쓰기 교육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1) (한국국제노동재단) 처음배우는 한국어 읽기 (연세대학교)	자음, 모음, 자모음 조합, 단어 익히기 등 주제별 읽기 훈련 등	정교사 보조교사
중급반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의 친구들)	듣기와 말하기를 익히기 위한 대화 훈련 등	정교사
고급반	생각하는 한국어 읽기(4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어 능력 시험문제 1급~6급(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타 신문 (인터넷 스크랩 이용)	글쓰기를 훈련하고 문법·어법에 맞게 언어 사용을 훈련하며, 학생 수준에 맞는 급수별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돕고, 신문기사, 장문 읽기 활동 수행	정교사
평일반 및 개인지도 반	교사에 의한 자유 선택	통원이 가능한 산재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단어별, 주제별 교육 실시	정교사
특이사항	한국어 교실 수강생은 수시로 접수 받기 때문에 준비반을 개설하여 정규반에 들어갈 때까지 준비 시간을 갖기로 하고 운영하였다. 그러나 수강생들이 준비반 선생님께서 익숙해져 다른 반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후 독립된 기초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0> 한국어 교실 교육 환경

교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4개 (경기공업대학 강의실 3개, 센터 회의실 1개) ▪ 방문 교육 장소 2곳 (공장 1곳, 집 1곳) <p>* 2003년~2005년에는 센터 회의실과 교육실 2곳에서 시간을 2회로 나누어 4개 반 교육을 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2005년부터 인근 (사회공단 내 위치) 경기공업대학 도서관 3층 강의실을 대여하여 일요일 정규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p>
기자재	화이트보드, 책상, 의자, 카세트플레이어
교육 자료	한국어 교재 및 테이프, 사진류(한국어사전, 어린이그림사전, 한국어-몽골어 사전 등 각국어 사전), 한글카드, 한글 학습달력, 벽걸이지도 (세계지도, 한국그림지도)
담당교사	정규반 2명 이상 (정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이상)
반 구성 개설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반 3개 반 (초급, 중급, 고급), 준비반 1개 반 (초급 수준으로 개강일 이후 등록자를 대상으로 함) ▪ 평일반 및 개인지도
수업 일수	매주 일요일 2시간
수업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반/준비반 : 매주 일요일 15:00-17:00 ▪ 개인지도반 : 주1회 1시간 정도 (교사와 학습자와 협의)
특별활동	센터의 주요 문화 행사 참석 (5월 체육대회, 10월(추석) 문화제, 12월 송년회 등)

3.1.2. 학습자 현황

<표 11> 학습자 선발과 진급 기준 및 방법

선발/진급 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모집, 등록증 접수시 담당 실무자와 자원 봉사자들의 기초 레벨테스트 실시(인원제한 없음) - 개강식 전 교사들이 2차 레벨테스트(시험 수준으로 세분화함) 실시 및 분반 ▪ 진급/유급 : 레벨테스트 후 담임 교사의 판단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벨테스트 실시하여 해당 기준에 맞게 분반 - 타교육생에 비해 실력이 월등히 차이 나는 학습자는 교사간의 협의를 통해 월반 ▪ 모집 시기 : 1월~2월 (현실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의 요청으로 개강 이후에도 계속 등록을 받고 있음) ▪ 수료기준 : 총 교육일의 70% 이상 출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한 날은 수료 여부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시 출석으로 간주
---------------------	---

다음으로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학습자 현황을 살펴보면, 5년여 동안 접수인원이 총 917명으로 연평균 100여 명이었다. 학습자 성별은 남자가 대다수를 이룬다. 이는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시화공단에서 주를 이루는 작업 특성상 남성 인력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2007년에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2008년 평일 교육이 강화되면서 결혼이민자 등 여성은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학습자 가운데 80%정도가 남자인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연도별 접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졸업생은 오히려 감소한 해도 있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료생의 한국어 실력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수료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이 보다 중요한 까닭은 학습자가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수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별 신규 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주말

8) 수강생 중에서 본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특근을 해야 하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감안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소수를 위해 학습권을 보호하기보다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올해는 교사들 간의 논의를 거쳐, 격월로 접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수업 운영과 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절충했다.

<표 12> 최근 5년간 교육 인원 분포

연도	구분 접수(명)	인원 분포		졸업(명)	운영 인력(명)		비고
		남(%)	여(%)		봉사자	실무자	
2003	96	90(94%)	6(6%)	19	8	1	1월
2004	101	87(86%)	14(14%)	13	8	2	
2005	113	100(88%)	13(12%)	8	10	2	
2006	198	156(80%)	42(20%)	22	13	2	
2007	227	212(77%)	65(23%)	15	10	1	
2008	182	159(87%)	23(13%)		15	5	5월 현재
총합계	917	804(83%)	163(17%)	77	64	13	

3.1.3. 연령별 현황(2003~2005)

학습자의 연령분포를 아래 표에서 보면, 고용 허가제 연령범위인 20~40세 사이의 연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6세~35세까지의 인원이 50%를 넘고 있다. 20세 미만이나 이주 아동의 유입 역시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3〉 연령별 현황

구분 연도	20~25	26~30	31~35	36~40	41~45	46~	미응답	합계
2003	7(7%)	34(35%)	24(25%)	2(2%)	4(4%)	1(1%)	24(25%)	96(100%)
2004	10(10%)	28(28%)	23(23%)	12(12%)	2(2%)	3(3%)	22(21%)	101(100%)
2005	10(9%)	28(25%)	20(18%)	12(10%)	4(4%)	5(4%)	34(30%)	113(100%)
총합계	27(9%)	90(29%)	67(22%)	26(8%)	10(3%)	9(3%)	80(26%)	310(100%)

3.1.4. 국적별 현황(2003~2007)

국적별 학습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3개국 출신의 학습자 수가 다소 많았다. 그러나 2006년경부터 고용 허가제 대상국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학습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의 학습자들은 한국에 비교적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말하기/듣기 능력이 읽기/쓰기 능력보다 우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고용 허가제 대상국에서 입국한 신규 학습자들은 간단한 읽기/쓰기 능력은 갖추었지만, 말하기/듣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이나 생활 터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2008년부터 한국어 교육을 대화 위주 수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표 14〉 국적별 현황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스리랑카	26(27%)	6(6%)	3(3%)	24(12%)	8(3%)	67
인도네시아	16(17%)	31(31%)	37(32%)	25(13%)	16(6%)	125
파키스탄	16(17%)	13(13%)	13(12%)	10(5%)	26(9%)	78
방글라데시	15(16%)	26(27%)	12(11%)	18(9%)	16(6%)	87
러시아	9(9%)	6(6%)	10(9%)	2(1%)	2	29
중국	8(8%)	10(10%)	13(12%)	19(10%)	30(11%)	80
우즈베키스탄	4(4%)	2(2%)		2(1%)	2	10
우크라이나	1(1%)					1
이집트	1(1%)			1		2
태국		4(4%)	4(4%)	11(6%)	22(8%)	41
네팔		1(1%)	2(2%)		5(2%)	8
몽골		2(2%)		4(2%)	1	7
베트남			11(10%)	69(35%)	109(39%)	189
미얀마			4(4%)	1	8(3%)	13
필리핀			1(1%)	11(6%)	9(3%)	21
독일				1		1
캄보디아					1	1
캄보디아					21(8%)	21
아르헨티나					1	1
합계	96 (100%)	101 (100%)	113 (100%)	198 (100%)	277 (100%)	785

위에서 열거한 현황 외에 한국어 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을 참고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교사 재교육

<표 15> 한국어 교사 재교육(연간 2회 이상) 현황

구분(명)	일시	교육 내용 (주제)	비고(강사)
재교육 (교사수)	1월, 8월 중 실시	이주 노동자 포함 이주민 전반에 대한 이해, 한국어에 대한 이해 등	이주 노동 분야 전문가 국어학 전문가
2004 (12명)	9월 (120분)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전반에 관해서	정국희 교육팀장 (아시아의 친구들)
2005 (6명)	6월 (120분)	한국어 교실 교사 대상 선진지 견학 (장소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김혜원 교육팀장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2005 (12명)	10월 (6시간)	한국어 교사인 당신은 민간의교관입니다	김주미 박사(국어학)
2006 (21명)	8월, 9월 (6시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 학습 방법과 실제 한글 맞춤법과 올바른 국어 생활 지도	김주미 박사(국어학) 김형배 연구교수 (국어상담소)
2008 (27명)	1월 (6시간)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거주 외국인 한국어 교사 길라잡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이해	최서연 교무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김주미 박사(국어학)

* 2007년은 한국어 교실 실장을 위촉하여 운영함(김주미 국어학 박사)

(2) 한국어 교실 사랑방 모임 : 격월 1회, 인사 나눔, 일정소개, 생일파티 등

(3) 한국어 교사 모임 : 연간 4회(정규), 필요시

(4)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지원 : 응시 희망자가 있을 경우 지원

<표 16>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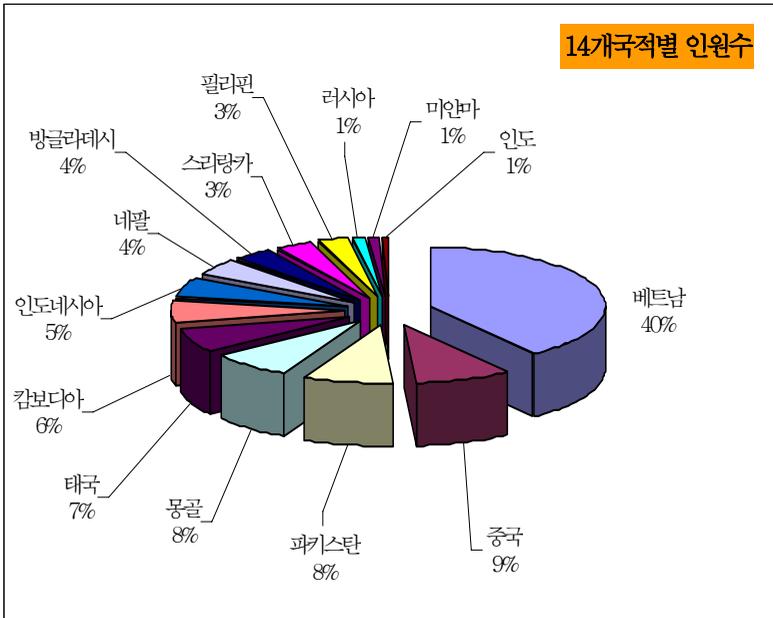
구분(명)	일시	내용 (회차)	비고
시험대비 (응시자)	응시시기 (합격자)	한국어 능력 시험 1급 ~ 6급 중 응시범위 초급(1급~2급), 중급(3급~4급), 고급(5급~6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2005 (4명)	9월 (4명)	제9회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 4급	2명/2급, 1명/3급, 1명/4급 총 4명 합격
2006 (5명)	9월 (5명)	제10회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 4급	3명/2급, 2명/3급 총 5명 합격
2007 (5명)	9월 (4명)	제11회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 5급	1명/2급, 1명/3급, 1명/4급, 1명/5급. 총 4명 합격

3.1.5. 2008년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1) 학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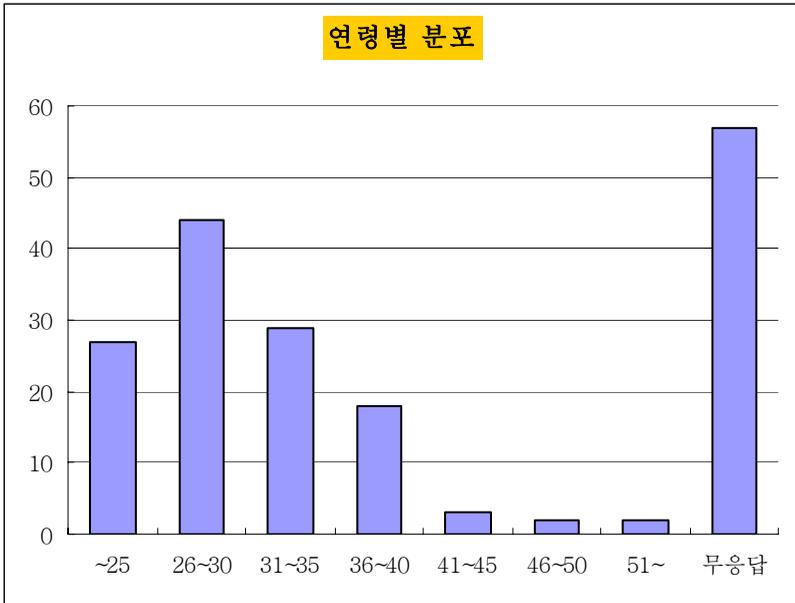
2008년 현재 본 센터 한국어 교실 학습자는 14개국 출신으로 다양한데, 이 중 베트남(40%), 중국(9%), 파키스탄(8%), 몽골(8%) 학습자가 주를 이룬다.

<그림 1> 학습자현황(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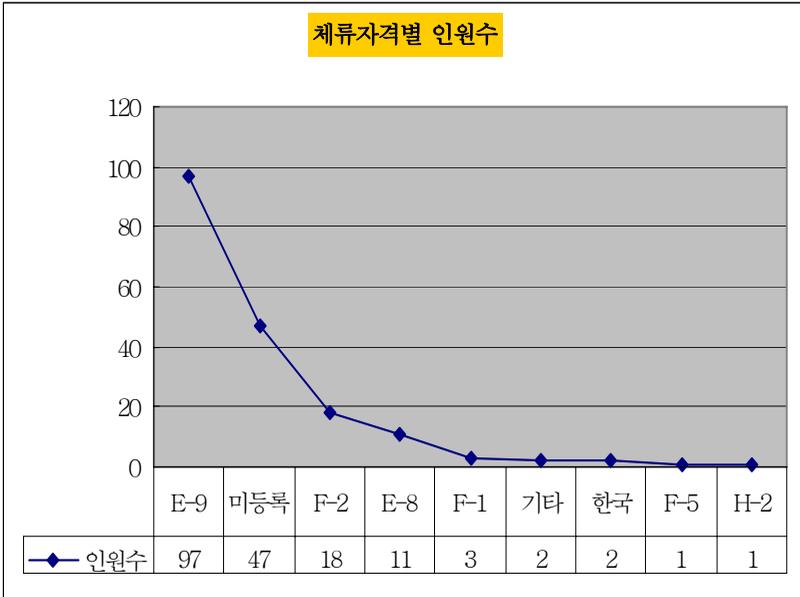
학습자의 연령별 분포는 위에서 분석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으나, 무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학습자가 본인의 생년월일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는 분류기준일뿐, 실생활에서는 별로 소용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연령별 분포(2008)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합법적 체류자의 수가 미등록자 수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8년 체류자격별 현황에서 고용 허가제(E-9*)를 비롯한 합법적 체류자 수가 135명(74%)으로 70%를 넘어서고 있다. 체류자격 중 ‘한국’으로 표기된 경우는 결혼이민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한국 국적자 2명을 포함하여 F-2(가족동거), F-5(영주)비자까지 합산하면 총 24명으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시흥이주 노동자지원센터, 2006: 15). 결혼이민자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 학습 대상자이기는 하나 아직 별도로 받을 편성하기에는 수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체류자격별 인원수



(2) 교육환경 및 교재 현황

현재 급별 교재는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한 교재를 선택하여 주말반과 평일반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학기 초 교사모임에서 기존처럼 교사가 준비한 복사물 위주로 수업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학습자들이 1만여 원이 넘는 교재를 구입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초급반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교재를 구입했고, 현재 교재 보급이 80%정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재 구입에 익숙하지 않은 중급반 학습자나, 책을 보기 어려운 초급반 학습자의 경우에는 구입을 꺼려하였다.

〈표 17〉 교육환경 및 교재현황(2008)

교육 환경	교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4개 (2층 2개, 3층 1개, 4층 1개) ▪ 장소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내
	기자재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의자, 카세트 플레이어, 노래방기기
	교육 자료	한국어 교재 및 테이프, 사진류 (한국어 사진, 어린이 그림 사진, 한국어-몽골어 사진 등 각국 학습 사진), 한글카드, 한글학습달력, 벽걸이지도 (세계지도, 한국 그림 지도)
	담당교사	정규반 2명 이상 (정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이상)
	반 구성 개설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반 4개 (초급, 초급1, 초급2, 중급) ▪ 평일반 2개 (초급1, 초급2)
	수업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반/레벨테스트 : 매주 일요일 15:00-17:00(2시간) ▪ 평일반 : 매주 수요일 19:00-21:00(2시간)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반 - <쉬위요한국어>를 사용하되, 범위를 정하지는 않음 ▪ 초급1반 - <쉬위요한국어1> 1과~10과/시사북닷컴 ▪ 초급2반 - <쉬위요한국어1> 11과~20과/시사북닷컴 ▪ 중급반 - <쉬위요한국어2> 1과~10과/시사북닷컴 	

이 외에 특이 사항으로는 ‘서도소리’와 ‘사물놀이’ 등을 한국어 특강으로 배치하여,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 수업은 노동으로 지친 학습자들이 심신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 학습자가 1회성으로 참여하지만, 이 가운데 10여 명은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달에 한 번 열리는 사랑방 모임에서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한국 노래 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은 또 다른 학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국으로 귀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본 센터에서는 2006년 말부터 준비하여, 2007년부터 ‘행복한 귀환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귀환 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귀환 교육은 이주 노동의 장기화와 악순환 되는 고리를 끊고 이주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 사회에 재통합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표 18>에서 보는 것처럼 인식교육, 기술교육, 언어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센터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2007년 초부터 MBTI검사를 통해 성격 및 직업 친밀도를 검사하고 이후 카메라 교육⁹⁾을 설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학습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 이후에도 동아리 조직 등 개인으로 보다는 집단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 후 현장 경험도 필요하다. 따라서 귀환 교육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학습자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즉, 한국어 능력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정보 습득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8> 귀환 교육

귀 환 교 육 영 역	인 식 교 육	인식교육은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데서 출발한다. ‘귀환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본국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국의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저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송금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하는 것이 좋은가?’, ‘가족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소질은 무엇인가?’ 등이며,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이주 노동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기 술 교 육	자동차 정비 능력, 컴퓨터 조립 능력 및 응용 S/W 활용 능력, 이·미용 기술, 제과·제빵 기술, 카메라 등 미디어 기술, 대안 무역 등에 대한 기술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언 어 교 육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언어 능력을 습득하여 현지 관광가이드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회사에 취업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9) 2007년 15명이 접수 해 10여명이 수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2008년 한국어 교실 운영방침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임승선(2006: 83)과 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학습자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고급반 운영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본 센터의 교육 장소와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과 달리 한 건물에서 노동 상담부터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과 헬스 시설까지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학습자가 확보될 것이라 예상하고, 초급 수준 학습자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교육이 골고루 마련되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고급반,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반 등 수업 개설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다행히 시험 대비반은 단기반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급반은 개설이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교육 장소는 마련되었어도, 강사비나 교통비 등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므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원 교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의 학습자를 위한 공간과 인력을 따로 배치하는 것이 부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 접수를 격월로 하고, 학습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를 선정하여 구입을 권유하였으며, 특강 형태로 서도소리나 사물놀이를 결합하여 문화적인 접근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이 타 사업보다 우선시되거나 집중되지 못한 까닭에 센터의 기간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결론

이주 노동자는 특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 중 하나로,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과 수시로 일하는 주말 특근과 주야 교대 근무까지 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며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수십여 개국이 넘는 다양한 국적자들로 각자의 생활환경과 언어, 역사,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은 수업 설계부터 전반적인 운영 모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과는 별개의 다른 변화가 있다는 판단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 학습자가 변화하고 있으며, 학습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다만, 듣기와 말하기 훈련이 부족하여 대화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학습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학습자로 보다 섬세한 학습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화 되고 있다. 20여년의 이주 노동 역사 속에서 10년 내외의 교육 경력을 유지해온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이나 중앙 부처의 지원을 받은 복지관 규모의 지원단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규모의 단체들은 교실과 기자재 등 물리적인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 한국어 교육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화 되고 있다. 셋째, 단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도 구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자원이 확보된 최근 수년간 학습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초급반 수를 늘리면서 학습능력에 따른 분반을 세분화하고 학습자가 직접 선택한 교재를 구입하게 했다. 특강 형태로 서도소리나 사물놀이를 결합하여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이 타 사업보다 우선시되거나 집중되지 못한 까닭에 기간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이주 노동자들에게 귀환 교육을 하고 있다. 귀환 교육을 보면 크게 인식교육/기술교육/언어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귀환 교육의 목표는 이주 노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 재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함이다. 하지만 귀환 대상자가 귀국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드러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결국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한국어 교육은 교육기간에 비해 체계화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어 교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어 교실 운영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 등 한국어 교육 구성 요소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 교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나 전문가 조직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는 이주 노동 전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와 피학습자 간의 생활태도나 문화적인 접근이 고려된 쌍방향적 관점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수용적인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주민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역량 있는 주체로서 내국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임승선(2006), 「이주 노동자 대상 취업 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경기도(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Residency Status of foreign Workers and their Needs for Administrative Services』.
- 국가인권위원회(2007), 『고용 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 결혼 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사)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 시흥시사편찬위원회(2007), 「시화공단과 노동자들」, 『시흥시사』 제7권, (주) 두경프린텍.
-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2006), 『이주 노동자지원활동보고 및 평가서』
- 한국국제노동재단(2005), 「고용 허가제 1년, 외국 인력 정책 및 취업교육 평가와 개선방향」.

<Abstract>

The Case Study On Korean Education Conditions of Immigrant Workers and Improvement Plan

Gwak Young-s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t looking into the real situation of Korean education for immigrant workers and searching for desirable ways to improve the Korean education.

Immigrant workers are Korean learners of special purpose while the domestic Korean education is performed on the group who entered Korea after employment and the group preparing to return home. The changes in Korean education appearing from this situation can be pointed out as the following four types.

First, the students are changing and the desire to study is also becoming diverse. Second, the immigrant worker support organizations are changing and their types are also being diversified. Third, specific changes are also showing in the Korean education performed at unit centers. Fourth, the return home education is performed on immigrant workers.

In order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which is necessary for operating Korean classroom of immigrant workers and to properly deal with changes based on these things, the

following efforts are necessary.

First, the concentration and selection on Korean class operation must be the priority. Second, the changes and desires on Korean education elements such as students must be researched continuously. Third, the finances necessary for Korean class operation including the tuition must be supported realistically. Fourth, the cooperative system with professionals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has to build up through local community or agencies concerned. Finally, the Korean education has to settle as an education practicing the two way viewpoint where the living attitude or cultural approach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

Such effort will become a basis in forming an accommodating multicultural community in the future and the immigrant workers will be able to live together with natives as the capable individuals of a sound multicultural society which is able to prevent and heal the conflict.

Key words : Korean education, immigrant worker, student, return home education, Korean classroom.

〈참고자료〉

1. 시흥시 인구 및 근로자 현황 조사

1) 시흥시 거주 외국인 현황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결과(2007. 4. 30. 기준)

구분	주민등록인구 (‘07.4.30)(A)		총 계(B) (B=C+D+E)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C)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D)		국제결혼 가정자녀 (E)
		비율 (B/A)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이주자	기타 외국인	혼인 귀화자	기타사유로 국적 취득자			
경기도	10,978,390	2.0%	116,794	22,340	55,855	9,647	3,474	6,617		
시흥시	391,747	3.5%	6,909	1,261	5,161	195	128	150		

2) 체류별 현황

(법무부 2007년 말 현재)

구 분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16-60세 전체	
총 계	1,066,273	842,809	202,455	21.0%

3) 시화공단 입주업체와 종업원 수

(단위 개소, 명)

연도	구분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업체당종업원수
2000		2,648	43,722	16.5
2001		3,071	43,178	14.1
2002		3,654	46,765	12.8
2003		4,050	47,605	11.8
2004		4,753	77,216	16.2

2. 시·군별 거주 외국인 현황

시·군별 거주 외국인 현황 (2007. 4. 30 기준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결과)

구분	주민등록인구 ('07.4.30)(A)		총 계 (B) (B=C+D+E)	한국국적외가지지않은자(C)			한국국적외취득한자(D)		국제결혼가 정자녀(E)
	비율 (B/A)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자	기타외국인	혼인귀화자	기타서울특별 시		
경기도	10,978,390	2.0%	214,727	116,794	22,340	55,855	9,647	3,474	6,617
수원시	1,071,336	1.6%	16,667	9,970	2,467	1,589	1,295	586	760
성남시	960,248	1.2%	11,563	4,790	1,737	3,740	694	106	496
고양시	913,240	1.1%	10,177	1,770	1,351	5,799	516	264	477
부천시	860,684	1.4%	12,268	8,347	501	1,992	1,105	83	240
안양시	624,835	0.9%	5,564	4,012	37	469	513	323	210
안산시	703,044	3.8%	26,715	19,642	2,815	2,456	501	866	435
용인시	783,161	1.7%	12,975	3,195	1,123	7,554	503	175	425
의정부시	415,989	0.8%	3,412	641	844	1,138	414	53	322
남양주시	479,617	1.1%	5,221	3,021	944	568	493	14	181
평택시	398,824	1.9%	7,593	5,004	606	1,016	483	108	376
광명시	317,721	1.0%	3,202	1,094	1,567	29	298	206	8
시흥시	391,747	3.5%	13,804	6,909	1,261	5,161	195	128	150

군포시	273,685	1.4%	3,832	2,281	525	826	49	80	71
화성시	328,774	6.0%	19,853	12,959	888	5,769	77	47	113
파주시	296,924	2.7%	8,076	5,222	713	1,384	339	82	336
이천시	195,288	1.5%	2,968	1,722	436	396	194	4	216
구리시	195,734	0.8%	1,485	263	390	539	137	57	99
김포시	207,307	5.1%	10,535	2,229	436	7,331	261	76	202
포천시	157,576	4.8%	7,632	5,724	449	1,346	59	6	48
광주시	224,629	3.8%	8,516	6,609	595	644	304	35	329
안성시	161,599	2.3%	3,704	2,021	313	963	153	43	211
하남시	134,244	1.4%	1,815	931	332	286	143	33	90
의왕시	134,392	1.0%	1,327	230	192	683	100	26	96
양주시	173,603	4.4%	7,675	5,172	490	1,669	315	11	18
오산시	137,321	1.9%	2,592	1,139	337	818	160	23	115
여주군	105,940	1.5%	1,573	711	255	305	127	11	164
양평군	86,964	0.6%	540	156	181	67	28	0	108
동두천시	87,257	2.4%	2,097	628	326	867	123	25	128
과천시	60,823	0.6%	336	66	75	175	1	0	19
가평군	55,038	1.1%	602	96	86	261	44	2	113
연천군	45,846	0.9%	408	240	68	15	23	1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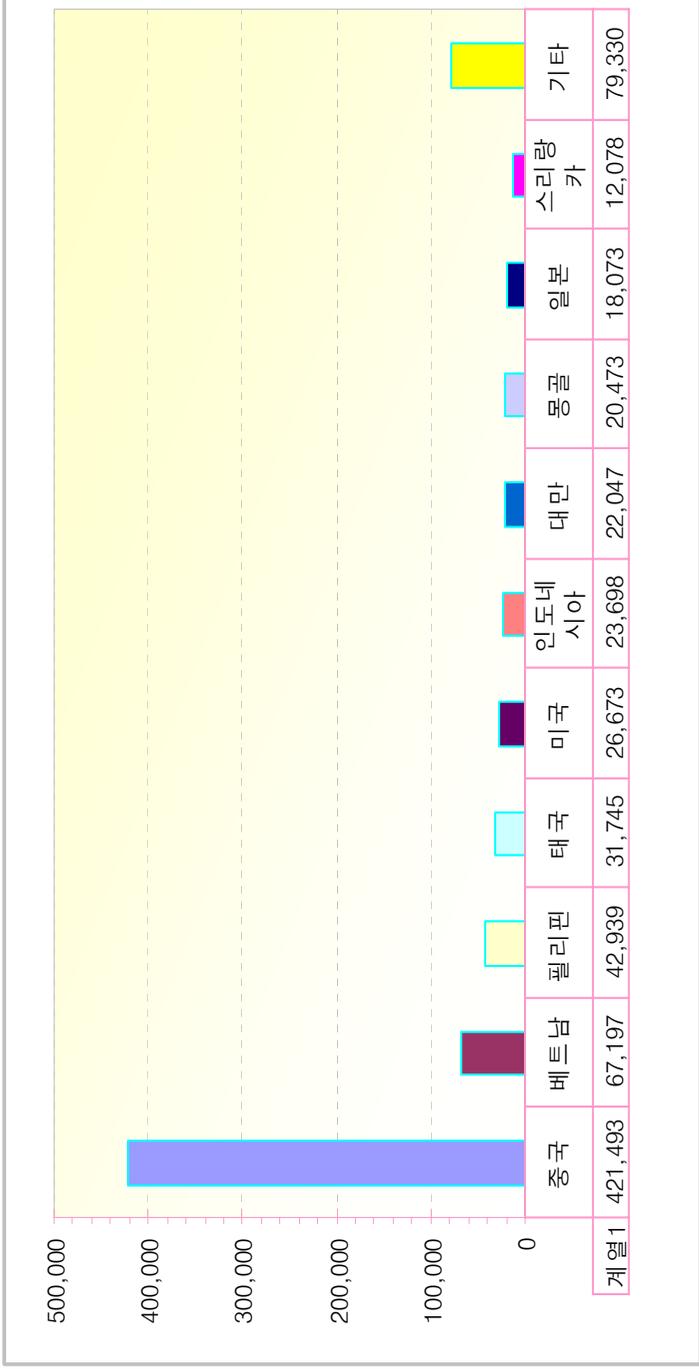
3. 국적별 현황

(법무부 2007년 말 현재)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16-60세	전체	
총	계	1,066,273	842,809	202,455	223,464	21.0%
중	국	503,427	401,001	88,656	102,426	20.3%
	한 국 계	328,621	294,173	26,910	34,448	10.5%
미	국	112,268	106,321	2,546	5,947	5.3%
베	트 남	71,074	56,082	14,921	14,992	21.1%
필	리	50,873	36,453	14,109	14,420	28.3%
태	국	47,813	32,926	14,713	14,887	31.1%
일	본	41,053	40,178	463	875	2.1%
몽	골	32,463	18,310	13,785	14,153	43.6%
타	이 완	27,040	25,958	764	1,082	4.0%
인	도 네 시 아	26,522	20,567	5,898	5,955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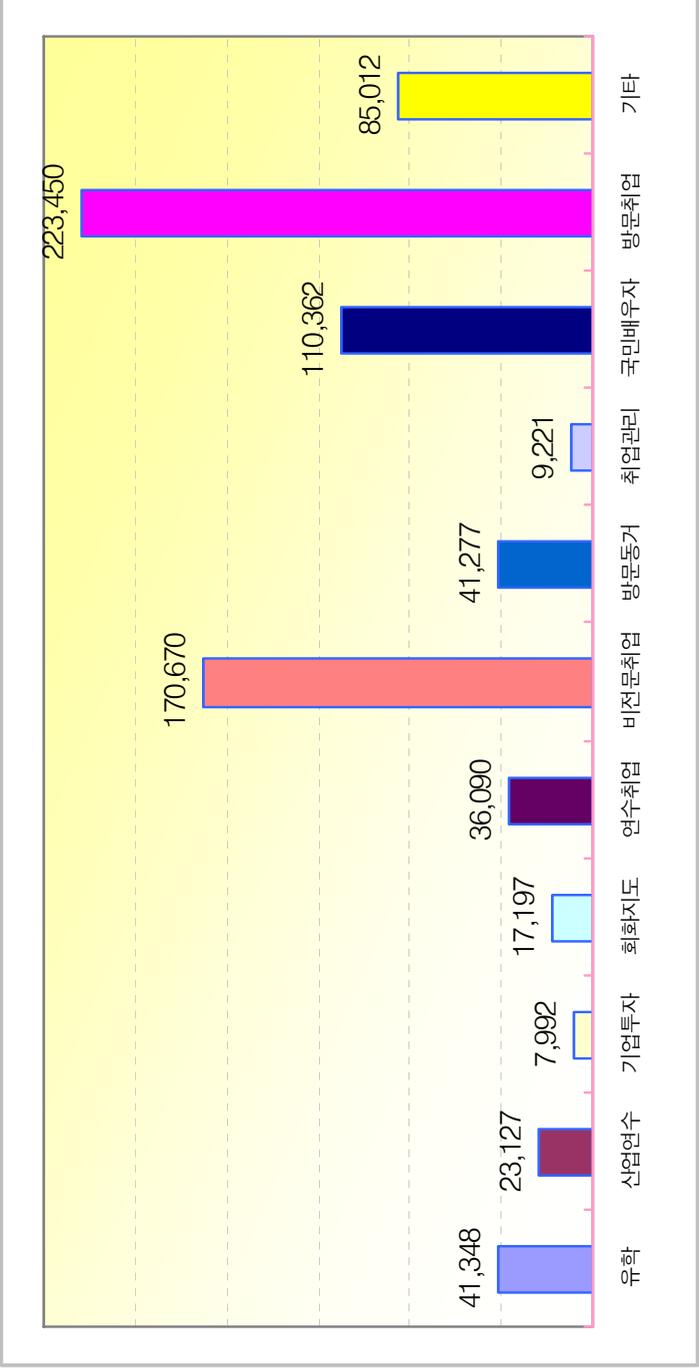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17,163	8,690	8,405	8,473	49.4%
캐나다	16,562	15,732	397	830	5.0%
스리랑카	13,498	10,326	3,155	3,172	23.5%
방글라데시	13,082	2,618	10,353	10,464	80.0%
파키스탄	10,239	5,689	4,452	4,550	44.4%
러시아	9,632	7,190	2,236	2,442	25.4%
인도	7,095	4,287	2,753	2,808	39.6%
호주	6,671	6,439	130	232	3.5%
네팔	5,357	2,401	2,952	2,956	55.2%
캄보디아	4,838	4,150	678	688	14.2%
영국	4,411	4,319	75	92	2.1%
미얀마	4,137	2,167	1,953	1,970	47.6%
홍콩	3,287	3,068	200	219	6.7%
기타	37,768	27,937	8,861	9,831	26.0%

10) 한국계 중국인 포함



3. 체류 자격별 현황

(법무부 2007년 말 현재)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
			16-60세	전체	
총 계	1,066,273	842,809	202,455	223,464	21.0%
사증면제(B-1)	30,615	13,500	16,465	17,115	55.9%
관광통과(B-2)	54,011	46,078	6,265	7,933	14.7%
단기상용(C-2)	43,741	12,125	31,328	31,616	72.3%
단기종합(C-3)	67,004	17,293	38,669	49,711	74.2%
유 학(D-2)	41,780	37,693	4,084	4,087	9.8%
일반연수(D-4)	19,986	16,916	3,068	3,070	15.4%
상사주제(D-7)	1,483	1,400	77	83	5.6%
기업투자(D-8)	8,109	7,328	765	781	9.6%
무역경영(D-9)	2,431	2,342	81	89	3.7%
교 수(E-1)	1,279	1,267	9	12	0.9%
회화지도(E-2)	17,721	17,408	304	313	1.8%
연 구(E-3)	2,318	2,272	41	46	2.0%
기술지도(E-4)	174	164	10	10	5.7%
전문직업(E-5)	414	397	13	17	4.1%

예술홍행(E-6)	4,421	3,001	1,418	1,420	32.1%
특정활동(E-7)	7,175	6,791	375	384	5.4%
연수취업(E-8)	36,090	14,684	21,406	21,406	59.3%
비전문취업(E-9)	175,001	134,012	39,632	40,989	23.4%
선원취업(E-10)	2,900	2,828	72	72	2.5%
방문동거(F-1)	45,572	36,570	5,183	9,002	19.8%
취업관리(F14)	9,221	6,522	2,267	2,699	29.3%
거 주(F-2)	9,071	8,271	513	800	8.8%
국민의배우자	110,362	102,217	8,074	8,145	7.4%
난 민(F22)	62	62	0	0	0.0%
동 반(F-3)	13,122	12,494	348	628	4.8%
재외동포(F-4)	34,695	32,794	1,285	1,901	5.5%
영 주(F-5)	16,460	16,460	0	0	0.0%
방문취업(H-2)	228,686	228,448	219	238	0.1%
기 타	82,369	61,472	20,484	20,897	25.4%

부록. 외국인복지센터 이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ON WELFARE FACILITY)

[1] 설문 조사 배경

여러분의 구체적인 시설 이용과 교육 경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앞으로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허락하여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드림

Siheung Migrant Community Service

응답 요령은 '□'에 ✓를, '()' 안에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6-6 시화공단 3나 804호
Tel : (031) 434-0411~3 E-mail : sh-mwc@hanmail.net

[2] 설문 내용

1. 개인 기본 사항

① 성별(Sex)	<input type="checkbox"/> 남(Male) <input type="checkbox"/> 여(Female)
② 나이(Age)	<input type="checkbox"/> 20~29 <input type="checkbox"/> 30~39 <input type="checkbox"/> 40~49 <input type="checkbox"/> 50~
③ 국적(Nationality)	<input type="checkbox"/>
④ 입국일(Entry Date)	YY.MM.DD :
⑤ 비자종류(Visa)	<input type="checkbox"/> Yes : _____ <input type="checkbox"/> No
⑥ 결혼유무(Marriag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Other: _____)
⑦ 종교(Religion)	<input type="checkbox"/> Yes : _____ <input type="checkbox"/> No

2.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물음입니다.

① 지역(City)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_____ 시 (예:시흥시, 안산시, 인천시 등) <input type="checkbox"/> 기 타: _____ 시/군/읍
②최근근무기간 (Working Period)	<input type="checkbox"/> 1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1년~3년 사이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③ 일의종류 (Type of Work)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_____ (예:CNC가공/용접/분쇄/금형) <input type="checkbox"/> 기 타: _____
④ 상시근로자수 (The number of Worker)	_____ 명 (한국인: _____ 명/외국인: _____ 명)
⑤ 근로시간 (Working Time)	평 일 : ~ (주간/야간/주야교대) 토요일 : ~ (특근횟수: _____ /월)

3. 교육 수강에 대한 사항입니다.

3-1. 수강하신 교육과목(Class Name)을 말씀해 주세요.

- 한국어 교육 - 초급 초급1 초급2 중급 특강 초급1(평일) 초급2(평일)
 컴퓨터 교육 - EXCEL POWER POINT WINDOWS_XP PHOTOSHOP
 귀환 교육 - 인식교육 카메라교육

3-2.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세요.

구분(Item)	매우만족 (Very Good)	만족 (Good)	보통 (Normality)	불만족 (Not Good)	매우불만족 (Bad)
교육내용 (Contents)					
강사 (Teacher)					
교재 (Teaching book)					
운영시간 (Teaching Time)					

※ 부족하거나 매우부족 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족한 점과 그 이유는

4. 교육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 친구/직장동료 외국인전용마트(월드마트 등)
 민간단체(Migrant Center) 기타

수고하셨습니다!(Thank You!)

<토론>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에 대한 질의

김 정 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현황이나 교육 자료 분석과 이들을 위한 교육 방안, 교재 발행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방치해 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전적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을 하는 인권 단체, 또는 시민 단체나 자원 봉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민간영역에서 주로 지원해 오던 한국어 교육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그 규모가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시흥시가 건립하여 민간 위탁 운영되는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제공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발표에 기초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원만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협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고용허가제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취업 전 교육과 취업 후 교육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2005년 8월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시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

두 번째, 언어 학습에서 진급과 유급의 기준은 중요하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어교실의 개략적 교육 개요의 학습자 현황에서 진급/유급시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가 마지막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한 한국어교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모형에 대한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나 교재 구성과는 달리- 앞으로 변화에 맞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미디어 문식성 교육을 위하여

이 미 숙*

<차례>

1. 들어가며
2. 멀티미디어 문식성과 다문화 언어 교육
3. 다문화 교육에서 미디어 문식성의 위상
 - 3.1. 언어 공동체 형성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문식성
 - 3.2. 다문화 공동체 유지 및 발전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문식성
4. 다문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매체 언어 교육 방향
 - 4.1. 다문화 정체성을 성찰하는 매체 언어 교육
 - 4.2. 다문화 소통 방식을 탐색하는 매체 언어 교육
5. 나오며—다문화 네트워크의 고속도로, 매체 언어

<요약>

본고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미디어 문식성이 갖는 의미와 그 문식성을 신장하기 위한 매체 언어 교육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논문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미디어와 관련된 언어 능력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미디어는 언어기능을 넘어서서 언어문화의 장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소통에서 ‘미디어’의 위상은 ‘미디어’가 새로운 문화를 중계하고, 창조하는 현상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특히 다문화 교육과 중요한 관계를 맺는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사용 능력에 ‘매체 언어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 미디어 문식성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보았다. 먼저 언어 공동체로 편입 혹

* 경기 육터초등학교 교사

은 새로운 언어 공동체의 주체가 되고자 할 때에 멀티미디어 문식성이 이 학습자의 전통적 문식성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점을 살폈다.

이어 다문화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매체 언어교육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다문화적 정체성을 성찰하는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해서 ‘일상생활 매체로부터 시작하기’,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 표현 기회를 제공하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문화적 소통방식을 탐색하는 매체 언어 교육으로는 ‘시각이미지의 적극적 수용’과 ‘인터넷과 휴대전화 매체의 영향력 고려하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언어문화 경험은 한 개인의 정체성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언어 기능만 가르치는 다문화 교육으로는 부족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매체 언어 교육을 통한 멀티미디어 문식성 신장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교육, 매체 언어, 미디어 문식성, 미디어 교육, 복합 문식성

1. 들어가며

다문화 사회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활성화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소통은 ‘미디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전자미디어와 시청각 미디어의 비중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평범한 학생의 하루 생활을 재구성해보자.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아침 식사를 하고 라디로나 MP3를 들으면서 등교한다.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수업이 이어진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모여 PMP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블로그나 카페 활동을 한다. 전자 미디어가 ‘Turn off’되는 순간 현대인의 하루도 ‘꺼진다.’

어떤 국면에서 소통은 곧 미디어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휴대전화의 기능을 보자. 휴대전화의 셀프 카메라 기능, 메시지 편집 기능, 심지어는 벨소리나 통화 연결음 등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소통’하는 현상이다. 셀프카메라 기능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 이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는 소통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통화 연결음’을 이라는 기계음은 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통화 연결음’을 고심해서 선택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 누군가를 향해서 이미 말을 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장르, 어떤 가사 혹은 어떤 분위기를 선곡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곧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를 선택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현대인의 이와 같은 소통의 양상은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 땅에 발을 내 딛는 순간, 자신의 한국어 실력과 무관하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언어 환경이 곧 ‘미디어와 관련한 언어 사용 환경’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 ‘미디어’와 ‘언어’는 한국 언어와 한국 사회를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 표지판’ 구실을 하며, ‘서바이벌 한국어’를 익히는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학습의 장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미디어와 관련한 언어 능력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미디어는 언어기능을 넘어서서 언어 문화의 장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소통에서 ‘미디어’의 위상은 ‘미디어’가 새로운 문화를 중계하고, 창조하는 현상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특히 다문화 교육과 중요한 관계를 맺는다. ‘미디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인터넷의 수많은 카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지수를 보여주는 쇼윈도वाद 같다.—물론 이 현상을 보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들 다문화 현상을 가로지르는 지배적인 편견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이들 현상은 또 다른 연구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멀티미디어 문식성과 다문화 언어 교육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언어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은 단지 문자를 해독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의사소통은 시각적 형식, 구술적 형식, 인쇄 언어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언어 교육이 탐구해야 할 문식성 개념도 전통적인 형식의 리터러시로부터 벗어나 다양해진 의사소통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multimedia literacy)’이다(Buckingham, 2004: 68-69).

최근 영국, 미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문법에 국한해 연구했던 언어학의 전통에서 과감히 벗어나, 다양한 의미화 양식들을 아우르는 소통의 원리를 수립하려는 연구가 ‘복합 문식성(Multiliteracies)’ 내지 ‘새로운 문식성(new literacies)’을 주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문자 언어·음성 언어·몸짓 언어·시각 언어 등과 같이 각각의 독자적인 의미화 체계를 갖춘 언어와 기호를 아울러, 이들의 의미 작용 방식을 연구한다.

또 Buckingham(2004: 73)은 리터러시를 하나가 아닌 복수 개념으로 강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나 매체가 여러 가지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멀티리터러시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그리고 점점 다문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에서 리터러시가 띠는 다양한 형식과 관련되어 있다. 문자 리터러시(print literacy)에 관련한 연구를 보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은 리터러시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고 습득하며 사용하고, 리터러시의 결과는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문자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리터러시 그 자체를 사용하기보다 리터러시 습득과 사용의 실제 혹은 리터러시 습득과 사용 상황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읽기와 쓰기를 현실과 동떨어진 일련의 인지적 기술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사회적 활동이라고 여긴다.

국어교육계에서는 멀티미디어 리터러시의 문제를 언어발달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2007년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언어’교과가 선택교과 중 하나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언어기능의 습득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현상 전반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지평 역시 보다 확장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사용 능력에 ‘매체 언어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다문화 교육의 주요 목적을 살피봄으로써 더욱 공고하게 지지 받을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목적(Banks, 2008: 2-7)은 ①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②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 ③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는 것, ④ 소수민족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 ⑤ 학생들이 전지구적(global)이고 평평한(flat)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인 능력을 습득하도록

록 돕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문화 교육과 매체 언어 교육은 연결되어야 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도 이러한 논의들과 그 맥락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은 단지 한글을 읽고 쓰거나, 교과서 지문을 이해하여 학교 수업을 무리 없이 이해하는 수준을 지향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언어 문화 전반을 이해하고 자신들만의 문화적 배경을 지키되 동시에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지향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들의 지향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매체 언어 교육은 단지 신문기사나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이해한다거나 카메라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능력과 같은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능력 이상을 지향한다. 곧 각종 매체가 생성하는 의미를 분석·평가·해석·비판하는 능력을 지향한다. 매체 언어 교육은 언어에 대한 문법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넘어선,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중요한 입각점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에서 매체 언어 문식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미디어 문식성이 갖는 의미와 그 문식성을 신장하기 위한 매체 언어 교육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다문화 교육에서 미디어 문식성의 위상

다문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지구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전자 미디어에 의해 동일한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른 미디어에 의해 서로 다른 장소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다. 다문화 사회로 이행할수록 인터넷이나 방송은 물론이고 서적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들은 복잡하게 분화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자

언어로서의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 그 이상의 리터러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매체를 통한 소통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도 있다. IT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중요한 매체인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매체 언어를 다루는 능력과 태도의 신장을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5년 프랑스에서 무슬림 청년들이 주도한 대규모 폭력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미셸 바비오르카(Michel Wieviorka) 고등사회과학원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최한 <2006년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에서 이 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청년들의 ‘디지털 폭동’이다. 종교 문제도 아니고, 시위를 이끈 조직도 없었고, 이슈를 내걸지도 않았다. 청년들은 휴대폰으로 어느 곳에 모일 것이지, 어느 곳으로 피할 것인지를 즉흥적으로 연락하면서 디지털 폭동을 이뤄냈다.”(조선일보, 2006. 12. 6.)

IT 기술과 접목한 언어 사용은 파급력이 큰 사회적 실천이라는 점은 한국어 교육 초기부터 언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체 언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의사소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이런 경험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민주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미디어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는 현상으로부터 다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 교육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까. 본고는 멀티미디어 문식성이 다문화 교육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그 물고를 터보기로 했다.

3.1. 언어 공동체 형성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문식성

다문화 교육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교실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전문 교사와

훌륭한 교재를 통해 한글을 완벽히 습득하여 읽고 쓰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자. 그런데 이 학생이 교실을 나선 후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맘 편하게 물어볼 그 누군가도 없다면, 또는 자신이 연관된 사회적 이슈나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에 참여할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모 혹은 가정의 갖는 사회·경제·문화 현실을 받아들이는 매체가 제한적이거나 불균형이라서 정체성과 관련하여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면, 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위의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꺼내 놓을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이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언어 학습자들은 비로소 온전한 언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학생이 진정한 한국어 사용자로서 자신의 몫을 온전히 해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어 언어 공동체일 수도 있고, 다문화 언어 공동체일 수도 있다.

본고가 주목하는 점은 어떠한 언어 공동체로 편입하거나, 혹은 새로운 언어 공동체의 주체가 되고자 할 때에 멀티미디어 문식성이 이 학습자의 전통적 문식성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수준의 한국어 사용자가 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으로서는 다문화 교육의 기초 자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뿐더러 다문화 언어 공동체를 관찰하는 일이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안내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인 교육정책과 전문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인식이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 교육으로써의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중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언급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수혜자로서의 다문화 교육 대상이 아니라 그들, 혹은 우리들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 장을 자신들의

힘과 에너지로 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국 동포 신문’, 카페 ‘안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오산 이주 노동자 라디오’처럼 정식 신문이나 방송은 아니지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체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한국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학습자라도 카메라를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만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번듯한 방송국이나 신문이 아니라 학급 단위 혹은 또래 몇 명의 모임만으로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 공동체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어 문법이나 기능에 대한 학습 경험과 서로 상생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총체적인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3.2. 다문화 공동체 유지 및 발전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문식성

매체 언어 교육은 다문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공헌할 수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와 같이 우리 사회보다 심화된 다문화 사회에서 매체 언어 교육은 다문화 가치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데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해 왔다. 이는 매체 언어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매체가 재현하는 현실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석하고 비판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배경을 갖는 학습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다. 부산일보와 가야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서 ‘부산·경남 지역 2세 중심 다문화 가정 생활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까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가 ‘피부색이 달라서’라고 답했다. 이는 ‘말이 어눌해서’라고 응답한 2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부산일보, 2008. 5. 15.)

이러한 어려움은 기능적이고 문법적인 차원에서 언어 습득을 이룬다고 해서 말끔히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

는 편견에 대한 이해와 해석, 더 나아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기존의 한국 사회에 조화롭게 안착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매체 언어 교육은 이러한 문제들까지 다룰 수 있는 언어 교육의 영역이다. 가령,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의 출신지가 특정 문화권에 치우치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갖는 편견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서구 문화권 출신의 외국인이 구사하는 한국어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동일한 느낌으로 전달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다루는 교양프로그램은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이런 재현 방식에 대해 불만은 없는가? 매체 언어 교육은 이런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 또 분명한 것은 이런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무엇보다 학습자들은 언어-문자언어, 시각언어, 구술언어 등—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분석과 이해를 통해 심도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 언어 교육은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소수자, 경우에 따라서는 약자에게만 다문화 교육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에서도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광고가 재현하는 문화권별 특징을 찾아보고 그 재현 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매체의 문화적 가치판단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을 비하하는 태도가 담겨있는 일상생활의 대화 장면을 찾아보고 이러한 언어 사용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성찰해 볼 수도 있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 자녀 혹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과 영상물을 제작해 보는 활동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공동체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혹자는 이러한 문제 인식이 한국어 교육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본고가 전제로 하는 언어관과 언어 교육관은 언어를 문화로 바라보는 것이며, 언어 교육은 사회·문화적 성찰행위까지 나아가는 데에서 완성된다고 믿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힘주어 말

하고자 한다. 다문화 교육 초기에는 한국어 기능과 문법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고자 그 지향점에 다문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언어 문화라는 아젠다(agenda)를 설정해야 한다.

MNTV(외국인근로자방송) 뉴스는 지난 5월 29일 열린 다문화포럼¹⁾에서 현행 한국어 교육의 모습을 진단하고자 마련한 토론회를 방영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기관은 늘어났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교육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다각화되고 한 차원 더 심화된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점에서 매체 언어 교육이라는 주제가 한국어 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 본다.

4. 다문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매체 언어 교육 방향

이 장에서는 다문화 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가치와 위상을 바탕으로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를 풀어보려고 한다.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범주는 다문화 사회에서 학습자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에 목표를 둔 학습활동의 예시들이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예시 활동이 다문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활동은 의사소통 ‘방법’ 또는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1) 2008년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국제평화전략연구원 주최, “다문화 정책 포럼-다문화 사회의 언어” 토론회.

4.1. 다문화 정체성을 성찰하는 매체 언어 교육

4.1.1. 일상생활 매체로부터 시작하기

학습자의 다양한 매체 경험을 언어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식의 이면에는 학습자의 실제 경험을 학습에 적극 끌어들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 다문화 정체성을 성찰하는 매체 언어 교육은 언어 학습의 재료들을 학습자의 실제 생활 주변에서 찾고자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 사용 설명서나 그림책, 학습만화나 텔레비전 시리즈물 등을 학교 수업에서 적극 다룬다.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등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놓칠 수 없는 매체들이다. 한국어 어문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언어 자료들일지라도 학습목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어 규범을 스스로 찾아가는 수업도 가능하다.

다문화 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가 읽어내야 하는 매체들로부터 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 (1) 학교 가정 통신문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2) 초등학교 생활에서 ‘알림장’ 양식의 소통방식 의미를 알고 알림장 바르게 쓰기
- (3) 알림장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알기
- (4)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친구들과 교류하며 학급 내 여론이나 이슈를 이해하고 참여하기

이러한 활동은 한국어 교육이면서 동시에 매체 언어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구안되는 언어 수업들이 여전히 해외 풍물 소개하기를 벗어나지 못함을 보곤 한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경험담으로 다문화 정체성을 찾아가는 매체 언어 교육에서 참고해야 할 힌트를 찾아보기로 하자.

‘해마다 유학생들이 각자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축제를 열었어요. 레퍼토리는 뻘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아이들은 대개 맨발 벗고 원색 의상을 입고 나왔어요. 일본아이들은 가부키 공연을 하고 중국은 경극이나 무술, 한국 아이들은 한복 입고 장구춤을 추거나, 남학생들은 태권도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서 흥행하던 영화 「접속」을 상영하기로 했어요. 친구와 함께 영어자막 만드느라 고생 좀 했지요.’

다문화 교육은 해외 풍물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 정보들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총천연색 이미지와 입체음향으로 감상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한복을 갖추어 입고 장구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또 한국인이라고 해서 경주의 문화재에 대해 수준 높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태국 어머니를 둔 아이가 태국의 송크란 축제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있다.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고 자신도 중국에서 8살까지 살았지만 만리장성에 가 봤거나 경극 공연에 관심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이들은 어머니의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나,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그들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꼭 챙겨보는 잡지나 소식지와 같이, 학습자 주변의 언어 자료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들이 직접 접촉하는 매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학습에 현실감을 부여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

4.1.2.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 표현의 기회 제공하기

다문화 가치를 지향하는 매체 언어 교육은 ‘교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보다는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하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소개하기보다는 ‘네가 느끼는 한국, 네가 느끼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머니?’라고 말 걸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특징에 대

해 말해보자.’는 수업을 가정해보았다.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시청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습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서로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수업 그 자체가 역동적인 의사표현의 장이 될 가능성도 내재하게 된다.

‘요즘 농촌 드라마에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우리 가족의 생활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성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와 비교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외국인들은 여자와 남자 중에 누구를 더 자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등장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나요?’ 이런 질문이나 주제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을 재현하는 다양한 언어 방식에 대해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접 연관된 이슈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동시에 한국 학생들에게는 다문화 주제를 다루는 언어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는 질문들이 될 수 있다.

매체 언어 교육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하는 영화, 드라마,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잡지나 신문 등에서 화제 거리를 찾아 내기 때문에 일단 학습자와 교사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 셈이다. 학습자는 내용을 생성해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동시에 교사는 내용을 공유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언어 기능이나 문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매체 언어 교육은 학습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동질감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학습자의 표현 의지를 북돋워줄 수 있다.

4.2. 다문화 소통 방식을 탐색하는 매체 언어 교육

4.2.1. 시각 이미지의 적극 수용

이미지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호이다. 사진 촬영 및 편집 기술은 고도로 진화하였다. 우리는 현실과 현실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한 사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게다가 그 기술은 대중화되어서 누구나 사진을 쉽게 찍고 편집하며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미지는 바야흐로 언어의 반열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다문화적 소통 방식을 탐색하는 매체 언어 교육에서도 이미지는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다문화 교육 관점에서의 언어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지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한국어를 보완할 또 다른 언어, 즉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자 혹은 음성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자 혹은 음성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을 촉진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시각 이미지로 의미를 생산하고, 그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는 수업에서 활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예시활동을 제안한다.

- (1) 사진을 찍어서 내가 사는 동네, 혹은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소개하기
- (2) 신문·잡지 등에서 사진을 오려 한국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캠페인 광고 만들기
- (3) 나와 가족이 한국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담은 사진을 넣어서, 한국이 좋은 이유가 드러나는 동영상 만들기

이 외에도 2008년 1월 대전 문화예술교육연구회가 진행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인 ‘새롭게 꿈꿔보는 우리 동네 카메라로 읽고 쓰기’, ‘카메라로 읽어보는 같은 동네 다른 시선’은 그 구체적인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²⁾

2)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발행 웹진 ‘아르떼’
<http://artezine.arte.or.kr> (검색일, 2008. 3. 10.)

4.2.2. 인터넷과 휴대전화 매체의 영향력 고려하기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라는 매체는 텔레비전만큼이나 필수적이고 대중적인 매체이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사회·문화·경제적 계층을 막론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은 넓고도 강하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에게도 이런 사항은 공통된 현상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언어 문화 학습의 생생한 현장이다. 이 두 매체는 모두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친교적·관계적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흔히 정보 검색용 매체로만 여기기 쉬우나 실제 개인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이다. 현대사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매우 사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그 사회의 언어 문화 관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두 매체를 다루는 수업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구안해 보았다.

- (1)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나의 하루 생활 중계하기
- (2) 나의 즐겨찾기 목록 소개하기, 휴대전화로 하는 일 목록 만들고 분류하기
- (3)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올리고 싶은 토론 주제 정하고 이유와 전망 밝히기
- (4) 인터넷에서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사이트 찾아 소개하기
- (5) 휴대전화 기능 중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으로서 필요한 기능과 필요 없는 기능 찾아보고 휴대전화 회사에 건의하기

5. 나오며—다문화 네트워크의 고속도로, 매체 언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일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어 습득’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을 충분히 확보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어를 몰라서 고용 관계나 법률·행정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면 매체 언어에 대한 문식성은 어쩌면 시급한 불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와 사회 변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멀티미디어 문식성 교육은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³⁾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는 약 2만 여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 중 약 1만 5000여명은 초등학교이다. 초등학교 학령기는 언어기능의 발달과 더불어 언어관 또는 언어 문화관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 한국 사회에 편입한 사람들과는 또 다른 언어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다. 오히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어 해득 문제를 넘어선 정체성 형성이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또 이들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찾고 2세대, 3세대로서 가정을 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은 보다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시기의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아이들의 정체성 발달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언어 문화 경험은 한 개인의 정체성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지만 반면에 언어를 통해 절망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언어 기능만 가르치는 다문화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매체 언어 교육을 통한 멀티미디어 문식성 신장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국, 미국, 호주 등 미디어 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은

3) 2008년 10월 9일자 보도 자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는 약 18,769명
www.mest.go.kr에서 ‘정보마당’ → ‘주요교육통계’ 메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다. 이들은 미디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평하는 능력을 ‘언어’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메시지가 곧 문화이고 사회이라는 점에서, 미디어의 언어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만 그 사회의 의사소통에서 제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쯤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들은 곧 한국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성원이 될 것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정착할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 개성 있는 구성원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매체 언어와 관련한 언어 능력이 필수적이다. 다문화 네트워크에서 매체 언어는 의사소통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논의 전개의 논리적 결함이나 내용상 부실함은 앞으로의 꾸준한 연구 실천을 통해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정현선(2006),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 낯설게 보기와 익숙하게 보기」, 『국어교과교육연구』 제12호, 국어교과교육학회.

Buckingham, D.(2003), 기선정 외 역(2004), 『미디어 교육』, 제이앤북.

Banks, James A.(2008), 모경환 외 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김기철(2005),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 참석 方韓한 佛 미셜 비비오르카」, 『조선일보』 12월 3일.

특별취재팀(2008), 「다문화 가정 2세에게 희망을!」, 『부산일보』 5월 15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http://artezine.arte.or.kr>

<Abstract>

For the Media Literacy Education of Multicultural Era

Lee Mi-sook

This paper is a thesis which is organized based on cases for the significance that media literacy has on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objective of media language education for raising such literacy and the specific methods.

The more important significance that language ability related to media has on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that the media is a place for language culture which goes beyond the function of language. The position of 'media' in the communication of modern society forms an important relationship especially with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he fact that 'media' relays a new culture and is at the center of creating status quo.

The 'media language ability' has to be considered in the ability to use Korean which is necessary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significance which media literacy has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considered as the following two things. First, it is the fact that multimedia literacy plays a key role in extending and deepening the traditional literacy of the learner while entering the language community or trying to become a

subject of new language community. Second, the fact that it becomes an ability to maintain and develop multicultural community has been examined.

Next, a media language education objective for raising multi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has been proposed. First, the cases of 'starting from the daily life media' and 'providing the student an opportunity to express self identity' have been examined for the media language education to self-examine the multicultural identity. And for the media language education to search for multicultural communication method, the details related to 'active accommodation of visual image'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internet and cellular phone media' have been dealt with.

The language culture experience is in charge of a key role in developing the identity of one individual. Starting from the awareness of reality tha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of teaching only the language in the traditional standpoint, the extension of multimedia literacy through media language education was attempted to be presented as a new goal.

Key words : Multicultural education, media language, media literacy, media education, combined literacy.

<토론>

‘다문화 가정 자녀의 멀티미디어 문식성 향상을 위한 매체 언어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문

이 영 희*

이 논문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멀티미디어 문식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매체 언어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백만 명을 넘어서고 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단일민족을 전제로 접근해온 우리 교육 체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생님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는 이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선생님의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할 때는 농촌 가정에서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이미혜 2007, 이지혜 외 2007). 그런데 선생님께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환경을 “한국 땅에 발을 내 딛는 순간, 자신의 한국어 실력과 무관하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언어 환경이 곧 ‘미디어와 관련된 언어 사용 환경’이라고 지적하거나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언어문화 전반을 이해하고 자신들만의 문화적 배경을 지키되, 동시에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지향할 것이다”라고 한 점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마치 외국에서 살다온 가정의 외국인 신분을 가진 자녀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2 언어로서

*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어 연수원 (FSI/Seoul)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이들의 문제는 주로 한국말과 한국의 생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어머니로 인하여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점, 문화적 이질감이나 차별에서 오는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정체성의 혼란 등입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교육 대상으로 삼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가족구성원, 연령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출신지역(농촌/도시) 등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¹⁾

두 번째, 멀티미디어 문식성(리터러시)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체 언어 교육의 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문자 중심의 문식성(리터러시)의 개념은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문식성은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매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문화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매체 언어교육에서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초등학교 생활에서 ‘알림장’이라는 양식의 소통방식의 의미를 알고 알림장 바르게 쓰기’나 ‘사진을 찍어서 내가 사는 동네 혹은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소개하기’, ‘신문잡지 등에서 사진을 오려 한국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캠페인 광고 만들기’ 등은 멀티미디어 문식성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문식성 향상을 위한 매체 언어교육의 자료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제한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공중과 방송을 통한 다문화 교육이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

1) 이미혜(2007)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50년대-70년대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형성된 경우, 둘째, 1980년대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을 통해 형성된 경우, 셋째,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실시한 1990년대부터 외국인 여성과 농촌 총각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급증한 유형으로, 주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그리고 넷째, 1990년 이후 급증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 2004년부터 실시되는 고용허가제의 영향으로 유입된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과의 결혼 유형이다. 이 네 유형 중 최근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셋째, 넷째 경우인데, 수적으로 볼 때 세 번째 유형으로 형성된 가정이 절대적으로 수세를 보이고 있다.

각됩니다.

세 번째, 다문화 교육을 위한 매체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소속된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이를 위한 교사 및 교재, 컴퓨터 등의 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멀티미디어 문식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한 가정에 속한 경우가 많으므로 멀티미디어 문식성 제고와 관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멀티미디어 문식성 향상을 위한 매체 언어 교육의 대상 확대입니다. 교육 대상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낮은 한국어 이해력은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 저하와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의 낮은 멀티미디어 문식성은 자녀들의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보화 교육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이미혜(2007),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실시 방법론 및 전반적인 체계의 개발」,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회집.
- 이지혜·채재은(2007), 「다문화 가정 시대 문해 교육의 대안적 접근」, 『비교교육연구』 17-1, 비교교육학회.

| 일반 논문

오감

우리말교육현장학인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김 영 만*

<차례>

1. 머리말
2. 한국어 교육에서 시 활용의 효용성
3. 기존 한국어 교재의 시 교육 방법 검토 및 제언
4. 시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구성의 실제
5. 맺음말

<요약>

시대 변화에 따라 한국어 수요자 층이 확대되면서 이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방법과 내용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학 교육은 한국어의 이해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시 고유의 함축성과 간결성으로 인해 누구나 접하기 쉬우며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도 적합하므로, 한국어 수업에 활용한다면 큰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시를 활용할 경우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시 교육 내용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 교육 방안의 초석으로 삼았다. 기존 교재에서 시 교육 방안 검토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교재에서 제시된 시 교육 방안이 주로 시를 읽고 이해하는 활동 중심인 경우가 많아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력을 살린 교육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시 교육에서는 자아성찰적 사고, 협동학습, 실제적 과제(real-world task) 등을 중심으로 한 구성주의적 교육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인터넷과 구성주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교수

의적 교육 방법론을 도입한 한국시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제어 : 시 교육, 자아성찰적 사고, 협동 학습, 실제적 과제, 구성주의,
인터넷

1. 머리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해 그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는 대학 부속기관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현실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여성이라는 새로운 한국어 수요 계층의 등장과 함께 보다 다양한 한국어 교육 방법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분야도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학습자 층이 다양화되면서 한국어 학습은 다양한 상황과 자료를 활용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도외시킬 수 없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문학 교육도 한국어의 이해와 문화 이해라는 두 가지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별히 시는 접하기 용이하고 다른 자료에 비해 비교적 짧으면서도 예술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만이 지니는 독특한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업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 교육은 그저 시를 읽고 이해하는 정도의 단순한 교수·학습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다 학습자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익히며, 시와 관련된 정보를 학습자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이 알게 된 정보와 느낌 등을 서로 공유하는 보다 입체적인 수업 구성에 대해 고찰한다.

2. 한국어 교육에서 시 활용의 효용성

주지하다시피 시란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¹⁾을 말한다. 따라서 그 소

재와 표현에 있어 다양성을 지니며 누구든지 마음에 와 닿는 시 한 편 정도를 외우거나 시를 대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모두 다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는 그만큼 인간의 정서와 생각을 드러내는 데에 큰 창구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친숙한 문학 장르이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친근한 문학 장르인 시를 한국어 수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도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며, 시의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 학습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시를 한국어 수업에 활용²⁾하는 것의 효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첫째, 시는 일반 산문과는 다른 구성과 형식을 가지므로 다른 글에 비해 길이가 짧고 함축적이다. 따라서 긴 산문을 대하는 경우보다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하기에 용이하며,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시의 함축성은 학습자가 단지 하나의 해석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력과 창의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연한 사고력을 증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글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시인의 감성과 생각을 여러 각도로 접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를 대할 때에는 시인의 마음과 시 저작 배경 등을 상상함과 동시에 학습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감정을 넣어서 흥미하게 되므로,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을 복돋아주는 유익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요즘 외국어 교육이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의 지적, 정리적,

1) http://korean.go.kr/06_new/dic/search_input.jsp에서 인용(검색일: 2008. 1. 7.)

2) 시와 관련된 한국어 교수·학습에 대해서는 문학 교육이나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시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와 시 자체를 수업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교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신주철(2003: 109-129)은 ‘진달래꽃’, ‘서시’ 등을 이용한 수업 구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오세인(2004: 111-135)은 시를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윤여탁(2003)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3) 한국어 교육에서 시 활용의 효용성에 대한 주장은 신주철(2003: 112-113), 윤여탁(2003: 8-11, 2007: 76-79), 조원길(2005: 22-30)을 참조하였다.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교육 방법과 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국어 교육에서 시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셋째, 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다. 한 편의 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의 마음, 집필 배경, 의도 등을 알아야 한다. 즉 단순히 시를 읽고 그 문장이나 어구를 이해하는 단편적 지식의 이해와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 시인의 마음과 한국인의 정서, 사회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알게 됨으로써 한국 문화와 사상, 감정 등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는 결국 한국어와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관련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를 이해하고 음미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폭넓은 안목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시는 시인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표현에 사용된 언어나 사회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같은 주제를 다룬 시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표현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은연중에 자국의 시인이나 시와 한국시의 차이점, 표현의 특색 등을 알게 되고 같은 주제나 소재에 대한 다른 접근과 표현법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넓은 세계와 자아 인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일반적인 교과서의 정형화된 글이나 자료가 보여주지 못하는 특색 있는 한국어 자료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는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시만이 지니는 독특한 맛과 멋을 지닌다. 시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어법, 생략, 축약 등이 가능하고 때로 어법에서 벗어난 표현이 오히려 더 호소력 있고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만이 지니는 표현적 특성을 접하면서 한국어의 깊은 맛을 체험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수업을 진행할 때에 많은 요소들이 수업의 효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교사가 제시하는 자료는 수업의 기초가 되어주고, 학습

자의 생각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시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차원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사는 시가 하나의 인격체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감흥이나 생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넓은 안목으로 시를 대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이미 출간된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시 교육 방법에 대해 살피고, 보다 효과적이고 학습자 참여를 높이는 수업 방향을 모색해 본다.

3. 기존 한국어 교재의 시 교육 방법 검토 및 제언

앞에서는 시에 대한 개념과 시를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기존 교재에서 시를 활용한 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미 출간된 한국어 교재에서도 한국시를 수업 자료로 다루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기존 교재에서 제시된 시 교육 방법은 주로 고급 수준의 교재에 시를 몇 편 소개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시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단순한 시각으로 시를 바라보고 학습자들에게 시 본문을 제시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출간된 몇 가지 교재를 검토한다.⁴⁾

먼저 교재 A의 경우에서는 가장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교재에서 시를 다루고 있다. 고급 수준 학습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텍스트를 제공하고, 한국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단순히 시 두 편의 본문만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설명이나 시와 관련된 보조 자료 등을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시인이

4) 본 연구에서는 교재 단원에서 제시한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보조 자료나 수업 방식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나 시의 저작 배경 등에 대한 정보도 없고, 시를 읽고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질문이나 시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교재 B의 경우는 노래와 시를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와 관련된 부분만을 살펴보면, 시 본문을 수록하고 해당 본문 하단에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 역시 시를 읽은 후의 감상이나 이해와 관련된 활동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재 C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두 교재보다는 비교적 많은 양의 정보와 활동을 싣고 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시를 통한 한국어 학습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시 본문을 제시하고 이를 읽고 이해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몇 개의 질문이 이어진다. 그 다음으로는 시와 관련된 단어의 뜻풀이, 시인 소개, 시 해설 등을 수록하고 있어, 앞의 교재에 비해 많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 학습 단위 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현대시의 흐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한국시에 대해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즉 다른 교재에 비해 시 교육 방법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자들의 시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배려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도 학습자가 시를 학습한 후에 이를 실생활과 연계해서 학습 내용을 활용하는 부분은 그리 강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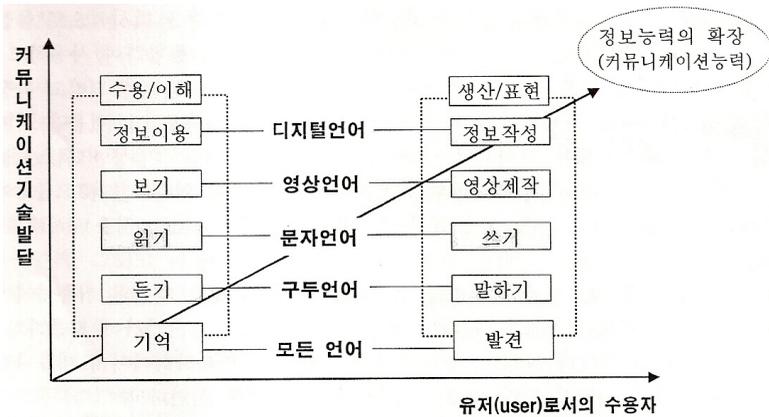
외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시 한 편의 교육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앞의 교재들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활동이나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가 제시된 시를 이해하는 단순하고 비교적 수동적인 학습 방법으로만 국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학습자가 시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의견이나

소감을 피력하거나 시 작품 창작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이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 교재에서는 교사나 학습자가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서 공부할 만한 좋은 작품들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 정서 함양, 체험 학습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최근에 시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시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시를 활용한 보다 진보된 교육 방법론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다른 부교재나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실제로 접하는 교재 내용이나 구성 자체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도 높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의사소통 자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은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요즘은 편지지에 글을 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음악이나 영화 감상도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만 큼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라는 새로운 매체와 경로를 사용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김양은(2003: 9)은 이른바 “의사소통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1> 새로운 언어의 등장과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용자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다. 이제 수용자는 user이며, 비판적 시각과 안목으로 정보를 대하고 이를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재생산, 융합, 창조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수용자는 여러 활동을 통해 이루어낸 산출물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 공유하는 발전적·창조적 지식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시 한 편의 이해와 감상도 단순히 교사의 지시와 설명을 수용하는 이전 세대의 교수·학습 방법을 지양하고 학습자 스스로 탐색, 참여, 재구성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체험학습, 자아성찰적 사고, 협동학습, 실제적 성격의 과제 중심의 학습”(강인애, 2003: 103-106)이라는 구성주의 학습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⁵⁾

5) <표 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교수·학습 원칙의 비교(강인애 외, 2003: 102)

객관주의	구성주의
· 추상적인 지식과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	· 항상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식을 제공
· 가능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시	· 현실의 복잡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제시하여 인지적 도전을 유도
· 모든 지식은 수업 이전에 미리 세밀한 계획에 따라 구조화, 순서화, 체계화하여 제시	· 모든 지식과 과제는 항상 실제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다루는 과제도 실제로 사회에서 대면하게 될 성격과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제시
· 교사와 학생의 역할 : 지식의 전달자와 지식의 습득자로서의 관계	· 교사와 학생의 역할 :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조연자, 촉매자로서의 교사와 자율적이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 주체로서의 학생의 관계
· 개별적 학습 환경 : 개인과제, 개인활동, 개인 성취의 중요성 강조	· 협동학습환경 : 다양한 견해에 대한 인식과 토론 기술의 습득
· 지식의 암기와 축적	· 문제해결력, 사고력 인지적 전략 (how to learn)의 습득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구성주의 교수·학습에서는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과 맥락을 근간으로, 학습자 개인이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자이며 책임과 자율, 참여가 중시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시를 활용한 수업 구성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교육을 이루어나감으로써, 학습자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수용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산자요 참여자로서 기능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목표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상황에 학습자를 노출시킴으로써 학습자가 대면하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복돋아 줌과 동시에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의 참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교재에 반영한다면, 교재의 구성 자체가 보다 많은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방법과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 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업 구성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시를 보다 다양한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한다. 시 교육이라고 하면, 학습자들에게 시를 소개하고 시를 이해시키는 내용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이러한 교육 방법은 시 교육에서 가장 빈번하고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시를 활용해서 듣기, 쓰기, 말하기(토론) 등을 교육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 낭독을 듣고 빈칸을 채우게 하는 방법은 초·중급에서 어휘력을 향상시키거나 듣기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를 읽고 학습자 자신의 시를 창작하게 하는 등의 쓰기 교육은 고급에서 활용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과 시각을 동원한다면 한 편의 시를 수업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둘째, 학습자 스스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⁷⁾을 통해 검색

6) 시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은 이춘형(2002)과 조원길(2005)의 주장을 참조하였다.

7) 인터넷을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백영균·설양환, 1997: 205; 정승은, 2007: 14에서 재인용)

-인성발달을 위한 토론 학습의 장(場)을 마련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최신을[sic] 정보를 즉시 습득할 수 있다.

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업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며,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수업 자세를 지니도록 유도한다.

셋째, 시 내용 이해와 점점 수준을 넘어서 학습자가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시를 학습자 개인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학습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정서적, 심미적 안목을 길러나갈 수 있다.

넷째, 시를 이해하고 감상한 것을 여러 학습자나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새로운 학습 경험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지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시 감상과 이해가 실제 세상과 접하는 새로운 경험의 장이 되도록 지도한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면, 시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탐구, 협상, 해결 등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참여하는 시 교육 방안의 강구는 결국 학습자 스스로가 한국어 학습의 주인이자 책임자⁸⁾로서 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
- 개인 능력과 흥미에 적합한 보충 혹은 심화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 지식의 습득과 분석, 종합과 적용 등 정보 능력을 배양시킨다.
 - 외국어와 외국 문화의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 8) 이근철(1996; 정승은, 2007: 29 재인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첫째,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 동기와 목적의식이 분명하며, 학습 내용을 더 오래 파지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둘째,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 셋째, 학습 활동 및 현대 사회의 교육 풍토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탐구 능력을 익히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학습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4. 시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구성의 실제

앞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시를 활용할 경우에 얻게 되는 효과와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교재에서의 시 교육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으로 삼았다. 이번에는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참여적인 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시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구성과 연관된 수업 목표와 수업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 수업 목표

- ① 한국시와 관련된 자료(예 : 시인, 시 저작 배경 등)들을 읽거나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
- ② 한국시를 읽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 ③ 한국시를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할 수 있다.
- ④ 웹 사이트에 시 감상문을 올리고 이를 네티즌과 공유할 수 있다.

(2) 주제: 한국시

(3) 기능: 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시를 읽고 이해하기, 시 감상 후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하고 나누기

(4)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 : 고급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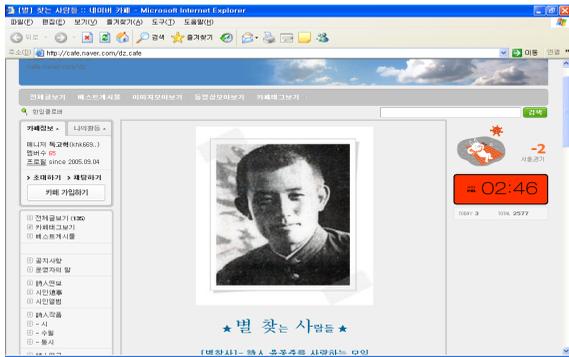
이러한 학습 단위 목표와 기능 등을 고려한 수업 지도안 및 수업 구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말하는 고급 수준이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넘어 서서 가정, 설득, 추측, 반박 등 보다 고도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또한 문장 수준보다 더 발달된 담화(discourse) 수준의 한국어 구성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ACTFL, 1989).

도입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시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질문하고,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전개
a. 활동 1
시와 관련된 자료—시인의 연보, 사진, 시 저작 배경 등—를 보여주어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학습자들은 이를 참고로 하여 웹 사이트를 방문해서 시와 관련된 정보나 사진 등을 탐색하고 이해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의 정보 탐색을 도와주고 필요시 웹 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거나 다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b. 활동 2
교사는 시를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시에 대한 접근과 해석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며, 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모색하는 활동을 한다.
c. 활동 3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소감을 발표한다.
d. 활동 4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시 감상문을 웹 사이트에 올린다.
마무리
교사는 수업 내용을 정리해 주고 다음 수업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위의 수업 지도안에서 제시한 내용은 기존 교재에서의 시 교육 방법의 장점과 내용을 살리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와 관련된 정보와 사진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도 단순히 교사가 제시하는 방법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찾고 탐색하고 이해하면서 터득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보다 학습자의 참여와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교실 밖의 세계와 연결함으로써 교실이라는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넘어선 활동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한 수업 내용과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1. 여러분은 한국시를 즐겨 읽습니까? 여러분이 읽어본 한국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시를 읽고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2.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웹 사이트¹⁰⁾를 방문해서 시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시다. 그리고 시인이 서시를 썼을 당시의 한국 사회 배경과 문화 혹은 특징들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3. 앞에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읽어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서시>¹¹⁾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있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4. 이 시를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소감을 말해 봅시다.

5.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웹 사이트에 올리고 여러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 봅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수업 구성을 하면, 시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시를 통해 학습자가 느끼고 배운 것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되고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한다. 또한 가상공간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소감을 나누는 동안에 수업 내용을 교실 밖의 세계와 자연스럽게 연계하게 되기 때문에, 수업의 실제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글이 다른 네티즌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고, 네티즌의 소감을 직접 읽어가면서 실제적인 자료(authentic material)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시 내용 이해 위주의 수업에 비해 학습자 중심적이며, 실제적이고, 창의적이며, 참여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므로 기존 수업과는 사뭇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어 교육에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보다 다양한 상황과 텍스트를 접하게 해 준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시는 시 교유의 함축성과 표현성으로 말미암아 시를 읽는 사람에게 큰 감동과 심미적 눈을 열어 준다. 또한 시를 통한 새로운 표현의 경험과 이해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교재에 제시된 시 교육 방안은 시의 내용 이해와 관련된 단순한 방안을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보다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시 활용은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학습자 주도적인 방향으로 나아

10)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여러 웹 사이트를 활용하면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웹 사이트 자료는 <http://cafe.naver.com/dz.cafe>에서 인용하였다.(검색일자: 2008. 1. 1.)

11)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 본문은 <http://blog.naver.com/kaokun?Redirect=Log&logNo=44191280>에서 인용하였다.(검색일자: 2008. 1. 1.)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시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시를 이해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시 감상과 느낌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나누고 동참하는 수업 구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참고문헌>

- 강미희(2005), 「영시텍스트를 활용한 영어교육: 실제 수업모형 개발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윤희(2006),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교육」,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인애 외(2003),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문음사.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97), 『한국어』 6,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 김성범(1999), 「영어교육을 위한 인터넷 활용 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희(2006), 「인터넷을 활용한 영미문화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1998), 『한국어』 4, 문진미디어.
- 김양은(2003),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교육」, 매비우스 포럼 발제문.
- 김영만(2006),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 _____ (2007ㄱ), 「영화 및 관련 웹 사이트를 이용한 한국어 고급반 수업 구성연구」,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53-70쪽.
- _____ (2007ㄴ), 『인터넷 시대의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사.
- 신주철(2003), 「한국 시 교육의 실제」, 『한국어교육』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129쪽
-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학당(1999), 『한국어 읽기』 5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 오세인(2004), 「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1-135쪽
- 유영만(2001), 「eLearning과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학습능력」, 『산업교육연구』8, 한국산업교육학회, 83-107쪽.
- 윤미리(2006),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읽기 지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1-25쪽.

_____(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이춘형(2002), 「영시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개발 및 활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승은(2007),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읽기학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원길(2005), 「영어교육을 위한 영문학텍스트의 효용론: 영시교육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석훈(2001), 「고등학교 영어 수업에서의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 교육 지도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CTFL(1989), *Oral Proficiency Interview*, ACTFL.

Brown, D(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 Hall.

Hinkel, E(1999),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ran, P(2001), *Teaching Culture*, Newbury House.

Valdes, J(1986), *Culture Bou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poem education using the Internet

Kim Young-man

As Korean language users grow due to globaliz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s being required to develop teaching methods and teaching contents to satisfy the learners' needs and their learning purposes. Also speci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Korean literature education because it can help learners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as well as its culture. In particular, since poems are easy to find because of their own connotation and succinctness, and are suitable for arousing learners' interests, we can expect desired effects when we use poems in KFL classroom.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efficiency of using poem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e believe that the examination of the existing Korean textbooks regarding Korean poems can be a stepping-stone to a new plan for teaching Korean poems. As a result, we can understand the present textbooks are not appropriate enough to motivate the learner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initiative because they just focus on reading and understanding Korean poems. Therefore, we suggested that in a new Korean poem lesson, constructive educational plans centering on self-reflection-oriented thoughts, cooperative learning, and real-world task should be required. On the basis of this point, we also examined Korean poem lessons adopting the Internet and constructive educational methods.

Key words : poem education, self-reflection-oriented thoughts, cooperative learning, real-world task, constructivism, Internet

부모 참여 국어 교육

권순희*

<차례>

1. 서론
2. 본론
 - 2.1. 긍정적 말하기·듣기 교육을 한다.
 - 2.2. 말하기·듣기 교육이 쓰기 교육으로 전이되도록 지도한다.
 - 2.3. 공부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 2.4. 부모와 함께 읽는다.
 - 2.5. 읽기를 통해 창의적 글쓰기 작품 산출을 지도한다.
 - 2.6. 일상생활 속에서 탐구 학습이 가능하다.
4. 결론

<요약>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국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국어 교육을 가정에서 지도한다는 것은 학습 지도에 ‘부모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지도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 없으니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국어 교육 전문가이면서 학부모인 입장에서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국어 교육의 방법을 논의하고자 주변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였다. 긍정적 말하기 듣기 교육에 대한 방법,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전이하는 지도를 통해 쓰기 교육의 긍정적 태도를 키워주는 방법, 부모와 함께 하는 읽기 교육을 통해 매체 교육의 자연스러운 교육 방법, 읽기를 통해 창의적 글쓰기를 지도하는 방법, 일상생활 속에서 탐구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공부에 대한 메타인지를 하도록 돕는 방법을 논의하였

*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다. 학원으로만 내몰리면서 인지적인 영역만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의적 영역의 교육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 참여 국어 교육을 논하였다.

주제어 : 부모 참여, 국어 교육, 정의적 영역, 교육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

1. 서론

자본과 정보가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학벌 취득이나 출세의 도구가 되어 버리고 있는 교육에서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은 과거에 대한 치료, 현재에 대한 반응, 미래에 대한 개척, 대비, 축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논한 바 있다(권순희, 2007: 128). 일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교육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부모¹⁾가 국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국어 교육을 가정에서 지도한다는 것은 학습 지도에 ‘부모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는 가정과 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모 참여라는 용어는 ‘parent education’, ‘parent participation’, ‘parent involvement’ 등과 혼용하고 있으며, 부모 교사 의사소통(parent-teacher communication), 부모 파트너십(parent partnership), 부모 임파워먼트(parent empowerment) 등 다양한 개념과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Epstein(1990)은 부모 참여 방식을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가정에서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인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 둘째, 학교로부터 가정으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 셋째, 학교 수업 상황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 넷째, 가정에서 아동의 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것, 다섯째, 학교 위원회의 의사

1) 부모는 자녀의 일평생에 걸쳐 영향을 준다. 다음 글을 참고해 보자.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세 때-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때-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25세 때-아버지는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갔습니다. 30세 때-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언제가 일간지에 실렸던 글의 일부이다(김정용(2006), 『아버지』, 『헬몬의 이슬』 5호, 4월호).

결정에 참여하는 것, 여섯째, 가정과 학교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과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김미란, 2008: 25 재인용). 본고에서는 가정에서 아동의 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부모 참여를 논하고자 한다. 부모의 참여로 아동의 국어 사용 능력은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국어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지도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알려주는 책²⁾이 없으니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국어 교육 전문가이면서 학부모인 입장에서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국어 교육의 방법을 논의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주변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였다.

2. 본론

2.1. 긍정적 말하기·듣기 교육을 한다.

아이가 화합을 잘 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취학하기 전에, 아니 태교 때부터 부모가 말하기·듣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부모의 말하기 방식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 되고, 가정의 분위기는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나 소극적인 아이들의 대화를 분석해 본 적이 있다.³⁾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한 연구였는데, 적극적인 아이들은 발화시간이나 발화횟수가 많은 반면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성격이 말하기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말하기의 양상이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전문적인 연구여서

2) 필자는 지식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전문가가 제시하는 일상적이면서도 비전문적인 글쓰기 기술 방식에 대한 필요를 역설하는 바이다. 특정 전문가 계층의 논문도 중요하지만 전문 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권순희(2007), 「초등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말하기·듣기 교육 방안 -적극적 초등학생과 소극적 초등학생의 토론 대화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4집, 한국초등국어 교육학회.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겠다. 이 연구를 통해서 말하기·듣기 교육이 아이들의 성격과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 성격과 소극적 성격이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렸을 때의 경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른이 되어서 말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

K의 엄마로부터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다. K의 엄마는 아이를 키울 때, 거절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K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때 보통의 엄마들은 “안 돼”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K의 엄마는 “안 돼”라는 말 대신에 “K야, 엄마가 생각해 볼 게”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몇 개월이 지나 그 아이가 엄마의 화법을 알고 말의 속뜻을 알게 되자 비슷한 상황에서 “엄마, 장난감 갖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엄마가 말해야 할 ‘생각해 보라’는 표현을 아이가 미리 사용한 것이다. 이번에는 엄마가 K에게 집에 있는 장난감을 떠올리게 하고 그 장난감이 꼭 필요한지 되묻기를 하여 생각해 보게 한 후 장난감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했다. 부모의 말투와 함께 신뢰성 있는 행동도 중요하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말하였고, 아이에게 진실한 행동을 보여준 K엄마의 양육법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쉽게 거절당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커서 말을 할 때 그 양상이 다르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거절의 경험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고집이 셀 가능성이 있다. 거절의 경험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 받지 못하고 거절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을 말하기로 표출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관계 지향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과업 지향적인 말을 하는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할 수 있다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이다.

또한 부정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표현이 다르며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다. 필자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했을 때의 일이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는 표현과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는 표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면담하는 학생에게 자신은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지 말해보라고 했다. 40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이었는데, 40명 전원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 그 중 30명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답하였다.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긍정적 표현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인 10인에 뽑힌 빌 게이츠는 아침마다 ‘오늘 일어날 행복한 일’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일어난다고 한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활을 이끌어가게 했다고 한다. 반면에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니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한 교수의 일화도 귀담을 필요가 있다.

부모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꾸짖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긍정적인 표현을 쓸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칭찬은 곧 미래를 내다보는 긍정적인 표현이다. 과거를 바라보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말을 할 수 있는 안목이란 대단한 것이다.

2.2. 말하기·듣기 교육이 쓰기 교육으로 전이되도록 지도한다.

가정에서의 쓰기 교육은 말하기·듣기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이하는 것이 좋다. 말하기·듣기는 음성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쓰기는 문자로 기록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러 번 고쳐 씌우므로 가장 맘에 드는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음성 언어와 비교하여 문자 언어의 장점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글은 말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 장래의 꿈을 말로만 표현한 사람과 글로 표현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예일대 졸업생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였더니 졸업

생 중 3%는 글로 꿈을 표현한 사람이었고 미국 사회의 상류층, 지도층을 이루면서 살고 있더라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말하는 기쁨을 느끼면서 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쓰기 능력은 계발된다.

아이에게 언어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국어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논술 교육을 시킨다고 심각한 문제부터 끄집어내어 생각해보고 써보자는 식으로 국어 교육을 한다면 논술 교육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언어에 대한 즐거움만 있다면 더디게 언어적 감각이 키워진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성하게 된다. 하루는 필자가 renoma(르노마)라는 상표가 써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를 본 5학년 아이가 “이눔이라고 써 있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상표 이름이 르노마인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유머 감각을 발휘하여 “이눔아”라고 말한 것이다. 한참을 웃고 자연스럽게 상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상표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외국 상표와 로얄티 지급의 문제, 유명 상표가 서양 역사 속에서 발생하게 된 배경,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등의 논의를 하였다. 말하기를 통해 논술 교육을 한 것이다. 국어 표현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표현 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국어 교육이다. 논술의 목적이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원에서 빠른 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아이가 논술을 잘 하게 하고 싶다면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관찰하고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생활화가 될 때, 논술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아이와 산보를 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자연스럽게 아빠의 회사 이야기, 엄마의 친구 이야기, 아이의 학급 이야기 등을 통해 생활을 얘기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나눠보는 것이 좋다. ‘왜’보다는 ‘어떻게’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를 할 때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다. ‘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이라면, ‘어떻게’는 해결책을 찾는 질

문이다.

초등학생이 일기를 쓰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쓰기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평범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일기를 쓰려면 엄마에게 “오늘 무엇을 써야 할까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책상에서 무엇을 만지고 노는지 이것저것을 뒤적이기도 하고, 한참동안 딴 짓을 해야 일기가 나온다. 쓸 것이 없는데 써야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이 아니다.

W가 저학년일 때에 엄마는 일기를 쓸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한밤중에 아이에게 밀가루로 장난을 쳐보게 한다든지, 빨래를 해 보게 한다. 아이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해 준 후에 일기를 써 보게 하는 것이다. 우유와 설탕, 버터, 밀가루를 주면서 마음대로 배합하여 빵을 만들어보라고 한다. 물론 빵 다운 빵이 만들어질 리 없다. 그러나 반죽한 것을 후라이팬에 넣고 익혀준다. 그리고 맛을 보게 한다. 그리고 빵 이름을 지어본다든지, 빵에 대한 광고를 만들어본다든지, 빵에 대한 평가를 해보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생각은 일기 쓰기에 충분한 글감이 된다. 그날은 아이의 고민을 해결하는 날이다. 날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글감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것과 억지로 글을 만들어 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쓰기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키워주는 일을 가정에서 해 줘야 할 것이다.

6학년 P가 하루는 부모에게 ‘왜 일기를 쓰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P의 아버지는 훈계조의 말 대신에 2008년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프랑스 시누시-몽타니 박사팀⁴⁾에 대한 일화⁵⁾를 소개해 주었다. 시누시-

4)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의 프랑수아 바레-시누시(Francoise Barre-Sinoussi, 61) 박사와 프랑스 소재 세계에이즈연구예방재단(World Foundation for AIDS Research and Prevention)의 뤼크 몽타니(Luc Montagnier, 76) 박사

5) 시누시-몽타니 박사팀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들은 세계 처음으로 분리한 에이즈 바이러스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세계 최고의 미생물 석학이었던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로버트 갈로 박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갈로 박사는 이 두 명의 연구자가 분리한 바이러스를 실수로 오염시켰

몽타니 박사팀의 연구가 에이즈 바이러스 분리에 대한 세계 최초의 연구였지만, 이 내용과 비슷한 연구를 미국의 로버트 갈로 박사가 논문의 형식으로 더 일찍 발표를 해 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적인 분쟁으로 이어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실험 일지를 보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실험 일지 덕에 시누시-몽타니 박사팀이 먼저 연구를 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 사건으로 보건대, 실험 일지와 같은 일기가 없었더라면, 좋은 실험을 하고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지 못할 뻔 했다. 이 일화를 들은 P는 쓰기의 중요성과 기록으로서의 긍정적 의미를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키워주는 일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다.

2.3. 공부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필자는 아이가 6살이었던 12월에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거의 7살이 다 되어 한글을 가르쳤다. 서점에서 문제지를 사서 써 보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다. 아무리 가르쳐도 알지 못하기에 한 번은 아이를 바라보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맘을 가다듬고 책상 옆에서 가르치던 방식을 바꾸기로 맘을 먹었다. 필자가 1인용 소파에 먼저 앉고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그러자 아이의 눈은 보이지 않고 뒷머리가 보였다. 뒷모습을 보니 화가 나지 않았다. 아이의 앞이나 옆에서 엄마가 이끌어가려는 식으로 아이를 지도할 때는 화가 나지만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도를 하니 화가 나지 않았다. 놀라운 발견이었다. 아이의 뒤통수를 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아이를 뒤에서 보니 사랑스럽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다. 뒤에서 필자가 손을 뺀어 책을 펼친 후 아이와 함께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하자. 따라서 읽어보자.”라고 하면서 한글이 써 있는 책을 읽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이가 글을 깨치기 시작했다. 뭐든지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 엄마가 참지 못하고 꾸중을 하면서 가르쳤더라면, 아이

다고 한 뒤 나중에 자신이 처음으로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들 연구팀의 분쟁은 국가 간 분쟁으로 발전해 양국 정상간 다툼이 되기도 했다(<http://achiven.tistory.com/1175583901?srchid=BR1http%3A%2F%2Fachiven.tistory.com%2F1175583901>).

가 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의 기다림과 참을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실감하는 일화이다. 엄마는 꾸중을 하지 않고 참았으며 아이는 글을 깨치는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아이는 커서 글을 좋아하는 학생이 되었다.

학습을 위한 학습이라는 말이 있다. 전문용어로는 메타학습이라는 표현을 쓴다. 학습을 통한 학습, 공부를 통한 공부 등의 개념도 가능하다. 공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고차원적인 공부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과업 위주의 교육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 몇 점을 맞았는가? 몇 등을 차지하고 있는가? 등이 관심사이다. 그 영향으로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대학 가서는 공부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하는 공부인데,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에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즐기는 것이 대학 1, 2학년들의 모습이다. 과업 위주의 교육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대학 합격이라는 과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취직이라는 과업이 끝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공부는 전문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옳은 지식과 지혜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사회가 바르게 되는 것이다.

S의 엄마는 S가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 선생님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처럼 책을 가지고 와서 인형을 놓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S는 엄마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출석부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엄마는 출석부를 만들어 주었다. 출석부 형식이야 영성한 것이었지만, S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선생님 놀이를 했다.

아이의 무엇을 쓸 것인지, 읽을 것인지, 말할 것인지 등을 가르치는 선생님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낀다. 평소 아이의 관심사를 잘 관찰하였다가 조금씩 이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차원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역지로 많은 양의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공부에 대한 흥미, 호기심, 필요성을 자극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엄마들의 극성으로 이를 놓쳐버리는 것이 안타깝다.

“공부해서 남 주니? 오직 네가 잘되라고 공부하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공부해서 남 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남을 돕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알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헌신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고 나눔의 개념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회 속에서 남을 도울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 속에서 사명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2.4. 부모와 함께 읽는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줄 때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습득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부모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중요한 아이디어를 던지시 던져주는 방법이 좋다. 하루는 H의 학교에서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한 적이 있다. 아이에게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다. 아이는 환경 보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다고 했다. 환경 보전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서로 논의하다가 유치원 때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 동화 내용으로 자기 주장을 꾸미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연설문인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를 고쳐주고 글을 쓰게 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동화를 학교 숙제에 활용하게 되자 글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 사례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독서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위인전 읽기를 좋아하는 시기가 있다. 보통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이다. 아이들마다 그 시기는 차이가 있다. 아이가 위인전을 좋아하던 시기에 슈바이처와 베토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옛날 사람인 것 같니?”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아이가 “베토벤”이라고 대답하였다. 어떻게 알아 맞췄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슈바이처 책에는 슈바이처 사진이 있지만 베토벤 책에는 베토벤의 초상화가 실려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미디어를 활용한 읽기 교육을 한 것이다. 간단한

것이지만 책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다. 가족끼리 밥을 먹는 시간에 식탁에서 필자 아이가 “안중근 의사는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위인전 시리즈에 나와 있는 안중근 의사가 위인이 아니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는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인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위인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그 답을 듣고 또 “너는 어떤 사람을 위인이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하였다. 아이는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이 위인이예요.”라고 답하였다. 이번에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슈바이처는 자신의 나라만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말이 오고 가면서 영웅, 위인, 성인, 의사, 열사 등의 어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식탁에서 다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는 그 이후에 서로 찾아보았다. 무조건 읽기보다는 읽은 후에 작품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진정한 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고, 위인전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책을 읽으면서 지리,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잔」을 영화로 보거나 책으로 읽었을 때, 백인 타잔이 왜 정글의 왕자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한다. 정글에는 흑인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지역의 주인은 흑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흑인이 아닌 백인이 정글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배경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 해 본다.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던 시대 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동서양의 동화를 비교하여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개구리 왕자는 셋째 딸의 신랑’이라는 작품과 독일의 그림 형제가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전래동화 ‘개구리 왕자’를 비교한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⁶⁾

6) 권순희(2006: 271-333)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동화와 유사한 외국의 동화를 비교 검토해 보면 문화의 차이와 사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외국 번역 동화가 많이 판매⁷⁾되고 있으며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번역동화의 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번역동화에 나타난 문화를 분석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서양 책 속에 드러난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은 관점, 가치관, 생활상 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

2.5. 읽기를 통해 창의적 글쓰기 작품 산출을 지도한다.

케네디 대통령의 집에서는 형제들끼리 토론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보기를 본다면 국어 교육은 집에서 하는 일상대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 과학동아』 2006년 1월 1일호에 “북극과 남극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특집 기사가 났다. 16쪽 분량의 기사로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신방실 기자가 글을 쓰고 정종원 기자가 사진을 구성했다. 초등학생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으로 북극과 남극을 소개한 글이다.

초등학교 3학년 B는 세계 지도를 방문에 붙여 놓고, 평소에 지구본을 자주 볼 정도로 지리에 관심이 많다. 하루는 저녁밥을 먹으면서 부모와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다. 흑인 여성 라이스 국무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얼마 뒤 B는 소설을 쓰겠다고 했다. B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리 지식에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집에서 글을 쓰는 엄마의 모습을 쉽게 접하면서 글을 써보고자 하는 의욕이 일었던 것이다. 이처럼 지식과 지혜를 창출해 내는 데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함께 작동하기 마련이다. 다음 B가 쓴 글을 보자.

7) 2005년 9월 7일 현재 교보문고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10위의 동화 중에서 『강아지똥』과 『갯벌이 좋아요』를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책을 번역한 것이다. 2003년 출판 통계인 번역서 10,294종 중에서 만화와 아동 분야에서 번역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5,648종으로 54%이다.

「마지막 개척지」

○○초등학교 3의 6

○○○

인간은 모른다. 그 자신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인간은 바보였다. 나중에는 자연의 중요함을 깨달은 우리를 우리의 후손이 우리를 노려보며 후손들의 눈에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이 보였다. 인간으로 인하여 온난화 현상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어 남극은 없어지고 있다. 남극만이 ‘마지막 개척지’였는데 말이다. 석유는 30년만 지나면 거의 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둠과 후손들로부터의 따가운 눈빛만을 받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 지구에서 살 수 없고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된다. 우리들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구는 영원한 어둠 속에 지옥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에 대비하여 EU(유럽연합), 미국, AU(아시아 아프리카 연합), ASEAN(동남아 연합)⁸⁾ 등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 프로젝트인 ‘last development land’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이 프로젝트는 남극, 북극, 화성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남극으로는 20만 명의 사람들이 일을 실행하게 된다. 북극 10만, 그리고 화성은 3000만 명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2017년 12월 4일에 실행된다. 이 세계는 2009년부터 공포 속에 살았어야 되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2007년⁹⁾ 한국도 통일했다. 그리고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언제나 외교 하나 하지 않았던 유고슬라비아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다. 뒤로 때를 지어 동유럽 공산 정권은 망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동남아와 중국이 만들어낸 ‘錢和平共立黨’(판피항공찬당)¹⁰⁾(돈과 평화의 공산당)이 당은 외교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여는 것이다. 즉 현재의 북한처럼 패쇄적이지 않다. 즉 외교를 잘 하되 사람들의 봉급을 똑같이 주

8) B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구 명칭을 활용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새롭게 알게 된 지구 명칭을 활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9) B가 2005년 여름에 쓴 글임을 감안하여 읽어야 한다.

10) 집에서 B의 아빠는 중국어식 억양으로 “진따혜 장화, 마른 따혜 운동화(중국식 억양으로 읽어야 함)”를 얘기하면서 장난을 하기도 했다. H의 아빠는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장난을 통해 평소에 중국어식 발음이 우리나라식 발음과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도록 B에게 알려준 일이 있다. B는 평소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한자를 이용하여 錢和平共立黨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다음 네이버에서 중국어 사전 검색을 통해 중국식 발음을 찾아 “판피항공찬당”이라는 용어를 기록했다.

는 제도를 여는 것이다. 대신 현재의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의 평균 봉급보다 많이 준다. 이 당은 세력을 넓혀갔고 드디어 미국과 부딪혔다. 중국의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세계 제3차 대전이 예고되면서 세계는 긴장했다. 지구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주주의와 외교 통상 공산주의의 첫 만남이다. 이 프로젝트로 두 당은 약간 친해졌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나라와 사람들은 아낌없이 지원, 후원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시작되었고, 쇄빙선을 타고 남극과 북극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남극결사대는 쇄빙선¹¹⁾을 타고 미국 LA에서 출발 칠레 산티아고, 폰타아레나스와 킹조지섬¹²⁾을 거쳐 남극에 도착했다. 한편 북극은 영국 런던에서 출발 노르웨이 오슬로, 트롬소를 지나 롱이어비엔과 니알슨을 거쳐서 북극에 도착했다.

북극에서 할 일은 화성에서 키울 수 있다는 식물 피린오로아환타꽃¹³⁾을 연구하고 재배해 오는 것이다. 북극여우, 북극곰, 순록, 늑대들의 DNA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리고 북극의 큰 얼음을 운반해 오며 북극에서 서식하는 식물, 플랑크톤을 분석하여 차가운 물 속에서 얼지 않고 견디게 하는 단백질인 결빙 방지 단백질을 연구하고 가져오는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져갈 준비를 하고서 제2차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북극팀은 다시 돌아온다.

한편 남극은 생물을 어는 것을 막기 위한 결빙 방지 단백질(북극 프로젝트와 비슷함)을 북극과 같이 연구, 가져오는 것이며 미래의 에너지 자원 메탄수화물을 캐고 크릴과 같은 종류의 동식물을 연구 가져 오는 것이다. 2차 프로젝트에서 남극팀은 모든 일을 반복, 반복, 반복한다.

화성팀은 모두 300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만 대의 우주선이 세계 각국에서 발사된다. 이 많은 우주선 중 15%는 파괴될 확률이 크다. 화성은 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1차 프로젝트만 실행한다. 화성에 가기 위해선 2년이 넘게 걸린다. 그래서 이 우주선들은 2020년에야 화성에 도착한다. 북극, 남극 팀으로부터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받는데 그들이 연구하는 시간이 1년을 합쳐 3년 후인 2020년에 화성에 도착한다 말이다. 이 전세계는 바빠졌고 사람 모두 '1st development land' 프로젝트에 미쳤다. 화성에서는 우주도시 개발을 한다. 사람들은 화성 땅을 사기 바빠졌고, 우주선 예약, 집 예약 등을 이 세계는 난리

11) B는 남극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쇄빙선을 타고 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지은 글에서 남극 여행 경로에 쇄빙선을 등장시키고 있다.

12) B는 방문에 붙여 있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여행 경로를 정하게 되었다.

13) B가 만들어낸 가상의 꽃 이름이다.

가 났다.

그 뒤 3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로봇들이 화성에서 집들을 지었고 그곳을 지구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갔다.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들은 미국의 흑인 여성인 라이스¹⁴⁾ 국무장관의 손녀인 레이첼¹⁵⁾ 대통령, 그녀는 세상을 바꾼 놀라운 지도자였다. 그리고 중국의 왕하우 이 프로젝트는 레이첼 대통령 전에 대통령인 존슨 존 토니 때 시작했다. 그는 어이없게도 흑인 여성에게 지고 말았다. 레이첼 이후 존슨 윌리엄 토니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는데 그는 존슨 존 토니 전대통령의 아들이다. 존슨 윌리엄 토니는 3번째로 헌법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는 이유 없이 동남아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 곳의 독재자를 체포하고 재판했다. 이로써 중국과는 더욱 멀어졌다. 존슨 윌리엄 토니는 2019년 재선에 성공하고 그는 임기 중 2020년 살해당한다. 이로써 그 프로젝트는 결국 큰 타격을 맞는다. 그 때 미국의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았다.

존 레이어라는 한 청년은 플로리다주 재벌의 아들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 프로젝트의 중요한 역할인 심장부 계산파트를 이끌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었으나 그는 백악관 컴퓨터를 침입 바이러스를 먹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국은 난리가 났다. 그때 중국인에 의하여 존슨 윌리엄 토니는 살해당하고 그 청년은 중국인을 도와 권력을 잡게 된다. 그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하나다.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는 실행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갔고 빈민들은 지구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분노했고 일어섰다. 그들은 싸웠고 또 싸웠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협상했다. 그 결과 그들은 빈민들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들과 함께 화성으로 떠났다. 그 도시는 웅장했고 멋있었다. 2024년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연의 중요함을……그들의 유명한 관광지로 지구는 사용되고 있다. 아이들의 자연이해 자연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가장 좋은 곳 지구……지구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힘들었다. 빙하기에서부터 우리는 힘들었고 희망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발전을 가졌다. 인제는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새로운 공업을 통해 자연이 아무 신음소리 없이 살 수 있는 그 시대를 생각하며 실행해야 된다. 우리는 자연이다!

14) 실존 인물이다.

15) 가상 인물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글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위 작품은 글을 읽고 독창적으로 이를 활용한 후에 쓰기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작품이다.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부모가 해 주는 것이 좋다. 글을 쓰는 일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중요한 일이며 쓰기 능력은 무엇을 하든지 바탕 능력이 된다.

2.6. 일상생활 속에서 탐구 학습이 가능하다.

H가족은 여행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한다. 방학 동안에 1박 2일로 여행 갈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이다. 부모가 여행지를 정해 놓고 아이들이 따라 오도록 하는 여행에는 아이들이 소극적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여행지를 정하게 되면, 아이들의 여행 자세가 달라진다. 가족회의로 여름방학 여행지는 경주로 정했다. 경주에 가기로 정한 것이 5월이니 여행을 가기 전까지 세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엄마는 가족 여행을 생각하며 무엇을 읽어야 할지 아이들에게 물어본다.¹⁶⁾ H는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으니 신라에 대한 동화책이며 신라의 위인전을 읽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자 엄마는 H가 2학년 1학기 동안 읽을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었다. 한꺼번에 책을 많이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이나 두 권 정도를 빌려오고, 읽은 후 반납하고 또 다른 책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대출해 왔다. 도서관에서 에밀레종에 얽힌 설화 등 동화를 빌려온다든지, 김춘추, 김유신 등과 같은 위인전을 빌려온다든지, 신라의 역사를 소개하는 만화책을 빌려온다든지 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세 달 동안 만들어 준다. 이렇게 책을 읽은 후 8월 초에 가족 여행을 떠난다. 가족 여행 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도 보고서를 만들 생각을 해 본다든지, 글을 쓸 때 자료로 쓸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도록 한다. 물론 자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사진이 다수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 속에서도 탐구와 기록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본다. 공부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공부이고

16) '경주'에서 볼만한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도 물어 볼 수 있다.

탐구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과 가족들이 찾아갈 여행지도 다양해진다. 그때마다 탐구하고 떠날 수 없을 때는 탐구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 숙박을 할 경우에는 낮에 놓고 밤에 돌아와서 관련된 책을 읽어 보는 것이다. 아이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읽는다. 각자가 여행지와 관련된 책을 준비해 와서 읽는 것이 좋다. 책을 바꿔볼 수도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책이어도 좋고, 역사에 대한 책이어도 좋고, 인물에 대한 책이어도 좋다.

3. 결론

주변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매체 교육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학원으로만 내몰리면서 인지적인 영역만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의적 영역의 교육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의 교육이 과업 중심으로 가고 인간관계 중심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며 좀 더 적극적인 부모 참여의 교육을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 권순희(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국어 교육학연구』 29집, 국어 교육학회.
- 권순희(2006), 「문화 텍스트적 관점의 번역 동화 이해 교육」, 『독서연구』 15호, 한국독서학회.
- 김미란(2008), 「육아공동체에서 부모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 연구』 18(3), 한국교육사회학회.

<Abstract>

Parents-Participa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Kwon Soon-hee

While thinking the true nature of education, I considered the education area which parents could take part in. Hom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means that parents take part in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an area which parents should cooperate with teacher. But, it is not easy for parents to teach their children, because there are few books about teaching methods or contents. From my standpoint of an expert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well as a parent, I collected and discussed exampl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suggest Korean language education methods for parents. Through this study, I proposed several teaching methods; teaching method for positive speaking and listening, teaching method to translate a spoken language to a written language in order to improve positive attitude on writing, natural education method by reading or discussing about books with children, instruction method for creative writing through reading, upbringing method for children's pursuit study and meta-cognition in everyday life. I studied parents-participa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ethods in the hope that w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ffective area of education on the current real conditions that cognitive area of education is emphasized.

Key words : parents-participa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ffective area, teaching method, home education.

| 부록

취보

회칙

투고규정

심사규정

윤리규정

투고안내

투고신청

오림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취보>

우리말교육현장학회에서 알립니다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편집위원회(081010)가 유아언어교육, 초등국어교육, 중등국어교육, 한국어교육에 힘쓰는 교사들의 현장연구 의욕을 일으키고자 내용은 제안입니다.

이미 회원인 여러분과 아직 회원이 아닌 현장 교사 여러분도 우리말교육의 발전 동력은 현장교사임을 굳게 믿으며 현장연구를 일으켜 세우고자 애쓰는 우리말교육현장학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꺼이 받아들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 교사의 창의에 찬 고민과 자료를 우리말 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알고 소중하게 가다듬어 학회지 《우리말교육현장연구》에 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2. 현장의 고민과 자료를 학회지에 신고자 하여 글로써 가다듬을 적에 학자의 이론에게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통신 수단으로 기꺼이 돕도록 한다. 이때 도움을 준 학자의 이름도 ‘도움저자’로 함께 적을 수 있다.
3. 학회에서 발표했거나 투고한 논문의 심사 과정에 ‘전임심사’ 제도를 두어 논문의 수준과 논리를 가다듬는 일에 심사위원이 곧장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말교육의 발전은 현장과 이론이 손잡아야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이런 제안을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뜻을 높이 사서 학회지의 이름으로 널리 알리는 바입니다.

2008년 11월

우리말교육현장학회장 김수업

1. 발자취와 회의

(1) 2005년 12월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창립발기 1차모임 뒤 2006년 8월까지 3차 발기모임까지 학회 기본 정신과 학회 조직을 세움.

(2) 2006년 9월 23일

①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창립총회 (한남대 공대 1층 세미나실)

회칙 심의 제정,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회 장 : 김수업 (우리말교육연구소)

부회장 : 초등 김영주 (금곡초), 중등 임광찬 (영흥고),

대학 임지룡 (경북대), 한국어 김영만 (서울시립대).

감 사 : 최시한 (숙명여대), 김진수 (고북중)

② 창립기념 학술 발표회 : 국어교육현장학회의 창립 의의

(3) 2006년 11월 4일, 임원회의 (서울 명륜동 사무실)

이사회 인준, 편집위원회 구성, 학술 발표회 기획, 누리집 제작 기획

상임이사 : 연구 김상옥 (춘천교대), 편집 권순궁 (세명대), 출판 김주환 (도봉고), 섭외 이용관 (상계제일중), 총무 김강수 (마석초)

지역이사 : 강원경기 박희영 (강원 마차고), 대전충청 현종갑 (충남 애니메이션고), 부산영남 서상호 (울산 삼산고), 서울경인 서 혁 (이화여대), 전남제주 나경수 (전남대)

(4) 2007년 4월 28일

① 제1차 이사회 (서울 명륜동 사무실)

회칙개정(안) 심의, 연회비 규정, 유아분과 부회장 추천, 편집위원 위촉.

부회장 : 유아 정은경 (덕현유치원)

편집위원 : 언어교육 임지룡 (경북대), 서혁 (이화여대)

문학교육 김종철 (서울대), 최시한 (숙명여대)

언어문화교육 강등학 (강릉대), 민현식 (서울대)

② 임시총회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대강당)

07년 예산 및 사업 계획 심의 의결, 임원진 편집위원회 위촉 승인

- ③ 07춘계 학술대회 : 새 교육과정 살펴보기
- (5) 2007년 5월 25일, 제2차 이사회 (서울 명륜동 사무실)
총무이사 선임 : 총무이사 최인영 (경희대)
- (6) 2007년 5월 25일, 편집위원회 (서울 명륜동 사무실)
편집위원장 호선 : 편집위원장 강등학 (강릉대)
- (7) 2007년 7월 12일, 편집위원회 (서울 명륜동 사무실)
논문 심사 결과 보고, 게재 논문 확정, 규정 심의
- (8) 2007년 12월 1일
- ① 제3차 이사회 (서울시립대 21세기관 국제회의장)
07년도 사업과 결산, 08년도 사업과 예산 심의, 3차 학술대회 점검
- ② 정기총회
07년도 사업과 결산 승인, 08년도 사업과 예산 심의 의결
- (9) 2008년 3월 8일, 제4차 이사회 (서울 명륜동 사무실)
08년 봄 학술 대회 기획, 학회지 2호 발간 계획, 논문 심사 과정 평가
편집이사 선임 : 편집이사 김혜숙 (동국대)
- (10) 2008년 7월 23일, 상임이사회 (서울 명륜동 사무실)
상반기 학술 발표회 보고 및 평가, 분과별 심사위원 추천, 하반기 학술
발표회 기획, 2009년 임원진 개선 논의
- (11) 2008년 10월 10일, 편집위원회 (서울 명륜동 사무실)
현장 연구 방향성 논의, ‘도움 저자제’, ‘상임 심사위원회’ 도입

2. 학술 발표회

(1) 08년 상반기 학술 발표회 (분과별 발표)

1) 중등 분과 : 2008년 6월 28일, 숙명여자대학교

주제 : 국어과 교재의 발전 방향

김지운 (명덕외고) : 논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세 가지 영향

박안수 (광주고) : 현장 논술 수업 유형 분석

김슬옹 (동국대) : 대입 논술 평가 분석

이계삼 (밀성고) : 논술, 어디로 가야하나?

송승훈 (광동고) : 논술,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2) 한국어 분과 : 2008년 6월 28일, 전국국어교사모임

주제 :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김문환 (서울대) :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한국어 교육

김영만 (서울시립대) : 하이브리드적 사고와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

곽영숙 (시흥외국인복지센터) : 이주 노자자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오정미 (건국대) : 한국어 교육에서 콩쥐팥쥐 설화를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김보형 (포천고) :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고

이미숙 (옥터초) : 다문화 가정 자녀의 매체 언어 교육

3) 초등 분과 : 2008년 7월 12일, 전국국어교사모임

주제 : 초등학교 독서 교육의 길 찾기

최은경 (곡란초) : 초등학교 독서 교육 사례

김도남 (교육과정평가원) : 초등학교 현장의 독서 문화 비판

천경록 (광주교대) : 독서 지도의 의미와 방법들

이주영 (어린이도서연구회) : 어린이 책이 나아갈 길

송승훈 (광동고) : 학교 도서관에서 꿈 찾기

3. 임원

회장	김수업 (우리말교육연구소)
부회장	유아 : 정은경 (남양주 덕현유치원), 초등 : 김영주 (남양주 금곡초), 중등 : 임광찬 (전남 영흥고), 대학 : 임지룡 (경북대), 한국어 : 김영만 (서울시립대)
감사	최시한 (숙명여대), 김진수 (서산 고북중)
상임 이사	연구 : 김상욱 (춘천교대), 편집 : 김혜숙 (동국대), 출판 : 김주환 (서울 도봉고), 섭외 : 이용관 (상계제일중), 총무 : 최인영 (서울 경희고)
지역 이사	강원경기 : 박희영 (강원 마차고), 대전충청 : 현종갑 (충남 애니메이션고) 부산영남 : 서상호 (울산 삼산고), 서울인천 : 서 혁 (이화여대) 제주호남 : 나경수 (전남대)

4. 편집위원회

위원장	강등학 (강릉대, 언어문화교육)
위원	임지룡 (경북대, 언어교육), 서혁 (이화여대, 언어교육) 최시한 (숙명여대, 문학교육), 김종철(서울대, 문학교육), 민현식 (서울대, 한국어교육)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학회는 ‘우리말교육현장학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우리말교육현장학회(앞으로는 ‘학회’라고만 한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1. 나라 안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의 현장문제를 연구하여 우리말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고 드높이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해외 동포나 외국인에게 나라 안팎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문제를 연구하여 우리말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고 드높이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갈라진 북녘의 우리말교육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여 같은 말을 쓰는 겨레가 하나임을 지키고 복돋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4. 우리말을 가꾸며 갈고닦아서 겨레의 능력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꽃피울 수 있는 길을 밝히고 넓히고자 한다.

제3조(할일)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지 『우리말교육현장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출판물을 펴낸다.
2. 학술연구발표회를 연다.
3. 학술강연회를 연다.
4. 그밖에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을 한다.

제4조(사무실) 학회의 사무실은 (사)전국국어교사모임 부설 우리말교육 연구소 안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갈래)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말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
2. 준회원 : 우리말교육의 연구와 발전에 관심을 지니고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3. 평생회원 :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서 학회에서 결정한 평생회비를 낸 사람.
4. 기관회원 : 학회지를 받아보고자 하는 도서관, 기관, 단체.

제6조(자격) 회원은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제출하여 상임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무)

1. 학회의 학술 활동과 회의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논문 발표에 힘써야 한다.
2. 학회가 정한 회비를 제 때 내야 한다.
3. 학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권리)

1. 학회지를 비롯한 학회 관련 출판물을 받아 볼 수 있다.
2. 연구 논문을 학회지에 실을 수 있다. 다만, 학회가 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연구 발표회와 학술강연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다.
4.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임원으로 선출되어 봉사할 수 있다.

제9조(징계)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빚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구성)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한국어교육)
3. 상임이사 5인 (총무, 연구, 편집, 출판, 섭외)
4. 지역이사 5인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호남·제주, 부산·영남)

5. 감사 2인

제11조(회장)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1.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4. 상임이사회 협의의 거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일을 돕고 회장이 유고한 동안에는 회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회장의 일을 대신 맡는 차례는 부회장단에서 결정하고, 거기서 첫째를 맡은 사람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13조(상임이사) 총무이사는 학회 운영의 행정 업무를, 연구이사는 연구와 학술 업무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출판이사는 학회지를 비롯한 출판물의 간행 업무를, 섭외이사는 홍보와 섭외 업무를 맡는다.

제14조(지역이사) 지역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학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3.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단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지역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의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임기 중에 자리를 떠난 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셋째 연임부터는 첫 투표에서 투표자 $\frac{2}{3}$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
2. 보궐로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해마다 가을 학술발표대회에 결하여 열고,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열되 반드시 1개월 이전에 회장이 공지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예산과 결산의 승인
 - 2) 회칙 심의와 개정(회장을 선출하는 해에는 회칙을 개정할 수 없다.)
 - 3) 회장, 지역이사, 감사의 선임
 - 4) 그밖에 모임의 중대한 일
3. 총회의 회의정족수는 참석회원과 의결위임회원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하며, 회의와 의결의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

다.

1. 사업 계획의 심의와 의결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분과위원회 간사의 업무와 인원 결정
4. 편집위원의 추천
5. 평생회비 결정과 변경
6. 회원의 징계 심의
7. 학술강연회 개최 여부

제20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회 운영의 실무 기획과 집행
2. 상임이사의 분담 업무에 따른 협력
3. 회원의 입회 승인
4. 입회비 결정
5. 그밖에 필요한 실무

제5장 편집위원회

제21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 6인과 회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

제22조(전공)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6인은 언어 교육, 문학교육, 언어문화교육 분야의 전공자 2인씩으로 한다.

제23조(자격)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서 우리말교육의 현장에 밝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게재에 따른 다음 일을 맡는다.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2. 심사 결과의 평가와 게재 여부의 결정 및 집행

제26조(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위원장)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6장 분과위원회

제28조(목적) 분과위원회는 학회의 학술 활동에 깊은 전문성과 높은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다.

제29조(조직) 분과위원회는 현장 사정의 성격에 따라 유아교육분과위원회, 초등교육분과위원회, 중등교육분과위원회, 대학교육분과위원회, 한국어교육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조직한다.

제30조(구성)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학술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분담하는 간사로서 구성한다. 간사의 업무와 인원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활동) 분과위원회는 학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필요한 학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7장 학술활동

제33조(발표회) 해마다 가을에 전국 규모의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학술발표회를 열 수 있다.

제34조(강연회)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학술강연회를 열 수 있다.

제35조(학회지 간행)

1. 학회지 『우리말교육현장연구』를 해마다 두 차례 이상 간행한다.
2. 학회지 간행에 따른 편집은 편집이사, 출판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다.

제36조(출판물 간행)

1.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우리말교육현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다.
2. 출판물 간행에 따른 업무 책임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제8장 재정

제37조(경비)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8조(회비)

1.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나눈다.
 2. 입회비는 입회원서와 함께 납부하며,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연회비는 해마다 납부하며,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4. 특별회비는 필요할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거둘 수 있다.
- 제39조(회계연도) 학회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9장 해산

제40조 학회를 해산하려면 회원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재산이 있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액을 (사)전국국어교사모임에 기부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2006년 9월 23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회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유효하다.

<투고규정>

1. 투고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며 투고할 때는 공식 이-메일 woorimal@hanmail.net을 이용한다.
2. 분량은 주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 안팎으로 한다. 분량이 110매를 넘으면 매당 게재료 **10,000원**을 내야한다.
3. 원고 접수 마감은 매년 전반기는 2월 말 후반기는 8월 말로 한다.
4. 학위논문과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주 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5.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다른 곳에 투고할 수 없다.
6. 2인 이상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7. 투고 논문은 학회 회칙에 따라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8. 투고 논문 중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소지가 있는 대목은 심사 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으니, 이로 인하여 논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9. 논문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서 기간 내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재심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10.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보완 제작성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처음 투고한 논문과 마찬가지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11. 학회에서 발표했거나 투고한 논문의 심사 과정에 ‘전임심사’ 제도를 두어 논문의 수준과 논리를 가다듬는 일에 심사위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2. 현장의 고민과 자료를 논문으로 가다듬을 적에 학자의 이론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통신 수단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도움을 준 학자의 이름을 ‘도움저자’로 하여 함께 적는다.

13.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용지 : 신국판(148×225mm)
위 20mm, 아래 10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 (2) 글자 모양 : 바탕, 크기 10point, 장평 100%, 자간 -10%
- ① 제목 : 15point 굵게, 중앙 정렬
 - ② 이름 : 10point, 오른쪽 정렬
 - ③ 문단번호모양 : 1. 1.1. 1.1.1.
 - ④ 개요1 수준 12 point 굵게
 - ⑤ 개요2 수준 이하 10 point
 - ⑥ 각주·인용 : 9 point
 - ⑦ 그림이나 표 : [개체속성]에서 [글자처럼 취급 함] 설정

(3) 문단 모양 : 왼쪽 0pt, 오른쪽 0pt,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80%

(4) 투고 논문에 글쓴이의 소속을 각주로 단다.

[이름란] 박 지 원*

[각주란] * △△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5) 투고 논문의 글쓴이가 2인 이상이면 이름과 이름 사이에 ‘’를 넣고,
이름이 영문이면 ‘&’을 넣는다. 이때 글쓴이가 주저자와 도움저자로
나뉘면 주저자를 먼저 적고 각주에 이를 밝힌다.

[이름란] 김 만 중*·허 균**

[각주란] * △△고등학교 국어교사·주저자

** △△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도움저자

(6) 약물 표기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 」 논문과 작품명 (학위 논문, 시, 단편소설)

『 』 단행본과 학술지 (신문, 잡지, 장편소설)

‘ ’ 강조, 간접인용

“ ” 직접인용

* 기타 약물 표기는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7) 인용이나 출처 표시는 다음과 같이한다.

- ① (김길동, 2008: 78-79) (본문 안 참조 표시, [각주 표기] 1 참조)
- ② 김길동(2008: 78) (저자·출판연도·쪽 표시, [각주 표기] 2 참조)
- ③ 「국어과 교재론의 발전 방향」 (책의 장 제목이나 논문인 경우)
- ④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2집 1호 (학회지나 잡지 표시)
- ⑤ (한겨레신문, 2008. 11. 26.) (신문 기사 날짜 표시)
- ⑥ <http://blog.naver.com/kaokun?Redirect>(검색일, 2008. 1. 1.)
(인터넷 출처와 검색 날짜 표시)

(8) 주석은 다음과 같 표시한다.

[본문 안 참조주] * 반드시 쪽을 포함하여 표시한다.

‘-으며’는 기원적으로 ‘-음’과 열거를 나타내는 ‘-여’의 통합형으로 추정되는데(가길동, 2005: 125), 이 ‘-여’는 계사 ‘-이-’와 어말어미 ‘-어’의 통합형일 가능성이 높다(나길동, 1998: 218).

[각주]

중세국어에는 어미형태소의 첫머리에서 ‘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휴지음화되는 현상이 있다.¹⁾ 어말어미 ‘-고’, 선어말어미 ‘-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²⁾

[각주 표기]

- 1) 가령, ‘늘근, 블근, ……」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나길동, 1998: 38; 다길동, 2002: 14에서 재인용).
- 2) 라길동(1972: 131-133)은 몇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제시했다.

(9) 논문 뒤에 참고문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쪽수는 반드시 [본문 안 참조주]에 표시한다.

[논저]

고용우(2008), 「매체의 바다에서 주체적인 안목 기르기」, 『함께여는 국어교육』 통권 84호, 전국국어교사모임.
김수업(2002), 『배달말꽃, 갈래와 속살』, 지식산업사.

전철웅(1976), 「현대 한국어의 경음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정순(2007), 「구조적 은유를 활용한 시 ‘이어쓰기’ 교육 연구」, 『문학교육학』 제2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자료]

성한표(2008), 「빛나간 FTA 비준 논쟁」, 『한겨레신문』 11월 26일.

다길동(2008), 「독서 교육의 유형별 사례」, 국어교사의 공부, 전국국어교사모임 겨울 방학 중등 연수 자료집.

프랑스 문화원 <http://www.france.or.kr>

- (10) 번역서나 해외 저작물 원물은 다음 보기와 같이 표시한다.

[번역서]

토머스 리코나, 유병열 외 옮김(2006), 『인격교육의 실제』, 양서원.

[원문]

Selman, Robett L.(2003), *The Promotion of social Awareness*, Russell Sang Foundation.

- (11) 논문 앞에 우리말 요약문과 5개 이상의 주제어를 붙이고, 이에 상응하는 영문 요약문과 5개 이상의 주제어를 논문 뒤에 붙인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2-3매로 한다.

<심사규정>

1. 학회지 명칭은 『우리말교육현장연구』로 한다.
2. 연간 2회,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학회지를 발간한다.
3. 편집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 6인 이내의 편집위원과 회장,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회는 우리말교육의 각 전공별 학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투고 원고의 주제에 적합한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선정 위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위원의 의견이 같은 경우
 - ① 심사 결과 3인 모두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② 심사 결과 3인 모두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한 논문에 대해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과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 (2) 심사위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 ①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②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③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르고, ‘수정 후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의 의견을 따른다.
 - ④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의 의견을 따른다.

6. 투고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의하여 상, 중, 하로 심사한다.

- (1) 방법론과 문제의식이 얼마나 새로운가?
- (2) 연구 내용과 결과가 얼마나 남다른가?
- (3) 연구 성과가 교육 현장에 얼마나 쓸모 있는가?
- (4) 자료의 조사와 검증이 얼마나 알뜰한가?
- (5) 용어 개념과 쓰임이 얼마나 마땅한가?
- (6) 문장과 논리의 전개가 얼마나 올바른가?

<윤리규정>

우리말교육현장학회(이하 학회)는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이름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복돋우는 윤리를 온전히 지키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글로 적어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1. 학회의 모든 임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기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학회 회원은 남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마치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쓰지 않으므로써 남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3. 학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나 지문을 하는 회원은 진실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업무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킨다.
4. 학회 회원은 교육과 연구 수행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5. 학회는 회원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아이디어, 자료, 논리, 고유 용어, 분석 체계를 활용하거나, 출처를 밝혔으나 인용부호 없이 남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문장을 옮기는 표절 행위를 하면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6. 학회는 회원이 이 윤리 규정을 어겨서 학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투고안내>

우리말교육현장학회는 학회지 『우리말교육현장연구』에 실을 논문을 아래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훌륭한 논문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가 자랑스러운 학회지로서 손꼽힐 수 있도록 다투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 영역 : 우리 겨레에게 베푸는 유아언어교육, 초등국어교육, 중등국어교육, 대학교양국어교육과 아울러 외국인에게 베푸는 한국어교육까지 다섯 영역에 두루 걸칩니다.
2. 논문 주제 : 위에서 말한 다섯 영역에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어떤 주제라도 좋습니다.
3. 논문 분량 : 주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 안팎입니다. (110매를 넘으면 매당 10,000원의 게재료를 내셔야 합니다.)
4. 논문 형식 : 우리 학회 누리집과 학회지에 있는 ‘투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투고 마감 : 해마다 전반기 학회지에 실는 논문은 2월 말, 후반기 학회지에 실는 논문은 8월 말로 일단 투고를 마감합니다.
6. 논문 심사 : 투고 논문은 우리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서 학회지에 실습니다.
7. 그밖에 궁금하신 일은 학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고신청>

투고권호	제 집	접수번호		접수일	
논문제목					
주제어				매수 (신국판/A4)	
단독저자	이름		소속		
	전화번호		전자편지		
	주소	(-)			
공동저자1	이름		소속		
	전화번호		전자편지		
	주소	(-)			
공동저자2 이름/소속 전화번호					
<p>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지에 게재할 경우 우리말교육현장학회가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저자: (인 또는 서명)</p>					

* 음영 표시된 부분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보낼 곳 : 110-760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6-25

전화 02-744-3429 / 전송 02-744-3428 / woorimal@hanmail.net

심사비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334-046247, 김수업 (편당 6만원)

편집위원장 | 강등학 (강릉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편집 위원 | 김종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민현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서 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임지룡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최시한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2집 2호)

발행처 우리말교육현장학회

발행일 2008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수업

편집인 강등학

주 소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6-25번지 3층

누리집 www.woorimaled.org

이메일 woorimal@hanmail.net

전 화 02-744-3429

전 송 02-744-3428

제 작 (주)나라말 (02-3676-1511)

값 10,000원

ISSN 1976-3204